E-Book

Republic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고전 중의 고전 플라톤의 저술을 원문에 충실하되, 우리말로 순탄하게 옮겨 전한 번역이다. 무비판적으로 쓰이던 역어 대신에 원말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우리말로 풀어썼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대화체를 사용해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의 토론이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국가와 정의, 인재양성, 이상향에 대한 서양 철학의 뿌리 깊은 고민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



OLJE CLASSICS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OLJE CLASSICS

02

Republic 국가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olje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완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 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올재 클래식스〉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소중한 후원이 지혜와 영감의 원천, 고전 한 권으로 태어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사단
법인 olje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국가』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헤럴드미디어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출판 디자인 전문기업인 캠퍼스헤럴드는 편집디자인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선친의 좋은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윤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홀씨가 날아가 퍼지면 수많은 꽃들로 피어나듯이, 〈올재 클래식스〉의 첫 출간이 씨앗이 되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이 뜨겁게 싹트기를 기대합니다. 지혜 나눔을 위한 아름다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oljeclassics@olje.or.kr

올재 후원하러 가기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SAMSUNG

KYOBO 교보문고

차 례

해제 6
일러두기 13
제 1 권 14
저 2 권 65
제 3 권 .....
제 4 권 168
제 5 권 214
제 6 권 269
제 7 권 315
제 8 권 361
제 9 권 408
제 10 권 449

플라톤의《국가》에 대하여

Platon : Politeia

조우현

1. 쓴 때

학자들의 숱한 연구 끝에 오늘날에는 플라톤 저작의 연대적 순서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따라서《국가》편이 그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거의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짐작이나 가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고, 어떤 결정적인 실마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성과를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국가》의 방대한 분량으로 보아 결코 짧은 기간 동안에 쓸 수는 없었을 것이겠고, 여러 해가 걸렸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여러 해라는 것의 중심은 대체로 기원전 375년쯤으로 생각되고 있다. 플라톤 자신의 나이로 말하면 5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사이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플라톤이 처음으로 시칠리아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아테네에 아카데메이아를 세운 때로 그의 나이 40세(기원전 387년)쯤에서 10년이 지난 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미 이《국가》를 완성시켜 놓고, 두 번째로 시칠리아 여행(기원전 387년, 그의 나이 60세)을 떠났던 것이다.(여기 관해서는, P. Shorey, Field 그리고 최근에는 R. C. Cross and A. D. Woozley 등의 주장이 대체로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철학자는 나이 50세가 된 후에 비로소 '선의 이데아'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540a)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저자 자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들 수도 있고, 그밖에 또 다른 근거가 될 만한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날 대체로 일치된 결론에 따르는 것으로 그친다.

2. 대화가 있었던 때

그러면 이 대화는 언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플라톤 자신은 이 대화의 시기를 어느 때로 잡고 있는가. 이 문제도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체로 가까운 견해는 기원전 421년, 즉 니키아스(Nikhias)의 평화(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휴전 다음 해의 일)의 해로 보고 있다. 즉, 소크라테스가 47, 48세, 플라톤이 5, 6세쯤 되는 해가 된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이 메가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투키디데스의 《역사》에서 보이는, 기원전 424년의 전투로 되어 있지만, 본시 아테네와 메가라는 숙적 사이로서 자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때의 전투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 케팔로스나 프로타고라스나 다몬과의 관계라든가 소크라테스의 나이의 문제 등으로 보면, 그나마 기원전 421년이란 주장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보면, 기원전 421년에서 더 내려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여러 해 중의 어느 때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해진다. 특히 케팔로스나 프로타고라스의 문제를 엄밀히 따져본다면, 기원전 430년 이전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며, 결국 기원전 430년부터 421년 사이의 어느 해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 내용의 전개

《국가》의 내용, 사상의 전개에 관한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우선 《국가(Politeia)》라는 이름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폴리테이아라는 말은 편의상 《국가》라고 번역하

고 있지만, 제대로 뜻을 나타내자면, '나라체제' '나라의 구성' 또는 '정부형태 '라 해야 옳다(Liddell & Scott, Greek-English Lexicon). 따라서 제목은《국가》라고 했지만, 본문에서는 '나라체제'라는 말을 썼음을 밝혀 둔다. 그것이 이 책 내용에 나타난 플라톤의 의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 하고, 이 대화편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것일까. 플라톤 자신은 몇 권, 몇 장이라는 구분을 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대화를 전개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대화의 주인공이면서 그 대화를 남에게 전해 주는 사람으로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런 형식, 즉 "나는 말했다" 라든가 "그는 말하더군" 이라는 좀 번거로운 형식은 이《국가》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잔치》편도 그런 복잡한 형식을 전체적 장면의 묘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국가》편의 전체는, 소크라테스가 그 전날 페이라이에우스에 있는 폴레마르코스의 집에서 있었던 대화의 자초지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 그런 만큼 그것이 누구이리라는 짐작은 필요없는 일이다. 그것이 누구이건 이 대화편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상관이 있어서, 그것이 누구인가를 모르고서는 이 대화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이미 플라톤 자신이 그 점에 그렇게 소홀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 대화편의 전체 구성은, 플라톤 자신이 내용에서 보여준 바도 있지만, 대개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제 I 부(서곡으로서의 제1권)

소크라테스가 벤디스 여신의 축제가 있는 날, 페이라이에우스로 갔다가 폴레마르코스의 집에 초대되어, 거기서 케팔로스와 늙음이라든가 재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케팔로스의 얘기에서 "정의란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 폴레마르코스나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정의(定義)를 소크라테스가 검토하고 반박하여 얼른 해결이 나질 않는다.

제 Ⅱ 부(제2~4권)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정의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소크라테스의 책임있는 견해를 묻게 되자,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를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로 넓혀서 고찰할 것을 제안하여, 국가의 생겨남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전형적인 국가의 이론적 형성에 착수하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전형적 국가를 이루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방위자와 통치자의 사람됨을 만드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검토되고, 방위자를 자질에 따라 가려 뽑아서, 일정한 생활 방식과 책무를 논하게 되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계급의 각 역할에 따라 나라의 덕(德)인 지혜 · 용기 · 절제 · 정의를 각각 규정짓고, 개인의 영혼에도 세 부분이 있음을 밝혀 개인의 네 가지 덕을 규정하게 된다.

제 Ⅲ 부(제5~7권)

더 나아가서 방위자들 사이의 남녀의 역할과 교육, 처자의 공유,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울 수 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철인통치론(哲人統治論)'을 제기하면서 철학자란 무엇인가를 밝혀 낸다. 철인 통치자를 만들기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는 '선의 이데아'와 거기에 이르는 철학적 인식과 길을 배워야 한다며, 그 길을 태양, 선(線)의 분할, 동굴이라는 세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소상하게 설명한다. 교육이란 필경 '영혼의 전환'이라는 이념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교과내용도 그 이념에서 나온다.

제 Ⅳ 부 (제8~9권)

이렇게 세워진 이상적인 나라가 네 가지 체제의 불완전한 나라로 어떻게 해서 기울어져 가는가, 또 불완전한 나라에 대응하는 개인의 사람됨을 고찰, 오직 정의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결론에 이른다.

제 Ⅴ 부(제10권)

시(詩)와 연극의 바탕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다음, 정의로운 사람에 대한 좋

은 응보와 영혼의 불사(不死)의 논증이 전개되고, "에에르의 저승 얘기"로 이 대화편은 끝을 맺는다.

이것이 《국가》의 내용의 뼈대이지만, 각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내용 전체의 짜임새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여기에는 각 현대어 번역들의 목차 등이 참고될 수 있다).

제 I 부(서곡 제1권) 정의에 관한 견해들의 검토

대화의 장면을 전함(327a~328b)

1. 케팔로스와의 대화.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제(328b~331d)
2. 폴레마르코스와의 대화: 정의란 빌린 것의 갚음이라는 견해 검토(331e~336a)
3. 트라시마코스와의 대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견해 검토(336a~347e)
4. 정의는 덕이요, 지혜요(347e~350d), 행복을 가져다주고 유리한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350d~354c)

제 II 부(제2~4권) 나라와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正義)의 정의(定義)

1.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문제를 다시 제기함(357a~367e)
2. 정의가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이 되는 나라의 고찰(367e~376e)
3. 나라의 방위자의 교육(376e~412b)
   ① 음악 · 문예(376e~403c)
   ② 체육(403c~412b)
4. 지배자 계급에 관한 규정들(412b~427c)
5. 나라의 지혜 · 용기 · 절제 및 정의의 규정(427c~443c)
6. 인간의 정신적 기능과 덕의 문제(434c~445e)

제 III 부(제5~7권) 올바른 나라의 형태와 조건

1. 남녀의 역할과 교육의 같음(451c~457b)

2. 부녀자와 아기의 공유(457b~471c)
3. 철인통치론(471c~473c)
4. 철학자란 무엇인가(474c~480a)
   ① 철학자로서의 정신적 바탕(484a~487a)
   ② 철학자에 대한 오해와 가짜 철학자(487a~497a)
   ③ 철인 통치의 가능성(497a~502c)
5. 철인 통치자의 교육(502c~541b)
   ① '선의 이데아'(태양의 비유)의 인식(502c~509b)
   ② 지식의 분류. 선분과 동굴의 비유(509c~521b)
6. 교과과정(521c~541b)
   ① 수학(521c~527c)
   ② 천문학(527c~530c)
   ③ 음악론(530c~531c)
   ④ 철학적 문답법(디알레크티케)(531c~535a).
   ⑤ 피교육자의 선택과 나이의 단계 및 교육의 방법(535a~541b)

제 Ⅳ 부(제8~9권) 부정한 나라와 인간의 모습

제 Ⅱ~Ⅲ부의 요약과 처음 문제로 되돌아 감(543a~545c)

1. 이상국가(우수자 지배체제)로부터 명예 지배체제로의 타락. 명예 지배체제의 나라와 그런 인간(545c~550c)
2. 소수자 지배체제와 그런 인간(550c~555b)
3. 민주체제의 나라와 그런 인간(555b~562a)
4. 독재체제의 나라와 그런 인간(562a~576b)
5.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한 사람에 있어서의 행복(576b~592b)
   ① 독재자의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우수자 지배체제적 인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함(576b~588a)
   ② 정의만이 인간에게 참다운 이익이 됨(588b~592b)

제 V 부(제10권) 시(詩)에 대한 비판 및 정의의 응보

1. 시와 연극에 대한 고찰(595a~608b)
   ① 모방(595a~602b)
   ② 감정에 미치는 시의 영향(602c~608b)
2. 정의의 응보(608c~621d)
   ① 영혼의 불사(608c~612a)
   ② 이승에서의 응보(612a~618e)
   ③ 저승에서의 응보, 에에르 얘기(614a~621d)

일러두기

1. 이 번역의 원본은 J. Burnet, Platonis Opera, tomvs IV, Oxford Classical Texts, 1902이다. 되도록 이 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모로 보든지 말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곳만은 다음의 판을 참고로 했다. Loeb Classical Library의 Plato, The Republic, with an Eng. Tr. by P.Shorey, vol. I, 1930, vol. II, 1935, London. 그리고 Plato's Republic, The Greek Text, ed., with Notes and Essays, by B.Jowett and L.Campbell, Oxford, 1894. 및 여러 현대어로 된 번역본들이지만, 특히 혜택을 받은 것은, A.D. Lindsay(Everyman's Lib.), P.Shorey(Loeb Cl. Lib.), D.Lee(2nd ed., Penguin Books), F.M.Cornford (Oxford) 등 이었다.
2. 번역문의 난(欄) 밖에 있는 숫자는 스테파누스(H. Stephanus) 판의 페이지로서, 플라톤의 본문 인용에서 각국 공통으로 쓰이는 페이지를 나타낸 것이고, a b c d e는 그 한 페이지를 등분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3. 각 장의 가름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P. Shorey(Loeb Cl. Lib.)에 따랐다.
4. 번역문 중에는 의미의 보충을 위해서 따로 표시함이 없이 다소 덧붙인 말도 있긴 하지만, 원말의 뜻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5. 역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와 영철을 괄호 안에 넣었다.
6. 원주와 역주는 각 장의 끝에 두고, 한자를 노출시켰다.
7.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였다.

“ ” 독립적인 인용이나 대화를 묶을 때

‘ ’ 부분적인 인용이나 강조를 나타낼 때

《 》 저서명 · 신문명 · 잡지명을 나타낼 때

〈 〉 문학 · 미술 · 음악 등의 작품명을 나타낼 때

〔 〕 거듭된 부호의 총괄 또는 내용상 역자가 본문에 삽입할 때

제 1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어제 나는 여신[1] 께 기원(祈願)도 드리고 싶었고, 또 그 축제가 이번에 처음 있는 행사인지라 어떻게 지내는지 구경도 할 겸, 아리스톤의 아들인 글라우콘[2]과 함께 페이라이에우스[3]로 내려갔었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렬도 제법 훌륭했지만, 트라키아 사람들이 벌인 행렬도 그것 못지 않게 볼 만하다고 생각되더군. 우리는 기원도 드렸고 구경도 끝냈고 해서 시내로 돌아오고 있었네. 그러자 저 멀리서 케팔로스[4] 아들인 폴레마르코스[5]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종아이에게 달려가서 기다리도록 부탁하라고 일렀다네. 그 종아이는 뒤에서 내 옷자락을 잡고서, "폴레마르코스 님께서 기다려 주십사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더군.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주인 어른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네. "바로 저 뒤에 오고 계십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 애는 말하더군. "그러자꾸나. 기다리고 말고" 하고 글라우콘이 말했네.

조금 뒤에 폴레마르코스와 글라우콘의 형인 아데이만토스와 니키아스와 아들인 니케라토스, 그리고 그밖에 몇몇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들도 필시 그 행렬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더군.

폴레마르코스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만 시내로 돌아가시는

1. 여신이란 그 당시 트라키아에서 맞아들인 달의 신 벤디스를 말함.

2. 글라우콘(Glaucon): 플라톤의 둘째 형. 아데이만토스의 문하에 있긴 했지만, 이 《국가》 편에서는, 소피스트적인 도덕관, 비교적 온건한 실용주의적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이미 메가라의 전투(424B.C.)에서 용명을 떨쳤다(368a 참조) 하니, 이 《국가》의 대화가 있었을 당시에, 적어도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18세는 지났을 것이다.

3. 페이라이에우스(Peiraieus): 아테네로부터 남서쪽 약 7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항구. 이곳에는 트라키아 사람들이 통상(通商)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머물러 있었다.

4. 케팔로스(Cephalos): 소크라테스의 친구, 시라쿠사로부터 이주해 온 대사업가. 전통적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노인으로서, 공정한 처세를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404B.C.에는 이미 작고하였었다.

5. 폴레마르코스(Polemarchos): 케팔로스의 장남이며, 리시아스와 에우티데모스의 형. 新舊 과도기적 사상을 대표한다. 자기 자신의 이론적 반성에 따른 원리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30인 전제 체제 때 암살되었다.

길인가 보군요" 라고 말했네. "잘 알아맞췄네" 라고 내가 대답했네.
"그러시다면 우리 일행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알다 뿐인가?"
"그러면 우리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시거나, 아니면 여기 그대로 남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지. 자네들이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경우는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우리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도 설득하실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건 그럴 수 없지" 라고 글라우콘이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듣고 싶지도 않으니,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죠."
여기서 아데이만토스가 끼어들면서 "하온데 오늘 저녁에 여신을 위해서 말 탄 횃불경주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들 있나?" 하고 말했네.
"말을 타고? 그것 참 희한한 일이로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손에 든 횃불을 서로 넘겨주는 것이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내가 말했네.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폴레마르코스가 말했네. "게다가 밤새도록 축제도 있을 거구요. 그건 볼 만할 겁니다. 저녁 먹고 가서 그 밤축제를 구경할 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섞여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거절 마시고."
그러자 글라우콘이 "머물러 있는 게 좋겠군요" 라고 말하더군.
"그러지.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해야겠지" 라고 내가 말했네.

2. 그래서 우리는 폴레마르코스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폴레마르코스의 아우들인 리시아스와 에우티데모스, 그리고 또 칼케돈의 트라시마코스, 파이아니아의 카르만티데스와, 아리스토니무스의 아들 클레이토폰을 만났네.[6] 또 폴레마르코스의 아버님 되시는 케팔로스도 댁에 계시던데, 매우 늙어 보이더군. 내가 만난지도 꽤 오래 됐으니까. 그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방금 전에 안뜰에서 제물을 바치고 난 뒤인지라 머리엔 꽃관을 쓰고 있더군. 그런데 방안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어서 우리는 그이 옆에 앉았네. 케팔로스는 나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말하더군. "소크라테스 님, 우릴 찾아 주시러 페이라이에우스에 오시는 일은 별로 없군요.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쉽사리 시내로 걸어갈 힘이 있다면야, 당신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겠지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당신께 갈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젠 당신이 이리로 더 자주 와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내 육체적 즐거움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과는 반대로 얘기에 대한 욕망과 즐거움이 더욱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절마시고 오셔서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오랜 친구를 대하듯 우리에게 자주 들러 주십시오."

"사실 말씀입니다만, 케팔로스 님, 저는 연세가 많은 분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모두 걸어야 할 길을 걸으셨고, 그

6. 리시아스(Lysias, 459~378B.C.): 법정변론(法廷辯論)의 대가(大家)로 유명.
에우티데모스(Euthydemos): 대화편 《에우티데모스》의 소피스트인 에우티데모스와는 다른 사람임.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 변론가(辯論家)이며 소피스트. 가원전 5세기 후기의 새로운 비판적 사상을 대표한다. 당시의 변론술사(辯論術史)에 등장할 정도로 영향이 컸다. 주장은 있었으나, 이론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카르만티데스(Charmantides): 키르만티데스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다. 다음의 클레이토폰과 함께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클레이토폰(Cleitophon): 아테네의 정계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기에 활동한 인물. 대화편 《클레이토폰》에 등장한다.

래서 그 길이 어떤 것인지, 거칠고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쉽고 순탄한 것인지를 그분들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께서는 이미 시인들이 늙은 나이라는 문턱[7]에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연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인생의 괴로운 시기인지 어떤지 또는 무엇인지를 각별히 노인장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네.

3. "그것이 내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소크라테스 님, 얘기해 드리고 말고요. 우리 몇몇 늙은이들은 옛말[8] 마따나, 같은 곳에서 자주 어울립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대개는 만날 때마다 젊은 시절의 즐거움을 그리워해서, 성생활과 음주와 잔치, 그리고 그밖에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한숨을 짓고 사뭇 크나큰 것을 빼앗겨서, 지난날은 잘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살고 있지도 않은 것처럼 안타까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 가까운 가족들도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 까닭으로 해서 늙음이 그들에게 모든 재앙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소크라테스 님, 그 사람들은 그 원인을 원인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 원인이라면 나도, 그리고 내 나이쯤 된 모든 사람도 다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나는 전혀 다른 형편에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를테면, 시인 소포클레스[9]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가 소포클레스, 성생활의 즐거움은? 아직도 여자와 관계할 수 있겠나?" 라고 하니까 그가 말합디다. "이 사람, 그런 소리 말게. 마치 거칠고 사나운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처럼 거기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

7. 호메로스《일리아스》XXI,60, XIV,487.《오디세이아》XV, 246, 348 XII, 212. 헤시오도스《일과 나날》331 참조.

8. "같은 나이 또래가 그들 나이 또래를 기쁘게 한다."

9. 소포클레스(Sophocles, 495~406B.C.): 아테네 3대 비극작가의 한 사람.

겠네.” 그때도 나는 그가 잘도 대답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아닌 게 아니라 늙으면 그런 따위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큰 안정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욕망이 극성을 덜 부리고 가라앉을 때는, 과연 소포클레스가 말한 대로 많은 미치광이 주인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이나 집안 사람들에 대한 푸념 등은 단 한 가지가 원인입니다. 소크라테스 님, 그것은 늙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늙었더라도 분별이 있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라면 나이 따위는 결코 견디기 어려운 짐은 아니니까요. 소크라테스 님,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늙은 나이도 젊음도 다 같이 괴로운 것이겠죠?”

4. 나는 그의 말에 기쁨을 느끼고 더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를 꾀어볼 양으로 이렇게 말했네. “케팔로스 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며, 노인장께서 늙은 나이를 가볍게 견뎌내실 수 있는 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합니다. 부자는 많은 위안거리를 가지고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건 사실이지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그들의 말도 옳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옳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는 테미스토클레스[10] 에 관한 얘기가 매우 적합합니다. 한 세리포스[11] 사람이 그를 비난해서 그의 명성은 그 자신의 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라의 덕분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대답하기를, “그렇지, 내가 세리포스 사람이었더라면, 또 당신이 아테네 사람이었더라면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아니고, 늙은 나이를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이 들어맞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난하고서야 늙은 나이를 쉽사리 견뎌낼 수는 없을 것이고, 나쁜 사

10.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 C.528~C.462B.C.): 아테네의 유명한 장군이며 정치가.
11. 세리포스(Seriphos): 에게 해에 있는 작은 섬.

람이 부자가 됐다고 해도 결코 스스로 안정을 얻진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래서 내가 "그러나 케팔로스 님, 노인장께서 가지고 계신 재물의 대부분은 상속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수성가를 하셨습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내가 모은 재산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님? 돈벌이에서는 나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중간쯤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와 이름이 같은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몇 배로 늘리셨지만, 아버지 되시는 리사니아스께서는 그것을 지금만도 못하게 축을 내셨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 애들에게 내가 상속받은 것보다 적지 않게, 다만 얼마라도 더 남겨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노인장께서는 돈을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만, 그건 흔히 자수성가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이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이나 더 그것을 중하게 압니다. 마치 시인들이 자기의 시를, 그리고 아버지들이 아들을 애중히 여기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그들의 돈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쓸모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창작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기에는 염증이 납니다. 돈밖엔 모르니까요" 라고 나는 말했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5. "그렇고 말고요. 그건 그렇고, 하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얻는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내가 그것을 말한다 해도 아마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소크라테스 님,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머지않아 그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가 되면, 그전에는 그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이닥칩니다. 저승의 일에 관한 이야기, 이승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저승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때까지는 웃음거리였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그런 얘기가 정말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

고 자기로서는—늙어서 쇠약해진 때문이건, 또는 저세상에 다가가고 있어서 그것을 좀더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건—두려움과 의심에 차서 누군가에 대해서 행여 나쁜 짓이나 하지 않았는가 헤아려 내서 곰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린애처럼 놀라서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고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아무 나쁜 짓을 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과 좋은 희망이, 핀다로스[12]가 말한 바와 같이, '늙은이의 양호자(養護者)'로서 늘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님, 그는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감미로운 희망이
인간의 변덕스런 마음을 다스려,
모든 것 중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기쁘게 하여,
그의 늙음의 양호자가 된다.

참으로 경탄할 만큼 훌륭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재물의 소유가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고, 훌륭하고 단정한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또 신에 대해서는 제물의, 사람에 대해서는 돈의 빚을 진 채로 두려움을 안고 저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은 큰 구실을 합니다. 그밖에도 돈은 쓸모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일을 다른 일과 비교해 보면 나는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소크라테스 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재물은 이런 것을 위해서 가장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12. 핀다로스(Pindaros, 518~438B.C.):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서정시인.

그는 말했네.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케팔로스 님.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정의라는 것에 관해서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남에게서 무엇을 빌렸으면 그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행동들은 때로는 옳지만 때로는 잘못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를테면,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누군가가 친구에게서 그의 정신이 멀쩡할 때 무기를 빌렸다가 그가 실성했을 때 그것을 돌려받길 요구한다면, 그것을 되돌려주어서는 안되며 또 되돌려주는 사람도 옳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실성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할 생각으로 있는 사람도 옳지 못하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것은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는 아니죠. 즉, 진실을 말하는 것과 빌린 것을 되돌려주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폴레마르코스가 껴들어서, "그렇고 말고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우리가 다 소라도 시모니데스[13]를 따라야 한다면 말입니다" 라고 말하더군.

"자, 그러면 나는 두 사람에게 토론을 넘겨주지. 이젠 제물 바치는 일에 가 보아야 겠는걸" 하고 케팔로스는 말하더군.

"제가 아버님 것의 상속자란 말씀이시죠?" 하고 폴레마르코스가 말했네.

"암, 그렇지" 하고 그는 웃음을 띠고 말하면서 제물을 바치러 나갔네.

6. "자, 그러면 토론의 상속자로서 말해주게. 정의에 관해서 옳게 말했다고 자네가 생각하는 시모니데스의 말이란 무엇인가?" 라고 나는 말했네.

"각 사람에게 빌린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3. 시모니데스(Simonides, 556~C.468B.C.):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서정 시인.

"하기야 그렇지, 시모니데스라면야 쉽사리 안 믿을 수 없지—지혜로운 신 같은 사람이니까—폴레마르코스,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넨 아마 알겠지만 나는 알 수가 없는걸. 왜냐하면 그것이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 즉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맡겼다가 실성을 하고서 되돌려주길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되돌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기 때문일세. 그래도 확실히 그가 맡긴 것은 곧 빌리고 있는 것이야, 그렇지 않은가?" 하고 나는 말했네.

"네."

"그러나 실성을 하고서도 돌려받으려고 할 때는 결코 되돌려주어서는 안되겠지?"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빌린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시모니데스가 말한 것은 아무래도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군."

"그렇습니다. 확실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에게서 빌리고 있는 것은 뭣인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나쁜 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알겠네—어떤 사람이 돈을 맡겼을 경우, 만약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일이 해가 되고, 또 돌려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친구라면 맡긴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사람은 그가 빌린 것을 갚는 것은 아니다—시모니데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자넨 말하는 건가?" 라고 내가 말했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나? 적에게서 무엇인가 빌린 것이 있다면 그것도 되돌려 주어야 하겠지?"

"물론 빌린 것은 적에게로 되돌려주어야죠. 하지만 적에게서 빌린 게 있다는 것은 빌리기에 알맞은 것, 즉 뭣인가 해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7. "그렇다면 시모니데스는 시인답게 아리송한 말로 무엇이 정의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군. 왜 그런고 하니 그는 각자에게 알맞은 것을 되돌려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알맞다는 것을 그는 빌리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듯하기 때문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 그러나 보게.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시모니데스 선생, 빌린 것과 알맞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는 어떻게 되돌려주는 기술을 의술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분명히 "약이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몸에 돌려주는 기술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러면, 또 빌린 것과 알맞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엔가에 어떻게 되돌려주는 기술을 요리술이라고 부르는가?"

"음식에다 맛을 돌려주는 기술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는 기술이 정의라고 불릴 수 있겠나?"

"소크라테스 선생님,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에 우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면 친구와 적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돌려주는 기술이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는 친구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적에게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건강과 질병이라는 점에서 친구에게는 좋게 하고 적에게는 나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란 누군가?"

"의사입니다."

"그러면 또 바다의 위험이라는 점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란 누구지?"

"키잡이죠."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겠나? 그는 어떤 행동에서, 그리고 어떤 일에서 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롭게 하기에 가장 유능한가?"

"싸움에서 적을 향해서 싸우고, 친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됐네. 그러나 친애하는 폴레마르코스, 앓지 않는 사람에겐 의사가 소용없네."
"그렇죠."
"또 바다에 있지 않으면 키잡이도 소용이 없지?"
"네."
"그리고 또 싸우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과연 의로운 사람이 소용없을까?"
"아니죠. 결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시에도 정의는 쓸모가 있을까?"
"쓸모가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확실히 그렇지, 안 그런가?"
"네."
"과일을 거두어 들이는 일에서도?"
"네."
"그리고 또 구두짓기도 그렇지?"
"네."
"자넨 구두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싶었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겠나? 정의란, 무엇에 쓰이고 무엇을 얻게 하길래 평화시에도 쓸모가 있다고 자넨 말하는가?"
"상거래에서 쓸모가 있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상거래란 협동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것인가?"
"그렇죠, 협동관계죠."
"그렇다면 장기를 두는 내기에서 훌륭하고 쓸모있는 협동자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장기를 두는 사람인가?"
"장기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벽돌이나 돌을 쌓는 공사에서는 건축가보다도 의로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쓸모있는 협동자일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키타라[14] 의 연주자가 악기의 연주에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보다 더 훌륭한 협동자이듯이,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협동에서 키타라 연주자나 건축가보다 더 훌륭한 협동자일까?"

"돈의 협동에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폴레마르코스, 돈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별개 문제겠지? 이를테면 말을 사고 팔 때의 돈을 쓰는 일에서는 아마 다를 걸세. 그 경우엔 말 전문가가 오히려 뛰어나니까 말일세, 안 그런가?"

"그런 것 같군요."

"또 배를 사고 팔 때는 조선공이나 키잡이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이나 금을 협동해서 쓸 경우에 어째서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쓸모가 있을까?"

"그것을 맡기고 모아야 할 경우이죠, 소크라테스 님."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도 쓰지 않고 모아 두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쓸모없는 그러한 경우에 정의는 유효하다는 이치겠군?"

"그런 것 같군요."

"또 가지치는 칼을 챙겨두어야 할 경우, 정의는 남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쓸모가 있지만, 그러나 써야 할 경우에는 포도 재배 기술이 쓸모가 있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패건 리라[15]건 조금도 쓰지 않고 챙겨두어야 할 경우에 정의는 쓸모가 있지만, 그러나 쓰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엔 무술(武術)이나 악술(樂術)이 쓸모가 있다고 자네는 말하고 싶겠지?"

14. 키타라(kithara): 현금(絃琴)의 일종.

15. 리라(lyra): 현금(絃琴)의 일종.

"그건 그래야죠."
"그리고 또 그밖에 모든 것에 관해서도 무엇인가 쓰여야 할 경우에는 정의가 쓸모없지만, 쓰여서 안될 경우에는 쓸모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8. "그렇다면 여보게, 정의라는 것이 쓸모없는 것들만을 위해서 쓸모가 있다면 그건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군 그래. 그러나 이런 점을 생각해 보세. 어떤 싸움에서든지 그것이 주먹으로 싸우는 것에서건 그밖에 다른 것에서건, 가장 날렵하게 치는 사람은 또한 가장 날렵하게 막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날렵하게 막는 사람이, 또한 들키지 않게 질병을 만들어 넣어주는 데도 날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또, 적의 계책이나 그밖에 모든 행동을 날렵하게 훔쳐내는 사람이야 말로 진지를 훌륭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고 잘 지키는 사람은 또한 그것을 잘 훔쳐내는 사람이기도 하겠지?"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만약 의로운 사람이 돈을 잘 지킨다면, 그는 또 그것을 훔치기도 잘하겠네?"
"어쨌든 얘기의 흐름으로는 그렇게 되는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고 보니 의로운 사람이란 일종의 도둑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로군. 그리고 자넨 그것을 아마 호메로스에게서 배운 모양이야. 왜냐하면 그는 오디세우스의 외조부인 아우틀리코스에게 큰 호감을 갖고, 그가 훔치고 거짓말 잘 하기로는 만인

의 으뜸이라[16] 고 말하고 있기 때문일세. 그러니 자네나 호메로스나 시모니데스의 말에 따르면, 정의란 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롭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도둑질이 되겠지. 자네 말은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의란 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자네가 누군가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이롭게 보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롭게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로운 사람인가, 또 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진가?"

"사람이란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면 좋아하고, 나쁘게 보이면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많은 사람을 의롭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은 적이 되고, 나쁜 사람은 친구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런 경우에 그들에게 의롭다는 것은 그 나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좋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란 의롭고 부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옳습니다."

"그런데 자네 말에 따르면, 조금도 부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되네."

16. 《오디세이아》 XIX 395~396 참조.

"그렇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런 말은 나쁘게 생각이 되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
"그 편이 먼저 것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폴레마르코스, 사람을 잘못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친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의롭다—그는 나쁜 친구니까—는 것이 되겠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의롭다—그는 좋은 적이니까—는 것이 되겠네. 그렇데 이렇게 되고 보면, 그것은 시모니데스가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단언했던 것과는 정반대일세."
"그렇군요. 그런 결론이 되는군요. 그러나 그것을 바꿔 보지요. 친구와 적에 대한 정의가 아마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 정의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가, 폴레마르코스?"
"친구를 의롭게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하고 내가 말했네.
"의롭다고 생각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기만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되긴 해도 사실상 친구는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그리고 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은 친구이고 나쁜 사람은 적이라는 말이 되겠네?"
"네."
"그러면 바르다는 것에 관한 정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서 친구에게는 좋게 하고, 적에게는 나쁘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했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즉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좋게 하고, 적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에게 해가 되게 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거 참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9.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사나이의 할 일일까?"
"그야 그렇고 말고요. 악하고 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해롭게 해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말(馬)이 해를 입으면 더욱 좋아질까, 아니면 더욱 나빠질까?"
"더욱 나빠집니다."
"개를 개답게 하는 것이 나빠지는가, 아니면 말을 말답게 하는 것이 나빠지는가?"
"말을 말답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개가 해를 입을 땐, 개를 개답게 하는 것이 더욱 나빠지고 말을 말답게 하는 것이 더욱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보게, 사람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해서 안될까? 즉, 해를 입으면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겠지?"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란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아니겠나?"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여보게, 해를 입은 사람은 더욱 부정해지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악가는 그 음악술(音樂術)을 가지고 사람들을 음악가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승마가(乘馬家)는 그 승마술을 가지고 승마가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안되지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 정의를 가지고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요컨대, 좋은 사람은 덕을 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결코 그럴 순 없지요."
"하기야 차게 하는 것은 열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하는 일

이라고 생각되니까 말일세."

"네."

"또 습하게 하는 것은 마르게 하는 힘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또, 해롭게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소행일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란 곧 좋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친구에게건 그밖에 다른 누구에게건 해를 끼치는 것은, 폴레마르코스,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사람, 즉 부정한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겠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만약 빚진 것을 갚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그리고 이 말이, 의로운 사람은 적에게는 손해를, 친구에게는 이익을 주는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세. 그가 말한 것은 정말이 아니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를 입히는 것은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님이 우리에게 밝혀졌기 때문일세."

"동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것이, 시모니데스나 비아스[17]나 피타코스[18]나 그밖에 누군가 지혜롭고 다복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나와 자네는 함께 싸워야겠네."

17. 비아스(Bias, 기원전 6세기 전반): 7현인(賢人) 중의 한 사람.

18. 피타코스(Pittacos, C.650~C.570B.C.): 7현인(賢人) 중의 한 사람. 레스보스 섬의 미틸레네의 지배자.

"저로서는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자넨 알고 있나, 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한 사람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누굽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건 페리안드로스[19] 라든가, 페르디카스[20] 라든가, 크세르크세스[21] 라든가, 또는 테베의 이스메니아스[22] 라든가, 그밖에 돈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되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이젠 정의라는 것도 의로운 것도 지금까지 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니, 그것을 다른 것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10.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트라시마코스는 몇 번이고 우리의 대화 속에 끼어들려고 해봤지만, 얘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하는 옆의 사람들이 말렸다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얘기를 멈췄고,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네.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우리를 향해서 사나운 짐승처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폴레마르코스와 나는 겁결에 움츠러들었었지. 그러자 그는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당신들은 기나긴 동안 무슨 군소릴 늘어놓는 거요? 소크라테스 선생, 게다가 뭣 때문에 서로 굽실거리면서 맞장구를 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남에게 묻지만 말고, 또 남이 무엇인가 대답한 것을 뒤집고서는 자랑스럽게 굴지 마세요. 대답하기보다는 묻기가 훨씬 더 쉬우니 당신 자

19. 페리안드로스(Periandros, C.625~C.585B.C.): 코린토스의 독재자.
20. 페르디카스(Perdiccas, C.450~C.413B.C.): 마케도니아 왕.
21. 크세르크세스(Xerxes): 페르시아 왕(통치기간: 486~465B.C.).
22. 이스메니아스(Ismenias): 기원전 5세기 끝무렵부터 기원전 4세기 초반까지 테베에서 민주파(民主派)로 활동, 반 스파르타파의 지도자.

신이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정의를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것이라든가, 벌이가 되는 것이라든가, 이로운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선 안돼요. 뭣인가 말하고 싶거든 내게 그것을 빠짐없이 자세히 말하세요. 당신에게서 그런 따위의 허튼소린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라고 말하더군.

이런 말을 듣고 나는 그만 질겁을 했고, 그러고는 그를 바라보노라니 무서워지기 시작하더군. 만약 그가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봐두지 않았더라면, 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으리라고 생각되네. 하지만 우리의 얘기로 그가 성을 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먼저 그를 보았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걸세. 나는 떨면서 말했다네. "트라시마코스, 그렇게 무섭게 좀 굴지 말게. 만약 나와 이 사람과 이것저것 얘길 하다가 무슨 잘못이 있다면, 확실히 그건 일부러 저지른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황금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는 데 있어서 일부러 서로 굽실거리면서까지 황금을 찾는 기회를 결코 망쳐버리고 말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정의라는 것을 찾고 있을 때, 그것을 찾기에 온갖 힘을 기울일망정, 그렇게까지 약하고 어리석게 서로 양보만 하고 있다고는 생각 말게. 그런게 아니라 여보게, 제발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 주게나, 다만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네. 그러니 자네들같이 영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짜증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마땅히 우릴 가엾게 생각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11. 그러자 그는 이 말을 말을 듣고 심술궂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하더군. "제기랄! 이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엉뚱한 소크라테스요. 내가 그걸 알고 딴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 왔지. 당신은 대답하려 들진 않고 누가 뭘 물어도 곧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하게 딴전을 부린다고 말이야."

"과연 자넨 지혜로운 사람이로군, 트라시마코스, 그래서 자넨 그것을 잘 알고 있네. 만약 자네가 누군가에게 열둘이란 무엇이냐고 묻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한다면—이 사람아, 내게 열둘은 여섯의 두 배라든가, 넷의 세 배라던가, 둘의

여섯 배라든가, 셋의 네 배라고 말할 생각은 말게. 그런 엉터리 말을 한다면 자네 말은 듣지 않겠으니까—그런 따위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넨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그 사람이 자네에게 '트라시마코스, 그게 무슨 말이지? 자네가 말한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대답해서 안된다는 건가? 하지만 어떻겠나, 이 훌륭한 친구야, 그 중의 하나가 옳다고 해도 안된다면 그 옳은 것 말고 무슨 다른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건가? 아니라면, 자넨 어떻게 말하겠나?' 하고 말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자넨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고 나는 말했다네.

"그렇지, 이 경우는 먼저 경우와 아주 비슷하군" 하고 그는 말했네.

"비슷하지 않다 할 까닭도 없지. 그러나 설사 비슷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대답들 중의 한 가지가 질문한 사람에게 옳게 생각된다면, 우리가 그에게 못하게 하건 말건, 그가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대답하진 않을 것이라고 자넨 상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당신도 막상 그렇게 할 셈이로군요. 내가 못하게 한 것들 중의 하나로 대답하려는 것이겠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거, 조금도 이상할 건 없군. 내가 살펴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말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자, 그러면 만약 내가 정의에 관해서 이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르고, 게다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답을 한다면 어떡하죠? 그땐, 당신은 무슨 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23] 하고 그가 말하더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벌밖에는 무엇이 있겠나? 모르는 사람에게 마땅한 벌이란 아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일일세. 그 벌을 받을 준비는 돼 있네"

23. 아테네에서 재판하는 형식 중의 한 가지로서, 피고가 유죄라고 판결되었을 경우, 원고의 구형에 대해서 피고가 다른 형량을 제기하면, 재판관은 그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중에도 그런 장면이 나온다.)

라고 내가 말했네.
"당신, 참 재미있는 사람이로군요. 그렇지, 그렇다면 배우세요. 그러나 벌금도 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내가 가지고 있다면야 내고 말고"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염려없어" 라고 글라우콘이 말하더군. "돈 걱정은 말고 트라시마코스, 자, 얘기나 계속하게. 돈은 우리 모두가 소크라테스 님을 위해서 치를 테니까."
"그러지, 소크라테스 님이 늘 잘 해내는 솜씨를 위해서 말이지, 자기 자신은 대답하질 않고 남이 대답하면 그 말을 듣고서는 뒤집는 일 말이야"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여보게, 첫째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모른다고 실토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둘째로, 설사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어떤 잘난 사람이 막고 있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 자네가 얘기하는 편이 훨씬 옳겠네. 아닌 게 아니라 자넨 알고 있고, 또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제발 대답을 해주어서 이 글라우콘이나 다른 사람들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기 바라네" 라고 내가 말했네.

12.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글라우콘과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다네. 그런데 트라시마코스는 훌륭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 대답을 받아내려고 애쓰는 눈치더군. 하지만 결국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말했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지혜란 말일세. 자기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에게서 배우고도 조금도 그 사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 말일세."
"아닌 게 아니라 남들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트라시마코스, 그러나 내가 사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칭찬뿐이야. 내가 돈은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 누군가의 대답이 내게 옳게 생각되면, 내가 얼마나 기꺼이 칭찬을 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걸세. 자네가 대답하려는 것이 바로 그러리라고 생각되니까"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다면 들어 주시죠. 나는 정의란 곧 강한 쪽의 이익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당신 칭찬은 어디로 갔나요? 아마 그럴 생각이 없을 겝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우선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겠네. 지금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으니 말일세. 자네는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네. 자, 트라시마코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가? 설마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이를테면, 장사(壯士)인 폴리다마스[24]가 우리보다 강하고, 고기를 먹는 것이 그의 몸에 이롭다면, 그보다 약한 우리에게도 그 음식이 이롭고, 따라서 의롭기도 하다는 것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참 지겨운 사람이로군. 소크라테스 님, 당신은 조금이라도 더 내 말을 헐뜯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야" 라고 그는 말하더군.
"천만에, 그건 그렇지 않아, 이 사람아, 그러나 무슨 뜻인지 좀더 분명히 말해 주게나" 라고 내가 말했네.
"아니, 그럼 당신은 어떤 나라들에서는 참주제(僭主制)로, 어떤 나라들에서는 민주제로,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귀족제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씀인가요?" 하고 그는 말했네.
"왜 모르겠나?"
"그러면, 나라마다 다스리는 힘은 정부에 있지 않은가요?"
"그렇고 말고."
"그런데 정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죠. 민주제는 민주제다운 법률을, 그리고 참주제는 참주제다운 법률을 만들고, 그밖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법률들을 만듦에 있어서,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다스림을 받

24. 폴리다마스(Polydamas): 테살리아 태생. 몸집이 큰 씨름꾼. 제93회의 올림피아 대회(408B.C.)에서 우승하여 기념상이 세워졌다.

는 사람들에게는 곧 의로운 것이 된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은 범법자요, 부정한 사람으로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이것이에요. 즉, 모든 나라에서 정의는 다 같은 것이고, 그것은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추론(推論)은 언제나 같은 것을, 즉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결론을 낳게 합니다."

"이젠 자네가 말하는 뜻을 알았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보아야겠네. 그런데 트라시마코스, 자네는 이로운 일이 곧 의로운 일이라는 대답을 했네—그러면서도 자넨 내가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지—하기야 자네는 '강자에게' 라는 조건을 덧붙였지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나 그건 아마 하잘것없는 조건이겠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대단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치가 않네. 다만 분명한 것은, 자네 주장이 정말인지 아닌지 따져봐야겠다는 것일세. 왜냐하면 정의가 어떤 의미에선 이익이라는 것을 나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자네는 거기다 덧붙여서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일세. 그러나 나는 그것에 관해서 모르고 있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지."

"생각해 보시구료" 라고 그는 말하더군.

13. "그렇게 함세. 그런데 내게 말해 주게나. 자네는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렇다면 각 나라의 지배자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사람인가?"

"그들은 확실히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사람이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이 법률을 만들 경우, 어떤 것은 옳게, 어떤 것은 옳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법률을 옳게 만든다는 말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이고, 옳지 않게 만든다는 말은 이롭지 않은 것을 만든다는 뜻인가, 자넨 어떻게 설명하겠나?"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들이 정한 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곧 의로운 일인가?"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네 말에 따르면 강자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것, 즉 이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의로운 것이 되겠네?"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나는 자네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 보세. 이런 일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지배자는 지배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할 경우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도 때로는 어기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배받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이든 지배자가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 말일세. 그런 것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다시 또 생각해 보게나. 그 지배자이며 강자인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을 자네가 인정했는데, 그 지배자가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일이 된다고 자네는 말했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트라시마코스, 자네가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의롭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겠나? 그건 강자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약자에게 명령되고 있기 때문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님. 그건 전적으로 분명한 일입니다" 라고 폴레마르코스가 말하더군.

"틀림없어. 자네가 이분의 증인이 된다면야" 라고 클레이토폰이 끼어들었다네.

"그런데 증인은 왜 필요하죠? 트라시마코스도 지배자가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명

령하는 수가 있지만, 그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지배받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폴레마르코스, 지배자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트라시마코스 님은 말하고 있네."
"그렇지, 클레이토폰. 게다가 그는 강자의 이익이 의로운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을 하고서, 다시 강자는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하도록, 그들이 지배하는 자에게 명령하는 수도 있음을 인정했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합의에서 강자의 의로운 것도 이롭지 못한 것도 다같이 의로움이 따라 나오게 되네."
"그러나" 하고 클레이토폰은 말하더군. "그가 말한 강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강자가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네. 이것을 약자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일세.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린 것일세." "아닐세. 그것은 그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야" 라고 폴레마르코스는 말했네.
"그런데, 폴레마르코스,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 만약 지금 트라시마코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하세나."

14. "자, 말해 주게, 트라시마코스. 이것이, 즉 사실상 이롭건 말건 강자의 이익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곧 의로운 것이라고 자네는 말하고 싶어하는가? 자네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해도 좋겠나?"
"아니죠,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강자라고 부른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확실히 나는, 지배자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자네가 인정할 때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했네" 라고 나는 말했네.
"당신은 말을 해도 그렇게 악의에 찬 소리만 하는 사람이로군요, 소크라테스 선생" 하고 그는 말하더군. "이를테면, 의사가 그의 환자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필 잘못을 저지른 그때 그를 의사라고 부릅니까? 또는 계산을 잘못한 사람을, 바

로 잘못한 그때 그리고 그 잘못한 점에서 계산가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건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의사가 잘못했다든지, 계산가나 학교의 교사가 잘못했다든지 할 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한 결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까다로우니까 말입니다만, 까다롭게 따져 말한다면 수공업자는 아무도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를 실패하게 하고 따라서 그는 이미 수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공업자도, 지혜있는 사람도, 지배자도 어느 누구건 그가 지배자인 바로 그때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모두 의사가 잘못했다, 지배자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도 조금 전에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당신께 대답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막상 까다로우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즉, 지배자가 지배자인 한 잘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명령하고, 그러고는 이것을 지배받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애초에 말한 것처럼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 곧 의로운 것입니다."

15. "그렇지,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트라시마코스, 그래 내가 악의에 찬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나?"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토론을 하면서 자네의 명성을 손상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건 당신에게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당신이 잔꾀를 부려서 내 이름을 손상시키지도 못할 것이고, 또 터놓고 토론에서 나를 이기지도 못할 것이니까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추호도 그럴 생각은 없네, 이 복받을 친구야.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앞서와 같은 일을 면할 수 있기 위해서, 자네가 강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약자에겐 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때, 그 강자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지배자와 강자를 의미하는 것

인지, 아니면 방금 자네가 말한 까다로운 의미의 그것인지 명확하게 지적하게나" 라고 내가 말했네.

"까다로운 의미로 말해서 지배자를 의미하죠. 거기에 관해서 잔꾀를 부리시고 악의에 찬 말을 해보시죠.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당신에게 머리 숙여 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될 리가 만무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내가 사자(獅子)의 수염을 깎거나 트라시마코스에게 악의에 찬 말을 할 만큼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당신은 방금 그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일에 변변치도 못한 주제에" 라고 그는 말하더군.

"자, 그런 말은 그만하면 됐으니 이젠 이걸 내게 말해 주게나. 앞서 말한 까다로운 의미의 의사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가, 또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인가? 참다운 의사에 관해서 말해 주게나" 라고 내가 말했네.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선장은 어떤가? 참다운 선장이란 선원들의 지배자인가, 아니면 하나의 선원인가?"

"선원들의 지배자요."

"그 경우에, 그가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을 계산에 넣을 필요는 없고, 또 그를 선원이라고 불러도 안된다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그가 선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술과 선원에 대한 지배 때문이니까."

"옳습니다."

"이들 각자에게는 각기 무엇인가 이로운 것이 있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기술의 본래의 목적은 이로운 것을 찾아서 마련해 주는 일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기술마다 그것이 가능한 한 완전해야 한다는 것 말고도 뭣인가 이로운 것이 있는가?"

"그건 무슨 뜻으로 묻는 겁니까?"

"이를테면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만약 자네가 내게 묻기를, '신체를 위해서는 신체인 것으로만 충분한가, 또는 무엇인지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겠지, '그렇고 말고, 그건 그 이상을 필요로 하네. 사실, 그 까닭으로 해서 의술도 발견되고 있는 것일세. 왜냐하면 신체란 결함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신체에 이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기술은 마련된 것일세.'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말한 것은 자네에게 옳다고 생각되는가, 아닌가?"

"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나? 의술이라는 것 자체에도 결함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무슨 기술이든지 그 이상으로 어떤 덕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가—마치 눈은 보는 힘을, 귀는 듣는 힘을 필요로 하고, 또 그 까닭으로 해서 이런 힘들에 이로운 것이, 눈과 귀를 다스리는 기술로 말미암아 발견되고 제공되지 않으면 안되듯이—과연 기술은 기술로서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마다 그것에 이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 발견하는 기술은 그 기술대로 다시 다른 그것이 필요하게 돼서, 이 일은 끝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은 스스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인가? 또는 기술에 이로운 것을 발견해서 그 결함을 채우기에는, 그 기술 자체도 다른 기술도 더 필요로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실은 기술에는 어떤 결함이나 잘못도 없고, 또 기술을 기술답게 하는 기술 자체 말고 다른 어떤 것의 이익을 찾는 것은 기술이 할 일이 아니며, 그리고 또 기술이 엄격히 기술이어서 그 자체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것은 바르고, 따라서 결함이나 잡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일세. 그러니 우리가 쓰고 있는 엄밀한 의미의 말을 가지고 검토해 주기 바라네. 내 말이 옳은가, 어떤가?"

"옳은 것 같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의술은 의술을 위해서 이로운 것을 구하지는 않고 신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일세."

"네."

"또 승마술은 승마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을 위한 것일세. 그리고 또 그밖에 어떤 기술이든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그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기술을 기술이게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일세."
"그런 것 같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트라시마코스, 기술은 기술을 그것이게 하는 바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동의를 하더군.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든 명령하고 탐구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 약자의 이익일세."
여기에 대해서도 그는 급기야는 동의를 했지만, 그것에 관해서 한판 싸워 보려고 하더군. 그러나 그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했네. "그렇다면 어떤 의사든 그가 의사인 한, 환자의 이익보다는 의사의 그것을 명령하고 탐구하는 것은 아니겠지? 엄밀한 의미의 의사란 신체의 지배자로서 인정되고 있고 돈벌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가?"
그는 동의를 하더군.
"그리고 엄밀한 의미의 선장이란 한 선원이라기보다는 선원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인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선장이자 지배자인 사람은 그 선장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선원들을 위한 이익을 명령하고 구할 것일세."
그는 마지못해 동의를 하더군.
"그렇다면 트라시마코스" 하고 나는 말했네. "어떤 종류의 지배를 하는 사람이든 그가 지배자인 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그의 기예가(技藝家)들의 이익을 위하여 명령하고 또 그것을 찾을 것일세. 결국 지배자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도록 하는 것과 그들을 위한 이익과 그들에 적합한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행하는 것일세."

16. 얘기가 이 단계에 이르러 정의(正義)의 정의(定義)가 꺼꾸로 뒤집히고 말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졌을 때, 트라시마코스는 대답 대신에 이렇게 말하더군. "말씀해 주시죠, 소크라테스 님. 당신에게 유모가 있습니까?"

"그건, 또 어째서?"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 걸 묻기보다는 대답을 했어야 했지 않나?"

"그건 유모가 당신이 코를 흘리고 있는 것을 닦아 주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질 않아, 그 때문에 당신은 그 여자에게서 양과 양치는 사람의 분간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도대체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당신이, 양치기나 소먹이는 목동이 양이나 소를 위해서 좋은 것을 구해서 그들의 주인이나 그들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보다도 어떤 다른 목적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살찌게 키우는 일이죠. 그리고 또 정말로 지배자인 나라의 지배자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마치 사람이 그의 양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오직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로운 것과 정의, 또 의롭지 않은 것과 부정(不正)에 관해서 당신은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의나 의로운 것은 사실은 남을 위해서 좋은 것, 즉 지배자인 강자를 위한 이익이지만, 복종하는 피지배자가 스스로 받는 손해라는 것, 그리고 부정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매우 천진스럽고 의로운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강자의 이익에 이바지하고 그에게 복종하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는 힘을 쓰지만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천진스런 소크라테스 님, 이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부정한 사람보다 늘 손해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서로 상대가 되어 상거래를 할 경우죠. 그 상대 관계가 청산될 때, 의로운 사람이 부정한 사람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늘 더 적게 차지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무엇인가를 바칠 때 의로운 사람은 같은 수입에서도 더 많은 것을 바치지만 부정한 사람은 적게 바칩니다. 또 무엇인가를 받을 경

우에는 한편은 조금도 차지하지 않지만, 다른 편은 많이 얻어 들입니다. 게다가 그 두 편이 무슨 공무(公務)를 볼 경우에는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손실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의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결단이 나지만, 그러나 그의 정의는 그가 공금에서는 한 푼도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집안 간이나 친지들에게서는 정의를 어기면서까지 그들에게 이익을 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모든 점에서 이것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한 바로 그 사람, 즉 큼직하게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구료. 만약 당신이 부정하다는 것이 의로운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이로운가를 결정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정을 행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부정을 당하긴 하면서도 부정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가장 완전한 부정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주제(僭主制)이죠. 그것은 남의 것을, 그것이 거룩한 신에게 바친 것이건, 개인의 것이건, 공공의 것이건, 협잡으로 또는 억지로, 조금씩이 아니라 단번에 큼직하게 빼앗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의 하나하나의 경우에서 만약 부정을 행하다가 들키는 날엔 처벌을 받고 최대의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쁜 짓을 부분적으로 범한 자들은 신전(神殿) 털기 · 유괴범 · 침입자 · 협잡꾼 · 도둑이라고 불리기 때문이죠—그러나 국민의 재산을 뺏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노예로 해서 굴종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런 악명이 아니라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에게만이 아니라 완전한 부정을 행한 것을 듣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일을 행하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기가 무서워서 사람들은 부정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소크라테스 님, 부정은 그것이 어지간히 크기만 하면, 정의보다는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욱 세력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내가 말한 것이지만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 되며, 부정이란 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17. 이렇게 말하고 나서, 트라시마코스는 마치 목욕탕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정수리에서 귀에다 말(言)의 물벼락을 쏴우고는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놓아 주질 않고, 머물러서 그가 말한 것을 설명해 주길 간청하더군. 그래서 나 자신도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려고 이렇게 말했네. "훌륭한 트라시마코스, 자넨 말을 던져만 놓고는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 철저히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지도 않고 떠나겠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도된다면, 우리가 다 가장 이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평생의 방향을 정하고자 나서는 일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내가 그것을 그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트라시마코스가 말했네.

"그런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에 관해서 전혀 냉담한 것 같고, 또 자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나쁘게 살아가는 살아가든 좋게 살아가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 같군. 그러나 여보게 제발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수고를 좀 해주게나—무엇인가 이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면 결코 자네에게 해로울 것도 없을 걸세—왜냐하면, 나는 나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설사 부정을 제멋대로 내버려두어서, 아무 방해도 없이 무엇이든 정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도, 나는 부정이 정의보다도 이로운 것이라고는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일세. 그런데 여보게, 이제 누군가가 부정을 해서 남에게 들키지 않거나, 또는 남과 다투어서 부정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부정이 정의보다 이로운 것이라고 내가 믿도록 설득하진 못하네. 그런데 아마나 말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의 더러는 똑같이 느낄 걸세. 그러니 여보게, 우리가 정의를 부정보다 귀히 여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만족할 만큼 설득해서 믿게 해주게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설득시킬 건가요? 아까 말한 것도 당신이 설득되지 않았다면, 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론을 당신 영혼 속으로 가지고 가서 쓸어 넣어야 한단 말입니까?"

"원! 저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진 말게. 그런데 첫째로, 무엇인가 자네가 말

하려거든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만약 바꾸려거든 그것을 터놓고 바꾸고 우릴 속이진 말아 주게. 당장에 트라시마코스—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을 자세히 돌이켜보아야 하니까—자네는 처음에는 순수한 의사의 정의를 내리면서,[25] 나중의 순수한 양치기에 이르러서는 똑같이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질 않았네.[26] 오히려 그가 양치기인 한, 양에 가장 좋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서 양을 살찌게 하고, 마치 잔치를 벌이려는 식도락가처럼 좋은 음식을 먹을 셈이거나, 또는 양치기가 아니라 돈벌이 하는 사람처럼 팔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양을 치는 기술은 오직 그것이 주관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뿐일세—왜냐하면 양을 치는 기술에 관해서는 무엇 하나 그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 한, 그 기술의 훌륭한 상태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다 마련되고 있기 때문일세—그래서 어떤 지배이든 그것이 지배인 한, 정치적인 지배이건 사사로운 지배이건, 그것이 지배하고 돌보는 것을 위해서만 가장 좋은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네. 자, 그런데 자네는 나라에서 지배하는 사람들, 즉 순수한 의미의 지배자는 자진해서 지배한다고 생각하나?"

"아니오, 그렇겐 생각 안하는데요.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8. "그러나 어떻겠나? 트라시마코스" 하고 나는 말했네. "누구 하나 자진해서 지배하려는 사람은 없고, 지배하는 데서 그들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받는 사람들이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지배에 관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것만은 말해주게. 기술은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얘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이네만 자네 소신에 어긋남이 없이 대답해

25. 제1권 347c 이하 참조.

26. 제1권 343b 참조.

주게나."

"그렇죠. 그 능력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각 기술마다 공동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의술은 건강을, 항해술은 항해에 있어서의 안전을, 그리고 그밖에 기술도 그렇듯이."

"과연 그렇죠."

"또 보수를 얻는 기술이 보수를 주는 게 아니겠나? 그것이 그 기술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자넨 의술과 항해술을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가? 까다롭게 말한다면, 자네도 일러 주었듯이 어떤 사람이 키를 잡으면서 바다에 있는 것이 그에게 맞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면, 그렇다고 해서 항해술을 결코 의술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죠. 부르지 않죠" 라고 그는 말했네.

"또 내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삯을 받으면서 건강해진다면, 보수를 얻는 기술을 의술이라고 부르진 않을 걸세."

"그렇죠, 부르지 않죠."

"그런데 어떻겠나? 어떤 사람이 치료를 해주면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술을 보수를 얻는 기술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

"부르지 않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각 기술마다 그 이익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합의를 보지 않았던가?"

"보았죠."

"그렇다면 모든 기예가들이 무엇이고 공통으로 누리는 이익이 있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다같이 사용하는 데서 생길 것일세."

"그럴 것 같군요."

"그런데 삯을 버는 기예가는 보수를 얻는 기술을 덧붙여 사용하는 데서 그 이익을 얻는다고 우리는 주장하네."

그는 마지못해 동의를 하더군.

"그렇다면 각 기술의 경우에 보수를 받는다는 그 이익은 그 기술에서 생기는 것은 아닐세. 적어도 조심스럽게 고찰해 본다면 건강은 의술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보수는 보수를 얻는 기술로 만들어지고, 또 집은 건축술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수는 보수를 얻는 기술에 곁들여서 만들어지고, 다른 모든 기술의 경우에도 그렇게 각각 자기의 구실을 다해서 그 일을 이롭게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일세. 그러나 기예가는 그가 덧붙여서 보수를 얻지 못한다면 그 기술에서 이익을 얻는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에게는 이익이 없단 말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트라시마코스, 이젠 이것이 분명해졌네. 즉, 어떤 기술이나 지배도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을 가져다 주진 않고, 앞서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피지배자의 이익이 되는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명령한다는 것 말일세. 그것도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약자인 피지배자의 이익을 구해서 말이야. 바로 이 까닭으로 해서 말일세. 트라시마코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뜻으로 지배하거나, 또 남의 불행을 바로잡아 주려고 나서거나 하진 않네. 오히려 그 기술을 옳게 실행하려 하고, 그의 기술에 따라서 명령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지배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실행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지배자로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일세. 이런 이유들로 해서 지배하기를 승낙하려는 사람에게는 돈이며 명예를 보수로 주어야 하고, 지배하기를 거절하면 벌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 같네."

19. "그건 무슨 뜻입니까, 소크라테스 님?" 하면서 글라우콘이 말하더군. "그 두 가지 보수는 알겠습니다만, 보수의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처벌에 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자네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보수를 이해 못하고 있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지배하기를 승낙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지배하는 것일세. 명예욕이나 금전욕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또 사실 그렇기도 하다는 것을 자넨 모른단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돈이나 명예는 훌륭한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기를 승낙하지 않게 할 것일세. 왜냐하면 그들의 지배를 위해서 터놓고 보수를 강요해서 품팔이 고용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또는 그 지배에서 자기가 그것을 슬금슬쩍 받아치고는 도둑놈 소릴 듣게 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명예 때문도 아닐세. 그들에게는 명예욕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들이 지배하길 승낙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처벌이라는 것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되네—이것이 아마 강제당함이 없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게 된 까닭인 듯하네—그러나 가장 큰 벌은, 만약 자기 자신을 지배할 생각이 없다면, 자기만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일세. 덕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될 땐, 내 생각으로는 이 벌이 두려워서 지배하게 되는 것 같더군. 그리고 그때는 무슨 경사가 났다고 생각하거나, 또 무슨 행운을 기대해서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닐세. 그저 강제에 못 이겨서 당한다고 생각하고 맡는 것일세. 왜냐하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자기와 동등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면, 마치 오늘날 지배하려고 다투듯이, 아마 지배하지 않으려고 다툴 걸세.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참다운 지배자는 정말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일세. 따라서 사리(事理) 판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남을 이롭게 하면서 수고하기 보다는 남이 자기를 이롭게 해주기를 택할 것일세. 그래서 나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것일세.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세. 그러나 트라시마코스가 지금 말한 것, 즉 부정한 사람의 생활이 의로운 사람의 생활보다는 낫다고 주장한 것은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네. 그런데, 자넨" 하고 내가 말했네. "글라우콘, 어느 쪽을 취하겠나, 어느 편의 주장이 더 진실하다고 자넨 생각하나?"

"그야, 의로운 사람의 생활이 더욱 이롭다고 생각됩니다."

"자네도 들었겠지? 아까 트라시마코스가 부정한 사람의 생활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들었죠. 그러나 믿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만 찾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설득시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고 말고요. 꼭 그렇게 해야죠" 라고 그는 동의를 했네.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사람에게 대항해서 그 말에는 말로 맞서서, 정의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엔 이 사람이 말하고, 또다시 우리가 말한다면, 각자의 말에서 양편이 열거하는 이익을 다 셈하고 측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을 판정하는 재판관이 있어야 할 것일세. 그러나 만약, 앞서 탐구했던 방식처럼 서로 합의를 볼 때까지 논쟁을 한다면 그땐 우리 자신이 재판관인 동시에 변론인이 될 것일세."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넨 어느 편이 좋겠나?"
"두 번째 것이 좋겠습니다."

20. "그렇다면, 자, 트라시마코스,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 주게. 자네는 완전한 정의보다 더욱 이롭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내가 말했네.
"확실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도 이미 말했고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그 문제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나? 내 생각으로는 자넨 그 중의 하나를 덕이라고, 다른 하나를 악이라고 부르겠지?"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는 덕이고, 부정은 악이라고 부르는 건가?"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럴싸한데요. 내가 부정은 이롭고 정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럼 달리 또 뭣이?"
"거꾸로 됐습니다."
"그럼 정의를 악이라고 말인가?"
"아니죠. 아주 고귀하고 천진스런 인품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은 못된 인품이라고 부르는가?"
"아니죠. 분별력이죠."
"그렇다면 트라시마코스, 막상 자네에겐 부정한 사람들이 지각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겠구먼."
"그렇죠. 완전하게 부정을 행할 수 있고, 나라들이나 인간들을 그들의 지배 밑에 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마 내가 소매치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그런 자들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 나름으로 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 얘기한 것[27]을 생각한다면, 이건 얘기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것이 자네가 말하는 의미라는 것은 나도 알 만하네. 그러나 부정을 덕과 지혜의 부류에다 넣고, 정의를 그와 반대되는 것들에다 넣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미심쩍은 일일세."
"아니죠.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말한다면…… 여보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는지 참 난처하게 됐네. 왜냐하면 만약 부정은 이롭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하듯이 추악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관해서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뭣인가 말할 만한 것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자네가 그건 아름답기도 하고 굳세기도 한 것이라고 말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네. 그리고 우리가 늘 정의에 딸려 있는 것으로 돌리는 모든 특성을 자네는 그것에다 돌릴 걸세. 자네는 그것을 단연코 덕이나 지혜의 대열에다 넣고 있으니까" 하고 말했네.
"당신은 정말 참다운 예언자로군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긴 해도, 이것이 자네의 진정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자네가 말한 것을 따지면서 공격하지 않으면 안되겠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트라시마코스, 자네는 정말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27. 제1권 344b,c 참조.

에 관한 자네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런데 이것이 내게 그렇게 생각되든 안되든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하더군.
"결코 아닐세. 그보다도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 보게나. 의로운 사람은 다른 의로운 사람과 겨루어서 뭣에서든 그를 능가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나?"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그렇진 않죠. 만약 그가 그렇다면야 지금처럼 고상하고 천진스런 인품은 아닐 터 이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떻겠나? 그는 의로운 행위보다 더 잘할까?"
"아니죠. 그 어느 것도 의로운 행위는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을 능가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까, 또는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겠죠. 그러나 할 순 없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냐, 내가 묻는 것은, 의로운 사람은 다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을 능가하고 싶어하며 그렇게 하길 구하는가 어떤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겠나? 의로운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능가하고 싶어할까?"
"왜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능가하고 싶어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은, 또한 다른 부정한 사람이나 행위를 능가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차지 하려고 다투진 않는가?"
"그건 그렇죠."

21.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도록 하세. 의로운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능가하진 않지만, 같지 않은 사람을 능가한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

도 또 같지 않은 사람도 능가한다고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참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생각도 깊고 사람도 좋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 어느 쪽도 아니란 말인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도 훌륭한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또 부정한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을 닮지만 의로운 사람은 닮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 그렇죠. 부정한 사람은 그가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닮지 않으면 안되고, 의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닮지 않는 거겠죠?" 라고 그는 말했네.
"좋아. 그렇다면 그들은 각각 자기를 닮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되겠네."
"그렇지 않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건 그렇다고 하세, 트라시마코스. 그런데 자넨 어떤 사람은 음악적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비음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 중에서 누구를 생각이 깊다 라고, 누구를 생각이 없다 라고 말하겠는가?"
"그야 물론 음악적인 사람을 생각이 깊다 라고, 비음악적인 사람을 생각이 없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생각이 깊다는 바로 그 점에서 그는 또 우수한 사람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점에서 열등한 사람이라 불리는가?"
"네."
"그럼 의사는 어떤가? 역시 그렇게 말하나?"
"그렇죠."
"그렇다면 말일세, 여보게, 어떤 음악가가 리라의 조율(調律)을 할 경우에, 줄을 죄거나 늦추는 일에서 다른 음악가를 능가하고 싶어한다든지, 능가할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럼 어떻겠나, 비음악적인 사람은?"
"그야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의사는 어떻겠나? 음식물을 처방할 경우에 의사는 의술의 시술에서 다른 의사를 능가하길 바란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는 의학적이 아닌 사람을 능가하려고 할까?"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무식에 관해서 고찰해 주게나. 그래서 누구든 유식한 사람이 다른 유식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능가하기를 택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그가 같은 경우에, 차라리 자기와 같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나 않는지 말해 주게나."
"그건 아마 불가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어떻겠나? 그는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똑같이 냉담하게 능가하고 싶어할까?"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유식한 사람이란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선량하고 지혜있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능가하려고 하진 않고, 자기와 다르고 반대되는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일세."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악하고 무식한 사람은, 같은 사람도 반대되는 사람도 능가하려고 할 것일세."
"그럴 것 같군요."
"그러나 트라시마코스, 문제의 그런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도 같지 않는 사람도

능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자넨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28]
"그랬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지 않은 사람을 능가하려 하겠지?"
"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을,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악하고 무식한 사람을 닮고 있다는 것이 되겠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서로 닮았다면, 그들은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합의를 보았네."
"합의를 보았죠."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선량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는데, 부정한 사람은 무식하고 악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네."

22. 그런데 트라시마코스는 이 모든 것을 인정은 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순탄하게 되풀이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게다가 날씨는 더웁고 해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인정했다네—그때 나는 또 처음으로 트라시마코스가 빨개지고 있는 것을 보았네—그러나 어쨌든 정의는 덕이며 지혜지만, 부정은 악이며 무식이라는 것에 서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했네.
"됐네. 그건 그렇다고 해두게나. 그러나 우리는 사실 부정은 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네. 트라시마코스, 자넨 기억하고 있지 않나?"
"기억하고 있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에

28. 제1권 349d 참조.

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한다면 내가 일대 연설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책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든가, 또는 당신이 뭘 묻고 싶다면 묻든가 하세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마치 입심 좋은 노파를 대하듯, 그렇지 하고 맞장구나 치고, 또 고개를 끄떡이든가 흔들거나 하죠."

"자네 자신의 의견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말게나" 하고 나는 말했네.

"무엇이고 당신 마음에 들도록 해드리지요. 내겐 말할 기회도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밖에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는 말하더군.

"전혀 아무것도 없네. 다만 자네가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렇게 하게나. 나는 묻기나 하겠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럼 물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얘기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앞서도 물었던 것을 되풀이하게 되네만, 그것은 정의와 부정과 서로 관계되는 이익에 관한 일일세. 왜냐하면 부정은 정의보다 능력도 있고 강하기도 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일세. 그러나 지금은……" 하고 나는 말했네. "정의를 지혜며 덕이라고 보게 된 만큼, 내 생각으론 그것은 부정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이 쉽게 밝혀질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부정은 곧 무식이니까—설마, 이걸 모르는 사람이야 없겠지—그러나 나는 그렇게, 쉽사리 주장하고 싶진 않네, 트라시마코스. 차라리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고찰했으면 하네. 즉, 어떤 부정한 나라들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부정하게 종속시키려 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속시켰고, 또 많은 나라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은, 특히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하게 부정한 나라가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것이 자네의 이론이라는 것은 알겠네. 그러나 내가 고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일세. 다른 나라보다 우세하게 되는 나라는 정의의 도움 없이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또는 그런 경우에 정의는 절대로 필요한 것인가?"

"만약 당신이 앞서 말한 것이 옳다면—정의는 지혜라고 말입니다—절대로 정의에

따라야 하죠.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 옳다면, 절대로 부정에 따라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참 반갑군, 트라시마코스. 자네는 고개를 끄떡이거나 흔들겠다더니 매우 훌륭한 대답을 해주니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23. "고맙게도 그렇게까지. 그런데 나를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음 것도 말해 주게나. 나라라든가, 군대라든가, 강도나 절도단이라든가, 또는 그밖에 어떤 부정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려는 무슨 집단이라든가가 만약 저희들끼리 서로 부정한 짓을 한다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럴 수 없지요."

"만약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말일세, 트라시마코스, 부정은 그들 사이를 서로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지만, 정의는 합심과 친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일세. 안 그런가?"

"그렇다고 해둡시다. 당신을 거스르고 싶진 않으니까" 라고 그는 말하더군.

"이거 참 여보게, 고맙기 이를 데 없네. 그러나 이걸 말해 주게. 어디서든지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미움이 박히게 되는데, 그것이 부정이 하는 구실이라면 그것이 자유민 사이에서 나타나건, 노예 사이에사 나타나건, 서로 미워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해서 서로 함께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면 어떨까? 그들끼리도 또 의로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보게, 만약 부정이 단 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맥을 못쓸까? 아니면 그대로 변함없이 지니고 있을까?"

"변함없이 지니고 있다고 해두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부정은 뭣인가,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즉, 나라에서건 동족에서건, 군대에서건, 그밖에 어디서건, 부정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첫째로 어떠한 공동적인 행동도 못하게 만들고, 둘째로 자기 자신도 또 자기에게 반대되는 모든 것도, 그리고 의로운 사람도 적으로 돌리게 하는 힘 말일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한 사람에게 있을 때는, 내 생각으론 그것이 같은 것을 해서 그 본래의 결과를 낳을 걸세. 첫째로 그들 스스로 다투게 해서 자기 자신과 한마음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일세. 둘째로는, 자가 자신도 또 의로운 사람도 적으로 돌리게 할 것이고, 그렇겠지?"
"네."
"그러나 여보게, 신들도 역시 의로운 것이지?"
"그렇다고 해두죠."
"그렇다면 트라시마코스, 부정한 사람은 신들의 적이 되고 의로운 사람은 신들의 친구가 될 것일세."
"말잔치나 벌여놓고 실컷 즐기시구료. 나는 당신에게 반대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고 내가 말했네. "지금 자네가 하고 있듯이 대답해서, 내 잔치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주게나.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보다 더 지혜롭고 보다 더 선량하고, 또 행동에서도 보다 더 유능하지만, 부정한 사람들은 더불어 일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네—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강력한 공동적인 일이 부정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할 경우, 그것은 전혀 정확치 못한 말일세. 그건 만약 그들이 철저하게 부정하다면, 서로 방관만 하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정녕 그들은 그나마 정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끼리는 물론이고 그들의 피해자들에게까지도 부정하게 굴지 못하게 했던 것일세. 그들이 한 것은 정의를 가지고 한 것일세. 다만 그들의 부정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

는 데서 그들을 바보로 만든 것일세. 왜냐하면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서 철저히 악한 사람은 또한 행동도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이 모든 것이 그러니 만큼 자네가 처음 주장했던 것[29]과는 다르다는 걸 알겠네. 그런데 또 우리가 나중에 고찰하기로 했던 문제[30] 즉 의로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한지 어떤지 그걸 살펴봐야겠네. 이제 이것은 내 생각으론 이미 우리가 말했던 것으로 분명해졌네. 그렇긴 하지만 더 충분히 고찰해야겠어. 왜 그런고 하니, 이 이론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가 라는 것에 관계되고 있기 때문일세."

"그러면 살펴보시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살펴보지, 그런데 말해 주게나. 자네는 말(馬)도 무슨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말이나 그밖에 무엇이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나 또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면, 그것을 그 구실이라고 하겠는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건 이렇다네. 눈 말고 다른 것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가?"

"물론 없죠."

"그러면 어떻겠나? 귀 말고 다른 것으로 들을 수 있을까?"

"결코 없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눈과 귀의 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럼 어떻겠나? 포도덩굴은 식칼이나 주머니칼이나 그밖에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자를 수 있겠지?"

"왜 아니겠습니까?"

29. 부정이 정의보다 강하다는 것.

30. 제1권 347e 참조.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한다 해도, 그것을 위해서 만든 가지치기 낫만큼 잘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네."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치기 낫의 구실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확실히 그래야죠."

24. "자, 그러면 이젠 조금 전에 내가 물었던 것, 즉 각 사물의 구실이란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또는 가장 좋은 방편인지 아닌지를 자네가 더욱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물의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됐네" 하고 나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무엇이고 제구실을 하는 것은 그것에 맞는 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앞서의 경우로 되돌아가세. 우리는 눈도 제구실을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제구실을 하죠."
"그렇다면 눈의 덕도 있겠지?"
"덕도 있죠."
"그러나 어떻겠나, 귀도 제구실을 한다고 했었지?"
"그랬죠."
"덕도 가지고 있고?"
"덕도 가졌죠."
"그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 역시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 보게. 눈이라는 것이 본래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덕 대신에 악을 가졌다면, 자기만의 구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당신은 아마 보는 것 대신에 눈먼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것들의 덕이 무엇이든 간에 말일세,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아직 그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덕으로 제구실을 잘하지만, 악으로는 서투르게 하는지 어떤지를 묻고 있으니까"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런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귀도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덕을 뺏긴다면 제구실을 서투르게 하지 않는가?"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치를 그밖의 모든 것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엔 이 점을 생각 좀 해보게, 영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을 가지고도 자네가 할 수 없는 구실을 하고 있는가를. 이를테면, 마음을 쓴다든지, 지배한다든지, 충고한다든지, 그런 모든 일들 말일세. 영혼 말고도 다른 것에다 이런 일들을 그것만의 구실이라고 정당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또 삶이라는 것은 어떻겠나? 영혼의 구실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닌가?"[31]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영혼도 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린 주장하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다면 트라시마코스, 영혼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덕을 빼앗겨도 제구실을 잘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악한 영혼은 불가불 나쁘게 지배하고 나쁘게 마음을 쓰지만, 선량한 영혼은 그 모든 것을 잘 한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네그려."
"그럴 수밖에 없죠."

31. 영혼(psyche)이란 말은 목숨의 뜻을 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의가 영혼의 덕이고, 부정은 악이라고 합의를 보았지?"
"그렇지요, 합의를 보았죠."
"그러면 의로운 영혼과 의로운 사람은 잘 살 것이고, 부정한 사람은 그렇지 못 할 것일세."
"당신 말에 따르면 그럴 것 같군요."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사람은 축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사는 사람은 그 반대일세."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이겠네?"
"물론이죠."
"그런데 불행하다는 것은 이롭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이겠네?"
"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보게 트라시마코스, 부정은 결코 정의보다 더 이롭지는 않다는 것이 되겠네."
"자, 소크라테스 님, 그것은 벤디스[32] 축제에서 한턱 낸 셈치십시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 자네가 낸 셈일세, 트라시마코스" 하고 내가 말했네. "왜냐하면 자넨 내게 점잖게 해주었고, 화를 내다가도 말았으니 말일세. 그러나 그 한턱이 내겐 별로 달갑지는 않았네. 그것은 내 탓이고 자네 탓은 아냐. 나는 마치 먼저 들어온 음식을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다음 것이 들어올 때마다 성급하게 맛보는 식도락가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즉 '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해답도 찾아내기 전에, 그것을 남겨 놓고는 '의롭다는 것은 악이며 무식인가? 아니면 지혜며 덕인가 어떤가'를 살펴보는 데로 옮아갔다고 생각되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부정은 정의보다 더 이로운 것인가 라는 딴 문제가 나타나자 참지를 못

32. 제1권 327a에서 말하는 여신. 역주1 참조.

하고 처음 문제에서 그 문제로 옮아갔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화의 결과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일세.[33]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34] 그것이 덕인지 아닌지, 또 그것을 가진 사람이 불행한지 행복한지조차도 거의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일세."

33.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명은, 초기의 대화편들의 끝맺음에서도 보인다.

34. 사물의 본질에 관한 지식, 즉 정의(定義)는 성질이나 관계를 논의하기보다 앞서야 한다.

제 2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이런 말과 함께 얘기는 다 끝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결국 서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더군. 왜냐하면 글라우콘은 평소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용감하였지만, 그때도 트라시마코스의 후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일세.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 "소크라테스 님, 선생은 모든 경우에서 의로운 것이 부정한 것보다 더욱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한 듯이 보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말 믿길 바라십니까?"

"그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믿길 바라야겠지."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바라시는 대로 하시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거기서 생기는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 자체를 위해서 좋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를테면, 기쁨이라든가 해롭지 않고 그저 즐거운 경험 이외에 아무것도 더 장차 생기지 않는 즐거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군."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자체를 위해서도, 또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위해서도 좋게 여기는 것들, 또다시 예를 들자면 생각한다든가, 본다든가, 건강하다든가는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과 그런 성질의 좋은 것들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좋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의 세 번째 종류, 즉 체육을 한다든가, 병의 치료를 받는다든가, 치료라든가, 그밖에 다른 형태의 돈벌이를 포함하는 종류를 인정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코 그것들 자체를 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수나 그밖에 그것들에서 생기는 결과를 위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확실히 그런 세 번째 종류의 것들이 있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말했네.

"이것들 중 어떤 종류에다 정의를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종류에다 넣었으면 하네. 그 자체를 위해서도, 또 거기서 생기는 결과를 위해서도 축복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종류에다 말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좋은 것들 중의 괴로운 종류에다 넣고 있죠. 즉, 보수와 좋은 세평(世評)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 자체로서는 귀찮고 피해야 하는 종류에다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2.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만, 그것은 트라시마코스가 늘 정의를 비방하고 부정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야. 결국 나는 이해가 매우 느린 모양이로군" 하고 나는 말했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드시지나 않을는지 제 말씀도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은 마치 뱀처럼 트라시마코스를 어처구니없게도 재빨리 매혹시키신 것으로 제겐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정의와 부정과의 두 가지에 대한 각각의 증명은 제게는 아직 만족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며, 또 영혼 속에 그 자체로서 있을 때, 그 하나하나가 어떤 힘을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수라든가 거기서 생기는 결과는 제쳐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좋으시다면 이렇게 진행시켰으면 싶습니다. 즉, 저는 트라시마코스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정의를 어떤 것이며, 어디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둘째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 그들과 그런 행위는 그럴 만하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의 생활은 의로운 사람의 생활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님,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수선합니다. 트라시마코스와 그밖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귀가 따가울 지경이니까요. 그래도 정의를 위한 말과, 정의가 부정보다 낫

다는 것은 아직 어느 누구에게서도, 제가 듣기 원하는 대로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자체만을 위해서 찬양하기를 듣는 것입니다—그런데 저는 그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으리라는 크나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부정한 생활을 칭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부정을 비난하고 정의를 칭찬하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듣고 싶어하는지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든 아니든, 어쨌든 보아 주십시오" 라고 그는 말했네.

"그야, 그렇게 하고 말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기꺼이 몇 번이고 말하고 듣고 할 것이 뭐 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참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다고 제의한 것, 즉 정의란 어떤 것이며, 또 어디서 생긴 것인지에 관해서 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낳으면서부터 부정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부정을 당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리고 부정을 당하는 일에는 부정을 행하는 일에 있는 좋은 것보다도 더 많이 나쁜 것이 있다. 따라서 서로 부정을 행하거나 부정을 당하거나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두 가지를 겪을 때, 한쪽을 이루어내고 다른 쪽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로 부정을 행하지도 않고 부정을 당하지도 않기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법률을 정하고 서로 계약[1] 을 맺기 시작해서, 법률로 정한 것을 합법적이며 의로운 것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곧 정의의 기원이며 본질로서 그것은 가장 좋은 것, 즉 부정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장 나쁜 것, 즉 부정을 당하고도 복수할 힘이 없는 경우와의 중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이들 둘의 중간에 있는 것인 까닭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부정을 행할 힘도 없어서 그것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자 참

1. 여기서 글라우콘이 대변하고 있는 견해는, 정의가 사회계약적인 기원을 가진다는 것이 특색이다.

다운 사나이는 부정을 행하지도 않고, 부정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계약을 결코 누구와도 맺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치광이일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나 이런 따위가, 소크라테스 님, 정의의 성질이며 또 그 기원이라고들 합니다.

3. 정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을 행할 힘이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본다면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사람과 부정한 사람과의 양쪽에다 각각 무엇이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특권을 주고서 거기서 그의 욕망이 각각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따라가면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똑같은 길을 공공연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남을 능가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갈 것이기 때문이죠. 남을 능가한다는 것은 좋은 일로서 모든 본성이 당연히 추구하는 것인데, 다만 법률이 억지로 평등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2] 제가 말씀드리는 특권이란, 리디아 사람의 조상인 기게스가 차지했다고 하는 그러한 힘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리디아를 다스리고 있던 왕 밑에서 양치기로 왕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데, 그가 양을 치고 있던 땅에 큰 폭우와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서 깊은 구멍이 생겼더랍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는, 그 속으로 내려가서 얘기에서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들창이 달린 청동의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산 사람보다 더 커 보이는 시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손에는 금반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그것만을 빼가지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에 관해서 왕께 드리는 보고를 마련하기 위한 양치는 사람들의 관례적인 모임이 있었을 때, 그는 그 반지를 끼고 참가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

2. 자연(physis)과 법률 · 관습(nomos)을 대립시키는 생각은 기원전 5세기 후반 경부터 일반화되었다.

께 앉아 있으면서 우연히 그 반지등의 홈을 손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이질 않게 되어, 그들은 기게스가 안 보인다고 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 다시 반지를 만져서 등의 홈을 밖으로 돌려 놨습니다. 돌려 놓자 그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힘이 정말 반지에 있는지 어떤지 시험해 보았더니, 반지 등 홈을 안쪽으로 돌리면 보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보이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그는 곧 왕께 나가는 사신의 한 사람이 되려고 머릴 썼습니다. 그러고는 왕궁에 도착하여 왕비와 내통하고 함께 결탁하여 음모를 꾸며 왕을 죽이고는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반지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 끼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사람이 낀다고 합시다. 그때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정의의 편에서서, 도둑질을 삼가며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훔쳐 내는 일도, 또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정을 통하는 일도, 또 그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도 하면서, 요컨대 사람들 사이를 신처럼 판을 치고 다닐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의로운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해서 양 쪽이 다같은 길로 갈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아무도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못이겨서 그렇다는 강한 증거로 주장될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부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부정을 행하기 때문에, 정의가 개인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정은 정의보다도 더 개인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게다가 그 생각은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옳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특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부정한 짓을 하려 하지 않고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 행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겠지요만, 그러나 부정을 당하기가 두려워서 면전에서는 서로 속여가면서 그를 칭찬할 것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4.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질문은 가장 의로운 사람과 가장 부정한 사람을 대조해 보면 옳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부정에서도, 또 의로운 사람의 정의에서도, 무엇 하나도 뽑아내질 말고 그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활방식에서 완전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째로, 부정한 사람은 재간 있는 기예가(技藝家)처럼 행동시켜야 합니다—이를테면, 능숙한 선장이나 의사는 그 기술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는 한쪽은 해보려 하고 다른 쪽은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바로잡을 줄 압니다—그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도 그가 철저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부정한 일을 식별해서 들키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은 최고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정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부정을 주어야 하고, 거기서 무엇 하나도 뽑아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장 큰 부정을 행하도록 해서 참으로 의롭다는 명성을 받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또 그는 만약 어쩌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어떤 부정한 일이 드러난다면, 그의 웅변의 힘은 설득시키기에 족할 것입니다. 만약 또 완력이 필요하다면 용기나 체력, 또는 친구나 재물의 힘으로 완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란 그런 것이라고 해두고, 이론에 맞춰 그 사람 옆에 의로운 사람을 모셔 놓아야겠습니다. 천진스럽고 고귀한 인품, 아이스킬로스의 말[3]처럼 '선량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량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을 함께 놓도록 합시다. 과연 그에게서는 그런 듯이 보이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이로운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다면, 그런 평이 차지하는 명예나 상을 누릴 것이고, 그렇게

3. 아이스킬로스(Aischylos, 535~456B.C.)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그리스 3대 비극작가. 여기 인용된 것은《테베 공격의 7장군(Epta epi The bas)》592 참조.

해서 그가 정의를 위해서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명예나 상을 위해서인가 분명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만 남겨 놓고는 그 밖에 모든 것을 그에게서 벗겨 내서 알몸으로 만들어, 다른 쪽 사람과 반대의 처지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짓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부정하다는 평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정의가 악평이나 그 결과에 맞서는 증명으로서 시험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활이 부정하게 생각은 되지만 사실상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죽는 날까지 그의 길을 변치 않고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은 정의라는 한쪽 극단과 부정이라는 다른 쪽 극단에 이르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그들 중 어느 편이 더 행복한지 판정할 수 있을 겁니다."

5. "이거 참! 여보게 글라우콘, 판정하기 위해서 자넨 마치 그들을 한 쌍의 조상(彫像)처럼 정력적으로 잘도 갈고 있네 그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제 힘 닿는 데까지는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 두 사람이 그런 인물이라면 내 생각으로는, 어떤 생활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하기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얘길 해야겠습니다. 제 얘기가 다소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 님, 그것은 제 탓이 아니라, 정의보다도 부정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즉 우리의 의로운 사람은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며 또한 감금될 것이며, 두 눈이 불로 지져지고 필경은 갖가지 괴로움을 받는 끝에 책형(磔刑)을 당할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마침내 의로울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듯이 보이기를 바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킬로스의 말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욱 옳았기 때문이죠. 그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부정한 사람의 행실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고, 그의 생활은 생각되는 것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하게 '생각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정하기를 바라며,

가슴속 깊이 갈아 놓은 이랑에서 거두어 들이면서,

거기서 싹이 트는 것은 훌륭한 목적이 있기에.

즉 첫째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제 나라에서 지배하게 되고, 다음엔 자기가 좋아하는 집으로 장가들고 시집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가 원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거나 사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부정한 짓 하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말고도 큰 이익을 거둡니다. 따라서 그가 공사(公私)간의 경쟁에 뛰어들면, 그의 적들을 이겨서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자가 되며, 친구는 도와주지만 적에게는 해롭게 하고, 또 신들에게는 푸짐하고 아낌없는 제물과 헌금을 바치고, 의로운 사람보다 신들이나 누구든 그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신의 사랑까지도 의로운 사람보다는 그가 차지하는 것이 더욱 어울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 님, 신들이나 사람들의 손으로 생활은 의로운 사람보다 부정한 사람이 더욱 풍족하게 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6. 글라우콘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도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 그의 형인 아데이만토스가 말하더군. "소크라테스 님, 아마 지금 얘기한 것이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그건 어째서?" 하고 내가 말했네.
"가장 필요한 말을 빼놓고 있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속담에도 있듯이, '형제가 형제를 돕게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다하지 못한 말이 있거든 자네가 구해 주게. 하기야 그가 말한 것만 가지고도 능히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서 전혀 정의를 돕는 자가 될 수 없도록 하기에 넉넉하네만."
"별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하지만 제 말씀도 좀 들어 보세요. 얘가 말한 것을 다른 편에서도 우리는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그 말은 정의를 찬양하고 부정을 책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글라우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란 자식들이, 그리고 남을 염려하는 사람은 모두 의로운 것이 옳지만, 정의 자체를 찬양하

지 말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명성을 찬양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자식들이 의로운 듯이 보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명성이 의로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상(賞), 즉 지배나 결혼이나, 또 글라우콘이 꼽고 있었던 모든 이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것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것까지 덧붙여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신들이 주신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숱한 이익에 관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 고귀한 헤시오도스[4] 나 호메로스가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즉, 전자는 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떡갈나무의 가지마다에다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 허리에는 벌꿀을 찾아내게 하고, 또 털많은 양떼는 짙은 털로 덮여 있다[5] 고 말하고, 그밖에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자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즉,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왕은 신의 두려움으로 다스리고 정도(正道)를 지켜,
그 왕을 위하여 검은 땅은 밀과 보리를 여물게 하고,
나무들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양떼는 어김없이 새끼를 낳고,
바다는 물고기를 마련해 준다.[6]

또 무사이오스[7] 와 그의 아들도,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좋은 것이 차례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안에서 그들을 저승으로 데려

4. 헤시오도스(Hesiodos): 기원전 8세기경의 교훈적 서사시인. 그의 작품 《일과 나날(Erga kai hemerai)》은 농사와 길흉의 달력에 관한 것, 《神統記(Theogonia)》는 신들의 족보로서, 우주개관(宇宙開闢)에 관한 형이상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

5. 《일과 나날》 232 참조.

6. 《오디세이아》 XIX, 109 참조.

7. 무사이오스(Mousaios)와 그의 아들 에우몰포스(Eumolpos)는 오르페우스교의 전통과 맺어진 신화의 인물.

가서 침상에 눕히고,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 마치 덕에 대한 가장 훌륭한 보상은 영원히 취해 있는 것이라고나 생각한 듯이, 그들의 모든 시간을 다 꽃관을 쓰고 취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신들에게서 내리는 보상이 이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간다고 하고 있지요. 그들은 거룩하고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그 뒤에 후손이 끊이지 않고 그 일족을 남긴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밖에 이와 같은 것들에서, 그들은 정의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저승의 시궁창에 묻고, 체에다 물을 나르도록 하고 있는데, 또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악평으로 몰아넣고, 의로운데도 부정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글라우콘이 말한 바로 그 모든 벌이 부정한 사람들을 덮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이상에 관해서는 그들은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 각각에 대한 그들의 칭찬과 비난입니다.

7. 그런데 더 나아가서 소크라테스 님, 일상적인 말에서나 시인들의 말에서 얘기되고 있는, 정의나 부정에 관한 다른 종류의 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절제나 정의는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힘들고도 귀찮은 것이다. 그러나 방종과 부정은 즐겁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세평과 법적 인습에서 나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의로운 것보다는 부정한 것이 대체로 이롭다고 말해서, 나쁜 사람들도 공사 간에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선언하거나, 그들에게 명예를 주기에 조금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약하고 가난한 다른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욕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신들이나 덕에 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얘기들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즉 신들도 실제로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행과 괴로운 생활을,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되는 운명을 주어 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신관(神官)들이나 점쟁이들은 부자집 문전을 찾아 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자기들은 신들에게서 받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나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축제나 즐거움을 벌여서 주문이나 제물로 그것을 가라앉혀 줄 수 있고 또 만약 누군가가 그의 적에게 해를 입히고 싶다면 적은 돈으로 의로운 사람이건 부정한 사람이건 차별없이 해를 끼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통력이나 마법(魔法)을 가지고, 그들의 말로는, 신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뜻대로 일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고는 이 모든 주장을 확인시키려고 그들은 시인들을 끌어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쉽게 악을 저지를 수 있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악은 손쉽게 그리고 함께 얻을 수 있다.
그리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가까이 살고 있다.
그러나 신들은 덕에 이르기까지에는 땀을 정해 놓으셨으니[8]

게다가 길고 거칠고 험한 길[9]이라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인간들이 신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증인으로서 호메로스를 끌어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신들 자신도 흔들리기 쉬운 것,
인간들은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적에는,
재물이나 겸손한 기도나 신주(神酒)나 불에 탄 제물의 향기로,
탄원하면서 신들의 뜻까지도 돌려놓는다.[10]

8. 《일과 나날》 287~289 참조.
9. 위의 290.
10. 《일리아스》 IX, 497~501을 좀 바꾼 것.

그밖에도 그들은 그들이 셀레네[11] 나 무사들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무사이오스나 오르페우스가 지은 책을 수북하게 만들어 내서, 그 책으로 예배의 지침을 삼았는데, 그들은 개인뿐 아니라 온 나라들을 설득하기를,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비법(秘法)이라고 부르는 제물이나 즐거운 놀이로 죄를 벗고 깨끗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들을 저 세상의 앙화(殃禍)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8. "이 모든 것이 말씀이죠" 그는 말을 계속했네. "소크라테스 님, 인간이나 신이 덕이나 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만큼 많이 되풀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들은 젊은이들, 즉 타고난 바탕이 좋고, 마치 꿀벌처럼 한 가지 말에서 다른 말로 날아가서 그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수집해서, 사람이 가능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야 하는가,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영혼은 어떤 영향을 받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핀다로스에 따라, '나는 정의의 길과 비뚤어진 속임수의 길 중 어느 길을 따라 높은 성벽으로 올라가서, 그리하여 인생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강화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 하면, 사람들은 만약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또한 의롭게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는 것이라고는 결코 이익이 아닌 뚜렷한 손실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하긴 하지만, 정의라는 평을 얻는다면 천복(天福)을 누리는 생활은 자기 차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듯이 진실에까지 난폭한 짓을 하는 것이고, 또 행복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정성을 다해서 그것으

11. 셀레네(Selene): 그리스 신화의 여신. 때론 아르테미스(Artemis: 제우스와 레토 사이의 딸)와 동일시하기도 함.

로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집의 앞면과 겉치장을 위해서는 덕의 그림으로 둘러싸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 뒤에는 가장 지혜로운 아르킬로코스[12]의 교활하고 요사스런 여우를 숨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누군가가 말하겠지요. "나쁘기도, 그리고 결코 들키지 않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과연 다른 일에서도 위대한 일은 무엇이거나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만약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말의 발자취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즉,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집회를 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것이다. 또 공공 회의의 지혜나 법정의 지혜를 주는 설득의 선생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득할 수도 있겠고, 힘으로 억누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벌금 한푼 안 물고도 이득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신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도, 또 신들을 힘으로 억누를 수도 없다." "그런데, 만약 신들이 없거나 또는 신들이 인간들의 일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면, 우리도 들키는 것에 어째서 마음을 쓸 까닭이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신들이 있어서, 우리들 일에 개의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들의 일을 알거나 듣거나 하는 것은 법률이나 시인들이 지은 신의 족보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신들이 '제물이나 겸손한 기도'나, 또 헌금으로 마음을 돌리고 설득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시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다 믿거나 아니면, 하나도 믿지 않거나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믿어야 한다면, 부정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얻은 것 중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면 신에게서만 벌을 받지 않으면 되겠지만 부정에서 얻은 이익은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다면, 그 이익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 죄를 범한 데 대해서는 기도로 신들을 설득해서 벌을 받지 않고 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승에서는 이승에서 저지른 부정한 행실로 해서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12. 아르킬로코스(Archilochos): 기원전 7세기(다른 주장도 있다) 전반의 서정시인. 그의 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계산을 해 보고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보게, 비법이나 속죄의 신들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것도, 신들의 자손인 시인들도, 그리고 신들로부터 와서 그것은 그렇다고 알려 주는 예언자들도 그렇게들 말하고 있으니까."

9.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근거로 해서 최대의 부정보다는 정의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정을 잘 감추어 두어서 그것을 차지한다면, 신들이나 인간들이나 다 함께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우리 마음에 맞도록 지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여러 훌륭한 권위자들의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소크라테스 님 어떤 사람이 영혼아라든가, 돈이라든가, 신체라든가, 또는 가문이라든가의 힘을 얼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정의를 존중하고 싶어지겠는지요. 그보다는 오히려 정의가 찬양받고 있는 것을 듣고도 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가 얘기해 온 것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고, 또 정의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실히 인정한다 해도, 역시 부정한 사람을 너그럽게 보고 화를 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태어난 것이 거룩해서 부정을 싫어하거나, 또는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피하거나 하지만, 이런 것들 말고도 누구 하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자가 없으며 단순히 겁이 많거나 늙었거나 어떤 다른 약점 때문에 부정을 행할 수 없어서 그것을 비난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정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그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부정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다름아닌 이것입니다, 즉 얘[13] 나 제가 말한 것이 처음부터 소크라테스 님, 모두 선생님을 향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참 이상도 한 일이다. 그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옛 영웅들

13. 자기 아우인 글라우콘을 가리킴.

로부터 지금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정의를 찬양한다고 하는 자네들 중의 어느 누구도, 그 평판이나 명성이나 보수 때문에만 부정을 비난하고 정의를 찬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각각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신들이나 인간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무엇을 그 자신의 힘으로 하는가를, 즉 부정이란 영혼이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악(惡)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 또 정의란 가장 큰 선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시에서나 산문에서나, 말을 가지고 철저히 고찰한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 처음부터 자네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여 우리를 젊어서부터 설득했더라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서로 감시할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마다 부정을 함으로 해서 악 중의 가장 큰 것에 한몫 들기를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가장 잘 지켰을 테니까."

"소크라테스 님, 제 생각으로는 정의와 부정에 관하여 트라시마코스나 그밖의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외에도 많은 것에 대하여 거꾸로 뒤집어 말하려 하겠지요. 그러나 저로서는 선생님께 조금도 숨기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보다는 정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선생님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둘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한쪽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또 그 자신을 위해서 선하게 하고, 다른 쪽은 악하게 하는지 보여 주십시오. 즉, 글라우콘이 재촉했듯이 그 각각의 평판을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각각에서 그 고유의 평판을 제거해서, 그것에 속해 있지 않은 평판을 덧붙이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사실상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인 듯이 평판되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계시고, 또 사실상의 부정이 아니라 부정인 듯이 평판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부정하되 들키지 말라고 권유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또 정의란 다른 사람의 선이고 강자의 이익이지만, 부정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이고, 약자에게는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트라시마코스에게 동의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정의가 가장 큰 선 중의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셨는데, 그 가장 큰 선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위해서만이 아니

라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이를테면 보기 · 듣기 · 생각 · 건강이나 그밖에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순수하고 참다운 모든 다른 선처럼, 그 자체로서 그 자체를 위해서 차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의에 관해서도, 그 자체로서 그 자체에 의해서 그 소유자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가 칭찬하시고, 또 부정은 그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가 비난하시고, 보수나 평판을 칭찬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즉 그 결과로써 생기는 평판이나 보수를 칭찬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식으로 정의를 찬양하고 부정을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강요하시지 않는 한 참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것만을 탐구하면서 한평생을 지내 오셨으니까요. 그러니 정의가 부정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둘은 신들이나 인간들에게 감춰지건 말건 그 자체로서, 그 자체에 의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한쪽은 좋고, 다른 쪽은 나쁜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 나는 늘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사람됨을 칭찬해 왔지만, 그때도 그것을 듣고 어찌나 기뻤던지 이렇게 말했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군. 자네들이 메가라의 싸움[14]에서 용명을 떨쳤을 때, 글라우콘의 애인[15]이 자네들을 위해서 지은 시의 첫머리는 작히나 훌륭하이. 그는 이렇게 읊었지—

아리스톤[16]의 아들들, 고명한 아버지의 거룩한 자제들.

14. 기원전 424년의 전투와 409년의 전투 중의 어느 것인지 분명치 않다.

15. 크리티아스(Critias, 460~403 B.C): 아테네의 30인 전제(專制) 지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

16. 아리스톤(Ariston)은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따라서 플라톤)의 아버지 이름이지만 "가장 훌륭한(aristos)"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9권 580c 참조.

이것은 말일세, 여보게들, 내겐 옳다고 생각되네. 왜 그런고 하니 자네들은 부정을 위해서 능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부정이 정의보다 좋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건 자네들에게 확실히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일세. 과연 자네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네—자네들의 사람됨이 그 증거지. 왜냐하면 자네들의 말만으로는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니까—그러나 자네들에게 대한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당황하게 되는군. 나는 정의를 구해 낼 수가 없으니까. 내겐 그 힘이 없다고 생각되니 말일세—그런데 그 증거는 트라시마코스와의 얘기에서 정의가 부정보다 더 좋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자네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일세—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해내기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일세. 왜냐하면 정의가 욕을 먹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방관만 하고 돕지 않고, 또 내 몸에 숨어 남아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구해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신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나 아닌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의를 돕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세."

그러자 글라우콘과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날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를 구해내도록 해서 말을 중단하지 말고 그 둘이 각각 무엇이며, 또 그것들의 이익에 관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잘 검토해 달라고 간청하더군. 그래서 나는 생각에 떠오른 것을 말했네. 즉 "우리가 손대고 있는 탐구는 쉬운 일이 아니고 날카로운 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군. 왜냐하면 우리는 영리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그 탐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네. 즉, 그것은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서 작은 글자를 읽도록 명령을 받아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같은 글자가 어딘가 딴 곳에도 더 큰 자리에 더 큰 글자 안에 씌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내 생각으론 그들은 그것을 다행스런 발견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큰 글자들을 읽고, 다음에 작은 글자들이 같은가 어떤가를 살펴볼 것일세."

"과연 그렇죠" 라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했네. "그러나 소크라테스 님, 정의의 탐구

에서는 무엇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걸 말해 주지. 정의란 한 개인에게 딸려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나라 전체에 딸려 있기도 하다고 우린 말하지."
"그렇습니다."
"나라는 개인보다 큰 것이 아닌가?"
"큰 것이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아마 정의는 더욱 큰 곳에 더욱 큰 것으로 있어서 발견하기가 더욱 쉬울 걸세. 그러니 자네들이 원한다면 우선 나라 안에서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하도록 하세. 그리고 그 다음엔 더욱 작은 모습 안에서 더욱 큰 것을 닮은 점을 찾으면서, 개인에게서도 탐구하도록 하세."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에서 나라의 발생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또한 나라의 정의와 부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알 것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그 일을 마치고 날 때,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을 더욱 쉽게 보리라는 희망도 있지 않겠나?"
"확실히 그렇죠."
"그렇다면 자네들은 이 일을 굳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으론,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니 잘 생각해 보게."
"그건 이미 생각했죠" 라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했네.
"제발 그만두지 마시고 진행시켜 주십시오."

11. "자, 그러면 나라라는 것은, 내 소견으로는 우리들 각자가 자기 혼자만으로는 자급자족하기 어렵고 자연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지. 혹시 나라의 발생에 무슨 다른 기원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니죠, 없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그 결과로써, 각각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해서 또 딴 사람을 불러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협동자요 원조자로서 한 주거지에 모으게 되는데, 이 공동 주거에다 우리는 나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경우에 따라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교환할 때, 그 각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욱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론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라를 만들어 보세나. 그런데 그걸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들의 필요에서 나온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 으뜸가고 가장 큰 것은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한 양식의 마련일세."

"확실히 그렇죠."

"둘째 번 필요는 집의 마련, 셋째는 옷이나 그런 것들의 마련일세."

"그건 그렇죠."

"자, 그렇다만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마련할 수가 있겠나? 그것은 농부 한 사람, 건축공 한 사람, 거기다 또 직조공(織造工)이 한 사람 있어야 가능하겠지? 게다가 또 신기료장수나 아마 신체상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보태야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만큼의 나라는 넷이나 다섯 사람으로 되겠네."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어떻겠나? 이들 각 사람마다 제 자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으로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겠지? 이를테면, 농부의 경우 네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마련하고 그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 배의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거나 아니면 남들은 개의할 것 없이 제 한 몸만을 위해서 그 곡식의 4분의 1만을 그 시간의 4분의 1에 생산해 내고, 나머지 4분의 3 중

에서 집을 마련하고 옷을 만들며, 그리고 신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내고, 귀찮게 남들과 사귈 것도 없이 그저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일만을 꾸려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아데이만토스가 말하더군. "그건 아마 소크라테스 님, 먼저 것이 나중 것보다 쉽겠습니다."

"그렇지" 라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그렇다는 데는 결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 왜 그런고 하니 자네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혼자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즉 첫째로, 우리는 저마다 나면서부터 서로 다른 것처럼 소질도 다르고, 따라서 각기 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 말일세. 자넨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부리는 경우와 일인일기(一人一技)의 경우 어느 쪽이 더욱 훌륭하게 일할 수가 있겠나?"

"그건 일인일기의 경우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그런데 어떤 일의 시기를 놓치면 그 일을 망치고 만다고 생각되네."

"그건 분명하죠."

"왜 그런고 하니, 일이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형편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니,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부업처럼 삼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일세."

"그래야 하죠."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그의 적성에 맞게, 그리고 다른 일에는 손대지 말고 시기에 맞게 행할 때 더욱 많은 것들을 더욱 훌륭하게, 그리고 더욱 쉽게 이루어낼 수가 있네."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아데이만토스, 우리가 앞서 말한 것들을 마련해 내기 위해서는 네 사람보다 더 많은 국민을 필요로 하네. 왜냐하면 농부의 경우는 제 자신을 위한 쟁기를, 만약 그것이 훌륭한 것이라야 한다면 자기가 만들지는 못할 것일세. 괭이도 그렇고, 또 그밖에 농사에 쓰이는 어떤 연장들도. 그리고 또 건축공도 그럴 걸

세. 그 사람도 많은 연장을 필요로 하네. 또 직조공도, 신기료장수도 마찬가질세. 안 그런가?"

"옳습니다."

"그렇다면 목수나 대장장이나 그밖에 그런 수많은 기공(技工)들이 우리들의 조그만 나라의 성원(成員)이 되어서 인구밀도를 높여야 할 걸세."

"그렇죠."

"그러나 농부가 밭갈이를 위해서 소를 부리고, 건축공도 농부도 짐을 나르기 위해서 멍에를 멘 짐승을 부리고, 또 직조공이나 신기료장수가 가죽이나 양털을 쓸 수 있도록 소나 양을 치는 사람들과 그밖에 그런 목자들을 포함시킨다 해도 역시 그것은 그다지 큰 나라는 못될 걸세."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한다면 그건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입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땅에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세."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럼, 또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들여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일세."

"그래야겠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와야 한다면, 그들의 심부름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만약 빈손으로 가면 역시 빈손으로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 안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충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들은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양과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야 하네.

"그래야죠."

"그러면 우리들의 나라에서는 더욱 많은 농부들과 그밖에 더욱 많은 다른 기공들을 필요로 하네."

"그렇죠, 더욱 많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오고 밖으로 내가는 심부름꾼들이 더욱 많아지겠네. 이들이 곧 무역상이겠지, 안 그런가?"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역상을 필요로 할 것일세."
"그렇죠."
"그리고 그 장사가 바다를 건너는 것이면, 바다의 일에 능숙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일세."
"그렇죠, 많이 필요할 겁니다."

12. "그럼 또, 어떻겠나? 나라 안에서는 각자가 만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들 교환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물건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나라를 세웠던 것일세."
"분명하죠, 그건. 팔고 사고하면서요" 라고 말했네.
"그러면 그 결과로 장터와 교환을 위한 징표로서의 돈이 생겨나게 될 것일세."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농부나 어떤 다른 기공이 그가 만든 물건을 장터로 가져갔는데, 그가 물건을 교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 시각에 만나지 못한다면, 자기 일을 제쳐 놓고 장터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할까?"
"아니죠. 결코 그렇겐 안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에 착안해서 그들의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들은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몸이 약한 사람들과 무슨 다른 일을 하기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터에 머물러서, 무엇인가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두었다가,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래서 그 필요성이 우리들의 나라에 장사꾼을 생기게 한 것일세. 그런데 팔고 사는 일을 맡아 하기 위해서 장터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장사꾼이라고 부르고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무역상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렇죠."
"게다가, 내 생각으론 또 다른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정신적인 일에서는 그 공동체의 성원될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힘드는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세. 그들은 자기의 힘을 팔아 돈을 받는, 그 돈을 품삯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날품팔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그렇다면 날품팔이도 역시 나라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러면 아데이만토스, 우리들의 나라도 이젠 성장해서 완성된 셈인가?"
"아마……"
"그러면, 대체 나라 안의 어디에 정의와 부정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찰해 온 것들 중의 어느 것과 함께 생기는 것일까?"
"소크라테스 님,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선가 아마 이 사람들이 서로 남을 필요로 하는 데에 정의와 부정이 개입해 있지 않은지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 라고 내가 말했네. "아마 옳은 말이겠지." 그러나 고찰해 보아야 하네, 주춤하지 말고. 그래서 첫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어느 정도인지 고찰해 보기로 하세. 그들은 곡식 · 술 · 옷 · 신 등을 만들지 않을까? 또 집을 짓고, 여름에는 대개 옷을 입지 않고 맨발로 일을 하겠지만, 겨울에는 잘 껴입고 신도 신고 있겠지.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보리로는 보릿가루를, 밀로는 밀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을 반죽하고 구워서 보기 좋은 과자와 빵을 만들어, 갈대나 정갈스런 잎사귀 위에 놓고, 넝쿨나무와 소귀나무로 짠 평상 위에 앉아서 애들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머리에 꽃관을 쓰고서, 신들의 찬미가를 부르고, 즐겁게 서로 함께 살 것일세. 그리고 가난이나 전쟁이 두려워서 그들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애를 낳고 말일세."

13. 그때 글라우콘이 껴들어서,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에게 반찬도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더군.

"그건 옳은 말이야. 그들이 반찬을 가지리라는 것을 잊고 있었네. 그들은 소금이나 올리브유나 치즈 등을 써서 양파나 시골서나 얻을 수 있는 야채를 익혀 가지고 반찬을 만들 것일세. 그리고 아마 식후에는 무화과나 완두나 콩을 그들에게 내놓겠고, 또 소귀나무 열매라든가 도토리를 불에 구워 그것을 안주로 해서 적당하게 술을 마실 걸세. 이렇게 해서 평화롭고 건강하게 생활을 이끌다 늙어 죽게 되면, 자손들에게 그들이 지낸 것과 같은 생활을 물려줄 것일세."

"그러자 그는,"소크라테스 님, 그러나 만약 선생님께서 돼지들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것들 말고 무엇을 돼지들에게 먹이시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글쎄, 그렇다면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글라우콘?" 하고 내가 말했네.

"일상적인 관례대로 하는 거죠. 즉, 그들이 초라하지 않은 생활을 해야 한다면, 침상 위에 누워 자고,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오늘날 먹는 것과 같은 반찬과 디저트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됐네. 알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아무래도 우리는 그냥 나라의 발생만이 아니라 사치스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를 고찰하고 있는 것 같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해로운 일이야 없겠지. 왜 그런고 하니 그런 나라도 고찰 해보면, 도대체 정의와 부정이 어떻게 나라들 안에서 생겨나는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일세. 그런데 나로서는 내가 말한 나라가 참다운 것, 즉 건전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래도 자네가 원한다면, 열병에 걸린 나라도 살펴 보도록 하세. 아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없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에서 든 것들도 만족치 못하고, 또 그 생활양식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침상이나 식탁이나 그밖에 다른 가구, 그리고 또 좋은 반찬이나 향유, 그리고 향수나

기녀(妓女)[17] 또는 과자와 그런 따위의 갖가지들을 더 갖게 될 것일세.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겨우 필요한 것들, 즉 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 이외의 것들도 만들지 않으면 안되네. 오히려 그림이나 자수(刺繡)도 시작해야 하고 황금이나 상아 같은 것들도 수집하지 않으면 안되네.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또, 우리는 나라를 더욱 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 건전한 나라도 이젠 충분치 않네. 꼭 필요해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 크게 늘어나고, 다량으로 나라를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일세. 이를테면, 사냥꾼이나 온갖 모방가(模倣家), 이 모방가들 중 많은 사람들은 형태와 빛깔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곧 시인들과 그 조력자들, 즉 음송가(吟誦家) · 배우 · 무용가 · 흥행가일세.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기공(技工)들, 그중에서도 이를테면 여자들 패물을 만들어내는 기공같은 사람들로 채워야 하네. 그뿐 아니라 더욱 많은 사용인들이 필요할 걸세. 자넨 가정교사 · 유모 · 보모 · 가정부 · 이발사 · 요리사, 빵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가? 그리고 또, 돼지 치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이들은 우리들의 먼저 번 나라에는 없었던 것일세—전혀 필요가 없으니까—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이것들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밖에 만약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갖가지 가축이 많이 필요할 걸세. 안 그런가?"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산다면, 전보다 더 많은 의사도 필요하게 되겠지?"

"그렇군요."

17. 여기 기녀라고 번역한 hetairai라는 말은,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여염집 여자는 아니다. 첩 · 고급창녀, 잔치에서 여흥을 돋우는 여적수(女笛手)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개중에는 높은 교양을 갖춘 여자들도 있었다.

14. "그렇게 되면 그 인구를 넉넉히 부양할 수 있었던 땅도 이젠 충분치 못하게 되고, 너무나 부족하게 될 걸세. 이건 내 생각인데,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목축을 하고 경작을 하기에 충분한 땅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이웃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가져야 하겠고, 또 그들 역시 겨우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재물을 무제한 얻으려고 설친다면, 우리에게도 꼭 같이 하고 싶어할 것이 아닌가?"
"불가불 그렇게 되겠지요, 소크라테스 님"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것은 전쟁이겠지, 글라우콘? 아니면 무엇이 일어날까?"
"말씀하신 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하세. 그보다도 전쟁이라는 것과 나라들에 있어서 사적 공적으로나 가장 큰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언제나 물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해 두세나"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여보게, 그러면 또 결코 적은 수의 군대가 아니라 군대 전부를 가지고 나라를 더욱 크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그 군대란 전 재산과 방금 우리가 말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군하고, 침략자와 싸우는 것일세."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그들만으로 그렇게 싸우기에는 충분치 않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충분치 않지, 만약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있을 때, 자네나 우리 모두가 서로 합의를 본 것이 옳다면 말일세. 그런데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에 능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나? 전쟁에 관한 일은 기술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전쟁의 기술보다는 신발 만드는 기술에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기료장수가 동시에 농부가 되고, 직조공이 되고, 건축공이 되는 것을 허락치 않고 신기료장수는 다만 신기료장수이기만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신발 만드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적성이 그에게 맞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평생 다른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오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각 사람에게 하나씩 주었네. 하물며 전쟁에 관한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아니면,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서, 농부나 신기료장수, 또는 그 밖에 다른 직공이면서 동시에 군인일 수가 있겠는가? 하기야 장기나 주사위 놀이에서도, 어려서부터 오직 그것에만 전념하지 않고서 그저 오다가다 해서야 어느 누구도 능숙해지진 못하네. 다른 어떤 연장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기공이나 운동선수가 되지는 못하며, 또 연장이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그것을 쓰기 위한 충분한 훈련도 쌓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도, 방패라든가 그밖에 무슨 전쟁 무기나 연장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당장에 중무장병의 전투나 그밖에 어떤 전투에서 겨룰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경우의 연장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네.

15. "그렇다면" 하고 내가 말했네. "방위자[18]의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다른 일보다도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고도의 기술과 훈련이 필요할 것일세."

18. 나라의 방위자 또는 수호자(phylax)는 이상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방위자에는 군인 계급과 지배자 계급이 포함되는데, 전자(前者)는 "보조자(epikoupos)" 또는 "조력자(boethos)" 라고 불린다. 제2권 414b 참조.

"과연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또 그 일에 맞는 적성도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야 물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누가, 그리고 어떤 본성이 나라의 방위에 맞는지 그것을 골라내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 같군."
"그렇죠.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닐세.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해보지 않으면 안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래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방위라는 일을 위해서는 혈통이 좋은 개와 가문이 좋은 젊은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건 말일세, 그들은 다같이 적을 발견하는 데 감각이 예민하고, 일단 발견한 것을 뒤쫓기에 날쌔고, 그리고 잡다가 싸워야 할 경우엔 강하기도 해야 한다는 뜻일세."
"그렇죠. 그 모든 성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잘 싸우려면 용감해야지."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기백이 없으면 말이건, 개건, 그밖의 어떤 짐승이건 과연 용감해질까? 기백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려운지, 그리고 영혼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 전체가 모든 것에 직면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없고 끄떡도 안하는지, 자넨 그것을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자의 신체적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영혼의 특징은 기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네."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글라우콘, 그들의 본성이 그러하면 그들끼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찌 거칠게 굴지 않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제우스에 맹세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도 그들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순하지만, 적에 대해서는 사나워야 하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파멸시키기 전에 자기들 자신이 먼저 파멸하고말 걸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순하기도 하고 동시에 높은 기개도 있는 성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건가? 왜 그런고 하니 순한 본성은 기개 있는 본성과는 확실히 대립되니까"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결코 좋은 방위자는 못되네. 그런데 그 둘을 다 갖기란 불가능한 것 같고, 따라서 그 결과로 좋은 방위자는 생기지 못한다는 것이 되네."

"그런 것 같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여기서 나는 난처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여보게, 우리가 난처하게 된 건 당연하이. 우린 우리 자신 앞에 둔 모습에서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결국 없다고 생각했던 본성, 즉 그 반대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짐승들에서, 그러나 특히 우리가 방위자와 비교한 것에서 볼 수 있을 것일세. 자넨 분명히 혈통 좋은 개에서 보았지만, 그것들의 타고난 성격은 낯이 익은 사람들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없이 온순하지만, 그러나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반대일세."

"네,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위자에게서 그런 성격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자연에 어긋나지 않을 걸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런 것 같군요."

16. "그런데 방위자가 될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불가피한 성질이 있는데, 기백 있는 것 말고도 또 그 본성에서 지혜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는 말했네.
"이것도 자네가 개한테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 짐승에서 정녕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만한 것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낯선 사람을 보면, 그전에 아무런 해를 입은 일이 없었는데도 성을 내지만, 그러나 낯익은 사람을 보면, 한번도 그에게서 귀염을 받은 일이 없어도 반가워한다는 점일세, 자넨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뭣인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개의 이 본능은 매우 예민해서 확실히 참다운 지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일세."
"어떤 점에서 말씀입니까?"
"친구의 모습과 적의 모습을 단순히 한쪽은 알고 다른 쪽은 모른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분간한다는 점에서 말일세. 그러나 그것이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지(知)와 무지로 분간한다면, 어찌 학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그렇다 할 순 없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학문을 사랑하는 것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가?"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사람의 경우에도 만약 친구나 낯익은 사람들에 대해서 온화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혜를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훌륭하고 선한 방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본성이 지혜를 사랑하고, 기백이 있고, 민첩하고, 강해야 하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런 것이 그의 성격의 바탕일 것일세.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대체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고 해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고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탐구의 목적이 되는 것, 즉 정의와 부정은 나라에서 어떻게 생기는가를 발견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얘기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얘기가 지리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세."

그러자 글라우콘의 형이 말하더군.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 고찰은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보게 아데이만토스, 비록 그 고찰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네."

"안되고 말고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 마치 옛날 얘기나 하면서 한가히 보내는 사람처럼, 담론을 통해 그 사람들을 교육해 보기로 하세."

"그러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17. "그렇다면 그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발견된 교육보다 더 훌륭한 것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인가? 생각컨대 신체를 위한 것은 체육, 영혼을 위한 것은 음악[19]일 걸세."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은 체육보다 먼저 음악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넨 음악에다 얘기[20] 까지도 포함시키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네, 포함합니다."

"그런데 얘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다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것이지?"

"네."

"그리고 그 두 가지 얘기로 교육해야 하는데, 우선 거짓된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우리는 우선 얘들에게 옛날 얘기를 들려 준단 말야. 그러나 그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거짓이지만, 거기엔 참다운 것도 포함되어 있네. 그리고 우리는 체육보다도 옛날 얘기를 먼저 얘들에게 들려 주고 있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일세. 즉 체육보다 먼저 음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19. 여기서 편의상 "음악"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리스어의 mousike에 해당하는 말은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없다. 굳이 그 뜻에 가까우려면, 음악 중심의 예술과 글자로 된 것이라는 뜻에서 "예문(藝文)"이라고나 할까. mousike라는 말은, Mousai(學藝의 여신들)가 주관하는 학술과 기예(技藝), 즉 넓게는 문학적 · 조형적 · 필사적(筆寫的) · 음악적 · 知的(철학적) 모든 기술(예술)을, 좁게는 특히 음악과 시를 가리킨다.

20. 얘기(logos)란 넓은 뜻에서 옛날 얘기 · 전설 · 신화 · 시나 산문의 설화(說話) 등을 말함.

말일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서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무엇이든 젊고 어린 것을 다루는 데에 그렇다는 걸 자넨 모르는가?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가장 틀이 잘 잡히고 또 누구든 그것에다 찍어 내고 싶은 본(型)이 정해지기 때문일세."

"과연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우연한 사람이 말해 주는 얘기를 애들이 우연히 듣고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 영혼 속에 깃들게 하려고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거의 정반대 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허락해도 괜찮을까?"

"그야 결코 허락해선 안되죠."

"그러고 보니, 우선 우리는 얘기를 들려 주는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군.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훌륭한 얘기는 장려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물리쳐야 하네. 그러나 장려한 얘기는 유모나 어머니들이 애들에게 들려 주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형성하도록 하는 거야. 신체를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함을 설득해야 하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들려 주는 얘기는 물리쳐야 하네."

"대체 어떤 얘기들인가요?" 라고 그는 말했네.

"보다 큰 얘기들에서 우리는 보다 작은 얘기들을 볼 수 있을 걸세. 왜 그런고 하니 보다 큰 얘기도 보다 작은 얘기도 모두 틀은 같고, 또 효과도 같을 것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큰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건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그리고 그밖에 시인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을 말하네. 왜냐하면 이 시인들은 확실히 거짓 얘기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고,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얘기이고, 또 그것들에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고 계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것은 우선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비난받을 만한 잘못일세. 특히, 만약 그 거짓말이 그 안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신들이나 영웅들의 참다운 성격을 나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일세. 마치 화가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는 경우처럼 말일세."
"그렇죠. 과연 그런 따위의 짓을 비난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말로 우리는 비난합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무엇보다도 먼저 우라노스[21]에 관한 얘긴데 그의 행위와 그리고 이번엔 크로노스[22]가 그 신에게 복수를 했다[23]고 말한 헤시오도스는 가장 큰 일에 관해서 가장 큰 거짓말을 아주 서투르게 했네. 그러나 확실히 크로노스가 한 짓이나 그 아들에게서 당한 일[24]은 설사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철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 일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상책일세. 그러나 만약 꼭 얘기할 필요가 있다면,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듣도록 새끼돼지가 아니라 무엇인가 큼직하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을 바친 다음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래 들려줘야 할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 얘기들은 과연 심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아데이만토스, 그리고 그 얘기들은 우리들 나라에서는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일세. 또 젊은 사람이 듣는 데서 그가 끔직한 짓을 저지르건, 또 부정한 짓을 한 아

21. 우라노스(Ouranos): 하늘의 신.
22. 크로노스(Kronos): 우라노스와 땅의 신(Ge 또는 Gaia)과 사이의 막내 아들.
23. 우라노스는 그 자식들을 미워해서, 땅밑의 타르타로스(Tartaros)에 가뒀는데, 크로노스가 어머니인 가이아의 선동을 받아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덮쳐, 성기를 자르고, 왕의 자리를 뺏었다는 얘기.
24. 크로노스도 왕위의 앞날이 두려워 태어난 애들을 다 삼켜버렸다. 왕비인 레아(Rhea)는 제우스(Zeus)를 잉태했을 때, 가이아의 꾀로 도망쳐 그 화를 면하고 성장해서 아버지 크로노스를 타도하고 왕위를 뺏었다는 얘기.

버지를 어떤 식으로 곯려 주건 별로 대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저 신들 중에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신들이 행한 대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네."

"결코 안되죠."

"그런 얘기는 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또 신들끼리 싸운다든가, 서로 음모를 꾸민다든가 다툰다든가—그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라는 따위의 말은 결단코 해서는 안되네. 만약 우리들 나라의 미래의 방위자들이 경솔하게 서로 다투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믿길 바란다면 말일세—또 그들에게 거신(巨神)들의 싸움[25] 이나, 그 밖에 다른 신들이나 영웅들이 자기의 동족이나 가족들과 많이, 그리고 갖가지 다툰 얘기를 들려 주거나, 수(繡)를 놓거나 해서는 결코—오히려 국민 어느 누구도 다른 국민과 다툰 적이 없고, 그런 일은 경건치 못하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면, 그런 것은 오히려 노인네들이 일찍부터 애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하고 또 애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을 위해서 시인들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짓도록 강요해야 하네. 그러나 헤라[26]가 아들[27] 손에 결박당한 일이라든가, 헤파이스토스가 매를 맞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막으려다가 노한 아버지와 손으로 하늘에서 추락당한 일[28] 이라든가, 그리고 또 호메로스가 시로 지은 신들의 싸움[29] 따위들은 그것들이 비유적으로 지은

25.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에 의해서 성기를 잘렸을 때, 거기서 흐른 피가 땅 가이아에 떨어져서 태어난, 큰 몸집에 강한 힘을 떨친 와신(互神)들(Gigantes)로서, 용감한 전사. 제우스나 신과 싸워서 죽기도 하고, 땅밑에 갇히기도 했다고 했다.

26. 헤라(Hera): 올림포스의 여신 중, 제우스의 정실(正室)(단, 헤시오도스는 메티스 · 테미스에 이어 세 번째 아내라고 함)로서 최대의 여신. 결혼과 아기, 여성의 성생활의 수호신.

27.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로서, 대장장이 일과 불의 신(神)인 헤파이스토스(Hephaistos)를 가리킨다. 그 어머니 헤라는 그가 고안해서 만든 마법의 걸상에 앉아서 꼼짝 못하고 묶였다. 그건, 그가 나면서부터 절름발이라고 헤라가 노여워 해서 바다에 떨어뜨렸었는데, 그 복수를 한 일이었다.

28. 《일리아스》 I, 586~594 참조.

29. 《일리아스》 XX, 1~74, XXI, 386~513 참조.

것이든 아니든 우리들의 나라에 받아들여서는 안되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무엇이 비유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간하질 못하고, 무엇이건 그 나이에 그들이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 사라지지도 않고 또 고칠 수도 없는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일세. 바로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아마 그들이 맨 처음 듣는 얘기는 덕의 가장 훌륭한 교훈이 되도록 지어져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네" 라고 내가 말했네.

18. "과연 그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다시 또 그것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그 얘기들이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말했네. "아데이만토스, 나와 자네는 지금 시인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일세. 그러나 창건자에게 맞는 것은, 시인들이 얘기를 지을 경우에 지켜야 할 본을 아는 일일세. 그리고 그들이 그 본을 어겨서 짓는다면 허락되어서는 안되네. 그렇다고 해서 창건자가 얘기를 지어서도 안되네."

"옳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즉, 신들의 얘기를 위한 본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물었네.

"무엇인가 이런 것이겠지. 한 시인이 서사시나 서정시나 비극에서 신에 관하여 말한다면, 신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언제나 나타내지 않으면 안되네" 라고 나는 말했네.

"과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신이 참으로 선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건 왜 물으시죠?"

"그런데 선한 것 중에는 아무것도 해로운 것이 없네, 안 그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해롭지 않은 것이 해를 입힐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해를 입히지 않는 게 무슨 악한 일을 할까?"

"역시 아니죠."

"그러나 아무 악한 일도 안하는 것이 무슨 악한 일의 원인일 수는 없겠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겠나, 선한 것은 이롭지?"
"네."
"그렇다면 행복의 원인이지?"
"네."
"그러면 선한 것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고 좋은 것들의 원인이긴 하지만, 나쁜 것들의 원인은 아닌 셈일세."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신은 선한 것인 만큼 흔히들 말하듯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는 매우 적은 것들의 원인이며, 많은 것들의 원인은 아닐세.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은 나쁜 것보다 훨씬 적고, 또 좋은 것의 원인으로서는 신(神)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구해선 안되며, 또 나쁜 것의 원인으로서는 신이 아니라 무슨 다른 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과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는 말했네. "우리는 호메로스나 그밖에 어떤 다른 시인으로 부터도 신들에 관한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네. 즉,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제우스의 문전에 두 술독이 운명을 담고 있다.
하나는 호운(好運), 또 하나는 악운.

그리고 제우스가 누군가에게 그 둘을 섞어서 주니까

때로는 그를 즐겁게, 때로는 그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악운만을 섞고 다른 아무것도 섞지 않은 것을 주니,

탐욕의 굶주림이 그를 몰아서 넓은 세계를 헤매게 한다.

또 제우스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준다.

라고 하는 등등의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되네.

19. 그리고 판다로스[30]가 서약이나 협정을 어긴 것은 아테나[31]나 제우스의 탓으로 생겼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32] 그것을 우리가 칭찬해서는 안되고, 또 신들의 싸움이나 심판[33]이 테미스와 제우스 탓으로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인정할 것이 아니고, 또 아이스킬로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듣도록 해서는 안되네. 즉—

신은 어느 집 하나를 망치려고 들면,
인간들에게 죄의 원인을 심는다.[34]

30. 판다로스(Pandaros): 트로이아(Troia) 전쟁 때, 트로이아 측의 장군으로서, 아폴론(Apollon)에게서 배웠으며 활 쏘기의 명수(名手). 휴전협정을 깨고, 그리스 장군 메넬라오스(Menelaos)와 디오메데스(Diomedes)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31. 아테나(Athena): 제우스와 메티스(Metis)와의 딸로서 그리스 여신. 모든 기술 · 음악, 특히 전쟁의 여신으로서, 늘 무장을 하고 위엄있는 처녀신이다.

32. 《일리아스》 VI 69 참조.

33. 헤라 · 아테나 · 아프로디테(Aphrodite)의 세 여신이 신들에게 던진 황금의 사과 때문에 싸우게 되자 파리스(Paris)가 그것을 심판한 일.

34. 아이스킬로스의 《斷片》 160 참조.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런 이암보스[35]의 시를 포함하고 있는 시 같은 니오베[36]의 수난이라든가 펠로프스[37] 집이나 트로이아 전쟁의 얘기라든가, 또는 그 밖에 같은 따위의 얘기를 만든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되고, 혹시 신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찾고 있는 바와 같은 어떤 설명을, 그들은 발견해야 하네. 그리고 신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선한데, 그들은 징벌로 말마암아 이득을 받았다고 말해야 하네. 그러나 벌을 받은 사람들은 비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시인이 말하도록 허락해서도 안되네. 다른 편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참했지만, 벌을 받음으로써 신에게서 이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허락되어야 하네. 그러나 신은 선량한데도 누군가에게 화근이 된다는 주장은 만약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바란다면, 제 나라에서는 그것을 젊은이가 듣건 늙은이가 듣건, 또 그 얘기가 운율을 가지고 있건 없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가 그것을 듣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경건치 못한 일이고 이로울 것도 없고, 그것들 스스로 조리가 닿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일세."

"저는 선생님과 함께 이 법률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마음에 드는군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것이 신들에 관한 법률이나 본의 한 가지겠는데, 거기 따라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오직 선량한 것만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얘길 하고, 시인은 시를 지어야 하는 것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35. 이암보스(iambos): 그리스 시의 운율(韻律)의 형식으로서, 단장율(短長律), 즉 ⏑—⏑— | ⏑—⏑— | 를 일절로 하는 단위로서 그것을 세 번 거듭한다. ⏑—⏑— | ⏑—⏑— | ⏑—⏑— | .

36. 니오베(Niobe): 탄탈로스(Tantalos)의 딸로서 테베 왕 암피온(Amphion)의 아내. 다산(多産)을 자랑하여, 쌍둥이밖에 없는 레토를 깔보았기에 그 둘,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자녀 전부 죽임을 당하고, 비탄에 젖어 돌이 되었다.

37. 펠로프스(Pelops): 탄탈로스의 아들. 비극의 소재가 된 아가멤논(Agamemnon) · 오레스테스(Orestes) · 엘렉트라(Electra) · 이피게네이아(Iphigeneia) 등이 이 저주받은 자손들이다.

"그건 참 만족스럽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럼 두 번째의 것은 어떤가? 신은 마술사로서 때로는 자기 모습을 바꾸어 여러 가지 모양을 하거나, 우리 인간을 속이고, 그리고 또 다른 때엔 자기에게 대해서 그런 환상을 우리 안에 안겨줌으로써 일부러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신은 단순해서 자신의 모습을 떠나는 일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장 대답할 수는 없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럼 이건 어떻겠나? 무엇인가가 자기 모습에서 떠난다면, 그 변화는 그 자신에게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것은 가장 적게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번갈아들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신체가 음식물이나 운동으로, 마치 모든 초목이 태양의 열이나 바람이나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가장 적게 변할 경우처럼,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경우가 아닌가?"

"어찌 아니겠습니까?"

"또 영혼은 가장 용감하고 가장 사려깊은 것이 밖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 동요나 변화를 가장 덜 겪게 되겠지?"

"네."

"그리고 또 합쳐서 이루어진 모든 기구나 건물이나 옷도 다 마찬가지로서, 잘 만들어지고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시간이나 그밖에 다른 영향으로 가장 적게 변화하는 것일세."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이건 또는 인공적이건, 또는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간에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른 것에 의한 변화를 가장 적게 받는 것일세."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신이나 신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모든 점에서 가장 훌륭하네."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 신은 많은 모양을 가장 적게 갖는 것일세."
"과연 가장 적은 것이죠."

20. "그러나 신은 스스로 자기를 변하고 바꾸는 것일까?"
"분명히 그렇죠. 만약 그가 바뀐다면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자기를 변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더 훌륭한 것으론가? 아니면 자기만 못하거나 자기보다 추한 것으론가?"
"그가 변한다면 더욱 못한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신에게는 아름다움이나 덕이 없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군.
"전적으로 옳게 말일세. 아데이만토스,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넨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이 제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든 더욱 나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불가능하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또, 신으로서도 자기를 변하게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신들마다 모두 될 수 있는 데까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뛰어나고 있어서, 늘 자기 모습 안에 조촐하게 머물러 있는 것 같네."
"그건 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여보게, 어떤 시인에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해선 안되겠네—

신들은 낯선 나그네처럼,
갖가지 모습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넘나든다.[38]

38. 《오디세이아》 XI IV, 485~486 참조.

또 프로메테우스[39]나 테티스[40]에 관해서 아무도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네. 그리고 비극이나 그밖에 다른 시에서도, 헤라를 여제관(女祭官)으로 변장시켜서

아르고스[41]의 이나코스 강의 생명을 주는 아들들을 위하여[42]

희사금(喜捨金)을 모으는 것처럼 끌어들여서도 안되네. 그리고 우리에게 숱한 그런 따위의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네. 또 어머니들이 그런 시인들에게 설복되어서, 어떤 신들이 여러 나라 사람의 모습으로 밤중에 헤매고 있다는 따위의 해로운 얘기를 들려주어 그 애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되네. 그렇게 하면 어머니들은 신들에게 불경스런 말을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애들을 겁쟁이로 만들게 될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런 얘긴 결코 못하도록 해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신들은 실제로는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마술을 써서 우리를 속여 신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하는가?" 라고 내가 말했네.

"아마 그렇겠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어떻겠나? 신은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속이고 싶어할까?"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넨 모든 신들이나 사람들이 참다운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39.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을 섬기는 예언에 능한 늙은 신. 예언을 들으려 해도, 온갖 변화를 부려 잡을 수가 없다.

40. 테티스(Tetis): 아킬레우스(Achilleus)의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으로 프티아(Phthia)의 왕인 펠레우스(Peleus)와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었다.

41. 아르고스(Argos):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반도의 한 중간쯤의 평야 지대에 있는 도시국가.

42. 아아스킬로스의 없어진 작품 중의 한 구절이라 한다.

만약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말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는 말했네.
"이런 말일세. 즉, 어느 누구도 가장 중요한 일에 관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진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거짓을 감추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단 말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건 내가 무슨 대단한 말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실재(實在)하는 것들에 관해서 영혼으로써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또 영혼에 거짓말을 가지고 있거나 품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무엇보다도 미워한다는 말일세" 라고 그는 말했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내가 방금 말한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참다운 거짓이라고, 즉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의 영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세. 왜냐하면 말에 있어서의 거짓은 영혼에 있어서의 이 수동적(受動的) 상태의 한 모방이고, 그것의 나중 생긴 영상(映像)이며, 아주 순수한 거짓은 아니기 때문일세. 안 그런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21. "그렇다면 본질적인 거짓은 신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말에 있어서의 거짓은 어떻겠나? 그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겐 쓸모가 있고, 따라서 미움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겠지? 그것은 적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고, 또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도 광기(狂氣)라든가 어리석음에서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나쁜 짓을 막기 위한 약으로나 쓸모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또 방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얘기들에서, 옛날의 일들의 진실에 관해서는 모르

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데까지 거짓을 진실에 가깝게 할 때 우리 행동은 쓸모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죠.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이런 이유들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거짓은 신에게 쓸모가 있는가? 그가 옛일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인 양 거짓말을 하려는 것일까?"

"그건 정녕 우스꽝스런 일일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신 안에는 거짓 시인이 없네."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적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천만에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의 무식과 광기 때문일까?"

"어리석은 자나 미친 자는 아무도 신의 친구는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신이 거짓말해야 할 까닭은 없군 그래."

"없죠."

"그러면 신령[43]이나 신은 전혀 거짓이 없는 것일세."

"그렇죠. 전혀 없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신은 행동에서도 말에서도 단순하고 참다우며, 또 스스로 변하지도 않고, 또 깨어 있을 때건 꿈꾸고 있건 간에 환상으로나, 말로나, 또는 신호를 보내서거나 다른 것들을 속이지는 않는 걸세."

"말씀하신 대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이것이 신들에 관해서 얘길 하거나 시를 짓거나 하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두 번째의 본이라는 것, 즉 신들은 마술사가 아니고 또 그들 자신을 변화시키

43. '신령'이란, 다이몬(Daimon)을 옮긴 말이다. 호메로스는 다이몬을 일반화된 신적인 힘이라 말했지만, 후에는 그 뜻이 변해서 흔히 인간과 운명, 생활에서 사람을 이끄는 심혼(心魂), 뭔가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것을 뜻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그의 언행(言行)에 밖으로부터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하나와 신호—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소리"(《변명》 31cd)라 했다—로 나타나, 뭔가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지도 않고, 말이나 행동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다는 것에 자넨 동의하겠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호메로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칭찬하고 있긴 하지만, 제우스가 아가멤논에게 꿈을 보내셨다는 얘기로 해서 그를 칭찬해선 안되네. 그리고 또 아이스킬로스도 칭찬할 것이 아닐세. 아폴론이 테티스의 결혼식에서 노래를 하면서 '내 자손들의 번창을 축복하고'—

그들의 만수무강한 일생을,
그리고 신들께서 사랑하신 내 모든 행운을 말해 주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포이보스[44]의 입이 거짓말하지 못하길 바랐다.
그 입은 성스럽고 예언의 재주에 감동해 있었기에 그런데도 그는 찬미의
노래를 불렀고, 결혼식의 손님이었으면서도,
그런 말을 스스로 노래했으면서도,
내 아들을 죽인 것은 그 자신이다.[45]

44. 포이보스(Phoibos): 아폴론 신의 딴 이름.

45. 《단편》 350 참조.

라고 말할 땐 말일세. 그리고 누군가가 신들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어 그에게 가무단(歌舞團)[46]을 주지 않을 것이고. 젊은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시를 쓰도록 선생들에게 허락하지도 않을 것일세. 만약에 방위자들이 사람의 힘자라는 데까지 신에게 경건하고 신을 닮아야 한다면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저는 그런 본(本)들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걸 법률로서 사용하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46. 가무단(歌舞團)이란 choros를 옮긴 말. 영어의 chorus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코러스는 합창만 하지만, 그리스의 코러스는 종교적인 축제에서 또 연극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합창과 무용을 겸한 것이었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제 3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그러면 신들에 관한 얘기는 이런 것 같군. 즉, 그들이 신들이나 부모를 존경하고, 서로 다정하게 지내야 한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려주거나 또는 들려주어서는 안되는 것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우리가 옳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그들이 용감한 사람이라야 한다면 어떻겠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얘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슴속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럼 어떻겠나? 누군가가 저승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가 무서운 곳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전투에서 지거나 노예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택할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얘기들에 관해서도 그것들을 마련해 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또 저승의 일을 간단히 헐뜯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도록 일러주어야 할 것 같군.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의 얘기는 정말도 아니고, 전사(戰死)할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기 때문일세."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죠"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하고 내가 말했네. "다음의 시구(詩句)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따위들을 모조리 빼버려야겠네—

나는 모든 멸망한 죽은 자의 왕이 되기보다는,
끼니도 변변치 않은 다른 가난한 사람의 농토에서
차라리 살아서 머슴노릇을 하고 싶다.[1]

1. 《오디세이아》 XI, 489~491 참조. 아킬레우스의 망령이 하는 말.

그리고 이것—

음산하고 신들조차도 싫어하시는 무서운 저승의 집이,
죽은 자들이나 죽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2]

그리고—

아아! 저런, 과연 저승의 집에는 혼백과 망령은 있건만, 마음은 전혀 없다.[3]

그리고 이것—

그에게만은 생각하는 마음을 주었지만, 다른 혼백은 날아다니는 그림자.[4]

그리고—

혼백은 육체를 떠나 날아가자 그 운명을 개탄하면서.
늠름함과 꽃다운 젊음을 버리고 저승의 집으로 갔다.[5]

그리고 이것—

2. 《일리아스》 XX, 64~65 참조.
3. 《일리아스》 XXIII, 103~104 참조. 친구인 파트로클로스(Patroclos)의 망령을 안으려 해도 안을 수 없어서 아킬레우스가 탄식한 말.
4. 《오디세이아》 X, 495 참조. 저승에 있어서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Teiresias)에 관해서 한 말.
5. 《일리아스》 XVI, 856~857 참조.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관한 말.

혼백은 가냘픈 소릴 지르면서,
연기처럼 땅속으로 들어갔다.[6]

그리고—

으슥한 바위의 굴속 깊이 박쥐 떼들이 높은 곳에 매달렸다가
그 한 마리가 바위에서 떨어지면,
날카로운 소릴 지르면서 날아다니듯,
혼백들은 지껄이면서 함께 떠나갔다.[7]

호메로스나 그밖에 다른 시인들은, 우리가 이 구절들과 그런 따위들을 지워 없애도 화를 내지 않도록 부탁할 것인데, 그것은 그런 구절들이 시(詩)답지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어주지 않는 데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시다울수록 자유로워야 하고 죽음보다는 노예됨을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애들이나 어른들이, 그만큼 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고 말고요."

2.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런 문제들에 속하는 두렵고 무서운 낱말은 모두 제거해야 하네. 즉, 코키토스[8]라든가, 스티크스[9]라든가, '악귀(惡鬼)'라든가, '송장'이라든가, 그리고 그밖에, 같은 나이의 누구든 듣는 사람을 소름끼치게 하는 그런 따위의 낱말 말일세.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아마 좋을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방위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그런 소름끼치는 무서움으로 하여, 그래

6. 《일리아스》 XXIII, 100 참조. 파트로클로스의 망령을 말한 것.
7. 《오디세이아》 XXIV, 6~10 참조. 살해당한 구혼자들의 영혼이 헤르메스(Hermes)에 이끌려서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말한 것.
8. 코키토스(Cocytos): 저승에서 흐르는 슬픔의 강.
9. 스티크스(Styx): 저승에서 흐르는 미움의 강.

서는 안될 만큼 온정적이고 연약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

"그야, 그런 걱정이야 당연하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제거해야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본으로 말하거나 시를 짓거나 해야겠지?"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유명한 남자들의 울부짖음이나 애통도 제거해야겠지?"

"앞서도 그랬으니, 이것도 불가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빼버리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생각해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은 그의 친구인 다른 훌륭한 사람에게 죽음이 무서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것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를 위해서, 마차 무언가 무서운 일이라도 당한 사람을 위하듯 애통해 하진 않을 걸세."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린 또 이렇게 말하네. 즉,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생활을 하기에 스스로 충분하고, 남들보다 월등히 다른 것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말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에게, 아들이나 형제나 재산이나 그밖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잃는다 해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네."

"전혀 없죠."

"그렇다면 또 뭔가 그런 재앙이 그를 덮칠 때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참을성 있게 견디네."

"확실히 그렇죠."

"그러면 유명한 남자들의 애통을 제거하여 여자들에게나 주는 것이 옳겠는데, 그것도 훌륭한 여자에게는 주지 않고 변변치 못한 남자에게 주는 것이 옳겠네. 그것

은 나라를 지키도록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업신여기기 때문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린 또다시 호메로스나 다른 시인들에게 여신의 아들인 아킬레우스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 않도록 요청해야겠네—

때로는 옆으로 누웠다가, 또 때로는 잦혀 누웠다가,
이번엔 또 엎드려 눕고

그런가 하면 벌떡 일어서서,

거둬들일 것도 없는 바닷가를 따라 헤매어 돌아다니고[10]

또는,

그의 두 손으로 시꺼먼 재를 쥐고는 머리에 뿌리는 자[11] *로서,*

그리고 그밖에 그 시인[12]이 그려낸 여러 경우의 갖가지 일에 대해 울며 애통해 하는 자로서 말일세. 또 신들의 가까운 집안네였던 프리아모스[13]를 이렇게 그려냈네—

10. 《일리아스》 XXIV, 10~12 참조. 아킬레우스가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한탄하는 모양을 말한 것.
11. 《일리아스》 XVI, 23~24 참조.
12. 호메로스.
13. 프리아모스(Priamos): 트로이아 전쟁 당시의 트로이아 왕. 《일리아스》에서는 이미 늙은 왕으로서 조국의 멸망과 아들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비운의 사람이다.

빌면서 진흙 바닥에 엎드려
이름을 들어서 각 사람을 불러댔다.[14]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신들을 다음과 같이 애통해 하는 것으로 그려 내지 않도록 요청해야겠네—

슬퍼라! 나는 가엾은 여인, 슬퍼라! 남다른 아들을 둔 이 불행.[15]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신들에 관해서 말한다면,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을, 이렇게까지 억지로, 비슷하지도 않게 모방하진 않도록 부탁해야 하네. 즉—

아아 슬퍼라! 사랑하는 사나이가 성벽의 둘레로 쫓기고 있는 것을
이 눈으로 보다니, 내 가슴은 아프도다.[16]

또는—

아아 슬프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르페돈[17]*이*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죽을 운명이니.[18]

라고 말하도록 할 만큼 말일세.

14. 《일리아스》 XX, 414~415 참조.
15. 《일리아스》 XVIII, 54 참조.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의 말.
16. 《일리아스》 XX, 168~169 참조. 제우스가 트로이아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인 핵토르(Hector)의 죽음을 슬퍼하는 말.
17. 사르페돈(Sarpedon): 《일리아스》에서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리키아의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아에서 그리스군의 진영을 최초로 돌파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나,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죽었음.
18. 《일리아스》 XVI, 433~434 참조.

3. 왜 그런고 하니 사랑하는 아데이만토스, 만약에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열심히 듣고서도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웃지 않는다면, 그 젊은이들 중의 누군가가 뭣인가 그런 것을 말하거나 행하고 싶어질 경우에 스스로 인간으로서 아무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참지도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불행에 대해서도 울부짖고 슬픈 애가(哀歌)를 부를 것이기 때문일세."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방금 보여준 바로는 그래서야 안되겠네. 그리고 이 주장은 누군가가 더 훌륭한 주장으로 우릴 설복시키기까지는 믿어야 하네."

"그렇죠,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확실히 웃기를 좋아해서도 안되네. 왜냐하면 격심한 웃음에 빠질 때, 거의 언제나 그런 상태는 똑같은 격심한 반대 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일세."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웃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신들이라면 더군다나 안되네."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신들에 관해서 호메로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되네—

> *억누를 수 없는 웃음소리가 축복받은 신들 사이에서 솟아올랐다.*
> *헤파이스토스가 숨이 가쁘게 그 집안을 날뛰고 다니는 것을 보고*[19]

자네 주장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세.

"그것을 제 주장이라고 부르고 싶으시다면야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받아들여서는 안되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네.

19. 《일리아스》 I, 599~600 참조.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더 나아가 진실을 높이 존중해야 하네. 왜 그런고 하니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것이 옳고, 또 거짓은 과연 신들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인간에게는 다만 약으로서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의사가 주어야 하고 여느 사람이 손댈 일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일세."
"그건 분명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속여야 한다면, 나라의 통치자야말로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적이나 국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에 손대서는 안되네. 그렇지만 우린 이렇게 말하겠지. 즉, 그런 통치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또는 체육하는 학생이 그 체육 교사에게 자기의 신체적 상태에 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배나 선원에 관해서 그 자신이나 같은 선원들의 상태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죄가 된다고 말일세."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통치자가 나라 안에서 거짓말하는 누군가를 붙잡는다면—

그런 장인(匠人)들이
예언자이건, 병을 고치는 의사이건, 목공이건 간에,[20]

그런 자는 마치 배를 그러듯, 나라를 뒤엎고 파멸시키는 일을 끌어들이는 자라고 하여 처벌할 것일세."
"그렇겠죠. 만약 말뿐이 아니라 결국 행동이 따른다면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럼 어떻겠나? 우리 젊은이들은 절제를 필요로 하진 않을까?"
"왜 아니겠습니까?"

20. 《오디세이아》 XVII, 383~384 참조.

"그런데 대중을 위한 절제의 주요한 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즉, 통치자들에게는 복종을 하지만 마시는 일이나 정욕이나 먹는 일의 쾌락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 말일세."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렇다면, 내 생각으론, 호메로스에게 디오메데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훌륭하게 말했다고 우린 생각하겠지—

이 사람아, 입 다물고 앉아서 내 말만 듣고 있게,[21]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것, 즉—

기세가 등등한 아카이아군은 전진했다.
지휘관이 두려워 숨소리도 죽이고,[22]

그밖에 이런 따위의 모든 것을 말일세."
"훌륭하게 말했죠."
"그런데 어떻겠나? 이런 것은—

너는 술에 젖어 무겁구나, 개의 눈에다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여![23]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것들과, 그밖에 산문이나 시를 가지고 국민이 통치자에게 말한 건방진 소리도 훌륭할까?"

21. 《일리아스》 IV, 412 참조. 지휘자인 아가멤논에게 말대답하는 스테넬로스(Sthenelos)를 나무라는 디오메데스(Diomedes)의 말.
22. 《일리아스》 III, 8과 IV, 431이 함께 맺어져 있다.
23. 《일리아스》 I, 225 참조.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을 비난하는 말.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세. 하기야 그것이 그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준다면 조금도 놀랄 건 없겠지. 그것에 관해서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네.

4. "그런데 어떻겠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것이 그에게 무엇보다도 멋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건—

옆의 탁자에는 빵과 고기가 가득하고,
술 따르는 사람은 술을 퍼서 들고 다니며 잔에 부을 때,[24]

그런 것을 듣는 것은, 젊은 사람의 극기심(克己心)을 키우기에 도움이 된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또는 이것—

사람이 당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은 굶주려 죽는 것이 아닌가?[25]

또는 제우스는 다른 모든 신들과 인간들이 잠들고 있는 동안에 혼자 깨어서,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정욕의 흥분 때문에 쉽사리 잊어버리고서, 헤라를 보고는 그만 넋이 나가, 방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여인과 함께 맺어지고 싶어서, 처음에 '사랑하는 부모의 눈을 속여'[26] 서로 밀회하고 있을 때조차도 없었던 뜨거운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 말일세. 또는 아

24. 《오디세이아》 IX, 8~10 참조. 오디세우스의 말.
25. 《오디세이아》 XII, 342 참조.
26. 《일리아스》 XIV, 294~341 참조.

레스와 아프로디테가 같은 일로 해서 헤파이스토스에게 묶인 얘기[27] 도 말일세.
"그거야 젊은이에게는 제우스께 맹세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만약 어디선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참을성이 유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얘기되고 행하여지고 있다면, 그건 듣거나 보지 않으면 안되네. 이를테면—

그는 가슴치고, 마음을 나무랐다.
참아라, 내 마음아. 더 지독한 일도 너는 참았으니[28]

라는 것 말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또, 우리 남자들이 뇌물을 받는 자나 돈을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허락해서는 안되네."
"결코 안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서도 안되네—

선물은 신들도 움직이고, 선물은 무서운 왕들도 설복시킨다.[29]

그리고 또 아킬레우스의 선생인 포이니코스가 선물을 받으면 아카이아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하고, 선물이 없으면 분노하길 그치지 말라고 충고한 것[30]이 옳았다고 그를 칭찬해선 안되네. 또 아킬레우스 자신이 아가멤논에게서 선물을 받을 만큼, 그리고 몸값을 받으면 시체를 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만큼, 돈을 좋아하

27. 《오디세이아》 VII, 266 이하 참조.
28. 《오디세이아》 XX, 17~18 참조. 오디세우스의 말.
29. 헤시오도스의 말이라고도 전한다.
30. 《일리아스》 XIX, 278 이하 참조.

는 자라는 것[31]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또 그런 일에 찬성해서도 안되네."

"그런 일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호메로스를 위해서는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아킬레우스에 관해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또 남들이 말할 때, 그것들을 믿거나 그리고 또 아폴론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믿거나 하는 것은 결코 경건치 못한 일일세—

당신은 나를 그르쳤습니다, 원거리 궁수(弓手)여,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신이여.
당신에게 정녕 복수를 하겠습니다, 내게 그 힘만 있다면.[32]

그리고 강의 신(神)[33]에 그는 따르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라든가, 또는 스페르케이오스라는 다른 강의 신에 바쳤던 그의 머리털을 이미 송장이 된 "영웅 파트로클로스에게 그 머리털을 보내어 함께 가지고 가게 하고 싶다"[34] 고 말하여 그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라든가를 믿어서는 안되네. 그리고 또, 핵토르의 몸을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로 끌고 다녔다는 것[35] 이라든가, 포로를 학살해서 파트로클로스의 화장에 장작으로 썼다든가[36] 하는 따위의 이 모든 것이 진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되고, 또 가장 생각이 깊은 제우스의 손자였던 펠레우스와 여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나, 가장 지혜로운 케이론에게서 교육을 받은 아킬레

31. 《일리아스》 XXIV, 502, 555, 594 참조.
32. 《일리아스》 XII, 15, 20 참조.
33. 트로이아의 평야를 흐르는 스카만드로스 강의 신.
34. 《일리아스》 XXI, 151 참조. 그러나 여기엔 플라톤의 과장이 있다.
35. 《일리아스》 XXIV, 14 이하 참조.
36. 《일리아스》 XXDI, 175~176 참조.

우스가 자기 안에서 서로 가장 어긋나는 두 가지 병, 즉 하나는 돈에로의 사랑에 따른 천스러움을, 그리고 또 하나는 신들이나 인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만을 기대할 만큼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우리 젊은이들이 믿게 해서는 안되네" 라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5.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도 안되며, 또 말하도록 허락해서도 안되겠네. 즉, 포세이돈의 아들인 테세우스나 제우스의 아들인 페이리투스가 그렇게도 무서운 겁탈을 하려고 했다[37] 든가, 또 신의 다른 아들이나 영웅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무섭고 불경스런 일을 감히 해냈다는 것 말일세. 오히려 우리는 시인들에게 억지로라도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짓이 아니며, 자기들은 신들의 아들도 아니고, 또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말하도록 해야 하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들은 악을 낳는다든가, 영웅들이 범인들보다 훌륭할 것도 없다든가를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해서는 안되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38] 그런 것들은 경건스럽지도 참되지도 못하기 때문이지. 그건 어디선가 우리가 밝혔듯이, 신들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야 물론이죠."

"게다가 또 그런 것들은 듣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신들조차도 그런 일을 늘 하고 있고 또 이미 했었다고 그가 믿는다면 사람마다 자기 잘못에는 너그러울 것이기 때문일세. 즉—

37. 테세우스는 페이리투스의 도움을 받아서 헬레네를 겁탈하고, 또 저승에서 페르세포네를 데려오려는 페이리투스를 도왔다.

38. 제2권 376b, 380c 참조.

신들의 가까운 자손들,
이다의 산마루 드높이, 그들의 아버지 제우스에게 제단을 차린,
제우스의 가까운 혈육들.

그리고—

그 혈관 속엔 아직도 신령스란 피가 흐른다.[39]

이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 안에, 악에 대해서 매우 흐릿한 버릇을 낳지 않도록 그런 신화 얘기는 그만두어야 하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은 말해 안되는가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와 얘기가 남아 있나? 왜 그런고 하니 신들에 관하여, 또 신령이나 영웅이나 저승에 있는 자들에 관해서, 시인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얘기했으니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랬죠."

"그렇다면 그 남은 종류란 곧 인간들에 관한 것이겠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보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가 없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인도 얘기의 작가도, 부정한 사람들이 대개는 행복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대개는 불행하며, 그리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이 이로운데, 정의는 남에게는 좋고 자기에게는 손실이라고 그들이 말할 경우, 그들은 인간

39. 아이스킬로스의 없어진 작품 《니오베》에서 인용.

에 관해서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세.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이 그런 따위의 말을 못하게 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노래하거나 얘기하라고 명령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일세. 자넨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다 뿐입니까? 잘 알고 있는 걸요" 라고 그는 말했네.

"내 말이 옳다고 동의한다면, 우리가 아까부터 탐구하고 있는 것을 자넨 이미 동의했다고 내가 말해도 될까?"

"바로 맞히셨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건 말건, 그것이 본래 이롭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들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합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과연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6. "그러면 얘기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겠네. 그러나 다음엔 내 생각으론 말씨에 관해서 검토해야겠는데, 그렇게 하면 〔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완전히 검토한 셈이 될 것일세."

그러자 아데이만토스가 말했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자네가 알아주어야겠네. 아마 이렇게 하면 더욱 잘 알게 되겠지. 즉, 얘기의 작가들이나 시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내가 말했네.

"다른 것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은 단순한 얘기나, 또는 모방[40]을 통한 얘기나, 또는 그 두 가지에 따른 얘기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겠지?"

40. 플라톤(뿐만 아니라 아이스토텔레스)에게서 詩論(藝術論)상 중요한 개념인 '모방(mimesis)'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저는 더 분명하게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나는 아무래도 어이없고 흐릿한 선생인 것 같군" 하고 나는 말했네. "그래서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전체적[41]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특수한 부분을 떼어내어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내가 말해보려는 것을 자네에게 밝혀 주겠네. 그러니 자네가 말해 주게나. 《일리아스》의 첫머리에서 그 시인(호메로스)은 크리세스가 아가멤논에게 그의 딸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더니 아가멤논이 화를 내어, 크리세스는 자기의 청탁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기도를 드려서 아카이아 사람들에게 저주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넨 그걸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넨 이 구절을 알고 있겠군—

그리고 그는 모든 아카이아 사람들에게,
더욱이 군졸들의 사령관인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에게 기원했다.[42]

여기까지는 그 시인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서, 말하는 이가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생각케 해보려고조차 안하고 있네. 그러나 그 다음에서는, 마치 자기가 크리세스인 것처럼 말하여, 말하는 사람은 호메로스가 아니라 그 늙은 제관(祭官)〔크리세스〕이라고 우리가 느끼도록, 될 수 있는 데까지 애를 쓰고 있네. 또 그밖에 일리온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타카나 《오디세이아》 전체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짓고 있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몇 가지 말을 할 때도, 또 말과 말 사이의 사건을 말할 경우에도 그것은 얘기가 아닌가?"
"왜 아닙니까?"

4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따금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을 전체와 부분으로서 대립시키고 있다.
42. 《일리아스》 I, 15~16 참조.

"그러나 그가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어떤 말을 할 때는, 자기의 말씨와 그가 미리 이제부터 말하는 자라고 알려놓은 그 사람의 말씨와, 될 수 있는 데까지 같게 한다고 우린 말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목소리에서든 모습에서든 다른 사람과 같게 한다는 것은 그가 같게 하는 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그(호메로스)나 다른 시인들이 모방으로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군."

"과연 그렇죠."

"그런데 그 시인이 아무 데서도 자기를 감추지 않을 경우, 그의 시라든가 얘기의 전부는 모방 없이 이루어진 셈 이로군. 그러나 자네가 또다시 알 수 없다는 말을 못하도록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말해줌세. 만약 호메로스가, 크리세스는 딸의 몸값을 가지고 아카이아 사람들에게, 특히 왕들에게 탄원하러 온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한 다음, 마치 크리세스인 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대로 호메로스인 양 말을 계속했다면, 그것은 자네가 아는 일이지만 모방이 아니라 단순한 얘기일 걸세. 그건 아마 이런 식이었겠자—운율(韻律) 없이 그것을 말하겠네. 나는 시인이 아니니까—그 제관은 와서 이렇게 기원을 했네. 즉, 신들께서 그들에게는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나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들이 신(아폴론)을 두려워하여 몸값을 받고서 딸을 놓아주게 하십사고.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서 찬동을 했지만, 아가멤논만은 화를 내며, 당장 나가서 다신 돌아오지 말라, 안 그러면 홀(笏)도 신의 꽃관도 내겐 소용없다고 명령을 했다네. 그러고는 그의 딸이 풀려나가기 전에 자기와 함께 아르고스에서 늙을 것이라고 말했네. 그리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싶거든 썩 물러가서 내 화를 돋우지 말라고 일렀다네. 그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말없이 물러났는데, 그가 군영(軍營)을 떠날 때, 아폴론에게 그 신의 칭호를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려 신이 자기를 생각나게 하고, 만약 그가 신전을 세우

거나 희생을 제물로 바치거나 해서 무엇인가 가상히 여길 만한 것을 바친 적이 있었다면 보답해 주십사고 요구했던 것일세. 말하자면 그런 것들의 보답으로 아 카이아 사람들이 그 신의 화살로 그의 눈물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네. 그래서 말일세 여보게, 단순한 얘기는 모방 없이 나올 수 있다네" 라고 내가 말했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7. "그렇다면 말 사이에 있는 그 시인의 낱말들을 제거하고서 서로 주고받는 말만 뒤에 남길 때는, 위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주게.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건 비극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전적으로 옳은 생각일세. 그런데 내가 앞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젠 밝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네. 즉, 시라든가 얘기의 어떤 것은, 자네가 말했듯이, 비극이나 희극은 그 전부를 통해서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시인이 그 자신과 얘기를 하는 것일세 그 가장 좋은 본보기는 아마 디티람보스[43]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그리고 또 어떤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쓰는 것인데, 서사시나 그밖에 여러 가지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세. 자네가 알아 줄 수 있다면 말이야" 라고 내가 말했네.

"이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그보다 앞의 것도 기억해 주게. 즉,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이미 말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가를 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 말일세."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일세, 즉 우리의 시인들이 모방으로

43. 디티람보스(dithyrambos):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Dionysos)를 찬양하는 합창의 서정시에서 유래했다.

얘기하기를 허락할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은 모방에 따르지만, 어떤 것은 따르지 않고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경우에 그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전혀 모방하기를 허락해선 안될 것인가에 관해서 서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일세."

"선생님께서는 비극이나 희극을 나라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따지고 계신 것으로 제겐 생각됩니다."

"아마……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을 걸세.[44] 왜 그런고 하니 나 자신이 아직 그걸 모르고 있고, 말하자면 얘기의 바람이 어디로든 몰고 가는 대로 가야 하기 때문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아데이만토스, 우리의 방위자들이 모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또는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으로부터 이것도 따라나오는가? 즉, 사람마다 여러가지가 아닌 한 가지 일만은 잘 할 수 있지만, 만약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여 여러 가지 일을 접적거리면, 어떤 일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 말일세."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방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지? 즉,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듯이, 많은 일을 잘 모방할 수는 없다고 말이야."

"확실히 그럴 순 없지요."

"그렇다면 뭣인가 입에 올릴 만한 값어치가 없는 일을 하고, 그와 동시에 많은 것을 모방해서 모방자가 되기란 어려울 걸세. 왜냐하면, 이를테면 희극작가와 비극작가의 경우에 서로 매우 가까운 듯한 두 가지 모방물조차도, 같은 사람이 같은 때

44. 플라톤은 이미 여기서, 시나 예술의 도덕적 효용의 전체적인 문제를 전개하는 제10권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에 잘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일세.[45] 자넨 아까 이것들을 모방물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불렀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음유(吟遊)시인이면서 결코 동시에 배우일 수는 없네."

"옳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배우가 희극과 비극을 위해서 연기를 할 수도 없네. 그것들은 다 모방물일세. 안 그런가?"

"모방물이죠."

"아데이만토스, 게다가 또 사람의 본성이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작게 분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모방하는 것도 또 그 모방물이 그것들과 비슷한 바로 그것들 자체를 행하는 것도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군."

"과연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8. "그렇다면 다른 모든 손재주와 일에서 해방된 우리의 방위자들은 나라의 자유를 위한 매우 익숙한 장인(匠人)이라야 하며, 그리고 그것과 관계되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해서 안된다는 애초의 주장을 우리가 지키려면, 그들은 사실상 그 밖에 무엇이든 행해서도 안되고, 모방해서도 안될 것일세.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방한다면 그들에게 맞는 것, 즉 용감한 사람들, 생각이 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밖에 모든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모방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유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행해서도 안되고, 또 모방하는 데 능숙해도 안되고, 그리고 또 그밖에 어떤 부끄러운 일도 해서는 안되겠네. 그건 그들이 모방을 하다가 정말 그렇게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 모방이라는

45.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는 한 편의 비극작품도 안 썼고,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는 한 편의 희극작품도 쓰질 않았다. 그러나 《잔치(Symposion)》편(223d)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플라톤에게는 아무 모순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시가 기술이 아니라 영감이기 때문이다.

것이 어려서부터 오래 계속되면 마침내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몸 · 목소리 · 정신까지도 바꾸는 제2의 천성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자네는 알아차린 적이 없었나?"

"있고 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을 하며 훌륭한 남자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남자이면서도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가 젊었건 늙었건, 또는 남편과 입씨름을 하는 여자이건, 또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신들과 다투고 우쭐대는 여자이건, 또는 불행에 빠져서 슬픔이나 애통에 잠겨 있는 여자이건, 모방하기를 허락해서는 안되겠네. 하물며 병을 앓고 있는 여자라든가, 사랑에 빠진 여자라든가, 산고(産苦)를 겪고 있는 여자를 모방하도록 허락해서는 더욱 안되겠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가 말했네.

"또 계집이나 사내 노예들이 노예의 일을 하는 것도 모방하도록 해서는 안되네."

"그것도 안되죠."

"그리고 또 비겁한 사람이나 방금 우리가 말한 것들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 즉 취했거나 멀쩡할 때이거나, 서로 욕설을 한다든지, 놀린다든지, 지독한 말을 쓰는 사람들, 또는 그밖에 이런 따위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는 남들에게 대해서는, 그 말이나 행실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말일세. 그리고 또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미친 사람을 닮는 습관이 '방위자들'에게 들도록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네. 왜 그런고 하니 미친 사람이나 나쁜 사람에 관해서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방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따위는 무엇 하나고 행하거나 모방해서는 안되기 때문일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떻겠나?" 라고 내가 말했네. "대장장이라든가, 다른 무슨 장인들이라든가, 또는 삼단노(三段櫓)의 전함을 젓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밖에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모방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따위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떻겠나? 우는 말들이나, 우는 소들이나, 소리 내고 흐르는 강이나, 노호(怒號)하는 바다나, 번개나, 모든 그런 따위들을 과연 모방해야 할까?"
"아니죠. 그들은 미치광이를 흉내내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자네가 말하려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면, 참으로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이 무엇인가 말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어떤 한 가지 말씨나 얘기의 형식에 따라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앞의 사람하고는 출생도 성장도 반대되는 사람은 그것과는 다른 형식에 매달려서 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네.
"우선 조심성 있는 사람은, 그가 얘기해 가는 중에 훌륭한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실에 이르게 될 때는, 내 생각으론 그 보고(報告)에서 자기가 그 사람 구실을 하고 싶어져서 그런 모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조심스럽고 분별있게 행동하는 것은 모방하기를 특히 좋아하지만, 그러나 병이나 사랑이나 취기(醉氣)나 또는 그밖에 다른 어떤 불행한 일로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은 적게,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모방하네. 그러나 누군가 자기에게 아무 값어치도 없는 사람에게 이르게 될 때는 그가 무엇인가 쓸모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적은 경우들 말고는, 자신만도 못한 그 사람을 열심히 닮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기에 서투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틀에다 자기 자신을 뚜드려 맞추기가 싫기 때문이기도 하지. 그저 농담이라면 몰라도, 속으로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으니까" 라고 내가 말했네.
"있을 법한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9. "그렇다면 그가 사용할 얘기란 우리가 조금 전에 호메로스의 서사시로 설명한 것 같은 따위인데, 그 사람의 말씨는 모방과 단순한 얘기와의 두 가지에 모두 관계될 것이지만 전체의 얘기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만을 모방하게 될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꾼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와는 다른 얘기꾼은,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많이 이것저것 무엇이든 얘기하려고 하여,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정색하고 게다가 뭇사람 앞에서 온갖 것을 다 모방해 보려고 하겠지. 방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들, 즉 번개라든가, 바람이나, 우박이나, 바퀴의 굴대나, 도르래의 소리, 나팔이나 피리나 목적(牧笛)의 울림소리, 또 모든 연장소리, 그리고 또 개나 양이나 새의 울음소리를 말일세. 그래서 그의 말씨는 전적으로 소리나 몸짓의 모방에 달려 있거나, 또는 순전한 얘기란 겨우 조금밖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겠지?" 라고 내가 말했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것들이 내가 말한 말씨의 두 가지 본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그것들 중의 하나는 가벼운 변화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 그 말씨에 어울리는 곡조[46] 나 운율을 지정한다면 정확한 얘기꾼은 거의 같은 곡조로, 즉 한 가지 곡조로—그 변화란 가벼운 것이니까—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운율도 거의 같은 것으로 얘기한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렇죠. 확실히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또 하나의 본은 어떻겠나? 그것도 거기에 맞는 말씨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갖가지 꼴의 변화를 품고 있는 것이라서 앞서의 것과는 반대되는 것, 즉 온갖 곡조와 모든 운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인이나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씨들 중의 한 가지나

46. 여기서 '曲調'란 harmonia를 옮긴 말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harmony(和聲)라는 말과 달라서, 음정을 조절하는 곡조나 음계(소리의 높고 낮음)를 의미하였다.

다른 한 가지를, 또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섞인 것을 마구 쓰겠지?"
"그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나라에 받아들일 것은 이 모든 것일까? 또는 섞이지 않은 것 중의 한 가질까? 아니면 섞인 것일까?" 라고 내가 말했네.
"만약 제 의견이 지배할 수 있다면, 훌륭한 사람의 섞이지 않은 모방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아데이만토스, 섞인 것도 재미있고, 또 애들이나 애들의 가정교사나 많은 대중에게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은, 자네가 선택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일세."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재미 있죠."
"그러나 아마, 두 가지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겹쳐 맡은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의 체제엔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넨 말하겠지. 우리 사이에선 사람마다 한 가지 일만을 하니까"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확실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까닭으로 해서, 신발장수는 신발장수일 뿐 신발짓기와 선장을 겸하지 않고 있음을, 또 농사꾼은 농사꾼일 뿐 농사짓기와 재판관 노릇을 겸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군인은 군인일 뿐 전술과 장사꾼을 겸하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그 밖에도 다 그렇다는 것을 오직 그런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건 사실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지혜가 많아서 온갖 것으로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제 자신과 자기의 시를 세상에 내보이고 싶어서 우리 나라에 온다면, 우리는 사뭇 그가 봉사자나 기쁨의 전달자인 양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엔 그런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걸 허락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여,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거기다 양털의 끈을 감아주고서 다른 나라로 보낼 것인데,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엄숙하면서 재미는 적은 시인이나 얘기꾼을 채용할 것이며, 그는 훌륭한 사람의 말씨를 모방하여 우리가 처음에 군인들을 교육하려고 나섰을 때, 법으로서 세운 그 본에 따라서 그의 얘기를 할 것일세."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면야 우리는 그래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여보게, 이제 우리는 말과 얘기에 관계되는 음악[47]의 일부는 아마도 완전히 끝맺은 것 같군.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밝혀 놓았으니까" 라고 나는 말했네.
"제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10.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노래나 가락의 양식에 관한 것이겠지?"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미 말한 것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만하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러자 글라우콘이 웃음을 띠면서 말하더군. "그런데 소크라테스 님, 아무래도 저는 그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군요.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장엔 확실하게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짐작이 가긴 하지만……"
"확실히 자네는 노래라는 것이 세 가지, 즉 가사와 곡조와 율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선 충분히 말할 수 있겠네" 라고 내가 말했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가사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은 본과 같은 양식으로 말해야 하는 한, 확실히 노래로 부르지 않은 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또, 곡조와 율동은 가사와 맞아야 하네."[48] "물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에서 슬픔이나 한탄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네."

47. 음악과 문학의 뜻.
48. 그리스의 시인은 자기의 시에다 맞추어서 작곡을 했다. 원래 음악은 서정시를 위해서만 작곡되었고, 서정시는 곡조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위해 지어졌다.

"그렇죠. 원치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처량한 곡조란 어떤 것인가? 내게 말해주게, 자넨 음악가이니."
"혼성(混成) 리디아 조(調)와 높은 리디아 조, 그리고 그런 따위의 곡조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것들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해야 할 여성들에게서조차 쓸모가 없으니, 남성들에게는 더욱 쓸모가 없기 때문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방위자들에게는 술주정이나 연약함이나 게으름은 가장 적합치 않은 것일세."
"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연약하고 술자리에 맞는 곡조인가?"
"이오니아 조와, 그리고 너절하다고 불리고 있는 리디아 조이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여보게, 전사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써야 한단 말인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선생님께선 도리아 조와 프리기아 조를 남겨 놓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나는 그런 곡조들을 알지 못하겠네만, 그러나 이런 곡조는 남겨 놓게나. 즉, 그것은 전투에서도, 어떤 강제적인 일에서도, 그리고 만약 몸을 다친다거나, 죽임을 당한다거나 또는 그밖에 무슨 재앙에 부딪친다거나 해서 실패를 하면, 이런 모든 경우에서도 언제나 굳건한 참을성으로 그 운명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용감한 사람의 목소리와 그 말투를 적절히 모방하는 곡조말일세.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평화스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즉 무엇엔가 관해서 누군가를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신이건, 가르침과 충고에 의해서 인간이건, 그를 설득하거나 그에게 간청해 보려고 하든지 또는 반대로 간청하거나, 가르치거나,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든지 해서, 그 결과 소원대로 일이 잘되고 더욱이 건방지게 굴질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분별이 있고 분수를 지키

는 처신을 하여 그 성과에 묵묵히 따르는 사람을 모방하는 곡조 말일세. 이런 것들을, 즉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분별있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훌륭하게 모방할 수 있는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과의 두 가지 곡조를 남겨 놓아 두게"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남겨 놓으라고 요구하신 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들이군요"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노래나 가락을 위해서 우리는 다현(多絃)악기도, 온갖 곡조를 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필요가 없겠네" 라고 내가 말했네.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삼각금(三角琴)이라든가, 페크디스[49] 라든가, 그밖에 다현악기나 많은 곡조를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의 장인(匠人)을 우리는 키우지 않을 것일세."

"키워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나? 자넨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나 피리[50] 부는 사람을 나라에 받아들이겠나? 오히려 피리는 어떤 악기보다도 가장 다조적(多調的)인 것이고, 모든 곡조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 자체가 피리를 모방한 것들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넨 나라에 쓸모가 있는 리라와 키타라[51]를 남겨 놓았네. 그리고 들에서는 양치는 이들이 목적(牧笛)을 갖게 될 것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이론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우리가 무슨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여보게, 마르시아스[52] 와 그의 악기보다도 아폴론과 아폴론의 악기를 택할 경우에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49. 두 가지 다 외국에서 수입된 多絃琴.

50. 이 피리(aulos)는 매우 정교하여, 여러 가지 소리가 났다.

51. 둘 다 세워서 연주하는 琴. 리라(lyra)는 일반인이, 키타라(cithara)는 전문가가 사용했다.

52. 마르시아스(Marsyas): 그 피리로 아폴론의 키타라琴과 경연을 하여 여신들의 심판에서 져서 산 채로 가죽이 벗겨졌다.

"제우스에 맹세코,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개에 맹세코[53] 우린 좀 전에[54] 사치스럽다고 말한 나라를 어느덧 정화(淨化)해 오고 있었구먼" 하고 내가 말했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보여주었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11. "자, 그러면 남은 것들로 정화하도록 하세. 왜 그런고 하니, 곡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장단에 관한 고찰이겠는데, 우리는 복잡한 것을 구해서도 안되고 또 갖가지 운각(韻脚)을 구해서도 안되고, 오히려 단정하고 용감한 생활의 장단이 무엇인가를 관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일세. 그리고 그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런 생활을 나타내는 말에다 그 운각과 가락을 맞추도록 강요해야 하고, 운각이나 가락에다 말을 맞추도록 해서는 안되네. 그러나 그런 장단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곡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네의 일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러나 그건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든 곡조가 만들어지는 소리의 음조(音調)에는 네 가지가 있듯이 운각이 짜이는 꼴에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고찰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어떤 꼴이 어떤 생활을 모방한 것인지 그건 말할 수가 없군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역시 다몬[55]과 의논해 보세. 즉, 어떤 운각이 굴종적이거나 오만함, 또는 광기나 그밖에 다른 악(惡)에 맞는 것인가? 또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남겨 놓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일세. 그런데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어떤 것을 혼성

53. '개에 맹세코'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자주 쓰는 독특한 맹세의 형식. 헛되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54. 제2권 372e 참조.
55. 다몬(Damon): 아테네의 유명한 음악교사. 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는 자주 그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混成)된 에노폴리오스[56], 또 어떤 것은 닥틸로스[57],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헤로스[58]라고 불렀고, 내가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것이 장(長)이나 단(短)으로 끝나도록 억양을 고르게 편곡했던 것 같더군. 그리고 내 생각으론 어떤 것은 이암보스[59], 또 어떤 것은 트로카이오스[60] 라고 부르고, 그것들에다 장단을 덧붙였던 것 같더군. 그리고 이것들 중의 어떤 것에 있어서 그는 장단 자체와 다름없이 운각의 속도를 비난도 하고, 칭찬도 했던 것 같더군—어쩌면 아마 그 둘을 결합한 것이었었는지도 몰라.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일들은 다몬을 위해서 뒤로 미뤄 놓도록 하세. 그것을 결정하려면 짧은 얘기론 안되니까. 아니면, 자넨 달리 생각하는가?" 라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넨 이것, 즉 우아함과 졸렬함이라는 것이 좋은 장단과 나쁜 장단에 곁들인다는 것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장단과 나쁜 장단 중에서 하나는 훌륭한 말씨에 곁들여서 그것과 같아지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되는 것에 곁들이게 되는데, 좋은 곡조와 나쁜 곡조도 그와 마찬가질세. 방금 말했듯이, 만약 장단과 곡조가 말에 따르고 말이 그것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렇죠. 그것들은 말에 따라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말씨의 양식과 말에 관해서는 어떻겠나?" 그것은 영혼의 성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나는 말했네.

56. 에노플리오스(enoplios): 행진곡의 리듬 이름.

57. 닥틸로스(daktylos): — ∪ ∪ 형식.

58. 헤로스(heroos): 아마 韻脚이거나 리듬을 말한 것임.

59. **이암보스(iambos):** ∪ — 의 형식. 제2권 역주 35 참조.

60. 트로카이오스(trochaios): — ∪ 의 형식.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밖의 것들은 말씨에 따르는 것이겠지?"
"네."
"그렇다면 좋은 말과 좋은 곡조와 우아함과 좋은 장단도 좋은 인품에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머리가 빈 사람을 비꼬아서 좋은 인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마음이 참으로 선량하고 훌륭한 것을 말하는 것일세."
"과연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신의 일을 할 셈이라면, 그들은 어디서나 그것들을 뒤따라야 하지 않겠나?"
"물론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틀림없이 모든 그림에도 그와 같은 기예(技藝)에도 그런 성품이 가득하고, 또 직조에도 수(繡)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그밖에 가구의 제작에도 그렇고, 신체의 본성에도 초목의 본성에도 마찬가질세.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는 우아함이 아니면 비천함이 있기 때문일세. 그리고 비천함이나 나쁜 장단이나 나쁜 곡조는 나쁜 말투나 나쁜 인품과 동기간이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 반대되는 것, 즉 분별있는 좋은 성품과 동기간이며, 그것을 모방한 것일세."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2. "그렇다면 우리가 시인들을 감독해서, 그들의 시 안에다 선량한 성향을 닮은 것을 지어 넣도록 강요하되, 듣지 않으면 우리들 사이에서 시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가? 또는 다른 장인(匠人)들도 감독하여 성품이 고약하고, 허술하고, 비천하고, 추한 것들을 동물과 닮은 모습이나 건물이나 그밖에 그들이 제작하는 것 안에 만들어 넣지 못하도록 금하되, 만약 복종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 사이에서 제작하는 걸 허락해선 안되겠지? 우리의 방위자들이, 말하자면 나쁜 풀밭에서 그렇듯이, 악을 닮은 것들 사이에서 키워지고, 그리고 그런 숱한 것에서 나날이 조금씩 조금씩 먹고서, 어느덧 쌓이고 쌓여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의 크나큰 악의 덩어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없도록 말일세. 아니, 오히려 젊은이들이

무엇에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말하자면 건강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고난 좋은 성품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본성을 뒤쫓아갈 수 있는 저 장인들을 찾아내야겠지? 즉, 어디서부터인가 아름다운 작품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복된 곳에서 건강을 가져다 주는 산들바람처럼, 그들의 눈이나 귀에 불어와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느덧 그들이 아름다운 이치를 닮고, 정다웁게 느끼고, 그것과 조화가 되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장단과 곡조는 우아함을 지니면서 영혼 속 깊숙이 가장 기운차게 들어가서 그것을 강하게 파악하는데, 만약 사람이 바르게 키워지면 우아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반대의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음악에 있어서의 육성(育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또, 그것(음악)으로 바르게 키워진 사람은 단점이 있는 것이라든가, 아름답지 않게 만들어졌거나 아름답지 않게 자라난 것들을 가장 재빠르게 느껴서, 당연히 불쾌해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찬양하고, 그의 영혼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들로 양육되어서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하고 그가 아직 젊어서 이유를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에도 미워하지만, 이성(理性)이 나타날 때 그렇게 키워진 그 사람은 그것과 집안 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인정하고서 누구보다도 반가워하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음악적 육성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글자를 배울 경우에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다른 말들에서 그 요소가 되는 적은 수의 글자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작은 글자로 씌어졌건 큰 글자로 씌어졌건 업신여겨 눈여겨 볼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질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분간할 수 있기 전에는 결코 글자에 통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믿고서, 어디서나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비로소 글자에 능통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그리고 또 글자의 어떤 모습이 물 속이나 거울 속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 글자 자체를 알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두 가지 경우를 안다는 것은 같은 기술이나 연습에 속하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맹세코 나는 말하지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별력이나 용기나 자유인다움이나 호연(浩然)함이나 그리고 그것들과 가까운 것들이나 그와 반대되는 것들의 형상(形相)들을 어디서든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든 그것들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형상이든 그 모습이든 그것들을 분간하되, 작은 것들 안에 있거나 큰 것들 안에 있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둘을 다 인정하는 것이 같은 기술이나 연습에 속한다고 믿기까지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방위자들도 결코 참다운 음악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

"그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영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고 그 바깥 모습에 있는 같은 유형(類型)에 일치하며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이 서로 함께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광경이 아니겠나?" 라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사랑스런 것이 아닌가?"

"그야 물론이죠."

"그렇다면 진정 음악적인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각별히 사랑할 것일세. 그러나 그런 조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겠지?"

"그렇죠. 적어도 그의 영혼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결함이 몸에 있는 것이라면 참으면서 반기고 싶어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알겠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애소년(愛少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거야. 나도 자네에게 동조하네. 그러나 이건 내게 말해주게. 분별력과 지나친 쾌락과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고 나는 말했네.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고통에 못지 않게 사람이 분별력을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다른 덕과의 사이에는?"
"결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겠나? 오만과 방종과의 사이에는?"
"확실히 있죠."
"그러나 자넨 성적(性的) 쾌락보다 더 크고 강렬한 쾌락을 말할 수 있겠나?'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 광적(狂的)인 것도"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올바른 사랑이란 바로 분별력과 음악적인 정신을 가지고 질서있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겠지?"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광적인 것, 또는 방종 같은 것 따위도 올바른 사랑은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지?"
"가까이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쾌락을 가까이해선 안되고 또 만약 옳게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나 애소년이나, 그런 쾌락에 관여해서는 안되겠지?"
"그렇죠, 소크라테스 님. 절대로 그들에게 가까이해선 안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자네는 우리가 세우고 있는 나라에다 이런 법률을 제정할 것 같군. 즉, 사랑을 주는 사람이 그의 애소년과 입을 맞추거나, 함께 지내거나, 껴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의 아들이 허락한다면,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마치 그 아들을 대하듯이 해야 하며, 그러나 그밖에 그가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과의 사귐은 결코 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일세.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음악적 교양도 없고 멋도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일세."
"그렇죠."
"그렇다면 음악에 관한 우리 얘기는 끝을 맺게 되었다고 자네도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끝을 맺을 만한 곳에서 끝맺게 되었네. 왜냐하면 음악은 정녕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에서 끝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야."
"찬성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3. "그러면 음악 다음 단계에서 젊은이들은 체육[61]으로 훈련되어야 하네."
"물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것에서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생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키워져야 하네. 내 견해로는 그것은 이런 것인데, 자네도 생각해 봐주게나. 즉, 나로서는 신체가 쓸 만한 것이라 해서 그것이 그 훌륭함으로써 영혼을 선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영혼이 선량하면 그 훌륭함으로써 신체를 될 수 있는 데까지 가장 선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지성(知性)을 공들여서 보살펴 주고 나서 신체적 훈련의 세부에 관한 것은 거기다 맡기고 우리 자신은 군소리를 늘어놓지 않도록 다만 그 대강을 이끌어 간다면, 우린 옳게 행하는 것이 되겠지?"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술에 취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네.[62] 왜 그런고 하니, 방위자가 술에 취해 자기 땅 위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일은 어느 누구보다도 허락되어선 안되기 때문일세."
"그렇죠. 방위자에게 방위자가 필요하다니 우스운 일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음식에 관해선 어떨까? 그 사람들은 가장 큰 경기의 경기자니까. 안 그런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둘레에서 보는 경기자들의 신체적 습성은 과연 그 사람들에게 맞

61. 체육(gymnastike)에는 오히려 攝生法(건강관리)에 관한 것이 포함되고 있었다.
62. 제2권 398e참조.

는 것일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 졸음이 오는 습성이고, 또 건강에 위험한 것일세. 혹시 자넨 그들이 평생을 잠으로 보내고, 만약 그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정해진 섭생법(攝生法)을 떠나면, 이 경기자들은 크고 무거운 병에 걸린다는 것을 모르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 선수들에게는 무엇인가 더욱 교묘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들이 잠 안자는 개 같아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날카로운 눈과 귀를 가져야 하며, 또 종군 중에는 그들이 마시는 물이나 먹는 양식의 잦은 변화에서도, 또 찌는 듯한 더위나 추위의 변화에도 참고 견딜 수 있어서 그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하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체육이란 좀 전에 우리가 말한 단조로운 음악과 자매 사이가 될 것일세."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것은 단순하고 다투기 쉬운 체육인데, 전쟁에 관계되는 것은 특히 그럴 것일세."

"어떻게요?"

"그것은 호메로스에게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그의 영웅들이 싸움터에 있을 때, 그들은 헬레스폰토스의 바닷가에 있었는데도 그들의 잔치에 생선을 먹게 하지 않았고, 게다가 삶은 고기가 아니라 그저 구운 고기만을 주었는데, 그게 군인들에겐 가장 편했으리라는 것을 자네가 알고 있기 때문일세. 아닌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릇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불만 쓰는 것이 한결 쉽다고 말할수 있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생각으론, 호메로스는 한번도 양념에 관해서 말한 적이 없었네. 그런데 이것, 즉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이런 것은 모두 삼가야 한다는 것을

다른 모든 경기자들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니겠나?"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서 삼가고 있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여보게, 그걸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넨 설마 시라쿠사의 식탁이나 시칠리아의 갖가지 요리를 칭찬하진 않겠지?"

"그렇죠.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코린토스의 여자[63]를,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남자가 정부(情婦)로 삼는 일도 자넨 못마땅하게 여길 걸세."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또, 아티카의 과자 중에서 맛 좋기로 이름난 것도 마땅치 않겠지?"

"그럴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런 음식이나 생활방식을, 모든 곡조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와 모든 장단으로 만들어진 작곡이나 노래와 비교한다면 그건 옳은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겠지?"

"과연 그렇죠."

"그런데 다양성은, 앞서는 방종을 생기게 했는데, 여기서는 질병을 생기게 하고, 한편 단조로움은 음악에서는 영혼에다 분별력을 낳았지만, 체육에서는 몸에다 건강을 낳는 것이 아닌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방종과 질병이 나라 안에서 성행할 땐 법정이나 병원이 늘 열릴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유인들까지도 그런 것들에 열렬히 몰두할 땐 법을 속이는 꾀나 의술이 판을 칠 것이 아닌가?"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63. 시라쿠사의 식탁, 시칠리아의 요리, 아티카의 과자 등은 다같이 美食의 표현으로, 코린토스(지방 이름)의 여자는 당시의 고급유녀(高級遊女)를 대표하는 말처럼 쓰였다.

14. "그러나 하류계층이나 수공업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유인의 교양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능숙한 의사나 재판관을 필요로 할 때, 한 나라의 악하고 창피한 교육의 징표로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찾아낼 수 있겠나? 또는 남들이 사뭇 자기들의 주인이나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그들에게서 얻어들인 정의를 쓰도록 강요당하고, 게다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창피스런 일이고, 배우지 못했다는 뚜렷한 징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죠. 무엇보다도 창피한 일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이것보다도 자넨 다음과 같은 경우, 즉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피고나 원고로서 법정에서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는 부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고, 얼마든지 살짝 몸을 돌려 빠져나갈 수 있는 길로 피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것에 우쭐해지도록 설복될 만큼 사람이 저속하고, 게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재판관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생활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량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경우가 더욱 창피하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하고 그는 말했네.

"이 경우가 앞의 경우보다 더욱 창피한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또 의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 상처라든가 해마다 덮쳐오는 어떤 질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게으름과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은 생활방식 때문에 늪처럼 가스와 체액(體液)으로 자기 몸을 가득 채워서, 아스클레피오스[64]의 재주 있는 자손들이 싫어도 질병을 위해서 고창(鼓脹)[65]이니, 이질(痢疾)[66]이니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건 창피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것들은 병에 대해서는 정말 새롭고 괴상한 이름이로군."

64.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 전설로는 아폴론의 아들이라 하여, 그 아버지 神의 역할의 하나인 醫術을 이어 받아 그 시조로 알려지게 됨.

65. 고창(physa): 腸에 공기가 들어가 부푸르는 病.

66. 이질(katarrhos): 점막의 표면에 생기는 염증. catarrh라는 말의 유래가 됨.

"그것들은 내 짐작으론 아스클레피오스의 시대에는 없었을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트로이아에서 상처를 입은 에우리필로스에게 확실히 염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보릿가루와 이긴 치즈를 수북하게 뿌린 프람노스 포도주[67]를 마시라고 준 아가씨를 그의 아들들이 나무라지도 않았고, 또 그를 치료하고 있었던 파트로클로스를 책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일세" 하고 말했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확실히 괴상한 음료로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다지 괴상할 것도 없지. 전하는 바로는, 헤로디코스[68]가 나타나기까지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들이 오늘날의 의술인 병의 간호법을 쓰지 않았다는데, 자네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말일세. 그러나 헤로디코스는 체육교사였다가 병든 몸이 되었는데, 우선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자기 다음에는 남들을 귀찮게 굴기 위해서 체육과 의술을 섞어놓았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하고 그가 물었네.

"죽음을 오래 끌도록 해서지. 왜냐하면 그는 죽을 병이 들어서 내 생각으론, 그가 자신을 고칠 수가 없었지만 늘 세심하게 병구완을 하여, 다른 일은 다 집어치우고 정해진 생활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죽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병 고치기에 보냈는데 그러나 그의 지혜의 덕택으로 여간해서 죽질 않고 늘그막에 이르렀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가 받은 그 기술의 영예의 선물은 훌륭한 것이었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야 당연한 것이었지. 아스클레피오스가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형태의 의술을 밝혀 주지 않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다스려진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각자에게

67. 프람노스(pramnos) 포도주: 진하고 영양이 많은 포도주.

68. 헤로디코스(Herodikos): 메가라에서 태어나서 북쪽 트라키아 지방에서 살았다. 식이요법이나 건강법을 연구해냈으며, 스스로도 실행했다.

맡겨져 있어서, 아무도 병을 앓고 치료하면서 일생을 보낼 여가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겐 말일세. 그런데 우습게도 우린 이것을 기예가들의 경우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 부자나 행복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인정하질 않는단 말이야" 하고 내가 말했네.
"어째서 그럴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15. "목수는 병이 들면 약을 먹고, 토해 내거나, 씻어내거나, 또는 뜸을 뜨거나, 수술하거나 해서 병을 몰아내 주기를 의사에게 기대하네. 하지만 그에게 어떤 의사가 머리에다 붕대나 거기 딸린 것들을 감아주어서 오래 걸리는 치료방법으로 처방해준다면, 그는 곧 '병을 앓고 있을 틈이 없다', 그리고 병을 돌보고,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소홀히 하면서 '산다는 것은 보람이 없다' 고 말하네. 그러고 나서 그런 의사에게는 작별을 하고, 늘 하던 생활방식으로 들어가서 건강을 되찾고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네. 그러나 만약 그의 몸이 일을 견뎌낼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그는 죽고 그리고 힘드는 일에서 헤어나게 되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런 사람에게는 의술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는 보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나는 말했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부자란 못하도록 막으면 사는 보람이 없다고 할 그런 본연의 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네."
"저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 까닭은, 사람은 먹고 살만하면, 곧 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포킬리데스[69]의 말을 자네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고 내가 말했네.

69. 포킬리데스(Phokylides): 기원전 6세기 경의 밀레토스의 시인.

"하지만 그보다 먼저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 일로 말다툼은 그만두세. 오히려 덕이란 부자가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실행치 않는 사람에게는 살 보람이 없는가 어떤가? 또는 병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목수의 기술이나 다른 기술에다 마음을 집중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만, 포킬리데스의 권고를 실행하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가 어떤가? 우리 자신을 가르치도록 하세."
"네, 맹세코 그건 그렇습니다. 단순한 체육을 넘어서 신체를 유난스럽게 돌보는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집안 살림살이에서도, 싸움터에서도, 나라 안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일에서도 귀찮은 것이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그것이 어떤 연구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기나 은밀한 명상에 대해서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일세. 그것은 늘 두통이나 현기증이 아닐까 의심하고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철학의 탓이라 하여 따라서 덕이 훈련되고 검토될 경우엔 언제나 온갖 방식으로 방해가 된다네. 왜 그런고 하니, 그 방해라는 것은 늘 사람을 병들었다고 생각하게 해서 쉴새없이 자기 몸을 걱정시키기 때문일세."
"그런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아스클레피오스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건강한 몸을 타고 나서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신체의 이러저러한 습성을 위해서 그는 의술을 밝혀 주었고, 약이나 수술로 그들의 질병을 몰아내고서 나라의 일들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하는 생활방식대로 살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몸의 내부와 전체가 병들었을 경우에 그는 음식의 조절로 한편으론 배설을 시키고 또 한편으론 떠넣어 주어 인간을 위해서 길고도 비참한 일생을 만들어 주는 일도, 그리고 거의 그 자신만큼이나 비참한 자손을 낳게 하는 일도 해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적인 일거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도 나라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해줄 만하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우린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선생님께선 아스클레피오스를 정치가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분명히" 라고 나는 말했네.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트로이아의 전투에서 훌륭함을 보여주었고, 또 의술을 내가 말한 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자넨 모르고 있나? 그리고 자넨 기억하지 못하는가? 즉, 메넬라오스의 경우에도 판다로스가 입힌 상처에서—

피를 빨아내고 거기에 진통제를 발라 주었다.[70]

그러나 그런 다음에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가에 관해서 그들은 에우리필로스를 위한 것만큼 명령하진 않았는데, 그것은 설사 그들이 마침 키케온[71]을 마셨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기 전에 생활방식이 건강하고 규칙적이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진통제가 그들을 치료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병약하고 방종하게 타고난 사람들의 목숨은 자기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고, 그리고 그 의술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그들이 미다스[72]보다 부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해줘서도 안된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 말일세."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들을 매우 똑똑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16. "그것이 그들에겐 어울리지. 하기야 비극시인들이나 판다로스는 우리 말에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스클레피오스는 비록 아폴론의 아들이긴 했지만 이미 죽게 된 부자를 돈을 받고서 고쳐 주도록 권유되었지. 그리고 그 까닭으로 해서 그가 벼락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긴 하네만.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한 바에 따라 그들이

70. 《일리아스》 IV, 218 참조.
71. 키케온(kykeon): 보릿가루와 치즈를 프람노스 포도주에 섞은 강한 술.
72. 미다스(Midas): 프리기아 전설의 왕. 큰 부자로 알려진 인물.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다 믿지 않고, 오히려 그가 신의 아들이었다면 지저분한 심술 꾸러기는 아니었다고 말할 것일세. 만약 그가 지저분한 욕심꾸러기였다면 신의 아들은 아니었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만 다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 님? 나라 안에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건 병자건 간에 가장 많이 다룬 사람이 확실히 훌륭한 의사가 아닐까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재판관도 갖가지 성질의 사람들과 사귀어 본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야, 훌륭한 의사와 재판관은 있어야 하고 말고"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러나 자네는 내가 누구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나?"

"말씀해주신다면야" 하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게 해보겠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지만 자네는 서로 전혀 같지 않은 일들을 같은 말로 물었네."

"어떻게요?" 하고 그는 말했네.

의사들은 어려서부터 그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가장 심하게 병든 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익숙해지고, 또 만약 자기 자신이 온갖 질병에 걸리고 별로 건강하게 타고 나지도 못했다면, 매우 능숙한 사람이 될 것일세. 왜냐하면 그들은 몸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만약 그렇다면, 그들 자신의 몸이 나쁜 상태로 있는 것도 나빴던 것도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니까—오히려 영혼으로 몸을 고치는 것이라서, 이 영혼이 나쁘다거나 나빴었다거나 한다면, 아무것도 잘 고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여보게, 그런데 재판관이란 영혼으로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영혼이 어려서부터 나쁜 영혼들 사이에서 키워져 그것들과 익숙해지고, 그 자신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 때문에 마치 몸에 병이 든 경우처럼 남의 잘못을 재빨리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루어 헤아린다는 것은 허락될 수가 없네.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이 훌륭하고 선량해서 의로운 일을 건전하게 판단해야 한다면, 그는 젊어서부터 나쁜

습성에는 경험이 없고, 또 그것에 물들지 않아야 하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훌륭한 사람은 젊어서는 순진하고, 못된 자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 자신 안에 나쁜 사람들과 공감하는 본(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세."

"그렇죠. 과연 그들은 그렇게 당하고 있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말이네만, 훌륭한 재판관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노인, 즉 부정이 무엇인지 늘그막에 배운 사람으로서 부정이 자기의 영혼 안에서 자기 것으로서 있다고 알아채질 않고, 오히려 남의 영혼 속에 있는 남의 것으로서 이해하여, 사사로운 경험이 아니라 참다운 지식을 써서, 원래 그것이 어떤 악인가를 분간하는 훈련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은 사람이라야 하네" 라고 내가 말했네.

"어쨌든 그런 재판관은 가장 고귀한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선량한 재판관이기도 하지. 그것이 자네가 물은 점이었네만…… 왜 그런고 하니, 선량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선량하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많은 악한 짓을 하고 교활하며, 그리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리하며 의심 많은 인간은 자기와 같은 무리의 인간과 사귈 때는, 자기 안에 있는 본을 경계해서 눈여겨보기 때문에 똑똑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손위의 선량한 사람들과 접촉할 때가 오면, 이런 사람은 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로 어리석게 보이고, 건전한 성격을 까닭없이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네. 그러나 그는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을 더욱 자주 만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무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사실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7. "그렇다면 선량하고 지혜로운 재판관을 이런 인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전자의 경우에서 구해야 하네. 왜냐하면 악은 결코 덕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타고난 덕은 잘 교육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과 악과의 참된 지식을 동시에 얻을 것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생각으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악한 자는 아닐세" 라고 내가 말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자넨 나라에다 그런 재판술과 함께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은 의술도 법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겠나? 이 두 가지 기술은 자네의 국민 가운데서 몸과 영혼의 바탕이 좋은 사람들만을 고쳐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둘 것이고, 영혼의 바탕이 나쁘고 고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일세."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자신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이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자네들 젊은이들은 분별력을 낳게 한다고 우리가 말했던 그 단조로운 음악을 이용하여 분명히 재판술을 필요로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그 음악가는 체육술에서 뒤쫓은 것과 꼭 같은 자취를 따를 것이고, 따라서 만약 원한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코 의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체력을 얻기 위해서 음식이나 운동 자체를 다루는 다른 경기자들과는 달라서, 그는 다만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본성의 기개적(氣槪的)인 부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운동이나 체육의 고달픔조차도 견딜 것일세."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글라우콘, 음악과 체육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듯이, 그 하나는 몸을, 다른 하나는 영혼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린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네.
"양쪽 모두를 주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음악은 전혀 소홀히 하면서, 평생을 체육만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넨 알아채지 않았던가? 또는 그와는 반대로 버릇이 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칠음과 무뚝뚝함, 다른 편으로는 연약함과 얌전함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체육에만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거칠어지고, 음악에만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것 이상으로 연약해집니다."

"그렇지. 그 거칠음은 천성에 있는 기개적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옳게 키워지면 용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조이면 당연히 무뚝뚝하고 험악해질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어떻겠나? 얌전함은 철학적 천성에 따르는 것인데, 이건 너무 늦춰지면 바람직한 것 이상으로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옳게 키워지면 얌전하고 단정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

"그건 그렇죠."

"그런데 방위자들은 이 두 천성을 다 가져야 한다고 우린 주장하네."

"가져야죠."

"그렇다면 그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이죠."

"그리고 조화를 이룬 사람의 영혼은 분별 있고 용감한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지 않은 사람의 그것은 비겁하고 거치른가?"

"과연 그렇죠."

18. "그런데 음악놀이를 하는 데 몸을 맡겨, 방금 전에 우리가 말한 달콤하고 부드럽고 구슬픈 곡조를, 말하자면 귀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영혼에다 쏟아 붓고, 그

리고 그것을 중얼거리고 노래로 싫증이 날 때까지 한 평생을 보낼 경우에, 만약 기개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용광로의 쇠처럼 무르듯이 연해져서, 쓸모없고 굳은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것이 된다네. 그러나 그런 일을 쉴새없이 계속해서 영혼을 홀리게 하면 그 다음엔 그것을 녹여서 흐물흐물하게 하고 필경은 기개를 녹여 없애서, 말하자면 영혼의 힘줄을 잘라내서 '연약한 투창병(投槍兵)'[73]을 만들고 마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당초 기개가 없는 영혼을 타고났다면, 그것은 곧바로 그렇게 되고 마네. 그러나 기개가 있는 영혼을 타고난 것이라면, 그의 기개를 약하게 하여 그것을 불안정케 하고, 하찮은 일에 벌컥 골을 냈다가는 또 싹 식어 버리는 것으로 만드네. 그런 사람은 기개 있는 것 대신에 못된 성미로 가득 차서 발끈하기 잘하고 심술궂게 되고 만다네" 라고 내가 말했네.

"정녕 그렇죠."

"그러나 다른 편, 만약 체육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서 아주 왕성하게 먹긴 잘 하지만, 음악이나 철학하고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겠나? 처음에는 몸이 건강하고 제법 고매함과 기개로 가득 차서, 그전의 자기보다 한층 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렇게 되죠."

"그러나 외곬로 한 길로만 가고, 무사와는 결코 사귀지 않는다면 어떻겠나? 설사 그의 영혼 안에 무엇인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학문도 어떤 탐구도 맛보지 않고, 또 어떤 어문(語文)에도 어떤 다른 음악적 교양에도 참여하질 않아서, 그것은 일깨워지지도 않고 키워지지도 않으며, 또 그의 감각은 순화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하고 귀머거리에다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73. 《일리아스》 XVII, 588 참조.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내 생각으론, 이론을 싫어하고 교양 없는 사람이 되어, 그는 이미 말로써 설득은 결코 하질 않고, 짐승처럼 폭력과 사나움으로 그와 모든 목적을 이루고 그러고는 무식과 우둔 속에서 조화도 잃고 우아함도 없는 생활을 보내는 것일세."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즉 기개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신이 인간에게 두 가지 기술, 즉 음악과 체육을 주신 것 같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영혼과 신체를 위해서는 그것들이 다만 덩달아서 있을 뿐이고, 오히려 그 기술들이 각각 적당한 정도까지 조여지고 늦춰지고 해서, 그 두 가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일세."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음악과 체육을 가장 훌륭하게 섞어서 그것을 가장 알맞게 영혼에 다 적용하는 사람이야말로, 현(絃)들을 서로 조율하는 사람보다 훨씬 완전하고 조화를 이룬 음악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일세."
"그렇죠. 그럴 만합니다, 소크라테스 님" 하고 그는 말했네.
"글라우콘, 그렇다면 또 우리들의 나라에서도, 만약 나라의 체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언제나 지도자로서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지요."

19. "그러면 가르치고 키우는 일의 대강은 그런 것일세. 그런 국민들의 춤이나 사냥이나 몰이나 운동경기나 경마를 위해서 어째서 세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것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분명하고, 또 그것들을 찾아내기란 이젠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일세."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됐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럼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국민들 중에서 누가 다스려야 하고, 누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 아

닐까?"

"확실히 그렇죠."

"다스리는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라야 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또,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야겠지?"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사람이 농사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

"네."

"그런데 이 경우엔, 방위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야 나라를 가장 잘 방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신중하고, 유능하고, 더욱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야겠지?"

"그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걱정할 것일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것과 자기 자신과의 관심이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 가면 자기도 잘 되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군?"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방위자들 중에서 잘 살펴보아,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지만, 나라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단코 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 내야겠네."

"그들이야말로 요긴한 사람들이지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그들을 그 일생의 모든 단계에서 관찰하여, 그들이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며, 결코 속거나 강제당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잊거나 몰아내지나 않는지 어떤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네."

"무슨 뜻입니까? 몰아낸다는 그 말씀은?" 하고 그는 말했네.

"내 말해줌세" 하고 나는 말했네.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서 의견이 물러나는 건 제 뜻이거나 제 뜻이 아니겠는데, 제 뜻일 때는 더욱 훌륭한 것을 배운 사람에게서 그의 거짓된 의견이 물러나는 것이고, 제 뜻이 아닐 경우엔 모든 참다운 의견이 물러나는 것일세."

"제 뜻에 따라 물러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제 뜻이 아닐 경우에 물러난다는 것에 대해선 배워야겠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어떻겠나? 사람들이 좋은 것을 빼앗기는 것은 제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나쁜 것을 빼앗기는 것은 제 뜻에 따른 일이라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또는 진실에 관해서 속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진실에 이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는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진실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참다운 의견을 빼앗기는 것은 자기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런 일은 도둑을 맞거나, 홀리거나, 또는 강요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역시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는 말했네.

"아마 나는 비극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왜냐하면 도둑 맞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의견을 설복당한 사람들이나 잊은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엔 시간이, 어떤 경우엔 말이 모르는 사이에 의견을 훔치기 때문이지. 이젠 알아들었겠지?"

"네."

"따라서 강요당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괴로움이라든가 아픔으로 인해 그들의 의견을 바꾸게 된 사람들일세."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홀린 사람들이란, 쾌락에 넋이 나가거나 어떤 무서움에 질리거나 해서,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자네도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네."
"그렇죠. 무엇이고 속이는 것들은 다 홀리게 하는 것 같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20.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신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방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하네. 그러니 아주 어려서부터 관찰을 해서, 그런 신념을 가장 잘 잊거나 또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일거리를 앞에 놓아주고서, 신념이 확실해서 좀처럼 속지 않는 사람은 골라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리쳐야 하네. 안 그런가?"
"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고생과 고통과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위과 같은 일들을 관찰해야 하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또 세 번째 종류의 경쟁적 시험, 즉 홀리는 일에 관해서도 그들을 살펴보아야 하네—마치 망아지를 시끄러운 소리나 소란 속으로 끌고가서 쉽사리 놀라는가 어떤가를 보듯이, 아직 그들이 젊었을 동안에 무서운 것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또 쾌락 속으로 던져서, 불 속에서 황금을 시험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그들을 시험해야 하네—그 모든 일에서 여간해서 홀리지 않고 단아함을 보인다면, 자기 자신과 그가 배운 음악적 교양을 훌륭히 지키는 자라면, 그런 모든 상태에서 그 자신이 좋은 장단과 좋은 곡조를 늘 지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자신에게도 나라에도 가장 쓸모가 있을 것일세. 그리고 어려서도, 젊어서도, 어른이 돼서도 늘 시험되어 티없이 거기서 통과된 사람을 나라의 통치자나 방위자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살아서는 그에게 상을 주고, 죽어서는 장례식과 그밖에 기념비에서 최고의 명예를 부여해 주어야 하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물리쳐야 하네. 뭔가 이런 것이?" 하고 내가 말했네. "글라우콘, 내가 보기엔, 지배자들이나 방위자를 뽑거나 임명하는 일 같군. 자세한 것이 아니라 대강만 말한다면 말일세."

"제게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실은 이들을 완전한 방위자라고 부르되, 이들은 밖으로부터 적이 해를 입힐 수 없도록, 그리고 안의 친구들이 해를 입히고 싶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방금 전에 우리가 방위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젊은이들은 지배자의 신념의 보조자라든가 조력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21. "그런데 조금 전[74]에 우리가 말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짓말 중에서 하나의 고상한 거짓말로 가능하면 지배자 자신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고 가능치 못하면 그 밖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방도를 궁리해 낼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떤 거짓말입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별로 신기한 것도 아냐. 오히려 무엇인가 포이니케적인 얘기[75]인데, 그런 것은 시인들이 증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믿도록 했듯이, 이미 여러 군데서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일어났던 적도 없고 또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지도 확실치가 않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설득을 필요로 한다네" 하고 나는 말했네.
"아무래도 말씀하시길 피하시는 것 같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걸 자네에게 말해주면, 자네도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이 응당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걸세" 라고 나는 말했네.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말하기로 하지—하기야 내가 무슨 배짱, 무슨 말로써 얘길할 것인지 모

74. 제2권 382d, 제3권 389b 참조.
75. 포이니케(Phoinike)적인 얘기: 테베의 건국설화를 가리킨다.

르겠네—그리고 우선 지배자들 자신과 군인들[76]이, 다음엔 그 나머지 국민들이 믿도록 해 보겠네…… 이런 얘기가 있네. 즉, 그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양성이나 교육, 그들이 겪었다거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꿈에 지나지 않고, 실은 그때 땅 밑에서 그들 자신은 틀이 잡혔고, 양성되었으며, 그들의 무기나 그밖의 모든 장비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만들어졌을 땐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땅은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고,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마치 그들의 어머니나 유모처럼 생각해서 그곳을 걱정하고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야 하고, 또 다른 국민들도 형제이며 같은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길세."

"그런 거짓말을 하시자니 오래 부끄러워하실 만도 했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야 아주 당연하지" 라고 내가 말했네. "그래도 그 나머지 얘기까지 들어주게나. 이 얘기 안에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네만,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같이 형제이긴 해도, 그러나 신께서는 자네들 중에서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듦에 있어, 그들이 태어날 때 그들에게 황금을 섞으셨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해서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일세. 그러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은(銀)을 섞으셨지. 또 농사꾼이나 그 밖의 기공(技工)들에게는 쇠나 구리를 섞으셨다네.[77] 그런데 자네들의 애들은 대개 자네들 자신과 꼭 같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자네들은 모두 한 핏줄이기 때문에 금에서 은의 자손도, 또는 은에서 금의 자손도, 태어날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도 서로 그렇게 태어날 것일세. 그래서 지배자에 대한 신의 첫째의 막중한 명령은 이것일세. 즉,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손의 훌륭한 방위자가 되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손을 열성적으로 지켜야 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속들 중의 어떤 것이 그들의 영혼에 섞여 있는가를 보고 만약 자기 자손이 구리나 쇠가 섞여서 태어난다면 결코 가엾게 보아서는 안되고, 그 본성에 어울리는 명예를 주

76. 즉, 보조자들.

77. 헤시오도스의 네 금속(《일과 나날》 109~2)은 네 시대를 상징한 것.

어서 기공이나 농사꾼 속으로 밀어버리고, 만약 이들 중에서 뜻밖에 금이나 은이 섞인 자손이 태어난다면 그들의 체면을 세워서, 어떤 자는 방위자로 또 어떤 자는 보조자 자리에 오르도록 하되, 그 까닭은 쇠의 방위자나 구리의 방위자가 나라를 지킬 때는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신탁(神託)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일세. 이 얘기를 그들에게 믿게 할 무슨 방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그들 자신을 믿게 할 방도는 없는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이나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할 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나마 그들이 나라나 서로 간을 더욱 걱정하도록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일세. 나는 자네가 말하는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22. "그리고 그것은 민중의 전통에 따라서 결정될 것일세. 그러나 우리로서는 땅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앞세워서 전진시키도록 하세. 그들은 도착해서 진을 치기에,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곳, 즉 누군가가 나라 안에서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가장 잘 억누를 수 있고, 또 나라 밖으로부터 어떤 적이 마치 양떼를 덮치는 이리처럼 쳐들어 온다면, 그들을 가장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내야 하네. 그리고 진을 치고서 제물을 바쳐야 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잠자리를 마련하여야 하네. 어떤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 잠자리는 그들을 추위나 더위로부터 충분히 막아 주는 것이라야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들의 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하지만 군인들을 위한 것이지 돈벌이꾼들을 위한 것은 아닐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러시다면 이것과 그것과 어떻게 다르단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얘기해 주도록 해 보겠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목양자(牧羊者)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무겁고 가장 창피한 일은 양떼를 지키는 보조자인 개들을 길을 잘못 들이거

나, 굶주리게 하거나, 또는 그밖에 무슨 나쁜 버릇을 들여 그 개들이 양들을 덮쳐서 해를 입히고, 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리 노릇을 하도록 키우는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무서운 일이죠" 라고 그가 말했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조자들을 온갖 수단으로 지켜서 국민들에 대해서, 그들보다 힘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도록, 즉 다정한 동지가 아니라 사나운 주인처럼 굴지 말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켜야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만약 보조자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들은 가장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확실히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 걸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나는 말했네. "여보게 글라우콘, 응당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말한 것, 즉 만약 그들이 자기들끼리도 그렇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점잖도록 하는 데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야 한다면, 무엇이든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겠네."

"그건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그런 교육만이 아니라,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집이든 그밖에 다른 재물이든, 그들이 방위자로서의 구실을 가장 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또 다른 국민들을 박해하도록 선동하지도 않는 것이 그들에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할 걸세."

"그 주장은 옳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나,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들의 생활방식이나 주택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라야 하는가 어떤가 말일세. 즉, 첫째로 어느 누구도 피치 못할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갖지 못한다. 둘째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주택이나 창고는 아무도 갖지 못한다. 식량은 분별있고 용기있는 전쟁의 경기자인 남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합의해서 그들이 1년간 쓰기에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을 다른 국민들로부터, 방위자가 되는 것

에 대한 보수로서 받는다. 그리고 마치 군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공동식당으로 내왕하면서 함께 생활한다. 금이나 은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그들은 신들에게서 받은 신적인 것을 그들의 영혼 안에 늘 가지고 있어서 가사적(可死的)인 금속은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숱한 불경건한 짓이 많은 사람들의 돈에 의해서 생기지만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신적인 것의 소유물을 인간적인 금의 소유물에 섞어서 더럽히는 것은 경건치 못한 일이다. 그러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들에게만은, 금이나 은을 다루거나 손대는 일도 또는 그것과 한 지붕 밑에 있는 일도 또는 그것으로 몸을 장식하는 일도, 또는 금이나 은그릇으로 마시는 일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일세. 그렇게 해야만 그들 자신도 나라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일세.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느 때이고 그들 자신의 땅이나 주택이나 돈을 손에 넣어서 방위자 대신에 살림꾼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라면 그들은 다른 국민들의 동지가 아니라, 증오감을 품은 주인이 될 것이고, 따라서 미워하고 미움받고 모략을 하거나 모략을 당하거나 하면서, 늘 밖으로부터의 적들보다도 안의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욱 강하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인데, 이쯤 되면 그땐 그들 자신도 나라도 멸망의 직전에 놓이는 것일세. 그런 까닭으로 해서……" 라고 내가 말했네. "주택도 그밖의 것들도 방위자들에게는 그렇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따라서 그렇게 입법되어야 하네. 안 그런가?"

"그렇게 해야죠" 하고 글라우콘은 말했네.

제 4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그러자 아데이만토스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했네. "소크라테스 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즉, 당신은 이 사람들을 그다지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자신의 탓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실상 그들의 것인데도, 다른 지배자들처럼 그 나라로부터 조금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땅도 갖지 못하고, 아름답고 큼직한 집도 갖지 못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가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신들께 사사로이 제물도 바치지 못하고, 또 손님 대접도 못하고, 게다가 방금 당신이 말한 것, 즉 금이나 은도, 또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 가진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 모든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틀림없는 품팔이 보조병처럼 방위하는 일밖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 안에 우두커니 앉혀 놓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하겠죠?"

"그렇지. 또 이렇게 말하겠군. 즉, 게다가 그들은 밥만 얻어먹는 사람으로서 그것밖에는 남들처럼 보수를 받는 일은 전혀 없고, 그래서 제 돈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정부(情婦)에게 무엇하나 줄 것도 없겠고, 그리고 그 밖에 흔히 행복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사람들처럼 쓰고 싶은 데다 쓸 돈도 없다. 이런 것들과 그런 따위의 많은 것들을 자넨 자네의 고발장에서 빼놓고 있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고발되어 있다고 치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이냐고 자넨 말하겠지?"

"네."

"지금까지 따랐던 길 대로 간다면, 내 생각으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발견할 걸세. 왜냐하면 이 사람(방위자)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한 계급이 예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가능한 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일세. 그 까닭인즉, 그런 나라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정의를 찾아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가장 나쁘게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오래 전부터 우

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을 결판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일세.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틀을 잡고 있는데, 그 일은 그 나라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그 몇 사람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세. 그러나 그와 반대가 되는 나라는 좀 뒤에 고찰하기로 하겠네.[1]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조상(彫像)에다 물감칠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상(像)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가장 아름다운 물감을 칠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우릴 나무랄 경우에,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눈인데, 자주색 칠을 하지 않고 까만 칠을 했을 터이니까—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그 변명은 정당하다고 생각될 것일세. '이 사람아, 전혀 눈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을 아름답게 칠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부분도 그렇게 칠해야 한다는 기대는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각 부분에다 거기에 맞는 물감을 선정해서 그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가 어떤가를 고찰해 주게.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도, 방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완성시키는 따위의 행복을 방위자들에게 주라고 강요하진 말게.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꾼들에게 화려한 정장을 하게 하고 황금으로 몸치장을 하게 하며, 마음 내키면 땅을 갈라고 이르고, 또 옹기장이가 그 화덕 앞의 걸상에 기대 앉아 술잔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돌려가면서 실컷 마시고 먹으며, 녹로는 일하고 싶을 때 돌리도록 옆에 내버려 두게 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안락(安樂)에 들뜨게 만들어, 그렇게 하여 나라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세.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훈계하진 말아 주게. 왜 그런고 하니,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농사꾼은 농사꾼이 아니게 되고, 옹기장이는 옹기장이가 아니게 되고, 또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나라를 이루는 여러 가지 틀의 어느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은 그다지 문제될 것도 없네. 왜냐하면 신기료장수

1. 제8, 9권 참조.

가 서투르고 못쓰게 되어, 더이상 신기료장수가 아니면서 그런 체한다 해도 그것은 나라에 대해서 대수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법률이나 나라를 방위하는 자들이,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나라 전체를 아주 망치는데, 그러나 한편 잘 다스려지고 행복하게 하는 기틀도 그들만이 잡고 있는 것일세.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진정한 방위자를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소릴 하는 농사꾼 같은 사람들이 나라에서보다도 말하자면 국민축제의 모임에서나 잔치를 흥청히 벌이는 행복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나라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 것일세. 그러니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방위자들을 정함에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행복이 자기들에게 생기기를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라 전체에서 행복이 생기기를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서, 그 경우에서 이 보조자들과 방위자들이,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하듯이, 그들이 해야 할 일에서 가장 훌륭한 기공(技工)이 되게 하는 것을 행하도록 강요하고 설득해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번영하고 잘 다스려질 때는, 각 계급에 그 본성이 허락하는 그런 행복에 참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일세."

2. "그렇죠.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 역시 옳다고 생각하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데요?"

"다음 것들이 기공들을 나쁜 사람이 되게 타락시키는지 어떤지 고찰해보게."

"그것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부(富)나 빈(貧)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이렇게. 옹기장이는 부자가 되어서도 그의 기술에다 마음을 쓰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오히려 종전보다도 더 게을러지고 소홀해지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더욱 나쁜 옹기장이가 되겠군?"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또 정녕 가난해서 연장이라든가 그밖에 그의 기술에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가 없다면, 그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질이 더욱 낮아지겠고, 그가 가르치는 아들이나 제자도 더욱 낮은 기공이 될 걸세."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즉 빈부에 따라 기술적 제품은 나빠지고 기공 자신도 나빠지는 걸세."
"그럴 것 같군요."
"그렇다면 여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즉 방위자들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라 안으로 슬그머니 기어드는 위험이 결코 없도록 온갖 방위를 다해야 할 것 같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부와 빈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하나는 사치와 게으름과 혁명의 움직임을, 다른 하나는 혁명의 움직임에 덧붙여서 천함과 고약함을 이끌어 들이는 것이기 때문일세."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소크라테스 님, 이 점을 고찰해 보시죠. 만약 우리들의 나라가 아무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특히 크고 부강한 나라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나라와 싸우기는 어렵고 비슷한 두 나라끼리 싸우기가 더 쉽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그가 말했네.
"우선 싸워야 할 경우에, 그들은 전쟁의 경기자로서 부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네.

"네. 그건 그렇죠" 하고 그가 말했네.

"아데이만토스, 그렇다면 어떻겠나? 매우 훌륭하게 훈련된 권투선수가 혼자서, 권투선수 아닌 돈 많고 뚱뚱한 두 사람과 싸우기는 쉽다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란 아마 쉽지 않겠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그가 달아나기 시작하다가 그때 휙 돌아서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한 대 칠 수가 있고, 이런 일을 숨이 막힐 듯한 뙤약볕 아래서 여러 번 거듭할 수 있다 해도 쉽지 않겠다는 건가? 그런 선수는 더 많은 상대라도 거꾸러뜨릴 수가 있지 않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조금도 의심할 바 없겠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부자는 전쟁의 기술에 관해서보다도 권투의 기술에 관해 지식이나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넨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 경기자들은 아마 그들의 두 곱이나 세 곱되는 사람들하고도 쉽게 싸울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두 나라 중의 한쪽에 사신을 보내서 바른 대로 말을 한다면 어떻겠나? 즉, "우리는 황금과 은을 전혀 쓰지도 않거니와, 또 그러도록 허락되고 있지도 않지만, 당신네들은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싸워서 다른 쪽 나라의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말일세. 누구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개를 데리고 살 찌고 순한 양과 싸우기보다는 사납고 깡마른 개와 싸우기를 택하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로 다른 나라들의 재화(財貨)가 몰려든다면, 전혀 재화가 없는 나라에는 위험이 따르지나 않을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는 말하더군.

"행복도 하여라! 우리가 세우고 있는 나라 말고, 어떤 다른 것을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고 자네가 생각하다니"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더 거창한 이름으로 불러야 하네. 왜 그런고 하니, 그것들은 각각 내기에서 그런 말을 하듯이, 매우 많은 나라들[2]이고 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야. 적어도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둘, 즉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자들의 나라일세. 그런데 그 각각에 또 많은 것들이 있네. 그러니 자네가 만약 그것들을 하나로서 다룬다면 전적으로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한쪽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 사람들까지도 다른 쪽으로 넘겨주어서 많은 것으로서 다룬다면, 자넨 늘 많은 자기편을 갖게 될 것이고 싸울 적(敵)은 얼마 안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나라가 방금 정한 질서에 따라 지혜롭게 다스려지고 있는 한, 그것은 가장 큰 것이 될 걸세.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명성이 아니라, 설사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겨우 천 명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장 크다는 것일세. 이런 크기를 가진 나라는 헬라스에서건 외국에서건 좀처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걸세. 하기야 그것보다 몇 곱절이나 더 크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많이 발견되겠지만, 자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3.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지배자들에게는 나라의 크기를 어느 만큼으로 정해야 하며, 또 그런 크기에 맞는 영토를 어느 만큼으로 정하고, 그밖의 것들은 내버려두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장 훌륭한 기준이 될 걸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어떤 기준입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내 생각으론 이런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즉, 나라는 단일성을 잃지 않는 데까지는 커져도 좋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는 것일세."
"그렇죠. 과연 훌륭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2. '폴레이스(poleis)': 나라(polis)의 복수이며 일종의 장기 같은 것으로서, 판면이 60으로 구획되어, 그 한칸 한칸이 다 '나라'로 불린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명령인데, 그 나라가 작은 것도 아니고 또 그저 생각으로만 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넉넉한 크기와 단일한 것일 수 있도록 온갖 수단을 다해서 지키라고 방위자들에게 명령할 것일세."

"그 명령은 아마 그들에게는 쉬운 일일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지. 그건 앞서도[3] 말한 것이지만, 방위자들에게서 신통치 않은 애가 태어난다면 그 애는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 보내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애가 태어난다면 그애는 방위자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우린 말했었지. 이 말이 보여주려던 것은 다른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각기 한 가지씩 자기의 천성에 맞는 일을 하여야 되는데, 이는 제구실을 다하는 각자가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여러 나라들이 아닌 한 나라로 키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앞의 것보다도 이것이 더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여보게 아데이만토스,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그 일들은 속담에도 있듯이 만약 하나의 큰 일, 아니 크다기보다는 오히려 넉넉한 일에 조심을 한다면, 남이 생각하듯이 결코 모두가 큰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뭣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가르치는 일과 키우는 일일세. 왜냐하면 잘 가르쳐서 사리를 아는 어른이 되면, 그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금 빼놓고 있는 그밖의 일들, 즉 아내를 가진다든가 결혼이라든가 애를 낳는 일 등이 모든 일들에서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친구 사이엔 내것, 네 것이 없다'는 속담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옳겠죠" 라고 그는 말했네.

3. 제3권 415b, c 참조.

"그런데 나라의 체제란 일단 그것이 옳게 발족을 하면 마치 원환(圓環)처럼 커지는 것일세. 무슨 뜻인고 하니, 건전하게 키우고 가르치는 일은 그것이 유지가 된다면 좋은 성질을 만들고, 또 건전한 성질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딴 동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애를 낳는 일을 위해서도 그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갈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럴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요컨대 나라의 감독자들은 이런 원칙이 은연중 망쳐지는 일이 없도록 굳게 지니고 매우 조심해서 잘 감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즉 체육이나 음악에 있어서 이미 세워진 질서를 개혁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심해서 지켜서, 그들이

노래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새롭다는 노래를,
사람들은 더욱 칭찬한다.[4]

고 말할 때, 그 시인은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롭게 부르는 법을 의미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하고서, 그것을 칭찬하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하네. 우리는 그런 따위를 칭찬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서도 안되네. 왜냐하면 새로운 종류의 음악으로 바꾸는 것은 모든 것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 조심해야 할 일이기 때문일세. 그 까닭은 다몬도 주장하고 나도 확신하고 있듯이, 음악의 양식은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선 안될 일이기 때문이야."
"저도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하더군.

4. 그렇다면 여기, 즉 음악엔 아무래도 우리 방위자들이 감시소를 세워야 할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확실히 그런 따위의 잘못은 몰래 기어 들어오기가 쉬우니까요" 하고 그

4. 《오디세이아》 I, 351 참조.

는 말했네.

"그렇지. 그건 애들의 오락과 같아서 조금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그것이 하는 일이란 차츰차츰 들어와서 사람들의 성격이나 일거리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고는 이것들로부터 더욱 큰 것이 되어 나와서는 그들의 거래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이 관계에서 나와 아주 함부로 법률이나 나라의 체제로 진출해서…… 소크라테스 님, 필경은 공적이건 사적이건 온갖 것을 뒤엎게까지 됩니다."

"자, 됐네" 라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5]에도 말한 것이지만, 우리 애들은 보다 더 법률에 맞는 오락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겠지? 오락이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되면 애들까지도 그렇게 되어서, 법률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란 불가능하니까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애들이 오락에서 시작을 잘 하고, 음악을 통해서 법을 지키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는 앞서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생겨서, 이 정신은 모든 일에 붙어다녀 그 일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그전에 무엇이고 나라 안에 기울어져 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일으키도록 할 것일세."

"과연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또, 그런 사람들은 그전 사람들이 아주 폐지했던 하찮게 보이는 풍습까지도 밝혀내게 된다네"

라고 내가 말했네.

"어떤 것입니까?"

5. 제3권 424a 참조.

"이런 것일세. 젊은이는 어른 앞에선 적당히 침묵을 지킨다든가,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그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드린다든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발하는 일이라든가 옷을 입거나 신을 신거나 하는, 일반적인 몸차림새라든가, 그밖에 그런 종류의 것들일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론 어리석은 일이야. 왜 그런고 하니, 아마 그런 것은 글자나 문장으로 법을 세워서 생기는 일도 아니고, 유지될 일도 아니기 때문일세."
"그야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데이만토스, 본래 사람이 시작하는 교육의 방향은 거기 따르는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것 같아. 같은 것들끼리는 서로 모이는 것이 아니겠나?"
"물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결과는 내 생각엔 좋은 것이건 그 반대의 것이건 어떤 하나이며, 완성되고 활기 있는 것이라고 우린 말할 것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런 까닭으로 인해 나는 그런 일들에 관한 법률을 세워 보려고 하진 않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당연히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장사의 거래관계에 대해선 어떻겠나? 신들께 맹세코 말해 주게. 그리고 어떨까? 사람들이 장터에서 서로 거래하는 계약이라든가, 기능공들과의 계약에 관한 일이 라든가, 또 욕설이나 폭행에 관한 일이라든가, 소송을 일으킨다든가, 재판관들을 선임(選任)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장터나 항구에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매긴다든가 치른다는가 하는 일에 관해서…… 그리고 요컨대 장터 · 내무행정 · 항구에 관한 규정이든가, 그밖에 그런 따위에 관해서 우리는 굳이 그런 것들을 법률로 정하려고 할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진 않죠.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지시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대부분은 그들이 쉽사리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여보게, 만약 우리가 이미 얘기해온 그 법률들을 신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존해 주신다면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안 해 주신다면야 그들은 언젠가는 가장 좋은 것에 이르려니 하는 희망을 품고 한평생을 늘 그런 법률을 많이 만들었다가는 또 뜯어고치고 하면서 보내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자네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마치 병들어 있으면서도 너무 방종하기 때문에, 건전치 못한 생활 방식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뜻이로군?" 하고 내가 말했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진정 그런 사람들은 멋진 생활을 보내고 있다네.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은 치료를 받아도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병을 더 복잡하고 더 심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면서도, 누군가가 무슨 약을 권하면 그것이 그들을 건강하게 해 주려니 하고 늘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그런 병자의 상태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들이 술에 취하든가, 실컷 먹는다든가, 성적 쾌락에 빠진다든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그만두기 전에는 약이나 뜸이나 수술도 그리고 주문이나 부적이나 그밖에 어떤 그런 따위도 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바른 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그들이 무엇보다도 밉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멋진 점이 아니겠나?"
"조금도 멋있을 것 없지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옳게 일러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다니 멋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자넨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예찬자는 아닌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5. "그렇다면 또, 나라 전체가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한다면 자넨 칭찬하지

않을 걸세. 아니면 나쁘게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기존 체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미리 금지하여,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런 체제 밑에서 자기들을 가장 기꺼이 섬기고 또 아첨을 하며, 자기들의 욕망을 미리 알아차려서 비위를 맞추고, 또 그 욕망을 약삭빠르게 채워주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며 나라의 중대한 일들에서 지혜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자기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나라인데, 그런 것들은 이들〔병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들의 행동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그들을 칭찬하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을 섬기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은 어떤가? 자넨 그들의 용기와 약삭빠른 무책임성을 칭찬하지 않는가?"

"칭찬하죠. 다만 그들에게 속아서 대중이 칭찬한다고 해서 스스로 진정한 정치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넨 그자들에게 동조하진 않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잴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와 똑같이 모르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키가 4페키스[6] 라고 말할 경우,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지요"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니 그들에게 화를 내진 말게. 왜냐하면 정녕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멋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방금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은 법률을 정했다가는 다시 고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마치 히드라[7]의 목을 자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것도 모르고, 계약이나 지금 내가 말한 다른 일들에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늘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

6. 1 페키스(pechys): 팔꿈치로부터 長指까지의 길이. 약 44cm.

7. 히드라(Hydra): 머리 하나가 잘리면 그 자리에 두 개의 머리가 생긴다는 물뱀.

"과연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나로서는, 나쁘게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건 좋게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건 진정한 입법자가 이런 따위의 법률이나 나라의 체제에 말려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네. 왜냐하면 한쪽 나라에서는 그것들은 아무 쓸모도 없으려니와, 무엇 하나 이루지도 못하고, 또 다른 쪽 나라에서는 그것들 중의 더러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이전의 일들에서 저절로 생겨나오게 되겠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면 입법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네.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네. 다만 델포이의 아폴론께서 입법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하며, 가장 으뜸가는 것이 남아있지."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신전의 건립 · 제물, 그밖에 신들이나 신령들이나 영웅신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매장이라든가, 저세상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의식들일세. 왜냐하면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지(理智)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밖에는 어떤 다른 것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다른 해석자(解釋者)[8]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이 신께서는 확실히 모든 인간들을 위한 일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해석자로서 대지의 한가운데에 있는 배꼽[9]에 앉아서 해석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일세."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해야겠죠."

8. 아테네에 있어서의 특별한 종교적 종사자로서의 해석자.
9. 배꼽(omphalos): 그리스인 전체에서 중요한 神託의 자리였던 델포이 신전 안에 있는 원추상(圓錐狀)의 돌인데,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됐다. 오늘날도 그대로 있다.

6. "그렇다면 여보게 아리스톤의 아들이여, 자네 나라는 드디어 세워졌다고 생각해도 좋겠네. 그래서 다음에 할 일은 어디선가 빛을 충분히 비추어서 자네 자신이 보기도 하고, 또 자네 아우나 폴레마르코스나 그밖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터인데, 그것은 즉 그 나라 안의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부정이 있는지, 또 그것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모든 신들이나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지건 안 알려지건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그 둘 중의 어느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볼 수 있겠는지 어떤지 말일세."

"그건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글라우콘이 말했네.

"선생님께서 찾아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10] 그리고 선생님의 힘닿는 대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정의를 돕지 않는 것은 선생님으로서는 불경스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생각나도록 해준 건 옳네. 내가 그렇게 해야겠지. 하지만 자네들도 거들어 주어야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그건 이렇게 하면 찾아지리라고 기대를 거네. 즉, 우리들의 나라는 그것이 옳게 세워지고 있다면 이를 데 없이 선하다고 생각하네" 라고 나는 말했네.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없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일 걸세."[11]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안에서 그런 덕들 중의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남는 것은 우리가 발견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물론이죠."

"다른 어떤 네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그것들 중의 어

10. 제3권 368b, c 참조.

11. 윤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이른바 四元德이 여기서 비로소 논의되고 있다.

떤 하나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우선 먼저 알아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겐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만약 다른 세 가지를 더 먼저 알아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을 알려줄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분명히 그것이 바로 남는 것이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것들에 관해서도, 마침 그것들이 넷이 있으니 꼭 같은 방법으로 찾아내야겠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그것으로 우선 분명한 것은 지혜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리고 그 지혜에 관해서는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있네."

"그게 무엇인데요?" 하고 그는 말했네.

"우리가 기억해 온 나라는, 내 생각으론 정말 지혜가 있네. 그것은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일세. 그렇지?"

"네."

"그런데 바로 이 깊은 생각이란 분명히 일종의 지식일세. 왜냐하면 사람은 무식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일세."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갖가지 많은 지식이 있네."

"어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목수들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를 지혜가 있고 깊은 생각이 있는 나라라고 부르는가?"

"결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은 그 나라를 목공술이 있는 나라라고 부르게 하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나무그릇에 관한 지식과 또 그것을 가장 잘 만들기 위한 계획성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지혜롭다고 하진 않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겠나? 놋그릇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또는 그런 따위에 관한 어떤 다

른 지식 때문일까?"

"아니죠. 전혀 그런 따위 때문은 아니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리고 또 흙에서 곡식을 생산키 위한 지식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농경술이라고 불러야 하네."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우리가 방금 세운 나라에서는 나라의 어떤 특정한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해서, 나라 자체나 다른 나라들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맺는 방책이 무엇인가를 꾀하는 어떤 지식이 그 국민들 중의 누군가에게 있겠지?"

"그렇죠. 있고 말고요."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은 다름아닌 방위에 관한 지식이고, 우리가 방금[12] 완전한 방위자라고 부른 그 지배자들에게 있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자넨 그 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르겠나?"

"생각이 깊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나라라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우리 나라엔 대장장이와 이들 진정한 방위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으리라고 자넨 생각하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대장장이 쪽이 훨씬 더 많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그밖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달리 불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방위자들은 그 수가 가장 적지 않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훨씬 적죠."

"그렇다면 그 본성에 맞추어서 세워진 나라는 가장 적은 계급이나 부분, 즉 지도적이며 지배적인 부분 안에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지혜로울 것일세. 그

12. 제3권 414b 참조.

리고 이 계급, 즉 모든 지식 중에서 오직 그것만이 지혜라고 불릴 만한 그 지식에 참여하기에 어울리는 계급은 자연히 그 수가 가장 적은 계급으로서 생겨나는 것 같네."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중의 하나는, 왜 그런진 모르지만, 그 자체와 나라에 있어서 그 위치하는 자리를 우린 발견했네."

"저로서도 그건 족히 발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7. "그러나 용기 자체와 그것이 나라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용기 있다고 불릴 만한 것을 보기란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네."

"그렇다면 어떻게 봅니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부분 말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고서, 나라를 비겁하다든가 용감하다고 부를 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고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왜 그런고 하니, 내 생각으론 나라 안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비겁하건 용감하건 나라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할 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없죠."

"그래서 한 나라는 그 자체의 일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용감하기도 한 것인데,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그것은 입법자가 그들의 교육에서 불어넣어 준 것이고, 또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한결같이 고수할 힘을 나라가 그 일부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일세. 이것이 자네가 용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고 그가 말했네.

"내 말은, 용기란 일종의 고수(固守)라는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어떤 종류의 고수입니까?"

"의견의 고수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관해서 교

육을 통하여 법률이 만들어내는 것일세.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의견의 한결같은 고수란 고통에서나, 쾌락에서나, 욕망에서나, 공포에서나 한결같이 그 의견을 고수하여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일세. 그래서 자네가 원한다면,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사람과 비교해서 보여주겠네."

"그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네가 아는 일이네만, 염색집은 양털에다 자줏빛으로 염색을 하고 싶을 때는 우선 먼저 그 많은 빛깔 중에서 단 한 가지, 즉 흰 것만을 골라 내어 될 수 있는 대로 빛깔이 잘 먹도록 가장 공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한 다음 그 때야 비로소 염색을 한다네. 그리고 이런 절차로 염색이 된 것은, 물감이 잘 들어서, 세제를 쓰건 안 쓰건 빨래를 해도 그 빛깔의 윤을 빼낼 수가 없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으면 누군가가 흰 것 이외의 다른 빛깔을 들일 때나 흰 것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들일 때에, 그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자네도 알고 있는 일일세."

"알고 있죠. 그건 어이없이 물이 빠지고 말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군인들을 골라내서 음악이나 체육으로 교육할 때는 우리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야 하네.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들이 우릴 믿고 법률을, 말하자면 물감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기 위한 고안(考案)인데, 그 결과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건, 그밖에 모든 일들에 관해서건, 그들의 의견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천성이나 영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빛깔은 강한 효력을 가진 세제로도, 즉 어떤 양잿물이나 잿물보다도 독하게 작용하는 쾌락으로도, 그리고 어떤 세제보다도 강한 고통이나 공포나 욕망으로도 빼내질 못하게 될 걸세.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해서 옳고 합법적인 의견을 한결같이 고수하는 그런 힘을 나는 용기라고 부르고, 거기다 그 이름을 붙여줄 것일세. 만약 자네가 무엇인가 달리 말할 것이 없다면 말일세."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왜냐하면 같은 이것들에 관한 그저 옳은 의견이란, 교육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노예들이 나타내 보이

는 것인데,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으려니와 용기와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제겐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옳은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용기라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네.

"게다가 그것을 국민의 용기라고 받아들여 주게. 그러면 자넨 옳게 받아들이는 것이 될 걸세.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자네가 괜찮다면 차후에 더 훌륭하게 논하도록 하세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정의이니까. 그래서 그 용기의 탐구를 위해서는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네" 라고 나는 말했네.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8. "그렇다면, 나라 안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 아직도 둘이 남아 있네. 즉 '절제' 와 우리의 모든 탐구의 목적이 되는 '정의'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정녕 그렇군요."

"그렇다면 '절제'에 관해서 더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린 '정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 저로서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려니와, 만약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더 살펴 보지 않게 된다면, '정의'가 먼저 발견되길 바라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제 소원을 풀어 주고 싶으시다면 그것보다 우선 이것을 살펴보아 주시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야 확실히 내가 옳지 않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시다면 살펴주시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살펴보아야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그것은 얼핏보아서는 다른 덕들보다 더 일종의 합음(合音)[13]이라든가 조화(調和) 같은 것과 비슷하지."

13. 합음(symphonia): 여러 가지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協和를 이루는 것.

"어떻게요?"

" '절제'라는 것은 일종의 질서이며 또 어떤 쾌락이나 욕망의 극복인데, 왜 그런진 모르지만 흔히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말들이 말하자면 같은 흔적을 나타내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한데. 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표현은 우습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확실히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이겠고, 그리고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겠으니까. 왜냐하면 같은 사람인데도 이런 모든 표현으로 불리고 있으니 말일세."

"물론이죠."

"그러나 이 말의 의도는 내가 보기엔 인간 자체 안, 즉 영혼 안에는 더 좋은 부분과 더 나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서 더 좋은 것이 원래 더 나쁜 것을 지배할 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그것은 칭찬하는 말이니까—그러나 나쁘게 키워서건 어떤 사귐 때문이건 더 좋은 것이 더 나쁜 것보다 약해서 그 많은 수에 밀릴 경우, 이 말은 이것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꾸짖고 그리고 이 지경에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다고 무절제하다고 부르고 있는 것 같더군" 하고 내가 말했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우리의 새 나라를 눈여겨 보도록 하게.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이것들 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걸세.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자기의 더 좋은 것이 더 나쁜 것을 지배하는 것을 '절제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 나라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넨 주장할 테니까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눈여겨 봅니다. 또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또 수많은 갖가지 욕망이나 쾌락과 고통은, 특히 애들과 부녀자들과 노예들에게서, 그리고 이름만의 자유인들 중의 숱한 비천한 사람에게서 많이 찾아보게

될 걸세."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이성이나 올바른 의견의 도움으로 지성으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단순하고 적절한 욕망은, 적은 수의 매우 훌륭한 바탕을 가진, 그리고 매우 잘 교육된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게 될 걸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자넨 자네의 나라에서 이것도 알지 않는가? 거기서는 다수의 비천한 사람들의 욕망이 소수의 훌륭한 사람들의 욕망과 사려(思慮)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 말일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9. "그렇다면, 만약 어떤 나라를 '쾌락이나 욕망을 이기는 것'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이 나라도 그렇게 불러야 하네."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또, 이 모든 까닭으로 해서 절제 있는 것이라고도 물러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또, 만약 딴 나라에서 지배자들과 지배받는 자들이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정은 이 나라에서도 찾아질 것일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요"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들의 사정이 이럴 경우 절제는 국민들 중의 어느 쪽에 있다고 자넨 말하겠나? 지배자들인가 아니면 지배받는 자들인가?"

"아마, 양쪽에"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조화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예언이었겠지?"

"대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절제가 하는 구실이 용기나 지혜가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

들은 서로 다른 부분 안에 있어서, 각각 나라를 하나는 지혜롭게, 다른 하나는 용감하게 했지만, 절제는 그렇게 하질 않고, 오히려 글자 그대로 나라 전체에 음정(音程) 전반에 걸쳐 펼쳐 있어서 가장 약한 것에도 가장 강한 것에도 그 중간 것에도 같은 노래를 일치해서 부르게 하지만, 이 강약은 사려에 있어서건 또는 자네가 원한다면 힘에 있어서건 또는 수(數)나 재물에 있어서건 또는 그밖에 그와 비슷한 어떤 것에 있어서건 어디든지 있는 것일세. 따라서 이 합치(合致), 즉 본성에 있어서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 중의 어느 것이 나라에서나 개인에서나 지배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관한 합주(合奏)가 곧 절제라고 말한다면 가장 옳을 것일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됐네" 라고 내가 말했네. "내 생각엔 우선 그 세 가지가 우리의 나라 안에서 인정된 셈일세. 그러나 나라를 더욱 덕 있게 하는 또 하나는 대체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일세."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라우콘, 이제 우리는 마치 사냥꾼들처럼 숲을 둘러싸서 정의가 빠져나가 몸을 감추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지켜 보아야겠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 이 근처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 눈을 똑바로 뜨고 열심히 찾아서, 어떻게든 나보다 먼저 보고서 내게 가르쳐 주도록 하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고 그는 말하더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제가 선생님 뒤를 따라가서 제게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를 제자로 쓰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성공하길 빌면서 날 따라오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하죠. 그저 이끌어만 주십시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그곳은 정말 다가서기가 어렵고, 짙은 그늘 밑에 있는 것 같아. 게다가 또 어두운 숲이라 몰아내기가 쉽지 않네. 그래도 어쨌든 가야겠지"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가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서는, "옳지! 옳지! 글라우콘" 하곤 말했네. "뭣인가

발자국이 있는 것 같으니, 결코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정말 우린 어리석었어" 하고 내가 말했네.
"어째서요?"
"글쎄 이 사람아, 그게 아마 우리 발 밑에서 처음부터 내내 얼씬거리고 있었는데도 그걸 못보고 있었으니 우린 참으로 우스운 것이었군. 마치 자기 손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때로는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그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아마 그래서 우린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이걸세. 즉, 우린 지금까지 내내 그것에 관해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으면서, 어떤 의미에선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네" 라고 내가 말했네.
"듣고 싶어 애쓰는 사람에겐 너무나 서론이 길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10. "어쨌든 들어주게, 내가 말하는 것에 일리가 있는지 어떤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있었을 때, 한결같이 지배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 또는 그것의 일종이 내 생각엔 아무래도 정의이기 때문일세.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정해 놓았고 또 자주 말했던 것은, 자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각 사람마다 나라 안에서 자기의 천성에 가장 어울리는 일,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말했죠."
"게다가 또,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집적거리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남들에게서 우리가 듣기도 했고, 또 우리 자신도 자주 말했던 일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말했죠."
"자, 그러면 여보게, 이것 즉 자기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인 듯 싶네. 어디서부터 이것을 증명하는지, 자넨 알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죠" 라고 그는 말하더군.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미 고찰한 절제 · 용기 · 지혜의 다음으로 나라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나라 안에서 자라나도록 힘을 주고 또 그것들이 나타난 다음에는, 나라 안에 그것이 있는 한 그것들을 보존시켜 주고 있네. 그러나 처음의 셋을 발견한다면, 그 나머지 하나가 정의라고 우린 말했던 것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지만, 그 위에 또 이들 중의 어떤 것이 나타나서 나라를 선하게 하는지 결정지어야 한다면, 다음의 것을 분간하기란 어려울 걸세. 즉, 그것은 지배자와 지배받는 사람 사이의 일치된 의견인가 어떤가, 아니면 무엇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서 군인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합법적인 의견의 유지인가, 또는 지배자들 사이에 있는 사려와 방위인가 어떤가, 또는 이것, 즉 각각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고 다른 것에 집적대지 않는 것이 애들 안에도 또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기공(技工)이나 지배자나 지배 받은 사람 안에 있으므로 해서, 나라를 선하게 하는 데 가장 이바지하는가 어떤가를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분간하기 어렵죠." 라고 그가 말했네. "어찌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각자가 나라에서 나라의 덕을 향상시키기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힘은 그 지혜나 절제나 용기와 겨루는 것 같군."

"확실히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나라의 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것들과 겨루는 것을 곧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나?"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네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지를, 이렇게도 한번 고찰해 보게나. 자네는 나라 안의 지배자들에게 소송사건을 재판하도록 명령할 것인가?"

"그렇고 말고요."

"그들의 재판의 목적이란 다름아닌 당사자들 사이에서 남에게 속하는 것을 갖거나, 자기 것을 뺏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겠지?"

"그것밖엔 아무것도 없죠?"
"그것이 의롭다는 생각에서겠지?"
"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에서도, 자기 자신의 것을 갖거나 행하는 것과 자기에게 속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걸세."
"그건 그렇죠."
"자, 그러면 자네도 나와 의견이 같은지 어떤지를 보아주게나. 목수가 신기료장수의 일을, 또는 신기료장수가 목수의 일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들이 연장이나 품삯을 서로 바꾼다거나, 또는 같은 사람이 그 두 가지 일을 다해 보려고 해서 그런 일들 전체에 걸쳐 서로 바꾸는 일이 있다거나 할 경우, 나라에는 무엇인가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겠지?"
"대수롭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본래 기공 또는 어떤 돈벌이꾼이면서, 재물이나 사람의 머릿수나 체력이나 그밖에 무슨 이런 따위로 우쭐해진 나머지 군인계급에 들어가려고 해본다든지, 또는 군인 중의 한 사람이 주제넘게도 의정원 의원(議員)이나 방위자의 계급에 들어가려고 해본다든지 해서, 이들이 서로 연장이나 명예를 바꿀 때, 또는 같은 사람이 이 모든 구실을 동시에 해보려고 할 때, 내 생각엔 이들의 그런 바꿈이나 집적거림은 곧 나라의 멸망이라고 자네도 생각할 걸세."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급에는 셋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집적거리거나 바꾸는 일은 나라에 대해서는 크나큰 해가 되고, 또 지극히 나쁜 짓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옳겠지?"
"정녕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나라에 대한 가장 나쁜 짓은 곧 부정이라고 자넨 주장할 것이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11. "그렇다면 그게 곧 부정일세. 그러나 이렇게 거꾸로 말해야 하네. 즉, 돈벌이꾼 · 보조자 · 방위자의 각 계급이 각각 제구실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각 계급

이 나라 안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정의일 것이고, 또한 나라를 의롭게 하겠지?"

"그렇게 밖에 달리는 생각되질 않는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아직은 그것을 전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진 말게. 오히려, 만약 이 원형(原型)[14]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거기서도 정의임이 우리에게 인정된다면, 그땐 우리가 승인할 걸세—왜냐하면 그 이상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고찰해 볼 걸세. 그러나 지금은 그 고찰을 마무리 짓도록 하세. 즉, 그것은, 만약 정의를 가지고 있는, 뭣인가 보다 더 큰 것을 찾아내서, 거기서 먼저 정의를 관찰해 보려고 했다면 우리는 한 개인에게서 보다 더욱 쉽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일이었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이란 곧 나라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좋은 나라에는 정의가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일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네. 그러니 거기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고서, 만약 그것이 정의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할 걸세. 그러나 혹시 한 개인에게서 뭣인가 다른 것이 나타난다면, 우린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것을 따져볼 것인데, 그 둘을 서로 나란히 놓고 바라보기도 하고 서로 비비대기도 해서, 아마도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나듯 정의의 불꽃을 번득이게 할 수 있을 걸세.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밝혀질 때는 우린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굳힐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말씀하신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들이

14. 原型이라고 번역한 원말은 eidos이다 '각 개인에게 적용'이라는 말이 계속되므로, 原型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플라톤에게 이 무렵에 초월적인 '이데아論'은 물론 성숙한 것이었지만, 이 문장의 경우의 원형을 형이상학적 의미의 원형(parousia)이라고 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고, 다만 正義의 '이데아', 形相 또는 定義의 가벼운 擬人化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같은 것이라고 불리는 점에서 같은가 같지 않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같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면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나라는 바로 그 정의의 원형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을 걸세."
"같겠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본성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가 각기 제구실을 다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또한 이 세 종류의 어떤 다른 정서나 습성 때문에 나라가 절제있고, 용감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되었던 것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여보게,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도 나라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옳다면, 그가 자기의 영혼 안에 이것들과 같은, 원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기를 기대할 걸세."
"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라고 그는 말했네.
"놀라운 친구로군. 우린 영혼 안에 이들 세 가지 원형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또 하나의 하찮은 문제에 뛰어들고 있군 그래."
"하찮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님, 훌륭한 것은 까다롭다고 하는 속담이 아마 옳겠으니까요."
"그건 그렇겠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리고 알겠나, 글라우콘? 내 의견으론 이 문제 전체는 지금 우리가 이 토론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 방법을 가지고서는 결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걸세—왜 그런고 하니, 그리로 이끌고 가는 또 하나의 길은 더욱 멀고 험난하니까—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이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수준까지는 파악될 수 있겠지?"
"그만하면 만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당장에 저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으니까요."
"하기야 나도 전적으로 만족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러시다면 지루해 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들과 성격들

이 있다는 것을 우린 불가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것들은 어떤 다른 데서부터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왜 그런고 하니 트라키아 지방이나 스키티아 지방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기개(氣槪)로 해서 그 평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나라 안에 있는 기개적 성격이라든가, 또는 주로 우리 고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든가, 포이니케 사람들이나 이집트 지방 사람들이 적지않이 가지고 있다고들 말하는 배금적(拜金的) 성격이라든가가 개개의 국민들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확실히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야 그렇지. 그리고 그건 조금도 알기 어려울 것이 없네" 라고 내가 말했네.
"어려울 것 없죠."

12.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가, 또는 세 가지가 있는 중에서 각각 다른 것으로 각각 다른 것을 하는가 어떤가를 묻는다면 이건 까다로운 일일세. 즉, 우린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의 하나로 배우고, 또 다른 하나로 노여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뭔가 세 번째 것으로 먹고 마시거나 생식하는 쾌락 따위를 욕구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땐 그 각각 다른 경우에 언제나 영혼 전체로 하는가 말일세.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결정짓기란 어려운 문젤세."
"제게도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면 그것들이 서로 같은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인지,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세."
"어떻게요?"
"같은 것이, 같은 때에, 같은 부분에서, 그리고 같은 관계에서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15] 분명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 안에서 그런 일

15. 철학사에 최초로 나타난 矛盾律의 기초가 되는 말.

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는 것을 알 걸세."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나."

"말씀하시죠" 라고 그는 말했네.

"같은 것이 같은 때에 같은 부분에서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럴 수야 없지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입씨름이나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자세히 합의를 보아 두도록 하세. 왜 그런고 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멈추고 있으면서 한편 그의 손이나 머리는 움직이고 있다면 말일세, 같은 사람이 같은 때에 멈추고도 있고 움직이고도 있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내 생각으론 그것을 옳은 표현이라고 보아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멈추고 있고 다른 부분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일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욱 눈치빠르게 농담으로, 팽이가 같은 점에서 그 끝을 고정시켜서 돌고 있을 때 팽이가 전체로서 동시에 멈춰 있으면서 움직이고도 있다고 말한다면, 또는 뭣인가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자기의 같은 부분에서 같은 시간에 멈추고도 있고 움직이고도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그 말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은 제 안에 곧은 부분과 둥근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곧은 부분에서는 멈추고 있으나—어느 편으로도 기울지 않고 있으니까—둥근 부분에서는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것인데, 그러나 곧은 부분을 전후좌우로 돌리면서 동시에 기울게 할 때는 결코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할 것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니 그런 따위의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릴 당황케 하진 않을 것이고, 하물며 어떤 같은 것이 같은 때에 같은 것 안에서, 그리고 같은 관계에서 반대되는 동작을

당한다거나, 반대되는 상태로 있다든가, 또는 반대되는 동작을 행한다고 우릴 믿게 하진 못할 걸세."

"그렇죠. 정녕 제게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든 입씨름을 따져보고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느라 억지로 지루하게 오래 끌고 싶지 않으니 그건 그렇다고 가정해 놓고 다만 언젠가 그것들이 달리 나타난다면, 그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 무효가 된다는 것에 합의를 보고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세" 라고 내가 말했네.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3. "그런데 찬동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어떤 것을 얻어 가지려는 것과 거절하는 것, 끌어당기는 것과 밀어서 물리치는 것 이런 등등을 서로 반대되는 것을 행하건, 당하건 반대되는 것으로 치겠지? 그것들은 반대임에는 다를 바 없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것들은 반대되는 것이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목마름과 굶주림, 일반적인 욕구, 그리고 바라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방금 말한 그 종류 안의 어딘가에 다 넣을 것이 아니겠나? 이를테면 욕구하는 사람의 영혼은 그가 욕구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한다거나,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끌어 당긴다거나, 또는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길 바라는 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마치 누가 묻기라도 하듯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것에 찬성한다고 자넨 말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어떻겠나? 바라지 않는 것이라든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욕구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서 밀어서 몰아내고 거부하거나 앞서의 모든 것과 반대되는 종류에다 넣지 않겠나?"

"물론이죠."

"그것이 그렇다면, 욕망이라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뚜렷한 것이라고 우린 말하겠지?"
"그렇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 한쪽은 마실 것에 대한, 다른 쪽은 먹을 것에 대한 욕구이겠지?"
"네."
"그렇다면 목마름이 목마름인 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한 마실 것보다 더한 것에 대한 영혼 안의 욕구일까? 바꿔 말하면 목마름은 덥거나 찬 또는 많거나 적은 마실 것 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마실 것에 대한 욕구일까? 아니면, 만약 더운 것이 목마름과 겹칠 경우엔 찬 것에 대한 욕구가 겹쳐서 생기지만, 만약 찬 것이 겹칠 경우엔 더운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길까? 그러나 만약 다량이 나타나 있음으로 해서 목마름이 심할 경우엔 마실 것에 대한 많은 욕구가 일어나지만, 목마름이 적을 경우엔 마실 것에 대한 적은 욕구가 일어나는가? 그러나 그저 목마르다는 상태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욕구하는 것, 즉 단순한 마실 것 이외의 것을 욕구하는 일은 결코 없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에 대한 굶주림도 그런가?"
"그건 그렇죠. 욕망 그 자체는 각각 다만 그것이 그저 자연적으로 욕구하는 것에 대한 욕구이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에 대한 욕구는 덧붙어서 생긴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누구나 그저 마실 것을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만한 것을 욕구하고, 또 그저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을 만한 것을 욕구한다는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경계를 소홀히 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욕구한다고 말하기 때문일세. 따라서 목마름이라면 그것은 마실 것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 그럴 만한 것에 대한 욕구이겠고, 그밖에 다른 욕구들도 마찬가질 걸세."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뭣인가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지만 말일세, 내 생각으로는 뭣인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을 쓰고 있는 데서는 어디서나 이러저러한 말은 이러저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기

그 자체는 다만 각기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있네."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네.

"모르겠다고? 더 큰 것은 곧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는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확실히 그렇죠."

"더 '작은 것'보다 '큰 것'이겠지?"

"네."

"그러나 훨씬 더 '큰 것'은 훨씬 더 '작은 것'에 대해서 상대적이겠군. 그렇지?"

"네."

"그리고 또, 때로는 더 '큰 것'은 때로는 더 '작은 것'보다, 그리고 미래에 더 '큰 것'은 미래에 더 '작은 것'보다 상대적이겠지?"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것은 더 적은 것에 대해서, 또 두 곱은 절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모든 경우가 다 그렇고, 더 무거운 것은 더 가벼운 것에 대해서 더 빠른 것은 더 느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뜨거운 것은 더 찬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따위의 모든 경우에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관한 것은 어떻겠나? 그 방식은 같지 않은가? 그저 지식은, 다만 알 수 있는 것의,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기든 지식의 대상의 지식인데, 그러나 어떤 특정한 성질에 관한 지식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대상을 의미하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런 것일세. 즉, 집짓기에 관한 지식이 생겼을 때, 그밖에 다른 지식과 구별해서 건축학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니겠나?"

"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밖에 다른 어떤 것하고도 달라서, 어떤 특정한 성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겠지?"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성질에 관한 지식이 생겼을 때, 그 자체도 또한 어떤 특정한

성질에 관한 것이 되겠군? 그리고 그밖에 다른 기술이나 지식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습니다."

14. "그러니 이제 자네가 과연 알았다면, 내가 그때 말하려던 것은 바로 이것, 즉 또 하나의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을 쓰고 있을 경우에, 단순한 것은 단순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저러한 말은 이러저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자네가 말해야 한다는 것일세. 그러나 결코 이러저러한 성질을 가진 것은 곧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즉 건강에 관한 지식은 곧 건강하다든가, 질병에 관한 지식은 곧 병들었다든가, 또는 악한 것에 관한 지식은 곧 악하다든가, 선한 것에 관한 지식은 곧 선하다든가 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닐세. 오히려 단순히 알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질을 가진 대상에 관한 즉 건강한 것과 병든 것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결과로 그 지식 자체도 특정한 성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 지식을 이미 다만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러저러한 성질이라는 것이 덧붙어서 의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던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목마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뭣인가 또 하나의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들 중의 하나라고 자넨 말하겠지? 그리고 목마름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건 마실 것이죠."
"그렇다면 특정한 성질의 목마름은 특정한 성질의 마실 것을 의미하지만, 목마름 자체는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또는 좋은 것도 아니며 나쁜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성질의 마실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직 목마름 자체는 마실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목마른 사람의 영혼은 그가 목마른 한 오직 마시고만 싶어하고, 그렇게 하길 애타게 기다리며,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일세."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영혼이 목이 마를 때에 무엇인가 그것을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있다면, 목이 말라서 마치 짐승처럼 마실 곳으로 몰고가는 것과 무엇인가 다른 것이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는 같은 것은 그 자체의 같은 부분을 가지고, 같은 것에 관해서 같은 때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확실히 그렇겐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생각하네만, 그것은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그의 손은 활을 당기기도 하고 동시에 밀어내기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한손은 밀어내고 다른 손은 당기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질세."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목이 마르면서도 마시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그들에 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들의 영혼 안에는 마시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막는 것도 있어서, 나중 것은 명령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영혼 안에 생길 때는 언제나 이성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지만, 영혼을 끌고 당기고 하는 충동들은 불상사나 질병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상의 것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혼 안에서 추리작용을 하는 것은 '이성적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랑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하는 작용을 하며, 또 그밖에 다른 욕구에 가슴을 설레이는 것은 '비(非) 이성적'인 욕구적 부분이라고 부르되, 갖가지 충만이나 쾌락의 짝이라고 한다

해도 이치에 어긋나진 않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안에 이 두 부분이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두세. 그런데 말일세, 기개(氣槪), 즉 그것으로써 우리가 노여움을 느끼는 부분은 세 번째 것인가? 아니면 그 두 부분 중의 하나와 본성적으로 같은 것인가?" 하고 내가 말했네.
"아마 그 중의 하나, 즉 욕구적 부분과……" 하고 그가 말했네,
"한데, 나는 언젠가 어떤 얘기를 듣고 그렇게 믿고 있네. 그것은 즉 아글라이온의 아들인 레온티오스가 페이라이에우스로부터 북쪽 성벽의 바깥쪽을 따라서 시내로 올라 오다가, 사형집행인 옆에 시체들이 굴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들을 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싫어서 몸을 돌리려고 하여 잠시 스스로 실랑이하다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욕구의 힘에 눌려 눈을 부릅뜨고 시체 쪽으로 달려가서, '이 악귀들아, 꼴 참 보기 좋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긴 하지만 노여움은 욕구에 대해서 서로 각각 다른 것으로서, 이 둘은 싸울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걸 의미 하고 있죠" 하고 그는 말했네.

15. "그리고 또, 욕구가 이성을 거슬러서 어떤 사람에게 압력을 가할 때 그는 제 자신을 욕하고, 자기 안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에 화를 내고, 그리고 마치 두 패거리가 서로 분쟁을 하듯이, 그런 사람의 기개는 이성 편에 선다는 것을 다른 많은 경우에도 우린 알아차리지 않는가? 그러나 이성이 자기를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일단 결정을 하면, 기개가 욕구와 한패가 된다는 그런 사태가 자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일이 있다고 자네가 주창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하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결코 그렇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가?" 하고 나는 말했네.

"그가 고상한 사람일수록 굶주림 · 추위 또는 그밖에 무엇이든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가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당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지 않은가? 즉 내 말마따나 그의 기개는 그런 사람을 어겨서 일깨워지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나?"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잘못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땐 어떤가? 그런 경우엔 굶주림 · 추위 또는 그밖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속을 끓이고 분격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편을 들어서 싸우고, 이길 때까지 버티서 결국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죽거나 또는 목양자가 개에게 하듯이, 그 안에 있는 이성이 그를 불러들여 직성이 풀리기까지는 결코 그의 고상한 행동을 그치지 않겠지?"

"그렇고 말고요. 말씀하신 대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과연 우리 나라에서의 보조자들은 말하자면 나라의 목양자인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개와 같다고 했었죠."[16]

"과연 자넨 내가 말하려는 것을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아울러 이런 것도 명심하고 있는가?"

"무엇인데요?"

"기개적(氣槪的)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서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뀌는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그때 우리는 그것이 뭔가 욕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젠 그것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싸움에서는 이성적 부분을 지키는 편에 속해 있다고 우린 주장하기 때문일세."

"그렇고 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것은 이 부분과도 다른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 부분의 한 종류인가? 따라서 영혼에는 셋이 아니라 두 종류, 즉 '이성적인 것'과 '욕구적인 것'이 있다는

16. 제3권 416a 참조.

건가? 또는 나라가 세 계급, 즉 돈벌이하는 계급, 보조자의 계급, 그리고 의원(議員)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영혼에서도 이 기개적 부분이 세 번째 것으로 있는데, 그것이 나쁘게 키워져서 못쓰게 되지 않는 한 나면서부터 이성적 부분을 돕는 것인가?"

"셋째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그것이 욕구적 부분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듯이, 이성적 부분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면 말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밝혀지기야 어려울 것 없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왜냐하면 그 정도는 어린애들에게 볼 수 있으니까요. 즉,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개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엔 이성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대개는 아주 늦게서야 참여한다는 것 말씀입니다."

"그렇지. 과연 말 한번 잘했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은 짐승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일세.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앞서 언젠가 우리가 말했던[17] 호메로스의 증언—

그는 가슴을 치고, 마음을 나무랬다.

고 말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여기서 분명히,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해서 이성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뭇 전혀 다른 것을 대하듯이, 이성을 잃은 노여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일세."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7. 제3권 390d 참조.

16.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겨우 헤엄쳐 나와서, 나라 안에나 우리들 각자의 영혼에 종류도 같고 수효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셈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도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혜롭고, 나라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개인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물론이죠.”

“그러면 또 개인이 용기 있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그렇게 용기가 있겠고,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다 그와 마찬가지로 덕에 관한 다른 모든 부분을 갖게 될 것일세.”

“그렇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글라우콘, 나라가 정의로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정의롭다고 우린 말할 것일세.”

“그것도 전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계급이 각각 제구실을 하는 까닭으로 해서 정의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을 것일세.”

“잊지 않고 있다고 제게는 생각되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는 자기 안에 있는 부분들이 제각기 제 일을 한다면 정의롭고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네.”

“그렇죠. 확실히 그것은 명심해야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이성적 부분은 지혜가 있고 영혼 전체를 위해서 미리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기개적’ 부분은 그것에 복종해야 하고 그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나?”

“정녕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듯이,[18] 음악과 체육을 섞은 것은 아름다운 말과 가르침으로 한쪽을 강화하고 키우는 한편 곡조와 장단으로 다른 쪽을 늦추어 달래면서 얌전하게 해서, 그 두 부분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그 둘이 그렇게 키워져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도록 참다웁게 배우고 교육된다면, '욕구적'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걸세—이 부분은 각 사람의 영혼에서 가장 큰 부분이며, 나면서부터 돈에 가장 탐욕스런 것이야—즉 이 부분이 육체와 맺어지고 있는 이른바 쾌락으로 채워져서, 크고 강하게 되어 자기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진 않고, 자기 신분에 걸맞지도 않게 그 두 부분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려고 하여, 모든 부분의 생활 전체를 뒤집어엎는 일이 없도록 그 두 부분이 지켜볼 것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 두 부분은, 한쪽은 깊이 생각하고 다른 쪽은 그것들을 위해서 싸움으로써, 지배자에게 복종하며 지배자가 깊이 생각한 것을 용감하게 이루어냄으로써, 밖으로부터의 적에 대항해서 영혼 전체와 육체를 매우 훌륭하게 지킬 수 있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렇죠."

" '기개적' 부분이 고통이나 쾌락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성'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을 끝까지 지닐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각 개인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나는 생각하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지배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전달하는 작은 부분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그 부분 자체 안에, 각 부분을 위해서 그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를 가질 경우일세."

18. 제3권 411e~412a 참조.

"과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겠나?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이, 이성적 부분은 지배하지 않으면 안되고, 다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생각이 일치될 때, 바로 그 부분들의 우애와 화합으로 인하여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네."

"과연 나라에 있어서건 개인에게 있어서건 절제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말일세, 우리가 자주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방식의 사람은 정의로운 것일세."

"그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정의가 희미해져서, 나라에서 소상하게 밝혀졌던 바로 그것과 뭣인가 다르게 보인다고 설마 우리에게 생각되진 않겠지?"

"그렇죠. 제겐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만약에 우리 영혼 안에 아직도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결론과 통속적인 생각과 비교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 라고 내가 말했네.

"대체 그것들이 무엇인데요?"

"이를테면 말일세, 만약 그 나라와 본성이나 양육으로 해서 그 나라와 같아진 사람에 관해서, 그런 사람이 그에게 위탁한 금이나 은을 가로챌 것인가 아닌가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보다 더 순순히 그 일을 하리라고 누군가가 믿을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아무도 그렇게 믿진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신성모독이나 도둑질 또 사사로이는 친구에게 공적으로는 나라에 배반하는 일은 이 사람하곤 거리가 먼 일이 아니겠나?"

"먼 일이죠."

"게다가 또, 물론 그는 맹세나 그밖에 어떤 다른 합의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불충실하진 않을 걸세."

"어찌 불충실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간통이라든가 부모를 소홀히 한다든가 신들께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일

은 이 사람보다도 전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일일세."
"전적으로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의 안에 있는 각 부분들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일에서 제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자넨 사람들이나 나라들을 그런 것으로 만드는 능력 말고, 어딘가 다른 데서 '정의'를 찾겠나?"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7. "그렇다면 거기 관해서 우리가 꿈꾸던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셈일세. 내가 말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신의 뜻으로 '정의'의 근원이라든가 근본적 특징에 우연히 걸려든 것 같다고 우리가 했던 짐작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글라우콘—그 까닭으로 해서 또 도움도 되긴 했지만—신기료장수로 태어난 사람은 신발을 만들고 다른 아무것도 해서는 안되며, 또 목수는 목수 일을 하는 것이 옳고, 그외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실은 '정의'의 영상(映像) 같은 것이었네."
"그런 것 같군요."
"한데 사실 말이지, 아무래도 '정의'란 과연 뭔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을 외부적으로 행하는 것에 관계되지는 않고, 오히려 내면적으로 행하는 것에, 그리고 참다운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일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남의 부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든가, 영혼 안에 있는 다른 부분들이 서로 방해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집안 살림살이를 잘 보살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고, 자기 자신 안에 질서가 있게 하고,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게 되어, 마치 글자 그대로 음정(音程)에 있어서의 세 가지 항(項), 즉 저음 · 고음 · 중음,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항들처럼 그

세 부분들을 조화시켜서, 그것들을 한데 묶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것을 하나로, 즉 절제있고 조화된 것으로 이루어내되, 그때야말로 돈벌이에 관해서건, 몸을 돌보는 일에 관해서건, 또는 나라 일에 종사하건, 사사로운 거래 관계에 종사하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바로 영혼의 이 태도를 지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기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를 정의롭고 훌륭한 것, 그리고 그런 행위를 주재(主宰)하는 지식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런 태도를 늘 뒤엎으려는 어떤 행위도 부정한 것, 그리고 이번엔 그 행위를 주재하는 의견은 무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실천하게 될 것일세."

"그렇고 말고요. 소크라테스 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됐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나라와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정의를 발견했다고 우리가 주장한다 해도 큰 잘못은 아니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렇죠. 맹세코,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럼 그렇게 주장할까?"

"주장해야죠."

18. "그렇다면 그렇게 한 것으로 하세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리고 그 다음엔 '불의'를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는 이들 세 부분 사이의 일종의 싸움, 즉 집적거림이라든가, 남의 일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영혼의 한 부분이 그 전체에 대항하여 자기에게 걸맞지도 않으면서 영혼의 지배자가 되려고 일으킨 배반인데, 그것은 부분의 본성은 지배 계급에 속해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이 어울리기 때문이 아니겠나? 내 생각엔 뭣인가 이런 따위, 그리고 부분들의 혼란이나 빗나가는 일은 곧 불의 · 방종 · 비겁 · 무식 등 한마디로 온갖 악이라고 우린 주장할 걸세."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불의'와 '정의'가 이젠 밝혀졌으니,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이라든가, 불의

하다는 것, 또 다른 편으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매우 분명해 지지 않았나?"

"어떻게요?"

"분명히 그것들은 건강한 것이나 병든 것과 아무 다름도 없네. 이것들이 육체 안에 있듯이, 그것들은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지" 하고 나는 말했네.

"어떤 점에서요?" 하고 그는 말했네.

"확실히 건강에 좋은 것은 건강을, 그리고 건강에 나쁜 것은 병을 만들어 넣어주네."

"네."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행동은 정의를, 그리고 불의한 짓은 불의를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불가불 그렇죠."

"그런데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자연스런 관계로 세워 놓는 것이지만, 병들게 한다는 것은 이 자연스런 관계를 어겨서 하나가 지배하거나 다른 것의 지배를 받거나 하게 되는 일일세."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정의를 만들어 넣는다는 것은 영혼의 부분들을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자연적 관계로 세워 놓는 것이지만, 불의는 이 자연스런 관계를 어겨서 하나가 지배하거나 다른 것의 지배를 받거나 하게 되는 일이겠지?"

"정녕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덕이란 영혼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좋은 상태의 일종이지만, 악덕은 병이나 추함이나 약함일 것 같군."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아름다운 일거리는 덕을 얻도록, 추한 일거리는 악덕을 얻도록 이끌게 될 것이 아닌가?"

"필연적이죠."

19.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래도 이것의 고찰일 것 같군.

즉,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든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라든가, 정의롭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 알려지건 말건 이로운가? 아니면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이라든가 불의하다는 것은 보다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징벌을 면할 수만 있다면 이로운 것인가 그 말일세."

"하지만 소크라테스 님, 정의와 불의는 각각 우리가 얘기해 온 바와 같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그 고찰은 제게는 이젠 우스운 일인 것 같군요. 그건 온갖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모든 재물이나 모든 지배력이 따른다 해도 육체의 구조가 못쓰게 된다면야 살아가는 보람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의 구조는 엉망이 되어 못쓰게 된다 해도 악이나 불의를 벗어나서 정의나 덕을 얻게 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사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하긴 우습긴 하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만둬서는 안되겠네."

"그렇고 말고요.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러면 어서 오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악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를…… 하기야 그것도 관찰할 만한 종류가 몇 인지를 보세나" 하고 내가 말했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 높이에까지 우리 얘기가 올라왔으니, 마치 전망대에서 보듯이, 덕의 종류는 하나지만 악덕의 종류는 무한해서 그것들 중에 각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넷으로 보이는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나라의 체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영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네" 하고 내가 말했네.

"몇이나 됩니까?"

"나라의 체제가 다섯, 영혼이 다섯" 하고 내가 말했네.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고 그가 말했네.

"말하지.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이 나라의 체제의 한 가지겠네만, 그건 두 가지로

불릴 수 있을 걸세. 왜 그런고 하니, 지배자들 사이에 특출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면 '군주정체(君主政體)'라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귀족정체(貴族政體)'라고 불릴 수 있겠지" 라고 나는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의 종류라고 말하는 것일세" 라고 내가 말했네. "왜냐하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이건 그 이상이건 간에 우리가 말한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면, 나라의 값어치 있는 중요한 법률을 그들이 바꾸진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죠. 설마 그렇지야 않겠죠" 라고 그가 말하더군.

제 5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그래서 그런 나라와 나라의 체제,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나는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부르네. 그러나 그밖에 다른 것들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한 것이든 또는 개인의 영혼의 성격을 형성하는 일에 관한 것이든, 나는 악하고 그릇된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은 악의 네 가지 형태에 속하는 것일세."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화해 간다고 내게 생각되는 차례대로 하나씩 다루어 가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때 폴레마르코스가—그는 아데이만토스에게서 좀 사이를 두고 앉아 있었으니까—손을 뻗쳐서 어깨 언저리에서 그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고는 그에게 몸을 기울이고 무엇인가 몇 마디 수군댔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다만 이것만은 들리더군. 즉 '놓아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말일세."

"절대로 안돼" 하고 아데이만토스가 곧 소릴 높이면서 말했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자네들은 무엇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건가?" 하고 말했네.

"선생님을 말씀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네.

"그건 대체 무슨 까닭이지?" 하고 내가 말했네.

"저희들 생각으로는 선생님께선 게으름을 피우고 계시고, 설명하시는 수고를 피하시려고 얘기의 한 가지 부분을,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 전체를 저희들에게 얼렁뚱땅 넘겨버리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 즉 여자나 어린애들에 관해서는 친구들의 소유물이 공유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분명하다고 가볍게 말씀하신 것[1]을 저희들이 눈치채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내 말이 옳지 않았던가, 아데이만토스?" 하고 내가 말했네.

"네"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옳다는 말은 그 공유의 방식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니까요. 그러

1. 제 4 권 423e~4a 참조.

니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넘기지는 마십시오. 저희들은 애를 만드는 일에 관해서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애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지 말씀하시려니, 또 말씀하시는 여자와 애의 공유를 모두 설명해 주시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유가 옳게 이루어지는가 옳지 않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체제를 크게, 아니 오히려 전적으로 달라지게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도 전에 나라의 딴 체제를 다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들으신 그밖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놓아 드리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결의에 찬성하는 축에 끼어 주시죠" 하고 글라우콘이 말했네.

"염려 마십시오, 소크라테스 님. 그것들은 우리 모두의 결의라고 생각하십시오."

2. "나를 붙들어 놓고 이런 짓들을 하긴가! 처음부터 자네들은 나라의 체제에 관해서 얼마나 긴 얘기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냔 말일세! 나는 그것에 관한 얘기는 이미 다 끝났다고 기뻐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말한 것은 받아들여져서 통과가 허락되었다고 아주 만족하고 있었네. 그런데 자네들은 이제 그 문제들을 휘저어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말의 떼거리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고들 있네. 그 떼거리를 보고, 나는 그것이 끝도 없는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때는 내버려뒀던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고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더군. "이 사람들이 토론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광을 찾기라도 하려고[2] 여기에 와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하긴 토론에도 적당한 한계가 있어야지"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그러나 소크라테스 님,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전 생애가 그

2.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뜻의 속담 같은 표현.

런 토론을 듣기 위한 적당한 한계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걱정은 마십시오. 우리들의 방위자들이 처자들을 어떻게 공유하며 그리고 출생과 교육 초기의 사이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양육에 관해서 공유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저희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결코 지루해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 그 방식이 어떤 것이라야 하는지 말씀해 보시죠" 하고 글라우콘이 말했네.

"자네 참 속 편하군 그래. 그걸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세. 거기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믿지 못할 점이 많기 때문일세. 왜 그런고 하니, 첫째로 내가 말한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음으론 설사 그것들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떤지 역시 믿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바로 그런 이유로 그 이론이 단순한 희망적인 생각으로 보이지나 않을까 해서, 그것들을 손대기가 어쩐지 망설여진단 말이야, 이 사람아" 하고 내가 말했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사람들도 아니고, 믿지 않을 사람들도 아니고, 심술궂은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말했네. "이 훌륭한 친구야, 자넨 정말 그런 말로 나를 격려할 셈인가?"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네" 하고 나는 말했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알아서 말을 했다고 스스로 믿었다면야 자네의 격려는 훌륭한 것이었겠지. 왜냐하면 우리와 친근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친근한 일들에 관해서 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은 안전하고 대담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하고 있듯이 스스로 의심스러워 탐구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한 일이지. 하지만 결코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닐세—그건 유치한 일이니까—오히려 진리에서 미끄러지고, 발을 잘못 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데서 자빠져서, 나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까지 걸

고 넘어지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걸세. 그래서 나는 아드라스테이아[3]께 엎드리어, 글라우콘 군, 앞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은총을 비네.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살인자가 되는 편이 훌륭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관습에 관한 사기꾼이 되기보다 죄가 가볍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세. 따라서 이 모험은 친구들 사이에서보다도 원수들 사이에서 행하는 편이 낫다네. 그러니 자넨 작히나 잘 격려를 하는군."

그러자 글라우콘은 웃으면서 말하더군. "어쨌든 소크라테스 님, 그 토론으로부터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해도 저희들은 선생님을 놓아 드리고, 말하자면 살인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저희들에게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 주시죠."

"그런데 법률이 명하는 바에 따르면, 살인자의 경우라도 법정에서 풀려나면 무죄일세. 그리고 그런 경우가 그렇다면 아마 이 경우에도 그럴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 모든 까닭을 위해서 어서 말씀해 주시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하고 내가 말했네. "뒤로 되돌아가서 아마 거기서 차례대로 말해야 했던 것을…… 이젠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군. 그렇지만 남자의 연기(演技)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특히 자네가 그렇게 재촉하고 있으니, 이번엔 여자의 차례가 되는 것이 옳겠네."

3.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태어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 의견에 따르면 애들과 여자란 우리가 처음에 출발시킨 방향에 따르지 않고서는 옳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 토론의 어디선가 우린 남자들을 목양자(牧羊者)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네."

"네."

3. 아드라스테이아(Adrasteia): 큰 소리하는 자를 벌주는 여신. 그 앞에 엎드린다함은 호언장담을 할 경우에 미리 하는 말. 아드라스테이아는 사실상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가서, 출생이나 양육도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지정해주고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는지 어떤지 고찰하도록 하세."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는 말했네.
"이 말은, 양을 지키는 암캐는 수캐가 지키는 것을 함께 지키거나, 사냥을 함께 하거나, 또 그밖의 일거리도 나눠서 해야 한다는 것일세. 또는 암캐는 새끼의 출생이나 양육 때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개집 안에서 집이나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수캐는 힘드는 일을 하고 양떼를 돌보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다만 암컷은 다소 약한 것을 수컷은 더 강한 것을 다루어야죠."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키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을 경우, 어떤 동물은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것처럼 쓸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할 순 없죠."
"그렇다면 여자들을 남자들과 같은 일에 종사케 하려면, 그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쳐야겠군."
"네."
"그런데 음악과 체육을 우리는 남자들에게 가르쳤지?"
"네."
"그렇다면 여자들에게도 이 두 가지 기술과 함께 전쟁에 관한 것도 가르쳐서 남자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하네."
"그거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의당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 우리 말대로 된다면, 지금 얘기한 것들은 관습에 어긋나는 우스꽝스런 일을 숱하게 나타낼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 자네에게 가장 우습게 보이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분명히 여자들이 벌거벗고 체육학교에서 남자들과 함께 체조하고 있는 것이겠는데, 그것도 젊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한물 간 여자들까지도. 마치 주름이 지고 볼 상이

좋지도 못하면서 체조를 좋아하는 늙은 남자가 체육관에 드나드는 것과 같겠지?"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적어도 지금의 형편으론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에 관해서건, 음악에 관해서건, 또 무엇보다도 무기를 지니는 일이나 승마에 관해서건, 그런 변혁이 생기는 데에 대한 점잖은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은 이왕 우리가 말문을 열었으니 두려워할 것은 없네" 라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 바에야 우리들의 법률 중에 비위에 거슬리는 부분으로부터 전진하지 않으면 안되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비웃는단 생각은 말고 엄숙하길 부탁하며, 또 오늘날 대부분의 오랑캐들이나 그러듯이, 벌거벗은 남자들을 보는 것을 헬라스 사람들이 추잡하고 우습게 생각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크레테 사람들이, 다음에는 라케다이몬[4] 사람들이 체조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의 세련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생각하게 해줄 걸세. 자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기보다는 벗는 편이 낫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눈에 우습게 보이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을 밝혀 주는 이성(理性) 앞에서는 사라지고 말았네. 그리고 그것이 증명해 준 것은, 악보다도 다른 뭣인가를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 또 지각없고 나쁜 사람의 모습보다도 뭣인가 다른 모습을 우습게 보면서 웃음을 자아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라는 것, 그리고 또 선한 것보다도 어떤 다른 것을 아름다움의 어떤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워놓고 그것을 진지하게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라는 것일세."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4. 라케다이몬(Lakedaimon): 스파르타의 딴 이름.

4. "그런데 우리의 제안들에 관해서 우선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것들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리고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근엄한 사람이건, 여자의 본성이 모든 일거리를 남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하나도 할 수 없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것에 관해선 가능하지만 다른 것에 관해선 불가능한가, 그리고 이 마지막 경우에는 전쟁에 관한 것은 어느 쪽에 포함되는가를 묻는 사람에게는 그 물음을 허락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대개는 가장 훌륭하게 시작해서 가장 훌륭하게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항변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상대방의 주장이 지켜 주는 사람도 없는 틈을 타서 포위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세.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 당신들에게 남들이 항변할 것까지도 없소.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라를 처음 세울 무렵에 당신들 자신이 사람마다 타고난 대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일로서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5] 하고 말일세."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 '그렇다면 여자는 그 본성에서 남자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소?' 하고 그 사람이 묻는다면, 어찌 다르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겠지. '그렇다면 서로 다른 구실을 각기의 본성에 따라서 따로따로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소?' 하고 그 사람이 묻는다면, 우리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걸세. '그렇다면 당신들이 태도를 바꿔서 남자와 여자는 비록 서로 그 본성의 거리는 멀지만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5. 제2권 369e 참조.

안된다고 주장할 땐, 당신들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라고 묻는다면, 여보게, 여기에 대해서 자네는 무엇인가 변론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당장에 하기란 결코 쉽지 않군요. 오히려 우리를 대신한 주장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릴 것이고, 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글라우콘, 이것과 그밖에 그런 많은 것들일세. 내가 미리 알고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여자나 애들을 소유하고 기르는 일에 관한 법률에 손대기를 꺼려했던 것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당연하죠" 하고 그는 말했네. "맹세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아니지" 하고 나는 말했네.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네. 즉, 사람이 조그만 수영장에 빠지거나, 큰 바다의 한가운데에 빠지거나 헤엄쳐야 하긴 마찬가질세."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뭔가 돌고래 같은 것이 우리를 들어올려 주려니, 또는 다른 무슨 희한한 구조의 방법이 있으려니 하는 기대를 걸듯 우리도 이 토론에서 헤엄쳐서 살아나가도록 힘써야겠네."

"그래야 할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자, 그럼 하세나.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길을 찾아낼 수 있을는지 보세. 그런데 서로 다른 본성은 서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자와 남자의 본성은 서로 다르다고 우린 합의를 보았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린 서로 다른 본성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 이것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점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바로 그렇습니다."

"글라우콘, 과연 당당도 하이. 모순논법(矛盾論法)의 기술의 힘은 말이야" 하고 나는 말했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그 논법에 빠져서, 입씨

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까닭은 얘기 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고찰하질 못하고, 오히려 단순히 이름만을 가지고 얘기된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서로 대화가 아니라 말씨름으로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설마 당장에 우리에게까지 뻗치지는 않겠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뻗쳐도 크게 뻗치고 있지. 사실 우리 뜻을 어기고 모순론에 이르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본성이 같지 않으면 같은 일에 종사해선 안된다는 것을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논쟁적으로, 단순히 이름만을 가지고 찾아내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본성에는 다른 일을 주고, 같은 본성에는 같은 일을 주었을 때, 우린 그때 서로 다른 본성과 같은 본성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종류가 무엇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구별해야 하는가를 전혀 고찰하지 않았네."

"그렇죠. 고찰하지 않았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와 마찬가지로 대머리와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그 본성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또 오히려 정반대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자문(自問)할 수 있겠는데, 정반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합의를 보지 않을 수 없지. 만약 대머리가 제화공(製靴工)이 되면 숱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금하고, 또 만약 숱이 많은 사람이 제화공이 되면 숱이 적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금할 수 있겠군" 하고 나는 말했네.

"그건 정녕 우스운 일일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땐 같은 본성과 다른 본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진 않았고, 다만 직업 자체와 관계가 있는 다름과 같음의 종류에만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이었지? 이를테면, 의술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린 말했던 걸세. 자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목수는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지?"
"물론이죠."

5. "그렇다면, 만약 남성과 여성이 어떤 기술이나 다른 직업에서 서로 판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른 것을 각 성에다 따로따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고 우린 주장할 걸세.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 즉 여성은 낳고 남성은 낳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여자가 남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아직 전혀 증명되고 있지 않다고 우린 말할 것이고, 오히려 그래도 우리 방위자들이나 그 아내들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린 생각할 걸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리고 그건 옳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나라 일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술이나 직업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의 본성은 같지가 않고 다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당장 만족스럽게 말을 하기란 쉽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고나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자네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아마 남들도 말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여자에게만 맞는 직업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반대자에게 증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 사람이 우릴 따라오도록 부탁할까?"
"그렇고 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게 하고 우린 그 사람에게 말할 걸세. 즉, 자네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좋게 타고났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타고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뜻, 즉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쉽게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게 배운다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배우고도 그가 배운 것에 관해서 스스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연

습했으면서도 그가 배운 것조차도 명심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신체적 조건이 그 마음에 잘 이바지 할 수가 있는데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는 방해가 된다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든 좋게 타고 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자네가 쓴 것이 이런 것들 말고도 달리 있는가 라고 말일세."

"아무도 다른 것을 들진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일에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뒤떨어진 점이 있는 것을 자넨 알고 있는가? 아니면, 길쌈이라든가 과자나 음식 만들기에 관한 것을 말해서 장황한 얘기나 늘어놓아야 할 것인가? 과연 이런 것들에서 여성은 뛰어났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거기서 뒤떨어지면 무엇보다도 웃음거리가 되고 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아마 모든 일에서 한쪽 성(性)은 다른 쪽 성에게 쉽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일에서 남자들보다 뛰어난 여자도 많지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여보게, 나라를 다스리는 직업 중에는 여자라고 해서 여자에게, 또 남자라고 해서 남자에게 속하는 직업이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타고난 바탕은 양쪽 성 안에 고르게 나누어져 있어서, 여자는 자연스럽게 모든 직업에 한 몫 끼고 있고 남자도 역시 그렇지만, 다만 모든 점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 뿐일세."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남자에겐 모든 직업을 나누어 주고, 여자에겐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될까?"

"어떻게 그럴 수야?"

"그렇지. 그건 내 생각으론 어떤 여자는 의술적으로 타고났고, 다른 여자는 그렇지 못하며, 또 어떤 여자는 음악적이고, 다른 여자는 비음악적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일세."[1]

"물론이죠."

"그리고 또 어떤 여자는 체육적이며 도전적이지만, 다른 여자는 도전적이 아니고, 또 체육을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어떻겠나? 어떤 여잔 지혜를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여잔 지혜를 싫어

한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여잔 기개가 있지만, 어떤 여잔 기개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여잔 방위자일 수가 있지만, 어떤 여잔 그렇지 못하네. 아니면, 우린 바로 이런 천성을 남자 방위자로서 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여자나 남자나 그 천성은 마찬가진데, 다만 여자의 천성은 약하고 남자의 천성은 강하다는 것뿐일세."

"그런 것 같군요."

6. "그렇다면 또 이런 여자는 이런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방위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야 하네. 적어도 그 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비슷하게 타고난 점으로 보아서는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같은 천성에는 같은 직업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같은 것이라야죠."

"그렇다면 우린 앞서 말한 것으로 되돌아왔고, 또 방위자들의 아내들에게 음악과 체육을 가르치는 것이 천성을 어기는 일은 아니라는 것에 합의를 보고 있는 셈일세."

"그렇다 마다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천성을 어기지 않고 법률을 정한 점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법률로 정한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 망상적인 일도 아닐세. 오히려 이것을 어기고 있는 오늘날의 상태가 아마 훨씬 더 천성을 어기고 있는 것 같네."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가장 좋은 일인지 어떤지를 고찰하고 있었겠지?"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지?"

"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은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이겠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방위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남자들을 방위자로 만드는 교육과 여자들을 그렇게 하는 교육은, 특히 여자가 타고난 천성이 같은 것일 때는 서로 다를 것이 없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한 자네 생각은 어떤가?"

"무엇에 관해선데요?"

"그것은 자네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보다 좋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다 나쁘게 생각하는 일에 관해설세. 아니면, 자넨 모든 사람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야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고 있었던 나라에서, 앞서 우리가 말한 교육을 받은 방위자들이 보다 좋은 사람으로 구성될 것인가? 아니면, 신발짓기를 교육받은 신기료장수가 그런가?"

"그건 우스운 질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알았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런데 어떤가? 어느 국민보다도 이들이 가장 뛰어나지 않은가?"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어떻겠나? 모든 여자들 중에서 이 방위자의 아내들이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니겠나?"

"그들 역시 매우 뛰어나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 안의 여자나 남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뛰어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사용한 음악이나 체육이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 아니겠나?"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뛰어난 법률을 제정했네."

"그건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위자들의 아내들이 옷 대신에 덕을 입으리라는 점으로 보아서는 그들은 옷을 벗어야 하고, 또 전쟁이라든가 그밖에 나라의 방위에서도 임무를 함께 해야 하고, 그밖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해선 안되네. 다만 바로 이 일들 중에서 여자들에겐 남자들에게보다도 가벼운 일을 주어야 하네. 그 족속들은 약하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체조를 하고 있는 알몸의 여자들을 비웃는 사람은 그의 '지혜로부터 웃음이라는 설익은 과일을 따는 것' 이고, 그는 아무래도 자기가 왜 웃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성싶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흔히 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말해질 가장 훌륭한 것은 이것, 즉 쓸모있는 것은 아름답고 해로운 것은 추하다는 말이기 때문일세."

"그렇고 말고요."

7. "그렇다면 이것이 여자의 법률에 관한 토론에서 우리가 벗어난 풍랑(風浪)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남녀 방위자들이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서 정해 놓았지만, 그러나 그 제안이 가능도 하고 유익도 하다는 논의는 그럭저럭 그 자체와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우린 말해야 하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죠. 그렇게 벗어난 풍랑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풍랑을 보면, 자넨 이것은 큰 것이 아니라고 말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것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법률 다음에 오는 것은 내 생각엔 이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자들이 모든 남자들의 공유물이어야 하고 어떤 여자도 사사로이 한 남자와 함께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일세. 그리고 또 애들도 공유이고, 부모가 자기 자신의 애를 알거나 애가 그 부모를 알아서는 안된다는 걸세."

"이건 먼저 것보다 훨씬 더 크군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나 유익성도 더욱 믿기 어렵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 유익성에 관해서는, 여자들을 공유하거나 애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선(善)이라는 것에는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큰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 두 가지에 관해서는 다 매우 논란이 클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 두 주장은 한 통속이라고 말하는 거로군. 그러나 나는 만약 그것이 자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한쪽으로부턴 도망갈 수가 있어서 내게 남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런데 어째 도망치는 수가 신통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질 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네.

"내가 그 벌을 받아야겠군" 하고 내가 말했네. "다만 이만큼은 혜택을 베풀어 주게나. 즉, 마치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가끔 혼자서 걷고 있을 때 자기 생각에 스스로 즐거워하는 버릇이 있듯이, 내가 휴일을 쉴 수 있게 허락해 주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욕구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 문제는 내버려두고, 그들의 소원이 성취됐다고 치고서 이내 그 일의 나머지를 처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땐 그들이 할 일을 손꼽으면서 흥겨워하여, 가뜩이나 게으른 영혼을 더욱 게으르게 만든다네. 나도 이젠 좀 쉬었으면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 놓고 나중에 검토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가능하다 치고서, 만약 자네가 허락한다면 통치자들은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실천될 경우에 나라에도 방위자들에게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익하리라는 것을 고찰하기로 하겠네. 그러니 우선 이것부터 자네와 함께 고찰하고

다른 것은 그 다음에 고찰해 보기로 하겠네. 만약 자네가 허락한다면 말일세."
"허락하고 말고요. 그러니 고찰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만약 통치자들이 그 이름값을 해야 하고, 또 이들의 보조원들도 그래야 한다면, 뒷것은 그들의 명령을 해낼 뜻을 가지고 있고, 먼젓것은 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어떤 일들에서는 법률에 복종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맡긴 일에서는 법률의 정신에 충실하게 따르고 싶어하리라고 생각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입법자인 자넨 남자들을 골라냈듯이, 여자들도 될 수 있는 한 같은 본성의 소유자를 골라내서 그들에게 짝지어 줄 걸세. 이 남녀들은 집을 공동으로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따위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함께 살 것이며, 체육에서도 그밖의 모든 살림살이에서도 서로 어울려 있어서, 서로 맺어지도록 타고난 필연성이 이끌어 갈 걸세. 자넨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기하학적 필연성이 아니라 사랑의 필연성인데요. 아마 대중을 설득해서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이 편이 앞의 것보다 훨씬 강할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8. "과연 그렇지" 하고 내가 말했네. "한데 그 다음엔 글라우콘, 서로 난잡하게 맺어지거나 무엇이고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 행복한 국민들에게는 거룩하지 못한 일이며, 통치자들도 허락하지 않을 걸세."
"그야, 그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다음엔 될 수 있는 대로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야 할 걸세. 그리고 신성한 결혼은 가장 유익한 것이겠네."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결혼이 가장 유익한 것이 되겠나? 다음에 대해서 말해 주게, 글라우콘. 나는 자네가 집에 사냥개와 혈통이 좋은 숱한 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네. 자네에게 묻겠네만, 이것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새끼 만드는 일에 관해서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을요?" 하고 그는 말했네.

"우선 그것들은 혈통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더러는 가장 뛰어나고, 또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있지 않겠나?"

"있죠."

"그렇다면 자넨 그 모든 것에서 다같이 새끼를 낳도록 하는가 아니면 가장 뛰어난 것서 기능한 한 낳도록 애를 쓰는가?"

"가장 뛰어난 것에서죠."

"그렇다면 어떻겠나? 그건 매우 어린 것에선가, 아니면 매우 늙은 것에선가, 또는 가능한 한 한창때에 있는 것에선가?"

"한창때에 있는 것에서죠."

"그것들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자넨 새나 개의 혈통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말이나 딴 짐승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내가 말했네. "무엇인가 그것들과는 다른가?"

"다르다면 이상하죠" 하고 그는 말했네.

"아이쿠, 큰일났군! 여보게, 우리의 통치자들은 뛰어나게 훌륭해야겠네. 만약 인간들의 혈통에 관해서도 같다면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같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그것이 어쨌단 말씀입니까?"

"그건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약을 써야 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몸이 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음식의 조절법을 받아들일 경우엔 서투른 의사로도 충분하다고 우린 생각하네. 그러나 약을 써야만 할 경우엔 훨씬 더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 때문이지" 하고 내가 말했네. "즉, 우리의 통치자들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허다한 거짓이나 속임수를 써야 할 것 같네. 그리고 이런 따위의 모든 것들은 일종의 약으로서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했던[6] 것을 자네는 기억하겠지?"

"그럼요. 그리고 그건 옳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특히 결혼이나 애 만들기에서 이런 따위의 옳은 방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싶네."

"어떻게요?"

"우리가 앞서 합의를 본 것처럼, 가장 뛰어난 남자들은 가장 뛰어난 여자들과 함께 사는 일이 가능한 한 잦고, 가장 미천한 남자들은 가장 미천한 여자들과 함께 사는 일이 가능한 한 드물어야 하네. 그리고 또 먼저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키우지만, 나중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애는 키우지 말아야 하네. 만약 그 한 무리〔群〕가 가능한 한 최고의 것이라야 한다면 말일세. 그리고 또 방위자들의 무리가 가능한 한 패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이 모든 일은 통치자밖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이루어져야 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축전(祝典)이나 제물을 법률로 정해서, 그 축전에서 신랑과 신부를 짝지어 주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시인들은 그때 거행되는 결혼에 어울리는 축시(祝詩)를 지어야 하네. 하지만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인구를 가능한 한 같은 수준으로 고정시켜,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한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도록 결혼의 수는 통치자의 재량에 맡길 일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내 생각엔 뭔가 교묘한 제비〔抽籤〕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들 미천한 사람들은 각자의 결합에 대한 원망을 통치자들이 아니라 운수 탓으로

6. 제3권 389b 참조.

돌릴 걸세."
"과연 그렇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9. "게다가 또, 전쟁이나 그밖에 다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젊은이에게는 정녕 영예와 상을 주어야 하고, 특히 여자들과의 성생활의 기회를 더욱 자주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이런 사람들의 씨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애들을 낳게 하는 그럴듯한 핑계가 될 것일세."
"옳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임명된 관리가 맡게 될 걸세. 그 관리가 남자건 여자건, 또는 둘 다이건 상관이 없네. 왜냐하면 그 임무도 물론 남녀공통이니까."
"네."
"훌륭한 사람들의 애들은, 내가 생각하기론 보육원으로 데려가서, 나라의 어떤 한 군데에 격리되어 살고 있는 보육자에게 맡겨질 걸세. 그러나 열등한 사람들의 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구로 태어난 애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슬쩍 없애버릴 걸세."
"방위자들의 혈통이 순수하기를 바란다면야 그래야죠" 하고 그는 말했네.
"이 관리들은 또, 어머니의 젖이 불어 올 땐 그 어느 누구도 제 아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써서 그들을 보육원으로 데려가고, 또 어머니만으로 넉넉치 못할 땐 다른 유모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애들의 양육을 돌볼 것이고, 또 어머니 자신들이 적당한 동안 젖을 먹이고, 밤샘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고생은 유모나 보육자들에게 맡기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위자들의 아내들에겐 애 낳기란 아주 수월해질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게 돼야지" 하고 나는 말했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다음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세. 우린, 애들이 한창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창때란 평균적으로 여자에게는 20년 동안, 남자에게는 30년 동안임

을 자네도 동의 하는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여자는 스무 살에서 시작해서 마흔 살까지가 나라를 위해서 출산하기에 적당하네. 남자는 달리기에서 가장 빠른 한창때를 지나서 쉰 다섯 살까지가 나라를 위해서 출산토록 하기에 적당하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 두 경우가 다 몸과 마음의 한창때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만약 그 나이보다 위거나 아래인 사람이 나라를 위한 출산에 끼어든다면, 그 행위는 경건치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우린 말할 것인데, 그 까닭은 그가 나라를 위해서 낳은 애는 설사 그 태어남이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결혼의 경우에, 남제관이나 여제관이나 또는 나라 전체가, 훌륭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더욱 훌륭하고 더욱 쓸모있는 애들이 태어나기를 빌면서 바치는 제물과 기도로 키워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무서운 난잡의 결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통치자가 짝지어 주지 않았는데도 출산케 할 나이에 있는 남자가 출산할 나이에 있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같은 법률이 적용되네. 왜 그런고 하니, 그가 나라에다 만들어 준 애는 천하게 태어나고, 보증받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애라고 말할 것이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지극히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남녀간에 출산할 나이가 지날 땐, 그들은 누구든 자기가 반려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맺어지길 허락해야겠지. 다만 남자들에게는 딸이나 어머니나 손녀들이나 할머니와 맺어지는 것을 금하고, 또 여자들에게는 아들이나 아버지나 손자나 할아버지와 맺어지는 것을 금해야 하네. 그리고 이에 앞서 만약 애를 뱄다면 우선 어떤 애도 빛을 보지 못하도록 힘쓰기를 권고하고, 그러나 만약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그런 애는 키워선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없애버리도록 힘쓰기를 권고한 다음에야 허락할 걸세."

"과연 적절한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아버지나 딸이 방금 말씀하

신 것들을 서로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요?"
"결코 그렇게 안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다만 그들 중의 누군가가 신랑이 되고 나서, 그날부터 열 달째, 또한 일곱 달째에 태어나는 애들을 사내면 아들, 계집애면 딸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 애들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애들을 손자라고, 또 그와 반대로 이 손자들은 그들을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를 낳고 있는 기간에 태어난 애는 형제나 자매라고 부를 것이니, 따라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이지만 그들끼리 서로 교접 하는 일이란 없을 걸세. 그렇지만 만약 운수가 그렇게 나타나고 피티아의 신탁이 승인한다면 법률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동거생활하는 것은 허락할 것일세."
"지당하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0. 글라우콘, 그런 것이 자네 나라의 방위자들을 위한 아내들이나 애들의 공유라는 것일세. 그러나 그것이 나라의 다른 체제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토론에서 확인해야 할 다음의 문제일세. 그렇지 않은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런 합의의 첫걸음이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겠나? 즉, 입법자가 그의 입법에서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나라의 건설을 위한 가장 큰 선은 무엇이며, 또 가장 큰 악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이 선의 발자국에는 잘 들어맞지만, 악의 발자국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지 어떤지 고찰해 보는 일이 아니겠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나라를 분열시켜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또 있겠는가? 또는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것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그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 나라를 단

결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나라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같이 겪는 일을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이런 감정의 차이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겠지?"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나라에서 내 것이라든가 내 것이 아니라든가 하는 따위의 말을 국민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겠지? 그리고 또 남의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겠지?"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건 같은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 것이라든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할 때, 그 나라는 가장 잘 다스려지겠군?"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또 단일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는 나라가 그렇겠지? 이를테면 우리들 중의 누군가의 손가락이 상처를 입었을 때, 단일한 조직으로 묶여 있는 영혼과 신체의 공동체 전체, 즉 영혼 안에 있는 지배적 부분의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느껴서, 아픈 것은 한 부분인데도 그 모두가 동시에 하나의 전체로서 함께 아프게 느끼고, 따라서 우린 그 사람이 손가락을 아파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일세. 그리고 사람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건, 그 부분이 상처를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에 관해서, 또 회복이 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에 관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질문하신 것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는 그런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중의 누군가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나라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말할 것이고, 따라서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되네."

"그래야죠. 좋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하고 그는 말했네.

11. "이젠 우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우리의 토론에서 합의를 본 것을 찾아 내서 바로 이 나라가 그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가 더욱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 볼 때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떤가? 이 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치자와 민중이 있겠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 국민이라고 부르겠지?"

"물론이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들을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들을 상전(上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바로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중은 어떤가?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 통치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구원자, 조력자라고……" 하고 그는 말했네.

"이 사람들은 민중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수를 주는 사람, 부양자라고……"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통치자들이 민중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노예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통치자들끼리는 서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공동치자(共同治者)라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우리들의 통치자들은?"

"공동방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 통치자들 중의 누군가가 공동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집안네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어떤지를 자넨 말할 수 있겠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렇다면 집안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고 있지만, 남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자네들의 방위자들은 어떤가? 그들 중의 누군가가 공동방위자들 중의 한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르거나 할 수 있을까?"
"결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형제나 자매를,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또는 이들의 자손이나 어버이들을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매우 훌륭한 말일세. 하지만 이것도 말해 주게. 자네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저 집안네의 명칭만을 입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행동은 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들이나 인간들의 은총을 받고 싶다면, 이를테면 아버지에 관해선데, 아버지에 대한 모든 관습상의 행실에서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효도나 순종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은 그 명칭에 따라야 한다고 입법할 것인가? 이런 소리나 그밖에 다른 소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라고 또는 다른 집안네라고 지적된 사람들에게 관해 모든 국민이 입을 모아 어린애들의 귓전에 들려 주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런 소리가……" 하고 그는 말했네. "왜냐하면 만약 행동이 따르지 않고 그저 집안네의 명칭만 입끝에서 나온다면 우스운 일이 겠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행운을 만나거나 악운을 당할 경우에,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방금 우리가 말한 말, 즉 나의 행운이라든가 또는 나의 악운이라든가 라고 말할 걸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이런 견해나 표현에는 공통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따른다고 우린 말하지 않았던가?"
"말했죠. 그리고 그건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국민들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일 동일한 것을 가장 많이 공유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가장 많이 공유하지 않겠나?"
"정녕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은, 다른 제도 말고도 방위자들 사이의 아내와 애들의 공유겠지?"
"확실히 그것이 으뜸가는 원인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12. "그런데 잘 다스려진 나라를 신체에다 비교하여 신체가 그 부분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에 관해서는 어떤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즐거움과 괴로움의 공유〕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선이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일세."
"그렇죠. 그리고 그 의견의 일치는 옳았던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보조자들에 있어서의 여자와 애들의 공유는 나라를 위한 가장 큰 선의 원인임을 우리가 밝혀낸 셈일세."
"과연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또, 앞서 우리가 말한 것[7]에도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네. 왜 그런고 하니, 만약 그들이 진정한 방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들은 집이나 땅이나 어떤 다른 재물도 사유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방위에 대한 보수로서 다른 국민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서 다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써야 한다고 우린 말했기 때문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내가 말하거니와 앞서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은 그들을 더욱더 참다운 방위자로 할 것인데, 그것은 또 사람마다 같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따로 무엇이건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제 집으로 끌어들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제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각각 다른 여자나 애들에다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나라로 끌어들여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제 것에 관해서는 단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7. 제3권 416d~417b 참조.

같은 목적에 관심을 기울여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될 수 있는 한 동시에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떤가? 그들은 신체를 빼면 개인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밖의 것은 다 공유이기 때문에 피차 간에 소송이나 고발은 그들 사이에서 거의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돈이나 애들이나 친척의 소유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에 관한 한, 그들에겐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겠지?"

"그들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일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또 그들 사이에는 폭행에 대한 또는 모욕에 대한 아무런 소송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옳을 걸세. 왜 그런고 하니, 같은 또래에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몸을 지켜주는 것이 훌륭하고 정의롭다고 아마 우린 말할 것이고, 따라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서로 간에 몸조심시킬 것이기 때문일세."

"그건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

"게다가 이 법률은 더욱더 옳은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즉, 누군가가 남에게 화를 낼 때, 그가 그런 방식으로 몸을 지켜서 화를 푼다면, 더 심한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적어질 테니까."

"정녕 그렇죠."

"손윗사람에게는 모든 손아랫사람들을 지배하고 벌을 주도록 명령할 걸세."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손아랫사람은 통치자들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손윗사람을 감히 때리거나, 그밖에 다른 폭행을 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걸세. 또 내 생각으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업신여기는 일도 없을 걸세. 왜냐하면 걱정과 부끄러움이라는 두 방위자가 그를 막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즉, 부끄러움이란 부모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걱정이란 피해자를 남들이, 누구는 아들로서, 누구는 형제로서, 누구는 아버지로서 서로 구하러 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일세."

"그렇죠. 그런 결과가 되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률이야말로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하겠지?"
"그렇죠. 크나큰 평화를……"
"그리고 만약 이들이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면, 국민 중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또는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도 없네."
"그렇죠, 조금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벗어날 재난 중에서 가장 자질구레한 것들은 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서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지네만, 그건 부자에게 아양을 떠는 일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이 자식을 먹여 살리고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버는 곤경이나 고생 따위로서 그것은 빚을 지거나 거절하는 일, 또는 돈을 아내나 하녀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긁어 모으는 일 때문인데…… 여보게, 그들이 그런 것들에 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겪는지 그것은 뻔한 일이고 천하기도 하고 입에 올릴 일도 못되네.
"그건 장님에게도 뻔한 노릇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3. "그렇다면 그들은 그 모든 고생을 벗어날 것이고, 올림피아의 승리자들이 누리는 매우 축복받은 생활보다 더 축복받은 생활을 누릴 걸세."
"어떻게요?"
"올림피아 우승자들의 행복이란 이들이 가진 행복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 그건 이 사람들의 승리는 더욱 훌륭하고 국비(國費)의 부양도 더욱 완전하기 때문일세.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승리는 나라 전체를 구해내는 것이고, 생계나 그밖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 자신과 그 애들에게까지 공급되는 영관(榮冠)이며, 또 살아서는 제 나라에서 특전을 받고 죽어서는 합당한 장례를 받게 되는 것일세."
"그렇고 말고요. 훌륭한 것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조금 전에[8] 누군가의 말이, 방위자들은 국민들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도 무엇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우릴 나무랐던 일을 자넨 기억하고 있나? 그리고 그 문제는 그럴 계제가 되면, 나중에 검토하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방위자를 방위자로 만들고, 힘자라는 데까지 나라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나라 안의 어떤 한 계급만을 집중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린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기억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떻겠나? 이제, 보조자의 생활이 올림피아의 승리자의 생활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밝혀진 바에는 우리가 그것을 신기료장수의 생활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공의 생활 또는 농사꾼의 생활과 동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또, 이건 그때[9]도 말한 바 있지만, 지금도 말하는 것이 옳겠는데, 만약 방위자가 방위자이기를 그만두는 따위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까지 적절하고 자리잡힌—우리가 말하는 바로는 가장 좋은 생활에 만족하질 않는다면, 그리고 행복에 관해서 생각없고 철없는 의견이 그를 덮치고 몰아쳐서 나라 안의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들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시킨다면, '어떤 의미에선 반(半)은 전체보다 크다'[10] 고 말한 헤시오도스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리라는 것 말일세."

"그가 만약 저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말한 생활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우리가 말한 것에 동의를 하는 거로군. 즉, 남녀의 교육에 있어서의 공동이라든가 애들의 양육에 있어서의 공동이라든가 다른 국민들을 위한 방위

8. 제4권 419a에서 아데이만토스가 한 질문.
9. 제4권 420d 이하 참조.
10. 헤시오도스 《일과 나날》 40 참조.

책임의 공동, 즉 여자가 나라 안에 머물러 있거나 싸움터로 나가거나 개와 마찬가지로 남자들과 함께 지키고 사냥도 하며 모든 일을 온갖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데까지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남녀의 자연스런 관계에, 즉 그들의 자연스런 공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동의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14. "그렇다면 다른 짐승들 사이에서처럼 인간들 사이에서도 과연 그런 공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지 않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제가 제기하려고 했던 문제를 가로채서 말씀하셨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왜냐하면 전쟁에서의 일에 관해서는, 내 생각으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네"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들은 함께 진격할 것이고, 게다가 애들 중에서 튼튼한 애들을 전장으로 데리고 가서, 마치 다른 기공들의 애들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해야 할 것을 관찰하도록 하고, 또 그 관찰 이외에도 전쟁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 돕고 이바지해서,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게 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네. 자네는 기술에 관계되는 일에서, 이를테면 도공(陶工)의 애들이 독짓기에 손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도우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지, 알아챈 적이 있겠지?"
"있고 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위자들보다도 자기들의 직업이 되는 일의 관찰과 경험에 있어서, 자식들을 훈련시키기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가?"
"그건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그밖에도 모든 동물이, 싸우게 될 경우에, 그 새끼들 앞에서는 유달리 잘 싸울 걸세."
"그야 그렇죠. 하지만 소크라테스 님, 전쟁에서 일어나기 쉬운 패배의 경우에는 그

들 자신과 그들의 애들까지도 망하게 하고, 또 나머지 국민들을 돌이킬 수 없게 할 위험은 작지가 않습니다."

"옳은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나 우선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다같이 위험을 피하는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가? 만약 그들이 언젠가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경우에, 그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 그들을 더욱 좋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사(戰士)가 되려는 사람들이 어릴 때 전쟁에 관한 것을 보거나 안 보거나 그 차이는 작은 것이고 위험할 것까지는 없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야겠군. 즉, 애들을 전쟁의 구경꾼으로 만들되 그들이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걸세. 그렇겠지?"

"네."

"그렇다면 그 아버지들은 우선 어떤 출전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무식하지 않게 잘 판단할 것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은 한쪽으론 데려가겠지만, 다른 한쪽으론 데려가지 않도록 조심할 걸세."

"옳습니다."

"게다가 내 짐작으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으로나 나이로나 애들의 지도자나 보육자(保育者)로서 일할 만한 지휘관으로 하여금 그들을 감독시킬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천만뜻밖에도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겼다고 우린 주장할

걸세."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 그런 일에 대비해서 여보게, 그럴 필요가 있다면 날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애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날개를 주어야 하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말에 태워서 우선 말타기를 가르쳐 주고는, 그러고서는 기운 찬 군마(軍馬)가 아니라 가능한 가장 날쌔고 가장 온순한 말에 태워서 싸움의 구경을 하도록 데리고 가야 하네.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장차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구경할 수가 있겠고, 또 필요하면 손위의 지도자들을 뒤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도망갈 수가 있겠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한데, 전쟁에 관한 것은 대체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자네의 군인들은 서로 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내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

"말씀하시죠. 어떤 생각이신가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들 중의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떠나거나, 무기를 버리거나, 또는 그런 따위의 어떤 비겁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기공이나 농사꾼 같은 것으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산 채로 적에게 잡힌 자는 그를 잡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이 잡은 것을 마음대로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나?"

"그야 그렇죠."

"그러나 용전상(勇戰賞)을 받아서 명성을 떨친 사람은 우선 싸움터에서 함께 출전한 젊은이나 애들로부터 차례대로 화관(花冠)을 받아야 한다고 자넨 생각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겠나? 오른손으로 하는 인사를 받는 것은?"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자네에게 이것은 이미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리라고 짐작되네" 하고 내가 말했네.

"무엇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각각 입을 맞추어야 하고, 그들이 그에게 입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말일세."

"그야 무엇보다도 단연코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저는 법률에다 덧붙이기를, 누구든 싸움터에 있을 동안엔 그가 좋아하는 사람과 입맞추는 걸 거절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그것이 남자건 여자건—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는 용전상을 차지하기에 더욱 열렬할 것입니다."

"그것 참 훌륭하군" 하고 내가 말했네. "왜 그런고 하니, 용감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결혼할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고, 또 그는 결혼 상대자로 남보다도 더욱 자주 선택을 받을 것인데, 그건 그런 사람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애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이미[11] 우리가 말했기 때문일세."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하고 그가 말했네.

15. "그런데 호메로스에 의하면 젊은이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영예를 주는 것이 당연하네.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전투에서 명성을 떨친 아이아스가 '길쭉한 등심 고기를 몽땅 상으로 받았다'[12] 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고기가 한창때의 용감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영예의 상이면서, 동시에 그의 체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는 뜻이었지."

"지당하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 점에서도 우린 호메로스를 따를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11. 제5권 460b 참조.

12. 《일리아스》 VII, 321~322.

"즉, 우리도 제물을 바치는 일이나 그밖에 그런 모든 경우에 용감한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용감함을 보여 준 정도에 따라 찬가(讚歌)라든가 그밖에 방금 우리가 말한 특전을 가지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영예로운 자리와 고기와 가득 찬 술잔을'[13] 가지고서도 존경할 것인데, 그건 용감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을 존경하기도 하려니와 또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일세."

"정녕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됐네. 그런데 전사한 사람들 중에서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우린 우선 그를 황금족(黃金族)[14]에 속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나?"

"그야 무엇보다도 확실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족속 중의 누군가가 죽을 때, 우린 헤시오도스가 말한 것을 믿을 것이 아니겠나? 즉—

땅 위에 살고 있는 거룩한 신령은 말을 할 줄 아는 인간들의
악을 물리쳐 주는 친절한 방위자.[15]

"그야, 정녕 그렇게 믿겠죠."

그렇다면 우린 이 신령스럽고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고 무슨 각별한 예식으로 매장을 해야 할는지 신께 여쭤 보고 나서, 그 명령대로 그렇게 매장을 하겠지?"

"달리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린 그 후에 내내, 마치 신령의 무덤에서처럼 그들의 무덤에서 예배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하겠지? 그러나 생전에 뛰어나게 훌륭했다고 평가된 사람들 중의 누군가가 늙어서, 또는 다른 무슨 까닭으로 세상을 떠날 때는, 역시 같은 의식을 행하겠지?"

13. 《일리아스》 VII, 162, XII, 311.
14. 제3권 415a 참조.
15. 헤시오도스 《일과 나날》 121 참조.

"어쨌든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떻겠나? 우리 군인들은 적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점에서요?"
"우선 첫째로, 노예로 만드는 일에 관해선데, 헬라스의 나라들이 헬라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옳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될 수 있는 한 어떤 다른 나라도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또 야만족 밑에 노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헬라스 민족을 아끼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야 아끼는 것이 전적으로 무엇보다도 훌륭하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또, 그들은 헬라스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또 다른 헬라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충고해야겠지?"
"그야,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훨씬 더 야만족으로 화하게 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손을 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겠나? 그들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서 무기 이외에 무엇인가를 노략질하는 것은 과연 훌륭한 일일까? 그것은 마치 그들이 죽은 자 앞에서 허리를 꾸부리고 있을 때, 사뭇 뭔가 필요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비겁한 자에게 전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핑계를 주는 것이나 아닌지? 그리고 이런 노략질로 이미 많은 군대가 붕괴되지 않았던가?"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죠."
"그러나 시체에서 노략질을 하는 것은 자유인답지 않은 돈벌이꾼이나 하는 짓이고, 또 진짜 적은 날아가 버려서 그 적이 가지고 싸웠던 것을 뒤에 남긴 데에 지나지 않는데도, 그 죽은 자의 신체를 적이라고 보는 것은 계집 같은 좁은 소견으로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돌팔매에 맞고서 던진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돌에다 으르렁거리는 개와 무엇이 다르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조금도 다를 것 없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시체에서의 노략질이라든가 매장을 위한 시체의 이동을 금하는 일은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그렇죠. 단연코 그만둬야죠" 하고 그는 말했네.

16.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헬라스 사람들과의 친선관계를 위해서 뭣인가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무기를, 특히 헬라스 사람의 무기를 신전에 바치려고 가져가지는 않을 걸세. 동포에게서 뺏은 그런 것들을 신전에 바치는 것은 신께서 달리 명령을 내리시는 경우라면 몰라도, 오히려 신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걸세."

"그건 지극히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헬라스 사람의 땅을 뺏거나 집을 불사르는 일은 어떻겠나? 자네의 군인들은 적을 이렇게 다룰 건가?"

"그것에 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내 생각엔 그 어느 쪽도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해마다 거두는 농작물을 거둬가야 할 걸세. 그런데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말해 줄까?"

"그러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두 이름, 즉 전쟁과 파쟁(派爭)이라고 이름붙어 있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도 둘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두 가지 일에서 일어나는 차이에 쓰이는 것일세. 내가 말하는 두 가지란, 한편으론 집안네이며 동족적(洞族的)인 것, 다른 편으론 남이며 이족적(異族的)인 것일세. 그런데 집안끼리의 반목에 쓰인 것이 전쟁이라네."

"그렇죠. 참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내가 이것도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지 보아주게. 즉, 헬라스 민족은 그 자신에 대해서는 집안네이며 동족적이지만, 오랑캐에 대해서는 이족(異族)이며 남이라고 나는 주장하니 말일세."

"역시 훌륭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헬라스인들이 오랑캐와 또는 오랑캐가 헬라스인들과 싸울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전쟁한다거나 타고난 원수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반목은 전쟁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말할 걸세. 그러나 헬라스인들이 헬라스인들에게 대해서 뭔가

그런 따위의 일이 일어날 경우엔, 우린 그들이 나면서부터 친구였지만 헬라스 사람들은 병들어 있고 파쟁을 일으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런 반목은 파쟁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말할 걸세."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다음을 고찰해 보게나. 즉, 지금 우리가 합의를 본 파쟁에서 뭔가 그런 일이 생겨서 나라가 분열될 경우에, 만약 어느 한편 사람들이 다른 편 사람들의 농토를 짓밟고 집을 태운다면 그 파쟁은 저주받을 일로 생각되고, 그들의 어느 편도 다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것 말일세—왜 그런고 하니, 만약 그들이 애국자라고 한다면 감히 유모나 어머니를 휩쓰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니까—오히려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들에게서 수확을 뺏어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장차는 서로 화해가 되어 언제까지나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편 생각보다 훨씬 더 세련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자네가 세우고 있는 나라는 헬라스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겠나?"

"그야, 그래야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은 선량하고 세련된 사람들이겠지?"

"물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애족적(愛族的)인 헬라스 사람들이겠지? 헬라스 전체를 제 나라로 생각하고, 다른 헬라스 사람들과 공동으로 같은 신전을 모시겠지?"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집안네 사람인 헬라스인들에 대한 반목을 파쟁이라고 보고, 결코 전쟁이라고는 이름붙이지 않겠지?"

"정녕 아니죠."

"그리고 또, 그들은 언젠가는 화해하리라는 생각으로 서로 반목하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그들을 다정한 마음으로 고쳐줄 망정, 노예로 만들거나 파멸시킬 생각으로 벌을 주진 않을 것인데, 그것은 고쳐 주는 사람이지 적은 아니기 때문일세."
"그렇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은 헬라스 사람들이기에 헬라스를 황폐시키거나 집을 불사르거나 하진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든 모든 사람—남자건, 여자건, 애들이건—이 다 그들의 적은 아닐 것이고, 그 반목의 원인이 되는 몇몇 사람만이 언제나 적이라고 인정할 걸세. 그리고 그 모든 까닭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황폐시키거나 집을 허물거나 할 의도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그 반목을 이 정도에서, 즉 원인이 되는 자가 원인이 아닌 자의 고통에 못 이겨서 정의를 행하도록 벌을 받는 정도에서 그칠 것일세."
"그렇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자들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랑캐에게는 헬라스 사람들이 오늘날 서로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린 방위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법률을, 즉 땅을 황폐시키거나 집을 불태우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을 제정해야겠지?"
"그렇죠. 그렇게 제정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것도 먼저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7.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님, 만약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도록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서[16] 미루어 놓았던 문제, 즉 이러한 국체(國體)가 생길 수 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생길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영영 말씀하시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생길 수 있다면 그렇게 생겨난 나라는 온갖 좋은 것을 가지리라는 점을 저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냥 지나치신 것까지도 저는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 그들은 형

16. 제5권 466d 이하 참조.

제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아들로서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서로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서 피차에 버리는 일이란 매우 적기 때문에 적들과 가장 용감하게 싸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여성도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같은 대열이건 그 후방에 배치되건 또는 필요한 경우의 예비로서건 어쨌든 남성과 함께 출전한다면, 그것으로 하여 그들에겐 절대로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선생님께선 빼놓으셨지만 그들이 누릴 모든 좋은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체가 생기게 되면, 제가 그 모든 것이나 그밖에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들을 가지리라는 것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시고, 국체에 관해서는 더 말씀하실 것 없고 오히려 바로 이 점, 즉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점을 우리 자신이 알아듣도록 해봐야겠고, 그밖에 다른 모든 것에는 작별을 고하도록 하시죠."

"자넨 갑자기 마치 내 말을 공격하듯 했고,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지 않는구먼. 그건 내가 그 두 파도[17]를 겨우 벗어나자 이제 자넨 세 번째의 가장 크고 가장 혹심한 파도로 나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자네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겠는데, 만약 자네가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따지고 들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것은 그럴 만도 했다고 매우 너그럽게 생각해 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주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지 않고선, 우리에게서 풀려나시는 일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말씀하시죠. 더 미루지 마시고" 하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우선 첫째로 우리는 정의와 부정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면서 이 점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상기해야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단 말씀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아무것도 아닐세.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한다면, 정의로운 사람은

17. 제5권 457b 참조. 첫째 파도는 방위자로서의 남녀의 사명과 그 교육의 평등, 둘째 파도는 부인과 아이의 共有문제.

바로 그 정의라는 것과 결코 달라서는 안되고 오히려 정의와 전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인가? 또는 그것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는가?".

"그 정도라면 우리에겐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 그 자체는 어떤 것이며, 또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었다 치고 생길 수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를 또 부정이라든가 가장 부정한 사람에 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탐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본(本)[18]을 갖기 위한 것, 즉 그 두 사람이 행복이나 그 반대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들에게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닮은 사람은 역시 그들의 운명에 가장 가까이 닮은 운명을 갖게 되리라고, 불가불 믿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네" 하고 말했네.

"그렇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한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것인지 그 본보기를 그리고, 그 그림에 조그만 흠조차도 남기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는 그만큼 훌륭하지 못한 화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떻겠나? 우리도 역시 참다운 나라의 본을 말로써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말한 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만큼 훌륭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8.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한 원래 단어는 paradeigma이다. 원형 · 모범 · 典型의 뜻이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그 일의 진실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나 만약 자넬 위해서 그것을, 즉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장 잘 그려지고 어떤 점에서 가장 근사하게 생겨날 수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증명을 위해서 자넨 나에게 한 번 더 동의를 해주어야겠네."

"그게 무엇인지요?"

"과연 말한 대로 무엇이든 실행될 수 있는가? 아니면 비록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실행은 말보다도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넨 그렇다고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설명한 것이 모든 점에서 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 주어야 한다고는 제발 강요하지 말게. 그러나 만약 어떻게 하면 한 나라가 우리가 말한 것과 가장 가깝게 조직될 수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자네가 생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찾아냈다고 자넨 말해야 하네. 아니면 자넨 이 일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나? 나로서는 만족하겠네만……"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8.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증명하기에 힘써야 할 것은 오늘날의 나라들에서 도대체 무엇이 서투르게 이뤄지고 있길래 앞서 말한 대로 국가가 조직되는 걸 막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가장 작은 변화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국가조직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 변화(변혁)는 될 수 있는 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 그것으로 족하지 못할 경우엔 두 번, 그래도 안될 경우엔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겠으며, 힘의 규모에서도 적었으면 좋겠군."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내 생각엔 한 가지 변화로도 나라를 변혁시키리라는 것을 우리는 논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작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우리가 가장 큰 파도에 비유했던 바로 그것에 내가 올라타고 있는 셈일세. 그러나 어쨌든 말하기로 하겠네. 하기야 깔깔대고 웃음을 터뜨리는 파도처럼, 웃음과 경멸로 나를 휩쓸어 버릴 것 같긴 하네만.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을 고려해 보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네.

"만약 철학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왕이 되든가 또는 우리가 오늘날 왕이나 통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충분히 철학을 하든가 해서, 이것들, 즉 정치적 권력과 철학이 한군데서 만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그 둘 중의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서 추구하고 있는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억지로라도 금지당하지 않는다면…… 여보게 글라우콘,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 국가들이나 인류에게도 재앙이 그치지 않을 걸세.[19] 또 지금 우리가 말로 설명해 온 그 국체가 가능한 한도 안에서 그때까지 생겨나서 햇빛을 보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그러나 오래 전부터 내가 말하기를 주저한 것이 바로 이것일세. 매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말이야.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어떤 국체는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세"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그는 "소크라테스 님, 이왕 그런 말씀을 던지신 바에야 만만치 않은 떼거리가 이제 곧, 말하자면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이 되어서, 저마다 손에 닥치는 대로 무기를 움켜잡고 엉뚱한 짓을 할 셈으로 선생님을 향해서 온갖 힘을 기울여 밀어닥치리라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말로 막아내어서 물리치지 못하신다면,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시고 벌금을 물으셔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하더군.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자네 탓이 아닌가?" 하고 내가 말했네.

19. 이것은 아마 플라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문장인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제6권 499b, 제7권 540d에서 비교될 수 있다. 참다운 정치는 넓은 의미의 학문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잘 한 일이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래도 저는 선생님을 배신하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드릴 것입니다. 저는 선의(善意)와 격려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마 다른 어느 누구 보다도 적절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협조자가 있으니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겠습니다."
"물론 힘써야겠지. 특히 자네가 그렇게 큰 동맹(洞盟)을 제공해 주니 말일세.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네가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도망을 가자면 그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지배해야 한다고 감히 우리가 말할 때, 그 철학자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그 까닭은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구별될 경우에, 어떤 사람은 철학에 종사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게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에 종사하지 않고 지도자에게 따르는 일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바로 정의(定義)를 내릴 때로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내 뒤를 따라오게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네.

19.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경우에 그 말이 옳게 쓰여지고 있다면 그가 그것의 한 부분은 사랑하지만 다른 부분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체를 좋아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자네에게 상기시켜야 하겠는가, 아니면 자네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상기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마음에 없었으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글라우콘, 다른 사람에게라면 자네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것이 어울렸겠지. 하지만 모든 청춘 남자들은 소년을 사랑하는 호색적인 사내를 어떻게 해서든 자극해서 반

하도록 하고, 또 그들은 친절하게 해주고, 소중히 여길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그가 생각한다는 것을 잊다니 그건 호색적인 사내에겐 어울리질 않는군. 자네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가? 어떤 소년은 들창코라서 매력적이라고 하여 자네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소년의 매부리코는 제왕 같다고 말하고, 그 중간 코의 소년은 마침맞다고 말하고, 살갗이 까만 사람은 보기에 사내답다고 말하고, 살갗이 흰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수려하다고 말하네. 그리고 또, 꿀빛깔처럼이라는 묘사도, 비록 창백한 빛깔을 띤 청춘의 얼굴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애인의 그럴싸한 입에 발린 말의 소산(所産)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핑계로 둘러대고 온갖 소릴 다 하면서 청춘의 꽃다운 때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 하나도 거절하질 않겠다는 거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만약 호색적인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를 본보기로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토론의 목적을 위해서 찬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떤가?" 하고 내가 말했네.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그것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자넨 보지 않는가? 그들은 갖가지 핑계를 들어 온갖 술을 반가워하지?"

"정녕 그렇죠."

"그리고 또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진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들은 장군이 될 수 없으면 대대장[20]이라도 되려고 하며, 설사 거물급이나 고위층의 존경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명예라면 모두 탐내기 때문에, 소인배나 하찮은 자들에게서 존경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자넨 익히 알고 있을 걸세."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관해서 정말인지 아닌지 말해 주게나. 즉,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탐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는 그 무엇인가의 종류 전체를 탐

20. 한 부족의 3분의 1(trittys)의 병력의 지휘자.

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한 부분은 탐내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

"전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또, 철학자도 지혜를 욕구하는 사람이되, 그것의 한 부분을 욕구하고 다른 부분은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모두를 욕구하는 사람이 아닐까?"

"옳습니다."

"그렇다면 공부에 관해서 싫증내는 사람, 특히 아직 어려서 어떤 공부가 이롭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까닭도 모를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치 음식에 싫증을 내서 까다로운 사람을 굶주리고 있다든가 음식을 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또 식도락가가 아니라 식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걸세."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문을 순순히 맛보고 싶어하는 자, 또 기꺼이 공부를 하려고 하여 배움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등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할 걸세. 안 그런가?"

그러자 글라우콘은 말하더군. "그렇다면 수많은 괴상한 무리를 철학자라고 선생님께선 부르시는 셈이로군요. 왜냐하면 보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제가 생각하기엔, 무엇인가를 즐겨 배우는 까닭에 그런 사람이겠고, 또 듣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포함시키기에는 매우 괴상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까닭은, 철학적 토론이나 그런 따위의 소일거리에는 자진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온갖 가무단(歌舞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귀를 돈을 받고 빌려 주기나 한 듯이, 도시에서건 시골에서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디오니소스의 축제에 뛰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밖에 뭣인가 이런 따위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든가 자질구레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지. 그러나 그들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는 부르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20. "그러시다면 참다운 철학자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21] 하고 그는 말했네.
"진리를 보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건 옳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나 자네라면 다음과 같은 것에서 나에게 찬성하리라고 생각하네."
"무엇인데요?"
"아름다움은 추함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둘이라는 것일세."
"그야 물론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둘이기 때문에 제각기 하나라는 것일세."[22]
"그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또 정의나 부정, 선이나 악의 모든 형상(形相)에 관해서도 이것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네. 즉, 제각기 그 자체로서는 하나이지만 행동이나 물체와 맺어지고 또 그것들끼리 서로 맺어져서 어디서든지 나타나고 그 각각이 많아 보인다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구분하겠네. 즉,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 자네가 말한 보기〔視〕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행동가들이라든가를, 그리고 다른 편으론 지금의 우리 얘기에 관한 사람들,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에 알맞은 사람들을 따로 분류하는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하고 그는 말했네.
"아마도 듣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나 빛깔이나 꼴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반기지만, 그들의 마음

21. 여기서부터 참다운 철학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데아론'이라는 플라톤의 근본사상이 이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전개된다.
22. 플라톤은 추상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음과 파악할 수 없는 마음을 실제로 구별짓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데아론'을 다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문제의 형이상학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 상태는 아름다움 자체의 본바탕을 보거나 반기지는 못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과연 사실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아름다움 자체로 다가가서 그것을 그 자체로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겠지?"
"정녕 그렇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들은 인정하면서도 아름다움 자체는 믿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그것의 인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꿈을 꾸면서 살고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아니면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디 생각해 보게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잠들어 있건 깨어 있건 바로 이 경우, 즉 어떤 것과 같은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질 않고, 그것이 닮고 있는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겠지?"
"확실히 저는 그런 사람을 꿈꾸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런데 어떻겠나? 그 사람들과는 반대로 뭔가 아름다움 자체를 믿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분간할 수가 있어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을 자넨 눈을 뜨고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야 확실히 눈을 뜨고서 살고 있죠."
"그렇다면 그의 마음의 상태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편 사람은 억견(臆見)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로서 억견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지?"[23]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만약 믿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이 아니라고 논박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알리지 않고서 그를 어떻게든 달래고 조용히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23. '臆見(doxa)'과 '지식'과의 구별은 플라톤 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야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죠" 하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나.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묻고서,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해도 아무도 그것을 시새우지는 않고, 오히려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린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할 것인지 고려해 보게나. 어쨌든 나에게 이것을 말해 주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가? 자네가 그 사람 대신 대답해 주게."
"그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 무엇인가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하게 있는 것은 완전하게 알 수 있지만 결코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에 관해선 설사 제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따져본다 해도 우린 자신이 있을까?"
"그야, 자신만만하죠."
"그건 그렇다 하세. 그러면, 만약 무엇인가가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는 것과 결코 있지 않은 것과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사이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있는 것에는 앎이 어울리고, 또 모름에는 불가불 있지 않은 것이 어울리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우린 무지와 지식과의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를, 만약 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우린 억견도 무엇이긴 하다고 말하는가?"
"그야 물론이죠."
"그건 지식과는 다른 능력인가 또는 같은 능력인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과 지식은 각각 제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것에 어울리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지식이란 원래 있는 것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겠군? 그보다도 오히려 우선 나는 이렇게 구별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네."
"어떻게요?"

21. "우리와 그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우리나 딴 사람들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것들 중의 어떤 한 종류라고 말하겠는데, 내가 말하려는 그 종류가 무엇인지 자네 알고 있는가? 나는 이를테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겠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것들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들어주게. 즉, 능력이라는 것에서 나는 어떤 빛깔이라든가 꼴이라든가 또는 그런 따위의 어떤 것을 다른 많은 것들에서처럼 보지를 않고 그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딴 것들과 서로 다르다고 구별하는 것일세. 그러나 나는 오직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내는 것과 그것이 관계하는 분야만을 동일시할 따름이며, 그것들의 각각의 경우에서 능력이라고 부르고, 또 같은 것에 관계되고 있어서 같은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라고 부르며, 다른 것에 관계되고 있어서 다른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라고 부르네. 그런데 자넨 어떤가? 자넨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네.
"그렇다면 여보게, 애초의 문제로 돌아가세나" 하고 내가 말했네. "즉, 자네는 지식을 어떤 능력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자넨 그것을 어떤 다른 종류에다 넣는가?"
"능력이란 종류에다 넣죠. 게다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굳센 것에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어떤가? 억견을 우리는 능력에다 넣을 것인가 또는 다른 종류에다 넣을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것으로써 우리가 억견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은 억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 전에 자넨 지식과 억견이 같지 않다는 것에 찬성을 했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틀릴 수 없는 것을 틀릴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것 참 훌륭하군. 그렇다면 억견이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에 우린 분명하 합의를 보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다르죠."

"그렇다면 그것들은 제각기 뭔가 딴 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 딴 것과 관계를 갖고 있겠군?"

"그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생각엔 지식이란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있는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겠지?"

"네."

"그러나 억견이란 우리가 주장하기로는 억견하는 일이로군?"

"네."

"그럼 그것은 지식이 인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믿는단 말인가? 그리고 알려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같은 것일까? 아니면 같을 수 없는 걸까?"

"우리가 함께 시인한 것으로 보아서 그건 같을 수 없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만약 서로 다른 능력이 본래 서로 다른 것과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믿음과 지식이 다 같이 능력이지만 그것들은 각각 우리가 주장하듯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결과로 해서 알려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만약 있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라면, 믿어지는 것은 있는 것과는 무엇인가 딴 것이겠지?"

"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있지 않은 것을 믿겠군? 아니면, 있지 않은 것은 믿기조차 불가능한가? 생각해 보게.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어떤 것에 관계시키는 것이 아니

겠나? 아니면 믿긴 하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다는 일이 이번엔 가능할까?"[24]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떤 한 가지 것을 믿겠지?"
"네."
"그런데 있지 않은 것은 어떤 한 가지 것이라고 불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야 가장 옳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우린 있지 않은 것에는 모름을, 있는 것에는 앎을 필연적으로 배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25]
"그건 옳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있는 것도 있지 않은 것도 믿을 것은 아니로군?"
"아니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모름도 아니고 앎도 아니라는 것이 되겠지?"
"그럴 것 같군요."
"그렇다면 믿음은 또렷함에서는 앎을, 흐릿함에서는 모름을 넘어서 이것들 밖에 있다는 것이 되겠지?"
"그렇죠,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네에겐, 믿음은 앎보다 어둡지만 모름보다는 밝다고 생각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훨씬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그것은 그 둘의 안에 놓여 있는가?"
"네."
"그렇다면 믿음은 이 둘 사이에 있겠지?"

24. 476e에서 말한 것에 대응됨.
25. 제5권 477a 참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26] 우린 만약 뭣인가가 동시에 있는 것이면서 있지 않은 것 따위로 나타났다면,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있는 것과 전혀 있지 않은 것과의 사이에 있어서,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고 오히려 무지와 지식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 사이에는 우리가 억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22. "그렇다면 발견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있음과 있지 않음과의 두 편으로 나눠져서, 절대적으로 둘 사이의 어느 것이라고 정당하게 부를 수 없는 것인 듯한데, 만약 그것이 나타나면 끝에 있는 것들에는 끝에 있는 것들을, 중간에 있는 것에는 중간에 있는 것을 배정해서, 그것이 바로 억견의 대상이라고 비로소 정당하게 부를 수 있을 걸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것이 밑바탕에 놓였으니 나는 말할 것이네. 아름다움 자체, 즉 언제나 그대로 변치 않고 머물고 있는 아름다움 자체의 어떤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진 않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믿고 있는 그 훌륭한 사나이, 즉 보기를 좋아해서 누군가가 아름다운 것도 하나요 옳은 것도 하나요 그밖에 다른 것들도 그렇다고 말하면, 결코 참고 견디질 못하는 그 사나이로 하여금 나에게 말하고 대답하도록하게. 우린 이렇게 말할 걸세. '그렇지만 이 탁월한 사람아, 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에도 때로는 뭔가 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설마 있을까? 그리고 옳은 것들 중에도 뭔가 옳지 않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또 거룩한 것들 중에도 뭔가 거룩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까?' "

26. 제5권 477a 참조.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도, 그리고 선생님께서 물으시는 그밖의 모든 것들과 함께, 어쨌든 아름답게도 또 추하게도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많은 두 곱의 것들은 어떻겠나? 그것들은 두 곱의 것으로서보다 다소 더 적게 절반의 것으로서 나타나는가?"

"결코 그렇지야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큰 것이나 작은 것, 가벼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관해서도,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다른 편보다 다소 더 많이 어떻다고 단정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그 하나하나는 그 양쪽의 이름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 많은 것들의 하나하나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될까?"

"그것은 파티 석상에서 겹친 뜻으로 말을 흐리는 농담이라든가, 고자(鼓子)와 그가 박쥐에다 던지는 일에 관한 애들의 수수께끼, 즉 박쥐에다 고자가 무엇을 던졌고 박쥐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라는 수수께끼[27]와 비슷하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역시 어느 뜻으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많은 것들 중의 어떤 하나도 있다든가 있지 않다든가, 또는 그 둘 다라든가 둘 다 아니라든가, 고정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가 있겠는가? 또는 그것들을 배정하기에 있음과 있지 않음과의 사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 왜 그런고 하니, 그것들은 더욱 있지 않다고 하면 있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어둠에서는 나

27. 옛 주석가에 의하면 이 수수께끼란 이러하다. "사내 아닌 사내(鼓子)가 나무 아닌 나무(갈대) 위에 앉은 새 아닌 새(박쥐)를 보면서 보지 않고(잘 보지 않고), 돌 아닌 돌(속돌)을 던지고 던지지 않았다(던졌지만 맞지 않았다)."

타나지 않을 것이고, 또 더욱 있다고 하면 있는 것보다 더 큰 밝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지극히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린 아름다운 것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것들에 관한 숱한 사람들의 숱한 정칙(定則)들은 있지 않은 것과 절대적으로 있는 것 사이의 어딘가에서 굴러 돌아다닌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군."

"발견했죠."

"그런데 우린 미리 합의를 보았네. 즉, 만약 뭔가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중간에서 떠돌고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능력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불리며, 앎의 대상이라고 불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일세."

"그렇죠, 합의를 보았죠."

"그렇다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만 아름다움 자체는 보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남이 그리로 이끌어 주는데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수많은 옳은 것들을 보지만 정의 자체는 보지 않는 사람들, 그밖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에 관해서 믿기는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들의 어느 하나도 알지는 못한다고 우린 말할 걸세."

"그야 어쩔 수 없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반대로 하나하나의 경우에 그 자체들을 늘 변치 않고 같은 대로 있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앎에 딸려 있는 것들을, 그러나 저들은 믿음에 딸려 있는 것들을 반기고 사랑한다고 우린 역시 말하지 않을건가? 아니면 우리가, 저들은 아름다운 소리나 빛깔이나 그런 따위들을 사랑해서지만 뭔가 있는 것으로서의 아름다움 자체에는 결코 참고 견뎌내질 못한다고 말했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해도 설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

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화를 낼까?"
"안 냅니다. 그들이 제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말씀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화를 내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경우에 있는 것 그 자체를 반기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고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되겠지?"
"그렇고 말고요."

제 6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그렇다면 글라우콘, 좀 지루한 논의를 거친 끝에 우리는 간신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각각 누군지 밝히게 되었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짧은 논의로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테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쉽지 않았겠지” 하고 나는 말했네. “어쨌든 나는 만일에 이 문제에 관해서만 말해야 했고, 그밖의 많은 것들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올바른 생활과 부정한 생활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분명히 분간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논할 필요가 있다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토론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차례에 의해 그 다음에 올 것 말고 무엇이겠나?” 하고 나는 말했네. “언제나 변치 않고 같은 채로 있는 것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모양을 가진 것들 가운데를 헤매고 있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 그들 중의 어느 쪽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나?”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하면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어느 쪽이든 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 쪽을 방위자로 임명한다고 말하면 되네” 하고 나는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무엇이건 감시해야 할 방위자는 소경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날카롭게 보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어찌 분명치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네는 참으로 있는 것에 대하여 앎이 전혀 없으며 영혼 안에 뚜렷한 본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마치 화가처럼 가장 참다운 것에 주목해서 늘 그것과 관련시키면서 그것을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것들이나 옳은 것들이나 선량한 것들에 관해서, 이 세상의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하지도 못하고 또 이미 정해진 것을 지키고 지탱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경과 다른 데가 뭐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맹세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방위자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참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못지 않고, 덕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방위자로 세울 것인가?"

"만약 그들이 다른 점에서 남만 못지 않다면야 딴 사람들을 택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남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린 바로 이것을, 즉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질 수 있는가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논의의 처음에서[1] 우리가 말한 것이지만, 우린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천성(天性)을 철저히 배워 두어야겠네. 그리고 만약 그 천성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의를 본다면, 같은 사람이 그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도, 또 이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는 합의를 보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어떻게요?"

2. "그렇다면 철학자의 천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우리가 합의를 본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네. 즉, 그들은 학문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고 생성과 소멸 사이를 헤매지 않는 실재(實在)의 뭔가를 그들에게 밝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늘 그것을 사랑한다는 점 말일세."

"그렇죠. 합의를 본 것으로 해두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2]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호색하는 사람에 관해서 설명했듯이, 실재의 전체를 사랑해서 그 부분이 작건 크건 귀하건 천하건 그 어느 하

1. 제5권 474b 참조.
2. 제5권 474d~475b 참조.

나라도 일부러 소홀히 하진 않는다는 점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하세나.'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장차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천성 안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게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마음, 즉 결코 일부러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것일세."
"그럴 것 같군요."
"이 사람아, 그럴 것 같을 뿐만이 아냐. 천성에 따라 뭔가에 연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은 종류라든가 관련된 것 전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뭔가 진리보다 지혜에 더 가깝게 관련된 것을 자넨 찾아낼 수 있겠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천성은 같으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순 없죠."
"그렇다면 진정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젊어서부터 모든 진리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큰 노력을 해야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사람의 욕망이란 뭔가 한 가지를 향해서 흘러갈 때는 언제나 마치 그쪽으로 도랑이라도 패여서 흐르듯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약해진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네."
"물론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욕망의 흐름이 학문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가 만약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욕망은 영혼

자체가 그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는 관계가 있겠지만 육체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에는 무관심할 걸세."

"그야 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절제가 있고 결코 배금(拜金)주의자가 아닐세. 왜 그런고 하니 돈을 열심히 구하고 사치스럽게 낭비를 하는 것은 다른 목적들을 위한 것인데, 그런 일은 이 사람보다는 누군가 딴 사람에게 훨씬 더 어울리기 때문일세."

"그렇군요."

"그런데 또, 자네가 지혜를 사랑하는 천성과 그렇지 않은 천성을 구별하려고 할 경우엔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하네."

"어떤 점입니까?"

"그건 자네가 자유인답지 않은 성질로 슬며시 기울어지지나 않을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일세. 왜냐하면 정녕 좀스러움은 신적인 것들이라든가 인간적인 것들을 총괄적으로 완전하게 늘 파악하려고 애쓰는 영혼에게는 가장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일세."

"지극히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고매한 정신과 시간 전체와 실재 전체를 통관(通觀)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의 일생을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죽음을 뭔가 무서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생각지 않죠. 조금도……"

"그러나 비겁하고 자유인답지 않은 천성은 참다운 지혜의 사랑에는 아무래도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네."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나? 단정하고 배금주의자도 아니고 자유롭게 허풍을 떨지도 않고 또 비겁하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나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을 찾을 경우에, 옳고 점잖은지 또는 사귀기 까다롭고 거칠은지는 아주 젊어서부터 그를 관찰해 봐야 하겠네."
"그렇고 말고요."
"자넨 또, 정녕 이런 일도 그냥 버려 두진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것이 무엇인데요?"
"배우기에 빠른가 느린가 하는 것일세. 아니면 뭣인가를 이루어내기에 고생스럽게 하고 애는 많이 쓰면서도 고작 작은 일이나 해놓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 뭣인가를 상당히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자넨 기대하는가?"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건망증이 심해서 배운 것을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다면 어떨까? 과연 그는 머리가 텅 비어 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래서 기껏 헛수고를 하고 나서는 필경 제 자신과 그런 소행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를 사랑하는 영혼 축에다 건망증에 걸린 영혼을 포함시키지는 말고, 지혜를 사랑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네."
"그렇고 말고요."
"게다가 또 세련되지 않고 천한 천성은 영혼을 무절도(無節度) 이외의 어딘가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일은 결코 없다고 우린 말할 걸세."
"물론이죠."
"그러나 자넨 진리를 무절도 같은 따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절도와……"
"절도 쪽이죠."
"그렇다면 절도 있고 우아하게 타고난 마음을 그밖의 것들과 더불어 찾아보도록 하세. 그 자신의 천성은 그런 마음을 각 실재의 '이데아'로 이끌려 가기 쉽게 할 것일세."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나? 우리가 일일이 열거한 하나하나가 실재를 장차 충분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게 될 영혼을 위해서 어느 모로도 필요가 없고 서로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죠. 그건 절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천성적으로 기억력이 좋고 잘 배우고, 고매하고 우아하며 그리고 진리나 정의나 용기나 절제와 친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에서 자넨 뭔가 잘못을 찾아볼 수 있겠나?"
"그런 일에서는 모모스[3]도 잘못을 찾아내진 못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에서도 나이에서도 성숙하게 되면, 자넨 이 사람들에게만 나라를 맡길 것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3. 그러자 아데이만토스가 말하더군. "소크라테스 님, 그것들에 대해선 아무도 선생님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묻고 대답하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질문할 때마다 조금씩 옆길로 빠져서 드디어 토론의 끝판에서 그 조금씩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 자기들의 실수가 컸으며 처음에 자기들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마치 장기를 잘 두는 사람에게 그만 못한 사람이 끝판에 가선 밀려나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장기말 대신 토론으로 하는 이 다른 종류의 장기에서, 끝판엔 밀려나서 말 한마디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런 결과가 결코 진리를 손상시키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현재의 경우를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선생님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이 있을 때마다 말로서는 반대할 수가 없지만, 사실에서 보면 철학으로 향해 가서, 젊었을 적에 그들의 일반

3. 모모스(Momos): 남의 잘못을 비웃고 비난하는 神.

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서 철학에 손을 댔다가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오랜 동안을 철학을 하면서 보낸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불량배까지는 아니라도 매우 괴팍한 자이기에 그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선생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로 해서 그들이 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결과를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말했네. "그러면 자넨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들려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들려 주겠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옳게 생각한다는 걸 말일세."

"그렇다면 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합의를 본 철학자가 나라의 지배자가 되기 전에는 나라는 결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이 어째서 정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자네의 질문은 비유에 의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군" 하고 내가 말했네.

"하지만 선생님께선 비유하여 말씀하시기에 익숙치 못하시다고 생각되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네.

4. "그건 그렇다 하세" 하고 내가 말했네. "한데, 자넨 이렇게까지 증명하기 어려운 토론 속에다 나를 몰아 넣고서도 놀림감으로 삼긴가? 그러나 어쨌든 그 비유를 들어 주게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지춘향이로 비유를 쓰는지 더욱 잘 볼 수 있을 걸세. 왜 그런고 하니 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와와 관계에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조차 없을 만큼 혹심한 고난을 그들은 당하는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을 위해 변명을 하자니, 마치 화가가 염소 사슴이라든가 그런 따위들을 그리려면 짐승을 서로 섞듯이 많은 것들에서 한데 모아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일세. 그러니 이런 따위의 일이 많은 배(船)에 관해서든 하나의 배에 관

해서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주게. 뱃주인[4]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힘도 세지만, 그러나 귀가 좀 먹고 마찬가지로 시력도 약하고 또 항해에 관해서 아는 바 역시 없고, 또 선원들은 제각기 키(舵)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키잡이에 관해서 서로 승강이를 벌이고, 그러면서도 결코 항해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또 가르친 스승도 그것을 배운 때를 꼬집어 말하질 못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건 전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려고까지 하네. 그러나 뱃주인 자신의 둘레에는 늘 자진해서 몰려들어서 자기들에게 키를 넘겨 달라고 애걸하네. 온갖 짓을 다하면서도 어쩌다가 자신은 설득하질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을 죽이거나 배 밖으로 던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그 선량한 뱃주인을 묶어 놓고서 수면제나 독한 술이나 뭔가 그밖의 것으로 멍청하게 만들어 배를 지배하고 배 안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소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나 있음직한 일이지만 마시고 먹고 하면서 항해를 하네. 결국에는 뱃주인을 설득하든 협박하든 어떻게 하면 배를 지배할 수 있을는지 꾀를 빌려주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유능한 선원이라든가 우수한 키잡이(操舵手)라든가 항해통(航海通)이라고 칭찬해서 부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난을 하네. 참다운 키잡이에 관해서는 아무 견해도 없어서 만약 정말로 배의 지배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세차(歲次)나 계절이나 하늘이나 별이나 바람이나 그밖에 그 기술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남들이 승낙하건 말건 키를 잡는 기술이나 훈련도 조타술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네. 만약 배에 관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실제로 참다운 키잡이는 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에 의해서 별만 쳐다보는 사람이라든가, 떠벌이라든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불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4. 이를테면 아리스토파네스의 《騎士(Hippes)》 40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와 같은 아테네의 민주체제 나라에 있어서의 민중(demos)에 해당한다.

"생각하고 말고요" 하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자넨 내가 말하려는 뜻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비유를 검토해 보고서, 그것이 참다운 철학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나라와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하네."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선 철학자들이 나라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 사람에게 그 비유를 가르쳐 주게. 그리고 존경을 받는다면 훨씬 더 이상할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도록 해보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도 대중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자네의 말이 옳다는 것도 말일세. 그러나 그 쓸모없다는 것도 그들을 쓰지 않는 사람들 탓이고, 유능한 사람들 탓은 아니라고 그에게 일러주게. 왜냐하면 키잡이가 선원들에게 자기의 지배를 받으라고 애걸하는 것이라든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자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그런 밉살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은 부자건 가난하건 병이 들었으면 반드시 의사의 문을, 그리고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지배자가 적어도 그가 정말 무엇인가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배받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 달라고 요구해선 안되네. 그렇지만, 오늘날의 나라의 지배자들을 방금 우리가 말한 선원들에다 비유하고, 또 이 사람들이 쓸모도 없고 별이나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참다운 키잡이에다 비유한다면 자넨 틀림없을 걸세."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니 그런 까닭들로 해서, 그리고 그런 형편에서는 가장 훌륭한 일이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이 평가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일세. 그러나 철학에 대한 가장 크고 가장 격심한 중상은 그런 일을 하는 체하는 사람들로 해서 생기는데, 철학을 비난하는 사람은 철학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량배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도 쓸모없다고 말한다고 자네가 주장하네만, 나도 바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자네 주장이 옳다고 시인했던 것일세. 안 그런가?"
"네."

5. "그렇다면 우린 유능한 사람들이 쓸모없는 원인은 설명하지 않았는가?"
"과연 그랬죠."
"그렇다면 다음에 우린 어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설명하기로 할까? 그리고 그런 일이 철학의 탓도 아니라는 것을 가능하다면 보여 주도록 해 볼까?"
"그러죠. 부디……"
"그러면, 훌륭하고 선한 사람은 그 본바탕을 어떻게 타고나야 하는가를 논했던 것[5]을 생각해 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도록 하세.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진리란 그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경우에 모든 방법으로 따라야 했던 지도자였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참다운 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협잡꾼이었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점은 그에 대한 오늘날의 견해와 매우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긴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명을 하세. 즉, 참으로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얻으려고 천성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는 많은 하나하나의 것들에 머물지 않고, 거침없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각각의 있는 것 그 자체의 본성을 영혼 중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에 걸맞는 그 부분—걸맞는 것은 그것과 동기간인 부분[6]—으로 파악하기까지는 그의 연정(戀情)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참으로 있는 것에 접하고 맺어져서 지성과 진리를 낳고 지식을 얻어서 진실되게 살고 그것으로 양육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영혼의 진통(陣痛)이 그치지만, 그전엔 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변명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5. 제6권 485a~487a 참조.
6. nous. 즉 지성 · 이성을 말함.

"그야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떻겠나, 이런 사람은 뭔가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반대로 그것을 미워할까?"
"미워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진리가 지도자가 될 때, 악인들의 가무단(歌舞團)은 그 뒤를 따르지 않으리라고 우린 말할 것으로 생각되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건전하고 올바른 성격은 뒤따르고, 또 그것에는 절제도 따르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또 철학적 천성에 뒤따르는 가무단도 처음부터 다시 그것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어째서 있을까? 왜냐하면 용기 · 고매 · 배우기에 민첩함 · 기억력이라는 성질이 그 가무단원에게 관계된다는 것을 자네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자넨 중간에 끼어들어서 누구나 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억지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토론을 떠나서 그 토론이 관련하고 있는 사람들에 주목해서, 그들 중의 더러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그 대다수는 온갖 악인 중의 악인임을 안다고 말할 것이라고 자네가 말했기 때문에, 그 비난의 원인을 자세히 따져보면서 어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한가를 지금 고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참다운 철학자들의 천성을 또다시 문제로 삼아서 부득이 정의(定義)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일세."
"그건 그렇죠."

6.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철학적 천성의 타락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자네가 말하듯이 사람들이 불량배라고까지는 아니라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성의 타락에서 빠져나오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 천성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보아야 하네. 그 다음 차례론 그 천성을 본떠서 그 일에서 그들 자신을 정착시키는 천성을 관찰해야 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이런 천성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 큰 일 가까이까지 다가가서 갖가지 실수를 저지

르고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네가 말하는 평판을 철학에 가져다주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타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할 수만 있다면 자네에게 그걸 설명해 주도록 하겠네. 그런데 이 점은 누구나 다 우리에게 동의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방금 우리가 요청한 완전한 철학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빠짐없이 갖춘다는 것은 모든 인간 가운데서 지극히 드물다는 것 말일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문 천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그것들이 무엇인데요?"

"이건, 듣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놀랍겠지만, 우리가 칭찬한 그 천성에 속하는 것들로서의 그 성질들의 하나하나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파괴해서 철학으로부터 그 영혼을 분리시킨다는 것일세.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용기나 절제나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일세."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좋다고 하는 것들 전부, 즉 아름다움 · 재산 · 강한 체력 · 나라에 있어서의 권세 있는 친족관계, 그리고 그것들과 가까운 모든 것들이 타락시키고 분리시킨다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형(型)은 자네가 알고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하지만, 말씀하시려는 것을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그것을 전체로서 옳게 파악하게. 그렇게 하면 그 성질들에 관해서 앞서 얘기된 것이 잘 밝혀져 자네에게 이상하게 생각되진 않을 걸세."

"어떻게 하라고 재촉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식물이건 동물이건 모든 씨앗과 거기서 자라나는 것에 관해서 그 각각에 맞는 영양도 계절도 장소도 차례가 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강한 것일수록 더욱더 그것

에 맞는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네. 왜냐하면 나쁜 것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보다는 좋은 것에 대해서 더욱 반대가 되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물론이죠."

"그렇다면, 가장 뛰어난 천성도 양육이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찮은 천성보다 더욱 나빠진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되네."

"그렇죠."

"그렇다면 아데이만토스, 영혼도 그와 마찬가지로 본바탕을 가장 좋게 타고난 것이 좋지 않은 교육을 받을 경우엔 더욱더 나빠진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약한 천성은 큰 선이나 큰 악의 원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지만, 큰 부정한 일이라든가 전적으로 악한 상태는 소질은 좋으면서도 양육으로 해서 못쓰게 된 천성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천성에서 태어난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내 생각으론 우리가 철학자의 천성이라고 한 것은, 만약 그것에 맞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반드시 자라서 모든 우수한 능력을 얻게 되겠지만, 만약 맞지 않는 것 속에다 씨를 뿌리거나 심거나 해서 키우면, 신들 중의 어느 분이 도와주러 오시지 않는 한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걸세. 아니면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자네도 지식의 선생(소피스트)들로 말미암아 타락된 젊은이들이 있고, 또 어느 만큼은 말할 값어치라도 있는 것을 타락시키는 지식의 선생들의 개인적 교육에 있지만,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이 가장 위대한 지식의 선생으로서 가장 완전하게 교육을 해서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언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것은, 그들이 국민의회나 법정이나 극장이나 군영(軍營)이나 그밖의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많이 자리잡고 앉아서 떠들어대면서 말하거나 행하거나 하는 것들을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칭찬도 했다가 비난도 했

다가 하고, 게다가 그들만이 아니라 바위도, 그들이 함께 있는 장소도 메아리치게 해서 그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곱으로 떠들썩할 때를 말하네. 그런 경우에 젊은이들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또는 이런 비난이나 칭찬의 파도에 밀려 어디건 흘러가는 곳으로 흐름따라 휩쓸려 가지 않고, 결국 그는 그들이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말하고, 또 그들이 하는 대로 해서 그들과 똑같은 것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교육이 지탱해 줄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하고 나는 말했네.

"소크라테스 님, 그거야 전적으로 불가피한 일이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7. "그런데 우린 아직도 가장 큰 불가피한 일을 말하지 않고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건, 그 교육자들이나 지식의 선생들이 말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행동으로 억누르는 일일세. 자네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을 공민권의 박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사형으로 벌을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그렇죠. 단연코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지식의 선생이나 어떤 개인적인 토론이 이들에 반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야 없지. 그렇게 해보려는 것이 바로 어리석기 짝없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교육하고는 반대되는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들의 덕과 다르게 된 성격은 현재도 없으려니와 지금까지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인데…… 여보게, 이건 인간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신의 경우엔, 흔히들 말하듯이 예외일세. 왜 그런고 하니, 이건 자네가 잘 알아두어야 할 일이네만, 만약 지금 있는 대로의 나라의 체제 안에 있으면서 뭔가가 구원을 받아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된다면, 그것을 구원하는 것은 신의 섭리라고 자네가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은 아닐 것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저도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밖에 또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주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무엇인데요?"
"그건, 대중이 지식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기술상의 적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품팔이 개인교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라곤, 대중이 모였을 때에 품고 있는 믿음밖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가 지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일세. 그건, 이를테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그 기질이나 욕망을 알고 있어야 하네. 즉,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해야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손을 대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무슨 일들로 해서 가장 사나워지거나 가장 얌전해지는가, 또 어떤 경우에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버릇이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어떤 소리로 울었을 때 순해지거나 거칠어지는가 하는 것일세. 이 모든 것들은 짐승들과 함께 지내고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또 남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술로까지 체계화하긴 하지만, 이런 믿음이나 욕망 중에서 어떤 것이 아름답거나 추한지, 선하거나 악한지, 정의롭거나 부정한지, 실제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큰 짐승에 관한 판단에다 이 모든 이름을 적용하고 있을 따름이고, 그가 좋다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나쁘다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싫어하는 것이라서, 그 밖의 것은 그것들에 관해서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필요한 것을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필요한 것과 선한 것과와 성질 사이에는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관찰한 적도 없고 남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도 없다네. 신을 두고 묻겠는데, 자넨 이런 사람들을 괴상한 교육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그림에서건 음악에서건 나라의 일에서건 함께 많이 모인 온갖 사람들의 한때의 기분이나 쾌락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과 뭔가 다르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왜 그런고 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들과 사귀어 그의 시라든가 다른 무슨 제작물이라든가 나라에 대한 봉사라든지를

이들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대중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이들이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확실히, 이른바 디오메데스의 필연(必然)[7] 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 개인교사들 중의 누군가가 그것이 옷을 일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자넨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8.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8]을 상기해 주게.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 또는 수많은 하나하나의 것들이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의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을 대중은 참고 견디거나 믿거나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대중은 철학자일 수가 없네" 하고 내가 말했네.
"없죠."
"그리고 또 철학자가 그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로군."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또 군중과 섞여서 그 비위를 맞추고 싶어하는 건 문외한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군."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에서 무엇이 철학적 성질을 위한 구제가 되어서 그 일 안에 머 물고 그 목적에 이른다고 자넨 보는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으로 생각해 보게

7. 디오메데스(Diomedes): 아이트리아의 왕으로서 트로이아를 공격한 그리스군의 제1의 용장. 오디세우스와 함께 트로이아의 아테네 사당에서 神의 像을 훔쳐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덮친 오디세우스를 내서 묶어, 칼로 치면서 진영으로 데려 갔다. 그때, 찍소리도 못하게 강제를 해서, "디오메데스의 必然(강제)"이라 한다.
8. 제5권 475e 이하 참조.

나. 배우기에 능함 · 기억력 · 용기 · 정신의 고매함이 그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합의를 보았던 것일세."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특히 그가 그 영혼에 어울리게 육체를 타고났다면 어려서부터 모든 일에서 으뜸가는 사람이 아니겠나?"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론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의 집안네나 국민들이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그를 채용하고 싶어할 걸세."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탄원과 존경으로 그 앞에 엎드릴 걸세. 미리 아첨을 해서, 그의 장차의 권력을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말이야."

"그건 확실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이러한 경우엔, 특히 그가 마침 큰 나라에 속해 있고, 거기에 그가 부유하며 가문 좋고, 게다가 잘 생기고 키도 크다면 무엇을 하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는 그리스 사람들의 일이거나 외국 사람의 일이거나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출세를 하여 지각없는 헛된 자만심으로 부풀어 끝없는 야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네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서 점잖게 무엇이 참다운가를 일러 주며 그에겐 지각이 없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선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많은 나쁜 것들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에게 쉬운 일이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잘 태어나서, 그 태어남과 충고의 말이 서로 동족인 까닭으로 그런 사람이 무언가 알아차리고, 철학 쪽으로 돌아서서 끌려 간다면 그의 도움도 동료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네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에게는 설득되지 않도록 그리고 설득해 보려는 자에게는 사적으론 음모를 꾸미고 공적

으론 법원에 제소를 해서, 설득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쓸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나는 말했네.
"그건 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철학을 할 수 있겠나?"
"결코 못합니다."

9. "그렇다면 철학적 본성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요소들이 나쁘게 키워질 때는, 요컨대 그 일에서 뒷걸음치는 어떤 의미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부(富)라든가 그런 모든 수단 따위의 이른바 좋은 것들 역시 그렇다고 우리가 말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음을 자넨 알겠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옳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말이야, 여보게! 많은 요소들이 가장 훌륭한 본성을 그렇게 못쓰게 만들고 그만큼 타락시키고 있는데, 그런 본성은 우리가 말하듯이 어떤 경우에든 드물게밖엔 나타나지 않는 것일세. 그리고 나라나 개인에게 대해서 크나큰 해를 끼치는 사람도, 또 크나큰 선을 행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일세. 마침 흐름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말이야. 하지만 자질구레한 본성은 개인에게도 나라에도 이로움이나 해도 끼치지 못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철학이 가장 가깝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서 철학을 시집도 못 보낸 채로 홀로 내버려두고, 그들 자신은 어울리지도 않고 참다웁지도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마치 친척도 없는 고아처럼 당치도 않은 엉뚱한 자들이 들이닥쳐서 욕을 보이고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이란 철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것이라고 자네가 말하던 것, 즉 그 여자와 짝이 되는 자들 중에는 전혀 보잘것없는 자들도 더러는 있고 그 대부분은 철저한 악당이라는 따위의 비난일세."
"과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야 응당 그렇게들 말하지" 하고 나는 말했네. "왜 그런고 하니, 다른 하잘것없

는 인간들이 그곳에 사람은 살고 있진 않지만 아름다운 이름과 겉치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 사뭇 감옥에서 도망쳐서 신전으로 달려드는 사람처럼, 이들도 자기들의 자질구레한 기술에서는 솜씨가 대단한 자들이지만 그 기술로부터 도망쳐서 기꺼이 철학으로 달려들기 때문일세. 왜냐하면 비록 철학이 지금은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다른 기술과 비교하면 훨씬 더 당당한 자리가 남아 있어서 본성이 온전치 못하고 기술이나 수공(手工)으로 그들의 몸을 버리고 있듯이, 그 천한 일로 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이지러지고 병신이 되게 한 숱한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일세—그건 불가불 그렇지 않겠나?"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방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돈을 벌어, 목욕을 하고 마치 새신랑처럼 새옷을 입고서 역경으로 몰락한 주인의 딸과 결혼을 하려는 작달막한 대머리 땜장이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뭣이 다르다고 자넨 생각하나?"

"전혀 다를 것 없지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선 어떤 애가 생겨날까? 잡스럽고 천한 애가 아닐까?"

"그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겠나? 가르칠 값어치도 없는 것들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주제넘게도 짝을 지을 때는 어떤 사상과 의견을 낳으리라고 우린 말할 건가? 정말로 궤변이라고 부를 만한 것 그리고 진짜도 아니고 참다운 의사와는 상관도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10. "그렇다면 아데이만토스, 철학과 짝을 지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남는 사람이라곤 매우 적은 수인데 그들 중 아마 더러는 태어나기도 잘했고 잘 키워진 성격이 추방 덕택으로 구제가 되어 타락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천성에 충실하게 철학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든지, 또는 작은 나라에 태어난 위대한 영혼이 나라의 일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또, 아마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은 훌륭하게 타고난 그들의 천성으로 인해 그들이 마땅히 업신여기는 다른 기

술로부터 철학으로 오기도 할 걸세. 그런데 또 우리들의 가까운 친구인 테아게스의 고삐[9] 역시 붙잡아 놓는 구실을 하겠지. 왜 그런고 하니, 테아게스의 경우에도 다른 모든 조건은 철학으로부터 뒷걸음질치도록 마련돼 있었지만, 그의 병든 몸의 치료로 해서 그가 정사(政事)에 관여치 않도록 붙잡아 놓고 있는 걸세. 하지만 나 자신의 경우, 즉 신령적(神靈的)인 신호[10]에 관해선 말할 게 못되네. 왜냐하면 나 이전에는 거의 아무에게도 그것은 일어 나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리고 이 적은 수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소유물의 감미로움과 축복을 맛보고, 또한 대중의 광기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또 정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건전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서로 도와서 함께 나아가 몸을 보전하면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동지가 없다는 것, 오히려 부정에 한몫 낄 동지를 원치도 않고, 혼자서 모든 야만적인 것을 견딜 만큼 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나 나라를 위해 어떻게든 이로운 일을 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게 쓸모도 없이 야수(野獸)에 둘러싸인 사람처럼 먼저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서 조용하게 있고 제 할 일을 하고, 마치 겨울철에 먼지와 진눈깨비가 바람에 날아올 때 담 밑으로 피해서 서 있는 사람처럼 남들이 무법(無法)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약 어떻게 해서든 이승에서 제 자신이 부정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고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름다운 희망을 안고 평온하게 고운 마음씨로 떠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결코 적지 않은 것을 이루어 놓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것도 아닐 걸세. 그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체제의 나라에 태어나질 않는다면 말이야. 왜 그런고 하니, 어울리는 체제의 나라에서만 그는 더욱 잘 자라고, 그 자신의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다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

9. 테아게스(Theages): 소크라테스와 가까이 사귄 사람. "테아게스의 고삐"는 억제력을 뜻하는 말.
10. 소크라테스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 ≪변명≫ 31에 나타나고 있다.

하고 내가 말했네.

11. "그러니 철학이 중상(中傷)을 받고 있는 까닭, 그리고 그것의 옳지 못함에 관해서는 자네가 뭔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히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네."
"거기 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나라의 체제 중에서 어떤 것이 철학에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어울리는 건 하나도 없네. 오히려 내 불평이란 바로 이걸세. 즉, 오늘날의 나라의 체제치고 철학의 본성에 맞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말일세. 바로 이 까닭으로 해서 그것은 이지러지고 바뀌고 하는데, 그건 마치 딴 나라의 종자가 다른 땅에 뿌려져서 그 땅의 것으로 되어 특성을 잃고 변해 가듯이, 이 본성도 지금은 그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다른 성격으로 변질하는 것일세.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듯 가장 좋은 나라의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땐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본성에 있어서건 제도에 있어서건 인간적인 것임이 밝혀질 걸세. 자, 그러니 뻔하군. 자넨 다음엔 그런 나라체제가 어떤 것이냐고 물을 걸세" 하고 나는 말했네.
"모르시는 말씀" 하고 그는 말했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나라체제란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서 얘기해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들에선 바로 그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한데, 그때도 우린 바로 그 점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즉 입법자인 자네가 법률을 제정할 때 가지고 있는 나라체제의 구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늘 그 나라 안에 있어야 하리라는 것일세."
"그렇게 말했었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충분히 밝혀지진 못했어. 자네들의 반대로 해서 그 논증이 길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여러 가지 문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남은 문제를 설명하기도 결코 수월찮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뭣인데요."

"나라가 철학을 어떻게 다루면 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일세.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은 불안정하고 또 속담에도 있듯이, 아름다운 것들은 힘이 든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일세."

"그래도 역시 그것을 밝혀서 논증을 마무리지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다는 것일세. 그리고 내 열성은 자네가 직접 알게 될 걸세. 하지만 나라는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로 그 일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고, 내가 얼마나 열렬히 그리고 얼마나 대담하게 말하려는가를 이제라도 고려해 주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소년기를 겨우 벗어난 청년들로서 살림살이와 돈벌이로 들어서기 전에 그것의 가장 힘드는 부분으로 다가갔다가는 거기서 떠나고 마는데, 이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보이고 있다네—내가 가장 힘드는 부분이라 말한 것은 논법에 관한 것이네만—그리고 그 후에는 만약 초대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 내고 있는 남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생각이라도 든다면 그걸 엄청난 일로 여긴다네. 그런 것은 소일거리로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늘그막에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은 예외지만, 헤라클레이토스의 태양[11] 보다도 훨씬 더 철저히 그들의 불기운을 꺼버리고 만다네. 그것이 또다시 타오르는 일은 없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전혀 반대지. 젊거나 어렸을 적엔 젊은이에게 맞는 교양과 철학적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가고 있을 동안에는 신체에 각별히 조심하여 철학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일세.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영혼이 성숙해 가기 시작할 때는 그들의 정신적 훈련을 더욱 심하게 해야 하네. 그러나 체력이 기울어

11. "태양은 날마다 새롭다"는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의 말이 품어져 있다.

져서 이미 정치나 군사적 의무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땐, 바로 그때야말로 마음내키는 대로 초원을 거닐고, 소일거리를 빼놓고는 철학밖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세. 만약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삶의 마지막에서는 생전의 생활을 그것에 어울리는 저승에서의 운명으로 보답받게 하려면 말일세."

12. "소크라테스 선생님, 정말로 열심히 말씀하신다고 저에겐 생각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트라시마코스 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선생님보다 더욱 열심히 반대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나와 트라시마코스 사이를 싸움붙이지 말게. 우리는 방금 친해졌고, 그전에도 적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밖의 다른 사람들도 설복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이와 같은 〔철학적〕 논법을 만날 경우, 그 세상의 생활을 위해서 뭣인가 유익한 일을 하기까지는 내 노력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건 앞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일이겠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시간 전체에 비긴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세.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닐세.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아니, 오히려 그들이 본 것이라곤 이런 따위의 대조적인 문구, 게다가 지금처럼 저절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말끝이 같은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말과 행실에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덕에 일치하고 같게 형성된 사람이 그와 같은 나라에서 한 번이건 여러 번이건 권력을 잡는 일이라곤 본 적이 없네. 자넨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없습니다."

"여보게, 그리고 또 그들은 훌륭하고 자유스런 토론을 신중하게 들어본 일이라곤 없다네. 알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는 일은 바로 그런 토론에 있는 것일세. 법정에서건 강의실에서건 억견(臆見)이나 입씨름으로밖엔 아

무것으로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교묘한 말이라든가 논쟁적인 것이라든가는 피하고 말이야."

"그들이 그런 토론을 들어본 적이라곤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바로 이 까닭들로 해서,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미리 알고서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리에 못 이겨 이렇게 말했네. 즉, 만약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날 불리고 있는 소수의 철학자들이 우연히 어떤 필연성으로 원컨 원치 않건 나라의 일을 돌보게 되고, 또 나라가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든지, 아니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또는 자신들에게 뭔가 심적인 입김이 참다운 철학을 향한 참다운 사랑을 보내 주든지 하기 전에는 나라건 나라의 체제건 또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코 완전치 못할 것이라고 말일세. 이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둘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주장하네. 왜 그런고 하니, 만약 그들이 그렇다면 우린 마땅히 웃음거리가 될 걸세. 마치 그저 기도나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안 그런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철학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필연성으로 나랏일을 돌본다는 것이 지나간 무한한 시간 안에 있었든가, 또는 현재 멀리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야만인의 지역에 있든가, 또는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저 무사의 신이 나라의 지배자가 될 때는 우리가 얘기한 나라체제가 늘 있었고, 있으며, 또 있으리라는 논전을 벌일 각오가 돼 있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 우리도 불가능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세. 다만 그런 일들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은 하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넨 말하겠지?"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겠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이 사람아, 대중을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비난하진 말게나. 만약에 자네가 그들과 싸울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달래서 학문의 사랑에 대한 비난을 풀어내면서 자네가

말하는 철학자들을 설명해 주고, 앞서 우리가 했듯이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일에 정의를 내려주어서, 자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대중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들을 상상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종전과는 다른 의견을 갖게 될 걸세. 아니면 그들이 그런 식으로 그들(철학자)을 본다 하더라도 자넨 여전히 부정하겠나? 그들이 의견을 바꿔서 다른 답변을 하리라는 것을 말일세. 또는 자기 자신은 악의가 없는 온건한 사람인데도, 사납지 않은 사람에게 사납게 대하거나 악의가 없는 사람에게 악의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나는 자네를 앞질러서 말하네만,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의 경우라면 모르려니와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그렇게까지 사나운 천성은 생기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이지요.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네.

"그렇다면 바로 이 점에서도 자넨 동의하는가? 즉, 철학에 대한 대중의 사나운 태도의 원인은 그들이 아무 권리도 없는 곳에 주정뱅이처럼 밖으로부터 뛰어들어서 서로 욕설을 퍼붓고 다투기 좋아하고 그리고 철학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네만 늘 사람들에 관한 얘기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13. "아데이만토스 군, 왜냐하면 실재하는 것들에다 진정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간들이 하는 일을 내려다보고 그들과 싸워서 질투나 증오감으로 채워질 겨를이 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늘 같은 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서로 바르지 못한 일을 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이성에 따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서 그것들을 모방해서 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닮으려고 힘쓴다네. 아니면, 사람이 무엇이건 감탄해서 사귀고 있는 것을 모방하려 하지 않는다는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신적이고 질서있는 것과 사귀고 있는 철학자는 인간에게 가능한 한도에서 질서가 있고 신적인 것이 되고자 한다네. 그러나 중상(中傷)이란 어디든지 많이 있

는 것일세."

"그야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그가 만약 뭣인가에 불가피하게 눌려서 그 자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성격에서 실행하고, 또 저기서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건 공적으로건 실현한다면, 그는 절제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밖에 일반 국민의 덕의 서투른 직공이 될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만약 대중이 그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이라고 알아채게 된다면, 그래도 그들은 철학자에게 사납게 굴 것인가? 또 만약 신적인 본(本)을 사용하는 화가가 나라를 그리지 않는다면, 나라는 달리는 결코 행복해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을까?"

"그들이 그걸 알아챈다면야 사납게 굴진 않겠죠. 하지만, 그 그림의 방식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들은 나라와 인간들의 성격을 마치 화판(畫板)처럼 여기고 우선 그것을 깨끗하게 하겠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세. 그러나 어쨌든 개인이건 나라건 그들이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든지 하기 전에는 거기다 손을 대거나 법률을 기초(起草)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 점에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게다가 그들은 정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 후에 그들은 나라체제의 윤곽을 초벌 그림으로 그릴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물론 그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그 일을 마무리지어 갈 경우에 자주 양쪽을, 즉 본바탕으로부터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절제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 쪽과, 그들이 인간 속에다 만들어 넣으려는 것 쪽을 번갈아서 눈길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에서 서로 맺고 서로 섞어서 그 인체상

(人體像)으로부터 판단해서 빛깔을 그리겠는데, 그 인체상이란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타날 때, 호메로스가 신의 모습이라든가 신을 닮은 것이라고 부르던 것일세."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그들은 인간의 성격을 가능한 한 극도로 신에 친근하게 만들기까지는 때로는 지워 없애고 때로는 새로 그려 넣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어쨌든 그건 가장 훌륭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있는 힘을 다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다고 자네가 말했던 그자들[12]을 우린 지금 어떻게든 설득하고 있는 건가? 즉, 나라체제의 그런 화가란 그때 우리가 칭찬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기를 우리가 제안했을 때, 그네들이 화를 냈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다소나마 그들은 점잖아질 건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그들이 분별력이 있다면야 훨씬 점잖아지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그들은 반대를 할 수 있을까? 철학자란 실재하는 것이라든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할 것인가?"

"그거야 너무 괴상한 일이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아니라면, 우리가 그려냈듯이 그들의 본바탕은 가장 선한 것과 한 집안이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가? 걸맞는 일거리를 타고난 그런 본바탕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욱 완전히 선하고 철학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제외한 그네들[13]이 훨씬 더 그렇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할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의 계급이 나라의 지배자가 되기 전에는 나라에도 나라의 체제

12. 제5권 473e~474a 참조

13. 제6권 484b~484d 참조.

에도 악이 그치질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로 얘기하고 있는 나라의 체제가 사실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래도 그들은 화를 낼까?"
"아마 화를 덜 내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말일세, 화를 덜 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아주 얌전해지고 부끄러워져 찬성하도록 설득되고 말았다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있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14.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까지는 설득되었다 치세. 그러나 더 나아가서 왕이나 통치자에게서는 철학적인 본바탕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에 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하지만, 만약 그런 자손이 태어난다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기야 그들은 구제되기가 어렵다는 것에 우리도 동의는 하네. 그러나 시간 전체에서 그들 모두들 중의 단 한 사람도 구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가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는 나라를 가진다면, 지금은 믿을 수 없는 모든 것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충분하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왜냐하면 그가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해 온 법률이나 제도를 정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기꺼이 실행하게 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달한 의견에 다른 사람도 도달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스럽고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게다가 그것들이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충분히 밝혀놓았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다면, 그 입법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 같군.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그것이 생긴다면 가장 좋은 것이긴 해도 생기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일세."
"그런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5. "그렇다면, 그것은 겨우 마무리졌으니, 다음엔 남은 것을 말해야겠네. 즉, 우리의 나라체제의 보호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학문이나 일거리로 해서 나라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은 몇 살쯤에 여러 가지 학문을 각각 시작할 것인가?"
"그렇죠. 그건 말해야 하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여자를 차지하는 일이나 애를 만드는 일이나 통치자를 임명하는 일은 그것들이 전적으로 참다운 것인 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또 실현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나는 그것들에 관한 귀찮은 문제를 제쳐 놓으려고 했었지만, 내 교묘한 솜씨로도 조금도 소용이 없었네. 왜 그런고 하니, 아무래도 이젠 그것들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세. 여자나 애들의 문제는 이미 마무릴 지었지만, 그러나 통치자의 문제는 말하자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겠네. 자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말했었네.[14] 즉, 그들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으로 시험될 때,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밝혀야 하고, 또 고생에서나 두려움에서나 그밖의 어떤 운명의 변화에서나 그 신조(信條)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야 하고, 그러질 못하는 사람은 제거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마치 물 속에서 시험된 황금처럼 언제나 순수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통치자로 임명하고,

14. 제3권 412c~414a 참조

살아 있는 동안 또는 죽은 뒤에도 명예와 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네. 지금의 이 문제를 들춰내기가 두려워서 논의가 얼굴을 가리고 옆길로 피했지만 우린 뭔가 그런 것을 말했었네" 하고 내가 말했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왜 그랬는가 하면, 여보게 ! 지금은 용감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땐 말하길 꺼려했기 때문일세. 그러나 이젠 이것을 감히 말한 것으로 하게나. 즉, 가장 완전한 방위자로서는 철학자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치죠"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네가 당연히 차지할 사람들이란 얼마나 적은가를 생각해 보게나. 왜 그런고 하니, 그들에게 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한 본성의 여러 가지 부분이 함께 성장하기란 매우 드문 일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성장하기 때문일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배우기에 능하고, 기억력이 좋고, 총기가 있고, 날카롭다…… 그런 등등의 성질과 쾌활하고 고매함은 자네도 알다시피 질서 있고 조용하고 착실한 생활을 보내려는 의도와 인간의 본성에서 맺어지기가 드문 일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명민(明敏)한 까닭으로 때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이끌려 다니게 되어 모든 견실성은 그들에게서 빠져나가고 마는 것일세."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한편으로 오히려 믿고서 사용할 수 있는 견실하고 잘 변치 않는 성격, 그리고 전쟁에서는 공포에 대해서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그 성격은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질세. 그들은 마치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좀체로 움직이지도 않고, 여간해선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인지라, 뭔가 그런 일로 고생을 해야 할 경우엔 잠과 하품으로 일관하게 된다네."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사람이란 그 두 성질을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훌륭하게도 다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질 못하면 가장 치밀한 교육에도 명예에도 통치에도 참

여 시켜서는 안된다고 우린 단정하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이 나타나기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물론이죠."
"이젠 그때 우리가 말한[15] 고생이나 두려움이나 즐거움에서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하고, 그때 빼놓았던 것을 이젠 말해야겠는데 그건, 즉 여러 가지 학업으로 그것을 훈련시켜야 하며, 그리고 그 경우에 그들의 천성이 가장 큰 학업에 견뎌낼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두려워 달아나는 사람들처럼 도망칠 것인가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일세."
"그렇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은 분명히 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학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6. "아마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네만, 영혼에서 세 가지 종류를 나눈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정의'와 '절제'와 '용기'와 '지혜'에 관해서 그것들이 각각 무엇인가를 결론으로 이끌어냈던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기억하고 있지 않고서야 나머지 것을 들을 자격도 없겠지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것에 앞서서 말한 것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게 무엇인데요?"
"우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16] 그 덕들이 무엇인가를 가능한 한 잘 알아채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더욱 먼 길이 요구되어서 그 길을 더듬어 가면 그것들은 분명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논의된 일에는 그와 동등한 증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자네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했네. 그래서 그

15. 제3권 413b~414a 참조
16. 제4권 435d 참조

런 양해 밑에 그때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건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치밀하진 못했던 것 같애. 다만 자네들에게 그것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닌지는 자네들 편에서 말해 주어야겠네."

"그렇죠. 적어도 저에게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고 그가 말했네.

"하지만 여보게, 적절한 정도라 해도 이런 중대한 일에 관해서는 그것을 재는 척도가 조금이라도 참다운 존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적절한 정도는 되지 않네. 왜냐하면 완전치 못한 것은 어느 하나이건 아무 척도도 되지 못하기 때문일세. 하기야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겐 이미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 이상 조금도 더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과연 그렇죠. 숱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그런 태도야말로 나라의 법률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어울리지 않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응당 그렇겠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여보게, 그런 사람은 더 먼 길을 가야 하네. 그리고 체육의 경우에 못지않게 학업에서도 고생을 해야 하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도 말했네만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대의 학업의 목적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것들은 최대의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정의라든가 그밖에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뭔가 더 중대한 것이 있을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더 중대한 것이 있다 뿐인가. 그 덕들 자체도 지금처럼 스케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마무리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네. 도대체 대단한 값어치도 없는 다른 것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가능한 한 명백하려고 전력을 기울여서 온갖 것을 하면서, 가장 중대한 것에 관해서 그것에 어울리는 최대의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고 내가 말했네.

"우습고 말고요. 그런데, 도대체 가장 큰 학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 보지 않은 채 이대로 선생님을 놓아 드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결코 없지. 자, 자네도 물어보게나, 어차피 자네는 그것을 정녕 여러 번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물고 늘어져서 나를 못살게 굴 셈이로군. 그러나 내 생각으론 나중 것일 거야. 왜냐하면 자네는, '선(善)의 이데아'가 최대의 학문이며 이것이 합쳐져야 바른 것도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비로소 쓸모있고 이로운 것이 된다는 것은 여러 번 들었을 테니까 말일세. 지금도 자넨 내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우린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진 못하다고 내가 말하려는 것도 대강은 알고 있을 걸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면서 다른 것을 설사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우리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고, 그건 마치 뭔가 가지고는 있어도 선한 것이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질세. 아니면, 온갖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한 것만은 가지고 있지 못한데도 뭔가 이로운 일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또는 선한 것은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은 이해하면서 아름답고 선한 것에 한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제우스에 맹세코,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17.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이란 것을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좀더 깬 사람들은 이지(理智)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자넨 알고 있는 터일세."

"물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보게, 나중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지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선을 아는 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우습긴 하지만" 하고 그는 말하더군."

"어찌 안 그렇겠나? 선을 알지 못한다고 우릴 비웃으면서도, 이번엔 마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하네.
"그렇다면, 쾌락을 선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겠나? 설마 다른 한 쪽 사람들보다도 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순 없겠지? 이 사람들도 나쁜 쾌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으론 동일한 것이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셈일세. 그렇겠지?"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겠나? 옳은 것이나 아름다운 것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많고 비록 사실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을 행하거나 갖고, 남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이 많겠는데, 그러나 선한 것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되고만 있대서야 만족할 수 없지만, 사실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구하고, 어떻게 생각됨은 이 경우에는 이미 누구나 다 업신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17]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모든 영혼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바로 그것이 정녕 뭔가 있는 것이라고 직감은 하면서도, 그러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영혼은 당황해서 충분히 파악하질 못하고, 게다가 다른 일의 경우처럼 끄떡도 않는 신념을 갖지도 못하고, 바로 그 까닭으로 해서 그런 다른 일이 뭔가 이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놓치고 말게 되는데, 과연 이런 성질을 가진 이만큼 중대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나라 안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까지도, 그

17. 겉보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이 그렇지 못하면 경멸할 것밖에 안된다는 뜻. 남에게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해야 한다는 것.

렇듯 눈이 멀고 있어도 좋다고 우리가 말할 건가?"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고 그는 말했네.
"어쨌든 바른 것들이나 아름다운 것들은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선한 것인가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자기들의 방위자로 삼는다 해도 별로 대단한 값어치를 가진 방위자는 못된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하고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 짐작은 훌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체제는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방위자로서 나라체제를 감독할 때 비로소 그 완전한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18. "불가불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님, 당신께서는 선은 지식이라고, 아니면 쾌락이라고 또는 그것들 이외의 뭔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아! 그것에 관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에 자네가 만족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벌써부터 뻔한 일이었어"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저에게도, 소크라테스 님! 남의 의견은 말할 수 있으면서, 제 자신의 의견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는군요. 더욱이 그만큼 오랫동안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고생해 온 사람의 경우엔 말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나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자기가 모르는 일에 관해서 사뭇 알고나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을 자넨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아는 체하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뭐라고?" 하고 내가 말했네.
"지식이 따르지 않은 의견이란 어느 것이고 다 추하다는 것을 자넨 느낀 적이 없는

가? 그 가장 훌륭한 것조차도 맹목일세—아니면, 지식 없이 뭔가 참다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경이 혼자 걸으면서 길을 제대로 가는 것과 뭣이 다르다고 자네 생각하나?"

"조금도 다를 바 없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네는 다른 사람들에게선 밝고 아름다운 것을 들을 수 있는데도, 눈은 멀고 몸은 구부러진 추한 것을 보기 원하는가?"

"제발 제우스께 맹세코, 소크라테스 님! 마치 끝장에 이르기나 한 것처럼 물러나셔서는 안됩니다." 라고 글라우콘이 말하더군.

"저희들로서는, 정의라든가 절제라든가 그밖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으니까요."

"여보게, 그야 나로서도 크게 만족할 걸세. 하나,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겠고, 할 수 없으면서도 마음만은 앞서 꼴사나운 짓을 해서 우스꽝스럽게 되지나 않을까 그것이 걱정일세. 여보게들, 다만 선이란 그 자체로서는 대체 무엇인가를 지금 당장은 미루어 두기로 하세—왜 그런고 하니, 그것을 어쨌든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거기까지 다다르기란 내 지금의 시도로서는 좀 힘에 겨운 듯이 생각되니 말일세—오히려 선의 자손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그것에 가장 잘 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만약 자네들에게도 바람직하다면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번에 빚을 갚아 주실 테니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게 나도 빚을 갚을 수 있고, 자네들도 그것을 받을 수 있었으면 싶네. 지금처럼 이자만이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지 지금은 여기 있는 선(善) 자체의 이자와 자손을 받아 주게. 다만, 자네들은 조심해서 내가 그 이자의 셈에서 가짜 돈으로 갚아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자칫 자네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될 수 있는 데까지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어쨌든 말씀이나 하시죠."

"그러지. 앞서도 말했고, 또 다른 기회에도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을 자네들이 기억

나도록 하고서, 서로 합의를 얻어 두어야겠네" 하고 나는 말했네.
"무엇인데요?" 하고 그가 말했네.
"많은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들이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들을 말로 구별짓고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 아름다움 자체와 선 그 자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많은 것들이라고 세워 놓은 모든 것에 관해서도…… 이번엔 거꾸로 그것들이 하나인 것처럼 각각에 단 하나의 '이데아'가 있다고 정하고, 이것을 곧 '각각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으로는 한쪽 것은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될 수는 없고, 다른 편 '이데아'는 생각될 순 있어도 보이지는 않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는가?"
"시각을 가지고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들리는 것은 청각을 가지고 듣고, 그밖에 다른 감각적인 것은 감관(感官)을 가지고 감각하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감각의 창조자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관한 능력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 값진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자네는 유의해 본 적이 있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전혀 없는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게나. 청각과 소리는 어느 한 쪽이 듣고 다른 쪽이 듣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종류의 것을 필요로 할까? 그것이 만약 제자로서 함께 있지 않는다면, 청각은 들을 수가 없고 또한 소리는 듣게 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있을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밖에 다른 감각 능력도 그 어느 하나라고까지는 말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개는 그런 다른 것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자넨 뭔가 그런 예를 들 수 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할 수가 없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시각이나 보이는 것의 능력은 그런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넨 알아채겠지?"
"어떻게요?"
"눈에는 시각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각을 쓰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리고 보이는 것에는 빛깔(色)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본래부터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알맞은 제3의 종류가 거기 함께 있지 않다면, 자네도 알다시피 시각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또 빛깔도 보이지 않는 채로 있을 걸세."
"그것이 대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자네가 빛(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세."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고 보니 보는 감각하고 보여지는 능력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감각의 경우에 맺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자질구레하지 않은 종류의 차이만큼 한층 더 고귀한 것이 되는 셈일세. 적어도 빛이 천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야 그렇죠. 천한 것이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19. "그렇다면, 자넨 하늘에 있는 신들 중에서, 특히 어떤 신을 그 일의 원인이며 그 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들 수 있겠나. 즉, 그 빛이 우리를 위해서 시각을 가장 잘 보이게 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장 잘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생님께서도 다른 사람들도 일치해서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묻고 계신 것이 분명히 태양일 테니까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시각이란 원래 이 신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시각 그 자신도 또 그것이 거기서 생기는 것, 즉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것도 태양은 아닐세."

"물론 아니죠."

"하지만, 감각에 관계가 있는 기관 중에서는 눈은 가장 태양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야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또, 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처럼 받아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도 역시 시각은 아니지만 그것의 원인이며, 바로 그 시각으로써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 태양이 바로 내가 선(善)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임을 자넨 이해해 주어야겠네.[18] 그것은 선이 제 자신과 비슷한 것으로 생겨나게 한 것인데…… 그것은 즉, 사유(思惟)로써 알려지는 곳에서 선 자신이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보이는 곳에서 태양이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꼭 같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좀더 설명해 주십시오."

"눈이란 것은 대낮의 빛이 빛깔의 표면에 활짝 펼쳐 있는 그런 사물(事物)에는 향하질 않고, 밤의 빛에 싸여 있는 사물로 향할 때는 마치 그 안에는 순수한 시각이 없는 것처럼 희미해서 거의 눈이 먼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을 자넨 알고 있지?"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햇빛이 밝게 비추고 있는 사물이라면 명확히 보여서, 같은 그 눈 안에는 분명히 순수한 시각이 있다네."

18. '善의 이데아'는 태양에 비교된다. 태양은 生成하는 세계에 속하고 있지만, 태양으로 해서 생성되는 것들과 同格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 자신은 참다운 실재이지만, 그 '善의 이데아'로 하여 비로소 實在性이 주어지는 다른 인식의 대상, 즉 이데아들과 동격의 실재는 아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영혼의 경우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게나. 영혼이 진리와 존재가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을 향해서 거기서 멈추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지성(知性)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나 어둠과 섞여 있는 것, 즉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에 향할 때는 영혼은 억측할 뿐이고, 여러 가지 억측을 이것저것 바꾸면서 희미해져서 이번에는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네."

"확실히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이렇듯 알려지는 것에는 진리를 제공하고, 아는 것에는 아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라고 자넨 말해야 하네. 그것은 지식과 진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알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지식과 진리는 다같이 그렇듯 아름다운 것이긴 해도, 선이란 그 둘과는 다른 것이고, 이것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네 생각은 옳을 걸세. 그리고 지식도 진리도 마치 앞서의 경우에 빛깔과 시각을 태양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지식과 진리를 선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둘 중의 어느 하나라도 그것이 그대로 선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고, 오히려 선의 상태는 더욱 높이 존중되어야 하네."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만약 지식과 진리를 제공하면서도 그 자신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것들을 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입니다. 설마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터이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말조심하게" 하고 내가 말했네. "오히려 그것과 닮은 모습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찰해 보게."

"어떻게요?"

"내 생각으론 태양은 보이는 사물에다 보이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생성과 성장과 영양을 주는 것인데, 다만 그 자신이 생성은 아니다 라고 자넨 말할 걸세."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알려진다는 것이 선으로부

터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있다는 것도 그 실재성도 선으로부터 그것들로 오는 것인데, 다만 선이 그대로 실재성은 아니고, 오히려 그 존엄성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실재를 훨씬 저편으로 초월하곤 있지만, 하고 자넨 말해야 하네."[19]

20. 그러자 글라우콘이 매우 익살스럽게 말했네. "아폴론의 신이여, 이 무슨 신기(神奇)한 초월인가!"

"자네 탓일세. 선에 관한 내 생각을 억지로 말하게 한 것은 자네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런데 제발 멈추지는 마십시오. 딴 것은 어찌 되었든 뭔가 빼놓으신 것이 있다면, 태양과 닮은 점만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말했네.

"그야, 정말 빼놓은 것이 많고 말고!"

"그러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빼놓진 마십시오" 하고 그는 말하더군.

"내 생각으론 적잖이 빼놓게 될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진 일부러 남겨 놓지 않겠네."

"그러지는 마십시오"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듯이 그것들은 둘인데, 하나는 사유로써 알려지는 종류와 그 세계의 제왕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종류와 그 세계의 제왕이라고 생각해 주게. 내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의' 라는 말을 써서, 이 이름에 관해서 내가 학자 티를 낸다고 자네가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세. 그거야 어쨌든,

19. "사유로써 알려지는(noeton)" 것과, "보이는(horaton)" 것과, "하늘의(ouranon)" 것이라 해서, 어원적인 설명으로 학자티를 낸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반농담으로 한 말.

자네는 보이는 것〔可視界〕과 사유로써 알려지는 것〔可知界〕이라는 두 종류를 갖고 있겠지?"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마치 서로 같지 않은 두 선(線)으로 나뉜 직선처럼 생각하고 그 둘로 나뉜 것을, 즉 보이는 종류의 부분과 생각으로써 알려지는 종류의 부분을 다시 각각 같은 비례로 나누게.[20] 그렇게 하면 명확과 불명확과의 정도에 따라 서로 비교할 경우에 보이는 범위에서는 나누어진 것 중의 한쪽 부분은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네에게 주어지게 될 걸세—내가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로 그림자를, 그리고 둘째로는 수면(水面)이라든가 촘촘하고 매끄럽고 밝은 짜임새를 가진 것이라든가에 비추어진 영상(映像), 그리고 모든 그런 따위일세. 자네가 알아준다면 말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쪽 부분은 지금의 그 닮은 모습이 닮고 있는 실물(實物), 즉 우리 둘레에 있는 동물이나 모든 식물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따위 전부를 나타낸다고 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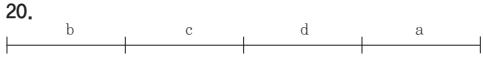
"그렇다고 치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과연 또, 보이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억측되는 것의 관계가 그대로 실물에 대한 닮은 모습의 관계와 같도록 나누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고 싶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럼 또, 알려지는 것의 나누기에 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나."

"어떻게요?"

20.



이렇게 나눈 부분에 있어서, 그 비례 관계는 ab:cd=c:d가 됨을 말한다.

"그건 말일세. 영혼이 그것을 탐구함에 있어서 앞서의 경우에는 모방의 실물이었던 것을 이 경우에는 닮은 모습으로 사용하면서 가설(假說)로부터 출발하되, 처음 쪽이 아니라 끝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부분과, 그와 반대로 다른 쪽 것의 탐구에 있어서는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이미 가설이 아닌 처음 쪽으로 진행하되, 앞 부분에서 채택되었던 닮은 모습을 사용하질 않고 직접 '에이도스(形相)' 자체를 그것만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부분—가정 없는 처음 쪽으로 향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라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 수는 없군요."

"그렇다면야 다시 말하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이것을 미리 말해 두면 자네도 훨씬 쉽게 알 수 있을 테니까. 즉, 자네도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기하라든가 산수라든가 그런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여러가지 도형, 세 가지의 각(角), 그 밖에 이것과 같은 부류의 것을 각각의 연구에 따라서 전제로 세우고,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가설로 세운 다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아무 설명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에게나 분명한 일인 것처럼 다룬다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출발해서 곧 그 다음 일을 추구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향해서 떠났던 목표에 서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도달하는 것일세."

"과연 그렇군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넨 이것도 알 걸세. 즉,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꼴(形)을 써서 그 꼴들에 관해서 논의를 하지만, 다만 그 경우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꼴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닮고 있는 실물에 관해서이고, 또 그들이 논의하는 것은 사각형 그 자체, 대각선 그 자체를 위한 것이고, 그것들이 도형으로 그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밖의 것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질세. 그들이 입체적으로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는 것의 실물은 물 위에 그 그림자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런 실물을 또 다른 입장에서 모습으로서 사용하고 오성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하고 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21. "그래서 나는 이 종류의 것을 생각으로써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영혼은 그것을 탐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가설들보다 더 위로 넘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초의 방향으로 진행하질 않고, 다른 편,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의 바로 그 실물은 그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 명확한 것으로서 평가되고 존중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까지도 모습으로서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기하라든가 그것과 비슷한 기술에 속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생각으로써 알려지는 것을 나눈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게. 즉, 그것은 이치가 그 스스로 대화의 힘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치는 여러 가지 가설(hypothesis)을 절대적인 시초로 하지는 않고, 글자 그대로 밑에(hypo) 놓인 것(thesis)으로 치고, 말하자면 발판이나 뛰 판으로 치고, 그것으로써 이미 가설이 아닌 것에 이르러 모든 것의 시초에 도달해서 그 시초를 파악한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시초에 매어져 있는 것을 차례로 붙잡으면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내려가는 것인데, 그 경우에 무엇이고 감각되는 것은 전혀 사용 하질 않고 오직 '에이도스' 그 자체만을 사용해서, '에이도스'를 통해서 '에이도스'를 향해 움직여 드디어 '에이도스'에서 끝이 나는 것일세."

"알았습니다. 만족할 정도는 못되지만요—그건 말씀하시는 것이 대단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건 알겠습니다. 즉, 존재하는 것이나 생각으로 알려지는 것에 관해서 대화의 지식으로 고찰되는 것은 이른바 기술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 보다는 명확하다고 규정지으시려는 것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술로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그대로 시초라서, 고찰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대상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찰하는 것은 아니고 가설에서 출발하여 고찰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대상들이 시초를 가지고 오성으로 알려지는 것이긴 하지만, 대상에 관해서 그들이 이지(理智)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오성이라고 부르시고 이지라고 부르시지 않는 것은 오성이 뭔가 억

측과 이지와의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네의 이해는 아주 만족할 만하네"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러면 넷으로 나누어진 각 부문에 대응해서, 영혼 안에서 다음의 네 가지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치세. 즉, 맨 윗부분에는 이지를, 둘째 부분에는 오성을, 셋째 부분에는 신념을,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영상(映像)을 배당하게. 그리고 이것들을 일정한 비례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게. 영혼의 이 상태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큼 그것들은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일세.[2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찬성하고 그대로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21.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지성적 사유의 세계 (to noeton)		보이는 세계 (to horaton)	
이데아		자연물	그림자(영상)
a	b	c	d
지성(noesis) 즉, 변증법	오성(dianoia) 즉, 수학적 추리	신념(pistis)	허깨비(eikasia)
지식(학문적) (episteme)		억견 (doxa)	

제 7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관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음과 같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게. 즉, 땅 밑에 있는 동굴 모양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주게. 길게 뻗어 있는 입구가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동굴 전체의 넓이만큼 열려 있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거처 속에서 어려서부터 발과 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그 사슬로 해서 머리를 뒤로 돌릴 수가 없으니 그저 앞만 보고 있게 되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상상해 보게. 그들의 뒤로 높고 먼 곳에 불이 타고 있어서, 그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는데, 그 불과 죄수들과의 사이에는 길 하나가 뒤쪽으로 나있고 그 길을 따라 벽이 세워져 있다 하세. 그건 마치 인형 조종사 앞에 칸막이가 놓여 있어서, 그 위에서 구경꾼들에게 꼭두각시 놀음을 보여 주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고 있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상상해 보게나. 즉, 이 벽 위에 나와있는 온갖 도구라든가,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모양을 사람들이 운반하고 있는데, 운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으레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을 다문 사람도 있기 마련일세."

"그 참, 이상한 모습의 이상한 죄수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들은 우리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왜 그런고 하니, 우선 첫째로 그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나 서로 간에 그들의 정면에 있는 동굴의 일부에 불빛으로 던져진 그림자 말고 뭔가 다른 것을 본 일이 있으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만약 그들이 평생토록 머릴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운반되고 있는 물건에 관해선 어떨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물론이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그들은 실물이라고 믿는다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갇힌 감옥의 정면에서 소리가 울려 온다고 한다면 어떻겠나?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중의 누군가가 말소리를 낼 때 마다 그 말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죄수들이 생각하는 것은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제우스에 맹세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이렇게 해서, 그런 죄수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오직 여러 가지 인공적인 물건의 그림자만을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리석음이 치료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나. 만약 다음과 같은 일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서 일어난다면 말일세. 즉, 그들 중의 한 사람이 풀려났다고 하세.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목을 돌리고, 걸어서 불빛 쪽을 쳐다보도록 강요되어, 그에게는 그런 일을 하기가 이것도 저것도 다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전에는 그림자만을 보고 있었던 것의 실물을 보려고 해도 눈이 부셔서 잘 볼 수가 없겠는데, 그때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네가 그전에 보고 있었던 것은 하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전보다 더 실물에 접근하여 훨씬 더 실재적인 것에 향하고 있으니, 전보다 옳게 보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통과하고 있는 사물 하나하나를 그에게 가리켜 보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억지로 대답하게 한다면, 그가 어떻게 말하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는 당황해서 그전에 보고 있었던 것이 지금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성이 있다고 상상하리라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2. "그리고 또 만약에 억지로 그가 불빛 자체를 보도록 했다면, 그는 눈이 아파서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것 쪽으로 돌아서서 달아나려 할 것이며, 그러고는 가리켜 보인 것보다도 정말로 훨씬 명확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나?"

"그렇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를 거기서부터 거칠고 험한 오름길로 힘껏 끌고가, 태양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기까지 놓아주질 않는다면 그는 끌려가는 동안 괴로워하고 골을 내서, 태양의 빛이 있는 곳까지 나왔을 때는 눈은 광선으로 가득 차서 지금 참되다고 말하는 것을 무엇 하나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갑자긴 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맞았어. 만약 위쪽에 있는 사물들을 보려면 아무래도 습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네. 우선 처음으로 그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이고, 다음으론 물에 비친 인간이나 그밖에 다른 것의 영상, 그 뒤엔 그 실물일세. 그 다음엔 하늘에 있는 것이라든가 하늘 그 자체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밤에 달빛이나 별빛을 보는 것이 낮에 태양이나 그 빛을 보기보다는 편할 걸세."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태양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 그것도 물 위라든가 태양이 낯선 딴 곳에 비친 그 영상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를 그 자신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보고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찰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불가불 그럴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다음엔, 태양에 관해서 이렇게 추리를 하게 될 걸세. 즉, 태양이야말로 계절과 세월의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과거에 보고 있었던 온갖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선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일세."

"그렇죠. 분명히 다음엔 그런 단계에 다다를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어떨까? 그는 애초의 거처와 거기서 지혜라고 통했던 것, 그리고 그때 함께 묶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자기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과연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 그 당시 그들 사이에 뭔가 명예라든가 칭찬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어서, 차례로 지나치고 있는 그림자를 가장 날카롭게 관찰해서 그 중에 어떤 것

이 늘 먼저 가고, 어떤 것이 뒤따라 가고, 어떤 것이 함께 가는 관례가 되고 있는가를 가장 잘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장차 다가오려는 것을 가장 유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고 한다면, 자네는 그가 그런 상을 탐내거나 그 죄수들 사이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그는 호메로스가 노래한 말과 같은 느낌으로 그 죄수들과 함께 억측이나 하고, 그런 따위의 생활이나 하기보다는 차라리 '흙에 붙어서 가난한 남의 머슴으로 일하는 것'[1] 이라든가 다른 어떤 일을 당하는 편이 한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네들 같은 생활을 하기보다야 차라리 무슨 일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겠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 점도 생각해 보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즉,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앞서의 자리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태양빛이 있는 데서부터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의 눈은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 아니겠나?"

"과연, 그렇겠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만약 그가 거기서 늘 묶인 채로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아직 눈이 침침한 동안에 그리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에, 게다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또다시 그 그림자들을 구별하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되고 남들은 그에 관하여 '위로 올라갔다가 눈을 망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 보려는 일조차 값어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진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죄수들을 풀어주고서 위쪽으로 이끌어 가보려는 사람을, 만약 어떻게든 붙잡아서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말 것이라고 자네 생각하지 않는가?"[2]

"정녕 그렇게 하겠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1. 《오디세이아》 XXI, 489 참조.
2.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했던 사실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3. "그렇다면 여보게, 글라우콘! 이 비유를 모두 아까 말한 일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시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역은 감옥의 거처에다 그리고 그 거처 속에 있는 불빛은 태양의 힘에다 비유해서 말일세. 그리고 또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은, 영혼이 생각으로써 알려지는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자넨 내 짐작에서 어긋나진 않을 걸세. 바로 그것이 자네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다만 그 짐작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신만이 아시는 일일세. 그러나,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이걸세. 즉, 지식의 세계에서는 선의 '이데아'가 마지막 것으로서 여간해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보이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온갖 옳은 것과 아름다운 것의 원인이며, 그것은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는 빛과 빛의 주재자(主宰者)를 낳고, 생각으로써 알려지는 세계에 있어서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또 공사(公私) 간에 현명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은 그 선의 '이데아'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네" 하고 내가 말했네.

"저에게 가능한 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상하게 여기진 말아주게. 그건 즉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인간들의 일을 할 생각이 없고, 그들의 영혼은 늘 위쪽에서 때를 보내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 말일세. 그야 당연한 일이겠으니까. 만약 이 점에 관해서도 앞서 말한 비유대로라면……"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물론 당연한 일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떻겠나? 만약 신적인 것을 관찰하고 있던 사람이 거길 떠나서 비참한 인간 세계로 되돌아와서, 자기 둘레의 어둠에 충분히 익숙해지질 못하고 아직 눈이 침침한 동안에, 법정이나 그밖에 다른 어딘가에서 정의의 그림자라든가 그 그림자들을 던지고 있는 조상(彫像)에 관해서 재판에 있어서의 논쟁을 벌여야 한다거나 또는 정의 그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림자나 조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관해서 토론을 해야 할 때 서투른 몰골을 보여서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면, 뭔가 아주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오히려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눈은 두 가지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그것은 빛에서 어둠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을 때 생긴다는 것이 생각날 걸세. 그리고 그와 꼭 같은 일이 영혼의 경우에도 일어난다고 믿고 뭔가를 잘 볼 수가 없이 주춤거리고 있는 영혼을 보면 분별도 없이 그저 웃기만 하진 않고, 오히려 영혼은 더욱 밝은 생활 속에서 왔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치가 않아서 눈이 흐려진 것인지, 아니면 더욱 심한 무지로부터 더욱 밝은 곳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보다는 밝은 광채로 눈이 부신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편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와 생활을 행복하다고 치고, 다른 한편의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느낄 것인데, 그 경우에 그 영혼을 그가 비웃고 싶어졌다 한다면, 그의 그 웃음은 가소롭긴 하지만 그래도 위쪽의 빛 속에서 온 영혼을 비웃을 경우만큼 가소롭진 않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매우 공평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4.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하네. 교육이란 것은 실은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다 선언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중상하는 따위는 아니라는 것일세. 그들의 주장이란, 마치 맹인의 눈에다 밖으로부터 시력을 넣어 주듯이, 영혼 속에 지식이 없다 해도, 자기들이 지식을 넣어 준다는 것이겠지"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확실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지금의 논의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배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능력과 기관(器官)은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들은 마치 눈이 몸 전체와 함께가 아니고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전향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영혼 전체와 함께 생성하는 것으로부터 전향해서 실재(實在)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광채 있는 것을 관찰하는 데 견뎌낼 수 있기까지 이끌어가야 한다네. 그리고 그 가장 광채있는 것이 큰 선이라고 우린 주장하는 것일세. 그렇지 않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일에 관해서는 하나의 기술이 있겠는데, 그건 즉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보람있게 그 기관의 전향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전환의 기술일 걸세. 즉, 그것은 그 기관 안에도 밖으로부터 시력을 심어 넣는 기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다만 그 방향이 옳지가 않고, 보아야 할 방향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바로잡아 주는 기술일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세상에서 흔히 영혼의 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덕은 아마 뭔가 신체의 덕에 가까운 것 일는지도 모르네—왜 그런고 하니, 그 덕들은 실제로는 그전에 없었던 것이 나중에 습관과 훈련으로 안에 만들어지는 것일 테니까—그러나 지(知)의 덕만은 무엇보다도 더욱 뭔가 신적인 것에 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군. 즉, 그 능력은 언제까지나 결코 잃지 않지만, 다만 전환에 따라 쓸모있는 것과 이로운 것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쓸모없는 것,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네. 아니면, 자넨 흔히 세상에서 악하긴 해도 약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네들의 작달막한 영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력이 하잘것없는 것은 아니라서 얼마나 약삭빠르고 그 시력이 향하고 있는 사물을 날카롭게 분간하는지, 그러나 악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보면 볼수록 그만큼 더 많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챈 적이 없는가?"

"알아챘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그런 소질을 가진 영혼의 이 부분을, 만약 아주 어려서부터 망치로 때려서 생성이라는 말하자면(이 납덩어리 같은 것을 메어낸다면 이 납덩어리 같은 이것이 야말로 음식이라든가 그런 따위의 쾌락이라든가 탐식 때문에 영혼의 일부에 매달려서 영혼의 시선을 아래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다운 것으로 전환 된다면 같은 사람의 같은 기관은 지금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이 저 참다운 것도 매우 날카롭게 볼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어떨까? 그럴 것 같은 것, 오히려 앞서 우리가 말한 것으로 보아,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즉,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진리에서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평생을 교양을 쌓기에만 보낼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같이 나라를 충분히 다스리진 못하리라는 것인데, 그 까닭은 앞의 경우의 사람들은 공사 간에 모든 행동이 목표로 해야 할 인생의 하나의 목표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 경우의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으면서도 복자(福者)의 섬으로 옮겨 살기나 하는 듯이 믿고서 자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훌륭한 소질을 타고난 자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우리가 앞에서 최대의 학문[3] 이라고 부른 것까지 이르러 그 오름길을 올라가서 선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충분히 본 다음에는 그들에게 지금 허락되고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대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일세. 그리고 다시는 그전의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질 않고 그들과 함께 고생과 명예를,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건 값진 것이건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옳지 못한 일을 해서, 그들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억지로 나쁜 생활을 시키자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5. "자넨 또 잊었군,[4] 여보게, 법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나라 안의 어느 한 계급만

3. 제6권 505a 참조.

4. 제4권 419a, 제5권 466 참조.

의 특별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 전체에 행복이 생기도록 생각해내는 것인데, 국민을 설득이나 강제로 화합시키고, 각자가 공공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이 스스로 나라 안에다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저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자신이 나라의 단결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한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글라우콘, 생각해 보게나.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옳지 못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들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지켜주도록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 말일세. 우린 이렇게 말할 걸세. '다른 나라들에서, 철학자로서 나타난 사람들이 그 나라들 안에 있는 갖가지 고생스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나라에 있는 나라체제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저절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에게서도 양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남에게 양육비를 치르고 싶어하지 않아도 그건 정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말하자면 벌떼 안에 있는 지도자나 왕이 되도록 태어나게 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은 딴 나라의 철학자들보다도 더욱 훌륭하고, 더욱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두 방면에 참여하는 능력을 더욱 많이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각자가 차례대로 남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에 내려와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이라든가 옳은 것이라든가 선한 것에 관해서 이미 그 참다운 것을 본 적이 있는지라, 그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 천 배로 더 잘 보고, 거기 있는 모습의 하나하나가 무엇이며, 무엇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나라와 우리 나라는 각성한 제정신으로 다스려지게 되겠고, 결코 지금의 여러 나라들처럼 꿈속에서 다스려지진 않을 것인데, 지금의 여러 나라들은 그림자를 사이에 놓고 서로 싸우고 지배권

을 위해서 사뭇 그것을 뭔가 끔찍이 선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서로 다투는 사람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진실은 이럴 겁니다. 즉, 나라의 지배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배자가 될 욕망을 가장 적게 가진 나라야말로 가장 좋고 또 서로 다투는 일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다스려지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지배자로서 갖는 나라는 불가불 그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 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들어도, 우리가 하는 말에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 나라 안에서 고생을 함께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차례가 돌아올 때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끼리 서로 깨끗한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것조차 싫다고 할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우리가 명령하려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정당한 사람들이니까요, 하기야, 틀림없이 그들은 각각 그 지배권을 마지못한 강제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겠지만, 이것은 지금의 어느 나라의 지배자들과도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여보게, 그건 이렇기 때문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즉, 만약 자네가 장차 지배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배자이기보다도 더욱 훌륭한 생활을 찾아 줄 수 있다면, 잘 다스려진 나라가 자넬 위해서 실현될 수 있네. 왜 그런고 하니, 오직 그런 나라에서만 참다운 의미의 부자, 즉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풍부, 즉 선량하고 사려깊은 삶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만약 자기 자신의 좋은 것을 갖지 못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것은 바로 공적(公的)인 일에서나 움켜잡아야 한다는 속셈으로 공공적인 일을 맡게 된다면, 잘 다스려진 나라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되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지배자의 자리가 싸움의 목표가 되고, 그런 싸움은 내부에서 생겨서 서로 죽이는 싸움이 되어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일세."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면 자넨, 참다운 철학자의 생활 말고도, 정치적 지배를 낮추어 보는 생활을

뭔가 알고 있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모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지배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결코 지배권에 연연해서는 안되네. 그렇지 않으면 연적끼리의 싸움이 될 걸세."
"물론이죠."
"그렇다면 자넨 나라가 가장 잘 다스려지는 까닭이 되는 일에 관해서 가장 지성(知性)이 깊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생활 이상으로 훌륭한 생활과 다른 명예를 가진 사람들 말고, 누구에게 억지로라도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길 건가?"
"그들밖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6. "그렇다면 자넨 어떨까?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라 안에 생겨나게 되며 또 저승으로부터 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빛이 있는 위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나를 고찰해 볼 생각이 있겠나?"
"있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사금파리 던지기[5] 따위와는 달라서, 이것은 영혼을 뭔가 밤이 섞인 것 같은 낮으로부터 돌려서 참다운 낮으로 전환시키는 일인데, 이 진짜 낮이라는 것이 곧 참다운 존재에의 오름길이라고 보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참다운 철학이라고 주장할 걸세."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학문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글라우콘, 그러면 어떤 학문이 생성하는 것으로부터 실재하는 것으로 영혼을 끌

5. 사금파리 던지기(ostrakinda)란 애들의 놀이로서, 한쪽은 희고(낮), 다른 쪽은 까만(밤) 칠을 하여 그것을 던져서 나오기에 따라, 한편과 다른 편이 쫓고 쫓기고 하는 것이다.

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네. 이들이 젊어서는 전쟁을 위한 경기자라야 한다고 우린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주장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학문은 거기다 덧붙여서 이것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사(戰士)들에게 쓸모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걸세."

"정녕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는 일이라면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앞서의 설명에서는 그들은 체육과 음악으로 교육된다는 것이었네."

"그랬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체육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에 관계되는 것이겠네. 그것은 신체의 성장과 쇠퇴를 관리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학문은 아닐 걸세."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말한 범위에서의 음악은?"

"하지만 그것은, 혹시 기억하고 계시다면, 체육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습관을 통해서 방위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곡조로는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마음의 좋은 조화감을 주고, 또 장단으로는 질서있는 율동감을 주고, 말에서도 그것이 얘깃거리를 주로 하는 것이든 사실에 가까운 것이든 그런 조화나 장단과 비슷한 뭔가 또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찾고 계신 바와 같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학문은 음악에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더할 수 없이 정확하게 생각나도록 해 주었네" 하고 내가 말했지.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런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글라우콘,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학문이 그런 것일까? 기술이란 것은 모두 천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었으니……"

"물론이죠. 하지만 음악이나 체육이나 기술 말고, 그밖에 어떤 학문이 남아 있을까요?"

"자, 그런데 말일세. 만약 그것들밖엔 우리가 아무것도 붙들 수 없다면, 뭔가 그 모든 것에 꼭 같이 관계되는 것을 붙잡도록 하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모든 기술도, 생각도, 지식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즉, 누구나 무엇보다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세."

"그게 무엇인데요?"

"뭐, 별게 아냐. 하나와 둘과 셋을 분간하는 일이야. 그걸 통틀어 말하면 수(數)와 셈(計算)일세. 이것들에 관해서는 모든 기술도 지식도 반드시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잘못일까?"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전쟁의 기술도 역시 그렇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그렇지 않을 수 없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 그래서 비극 작품에 나오는 아가멤논은 늘 팔라메데스 때문에 아주 우스꽝스런 장군으로 보이고 있네. 자넨 알아챈 적이 없던가. 팔라메데스[6]는 수를 발견해서 일리온에서 군대의 대열을 정비하고 배(船)라든가 그밖에 모든 것의 수를 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일세. 그건 마치 그전엔 그런 것을 셈한 일이 없고, 또 아가멤논이 아무래도 셈할 줄을 몰랐다면, 그가 발(足)을 몇이나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생각되게 하는 말투가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장군이었으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정말이라면 아주 괴상한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6. 팔라메데스(Palamedes): 아가멤논이 트로이아를 원정했을 때 동행한 영웅. 智將으로서 數, 글자, 주사위, 척도, 등대 등을 발명했다고 한다.

7. "그렇다면, 우린 계산을 하거나 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인에게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군대의 정렬에 관해서 무엇이건 알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적어도 사람이기 위해선 필수적인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자넨, 이 학문에 관해서 나와 마찬가지로 알아채고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학문은 마침 우리가 찾고 있는 지성을 깨우치도록 이끌어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듯한데, 그러나 이 학문이 전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학문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밝혀보도록 힘쓰겠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분간하고 있으니, 그것을 자네도 함께 살펴보고 나서 그렇다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하게. 그렇게 하면, 그 학문이 내가 짐작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도 한층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보여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네.

"보여 줌세. 자네가 잘 주의해서 본다면, 감각에 주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는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찰하기 위해서 지성의 도움을 청할 것까지는 없는 것인가 하면, 다른 하나는 감각이 전혀 믿을 만한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성을 활동시키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물론 멀리서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림자를 그린 것 따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고 그가 말했네.

"천만에, 나는 그런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닐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지성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함은, 그 감각이 동시에 자기와 반대되는 것으로 옮아가지 않는 것들을 말하네. 한데, 옮아가는 것은 지성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나는 규정하네. 왜 그런고 하니, 그 경우엔 가까이서 감각되건 멀리서 감각되건, 어쨌든 그건 감각만으로는 어떤 것을 이것이라고도, 그 반대라고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일세.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걸세. 여기에 손가락 셋이 있다 하세. 새끼 손가락과 약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가까이서 보이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게. 하지만 그것들에 관해서는 특히 이 점을 고찰해 주게나."

"어떤 점인데요?"

"그것들 하나하나는 다같이 손가락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손가락이 가운데에 있건 끝에 있건, 희건 검건, 굵건 가늘건 그밖에 이런 따위의 다른 성질이건 그것이 손가락 이라는 점에서는 아무 다를 바가 없네. 왜 그런고 하니, 그런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혼은 지성을 향해서 도대체 손가락이란 무엇이냐고 억지로 묻게 되는 일이란 없기 때문일세. 왜냐하면 시각은 어느 경우에서도 영혼에 대해서 손가락은 손가락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동시에 알려주는 일이 없기 때문일세."

"과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런 감각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성을 도움으로 청하거나 일깨우는 일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 그 손가락들의 크고 작음을 과연 시각을 통해 충분히 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 둘 중의 어떤 것이 가운데 달렸건 끝에 달렸건 시각에는 아무 다름도 없을까? 그와 마찬가지로 굵고 가늘음, 부드럽고 딱딱함을 촉각은 충분히 느낄까? 그리고 그밖에 다른 감각도 그런 것을 밝혀 주기에 아무 부족함도 없을까? 아니면, 오히려 감각은 각각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즉, 우선 딱딱한

것 위에 놓인 감각이 반드시 또 부드러운 것 위에도 놓이게 되어서 같은 것이 감각적으로 딱딱하기도 하고 부드럽게도 느껴진다고 영혼에다 보고하겠지?"

"그렇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이번엔 영혼이 불가불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즉, 이 감각이 딱딱하다고 알려 주었는데 만약 그것이 같은 것을 부드럽다고 보고한다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또 가볍거나 무겁다는 감각도, 만약 무거운 것을 가볍다거나 가벼운 것을 무겁다고 알려 주고 있다면, 가볍다든가 무겁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가? 라고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과연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전달은 해괴한 것이라서, 다시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거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엔 당연히 우선 영혼은 계산능력과 사고력의 도움을 청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들의 각각이 하나인지 둘인지 고찰해 보려고 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만약 둘로 나타난다면 그 둘은 각각 다를 것이고 제각기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네."

"그렇다면, 만약 각각은 하나이고 양쪽이 합쳐져서 둘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그 둘을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 까닭은 만약 서로 구별되고 있지 않다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겠으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시각도 역시 큰 것과 작은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함께 뒤섞인 것으로서 였다고 우린 주장하네. 그렇지?"

"네."

"그러나 이 뒤섞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성은 이번엔 큰 것과 작은 것을, 시각하고는 반대로 한데 뒤섞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일세."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린 뭔가 이런 계제에서 출발하여 이번엔 우선 큰 것은 무엇이며 작은 것이란 대체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쪽을 사고(思考)로써 알려지는 것, 다른 쪽을 시각으로써 보이는 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8. "그렇다면, 그것이 방금 전에 내가 말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은 사고를 도움으로 청하는 것인가 하면, 또 어떤 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자신과 반대되는 것과 함께 감각에 들어오는 것을 도움을 빌릴 만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지성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일세."
"그랬군요. 이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찬성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어떻겠나? 수(數)라든가 하나라는 것은 그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한데,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게. 만약 하나라는 것이 바로 그 자신만으로서 충분히 보이고 또는 뭣인가 다른 감각으로 파악되는 것이라면, 마치 손가락에 관해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우리를 실재하는 것으로 끌고가는 것은 아닐 걸세. 하지만, 만약 뭔가 반대되는 것이 늘 그것과 동시에 보이고 따라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에 못지않게 그 반대로도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건 이미 뭔가 판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경우엔 영혼은 당황해서 제 안에서 지성의 움직임을 불러일으켜, 하나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체 무엇이냐고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라는 것에 관해서 배운다는 것은 실재하는 것의 관상(觀想)으로 영혼을 돌려서 이끌어 가는 것이 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나 확실히 그건 그것에 관한 시각에 상당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같은 것을 하나로 보는 동시에 또 무한히 많은 수(數)로 보니까요" 하고 그가 말

했네.

"그런데, 만약 하나가 그렇다면 모든 수가 다같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이죠."

"그렇지만 계산술과 산수학은 전체적으로 수와 관계가 있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진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분명하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들은 보아하니 우리가 찾고 있는 학문 중의 하나인 것 같네. 왜냐하면 군인에게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고, 철학자는 생성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실재를 붙잡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는 참다운 계산가[7]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우리의 방위자는 군인이면서 또한 철학자일세."

"과연 그렇죠."

"글라우콘, 따라서 이들 학문을 법률로써 정하고, 또 장차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계산술의 공부로 향하도록 하되, 아마추어로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지성 자체를 가지고 수의 본성을 관찰하기에 이르기까지 가야 하고 또 무역상인이나 소매상인처럼 팔고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자체를 생성으로부터 진리와 실재로 돌려놓기가 쉽도록 공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일일세."

7. '계산기'라고 번역한 원말인 logistikos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과, '思惟할 줄 아는 사람', 즉 '哲學的 推論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 두 의미가 겹쳐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더없이 훌륭한 말씀이십니다"라고 그는 말하더군.
"게다가 계산에 관한 학문이 라는 것을 말하다 보니 생각났네만, 만약 그것을 장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알기 위해서 추구한다면, 그 학문에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점인데, 즉 그건 이 학문은 영혼을 위쪽으로 이끌어 올려 수 그 자체에 관해서 문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또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물체와 맺어지고 있는 수를 영혼 앞에다 내놓고 문답을 한다 해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일세. 왜 그런고 하니, 자네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이 방면의 전문가들도, 만약 그 자체를 언론에서 갈라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비웃고는 인정하질 않고, 오히려 자네가 그것을 나눈다면 그들은 그것을 곱해서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늘 조심한다네."
"지당하십니다"라고 그는 말했네.
"자 그렇다면 어떻겠나, 글라우콘? 만약 누군가가 그들에게 '놀랐는데, 도대체 당신네들이 문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수에 관한 것인가? 그 안에 있는 하나라는 것은 당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인지라, 그 감각은 어느 것이나 서로 꼭 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고, 그 자신 안에 아무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수란 그저 사고로써 생각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는 어떻게 해서도 다룰 수 없는 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보게, 그 학문은 분명히 영혼을 순수한 지성 자체를 써서 진리 그 자체로 향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문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자네도 알겠군?"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죠. 그리고 그 학문은 극도로 그렇게 하게 합니다"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어떤가? 다음 것을 이미 알아챈 적이 있을까? 즉, 계산에 재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모든 학문을 배우기에 민첩하게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둔한 사람도 이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되면 비록 달리는 아무것도 얻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구나 다 향상되어 그전보다 날카롭게 된다는 것 말일세."
"그건 그렇죠" 하고 그가 말했네.
"게다가 내 생각으론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학문만큼 크게 고생시키는 것을 자넨 그리 쉽게 그리고 많이 찾아내진 못할 걸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까닭으로 해서 이 학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장 훌륭한 소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것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네."
"저도 찬성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9. "그렇다면 이 학문의 일은 한 가지 정해졌다 하세. 그럼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된 학문이 우리의 목적에 맞는지 어떤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엇인데요? 기하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가 물었네.
"바로 그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 전쟁 같은 것과 관계가 있는 한 분명히 적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을 친다든지 요지를 점령한다든지, 군대를 집합시키거나 전개시킨다든지, 그밖에 한창 싸우고 있을 때나 행진할 때의 군대의 모든 편대(編隊)의 일에 관해서 기하학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긴 하지만, 그런 따위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하학이나 계산술을 매우 조금만 알아도 넉넉할 걸세. 그러나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은 기하학의 더욱 많고 더욱 높은 단계의 부분이 바로 그 목적, 즉 선의 '이데아'를 한층 쉽게 보도록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라도 이바지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일세.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기로는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지 않으면 안되는 저 가장 행복한 실재가 있는 곳으로 영혼을 억지로 향하도록 하는 학문은 모두 그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

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니, 실재를 관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면 목적에 맞고, 생성을 관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면 맞지 않네."

"그것이 우리 주장이죠."

"그런데 다음의 것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기하학을 배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반대는 안 하겠지. 즉, 이 학문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쓰고 있는 말과는 전혀 반대라는 것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들은 매우 익살스럽고 어거지 같은 말을 쓰고 있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실제로 뭔가 행하고나 있는 듯이 그리고 모든 말을 행위를 위해서 쓰고나 있는 듯이 사각형으로 만든다든가, 붙인다든가, 더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말을 하기 때문일세만, 사실은 이 학문은 어느 것이고 오직 순수한 지식을 위해서 연구되는 것일세."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또 한가지, 이 점에 관해서도 합의를 보아두어야겠지?"

"어떤 점인데요?"

"그건 언제나 있는 것의 지식을 위한 것이고, 때로는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의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일세."

"그건 합의를 보기가 쉬운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왜냐하면 기하학이란 언제나 있는 것을 아는 지식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보게, 그건 영혼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겠고, 지금은 우리가 부당하게도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위로 향하도록 철학적인 마음가짐을 만든다는 일이 될 걸세."

"그렇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또 가능한 최대한도로 명령을 내려야겠네. 자네의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연코 기하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일세. 게다가 그 학문의 부산물도 적진 않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떤 것인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건 자네가 말한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네만, 모든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하학을 배운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것을 젊은이들에 대한 두 번째의 학과로 정하세."
"그렇게 정하죠" 하고 그가 말했네.

10. "그런데 어떻겠나, 세 번째 학과로서는 천문학을 정할까? 혹시 자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왜냐하면 계절과 달이나 해의 추이(推移)에 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농사나 항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대의 통솔을 위해서도 그것 못지않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이거 참 재미있군! 자네는 쓸모도 없는 학문을 권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나 않을까 해서 뭔가 대중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실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이란 각 사람의 영혼의 어떤 기관이 다른 일 때문에 못쓰게 되고 맹목이 되고 있었지만, 이런 학문에서는 깨끗해지고 새로 불이 켜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기관을 건전하게 보존한다는 것은 몇 만 개의 눈을 보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네. 왜 그런고 하니, 오직 이 기관을 가지고서만 진리가 보이기 때문일세.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자네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라면, 자네가 말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겠지만, 그러나 이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네가 말하는 것을 아무 뜻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걸세.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은 이런 학문에서 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이익을 따로 얻는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넨 이제 곧 어느 쪽 사람들과 얘길 할 셈인지 생각해 보게나. 아니면, 어느 쪽 사람과도 얘길 하지 않고 오직 자네 자신을 위해서 얘길 하는 것이고 다만 누군가 딴 사람이 뭔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거기서 얻어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넨 결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인색하진 않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저는 이것을, 즉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말하거나 묻거나 대답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얘기를 다시 뒤로 돌려야 하겠네. 조금 전에 기하학 다음에 올 학문을 선택함에 있어 우린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군" 하고 나는 말했네.

"어떻게 택했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평면 다음에 우리는, 입체 그 자체만을 택하기에 앞서서 이미 회전운동을 하고 있는 입체를 택했기 때문일세. 그리고 이차원 다음에는 삼차원을 택하는 것이 순서라네. 그리고 이건 내 생각으론 정육면체의 차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깊이를 가진 것에 관한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런 문제들은 아직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하나는, 어떤 나라도 그걸 존중하고 있지 않고, 그것들의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또 하나는 연구자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이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도 구할 수가 없는 탓이지. 우선 그런 지도자가 여간해선 나타나지 않고, 다음으론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그 학문의 연구자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복종하려 들지 않을 걸세. 그러나 나라 전체가 지도자에게 협력하고 그 연구를 존중한다면, 연구자들도 복종할 것이고 문제 자체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탐구된 결과로 그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현재도 그것들은 대중들에게서 업신여김과 방해를 받고, 게다가 그것이 어떤 점에서 쓸모가 있는지 이치를 모르는 연구자들에게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연구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이 모든 장애를 물리쳐서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문제들이 분명해진다 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못될 걸세."

"그렇군요, 그 매력은 각별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좀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 짐작으론 평면의 연구를 기하학이라고 정하셨을 겁니다"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 하고 내가 말했네.

"처음엔 기하학 다음에다 천문학을 놓으셨다가, 나중엔 그것을 취소하셨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건 왜 그런고 하니, 빨리 모든 것을 해치우려다가 도리어 늦어지고 말았기 때문일세. 차례로는 입체의 차원의 연구가 나중에 와야 하겠지. 그 탐구의 방법이 우스꽝스러워서 그걸 뛰어넘어 기하학 다음에 천문학을 말했던 것인데 그건 입체의 운동이었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니, 네 번째 학문으로서는 천문학을 정하기로 하세. 하기야 지금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학문이 만약 그것을 국가가 추진하게 된다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럴듯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소크라테스 님, 그리고 방금 전에 제게 천문학에 관해서 어리석은 칭찬을 했다고 꾸중을 하셨습니다만, 이젠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견지에 따라서 칭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그것이 영혼을 강제적으로 위를 보게 하고 영혼을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하다고 저에겐 생각되거든요."

"아마 나 말고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겠지. 왜 그런고 하니, 내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사람들을 철학으로 이끌어 올리려는 사람들이 현재 이 천문학을 다루고 있는 방법으로는 영혼이 전적으로 아래를 보도록 하는 것밖에 안된다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아무래도 자네는 위쪽에 있는 것에 관해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무던히 치사하지 않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군. 왜 그런고 하니 자네는 아마 누군

가가 고개를 쳐들고 천장의 장식을 보고서 뭔가를 배운다 해도 그 경우에 그 사람은 눈으로가 아니라 지성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말일세. 아마 자네 생각은 훌륭하고 내 생각은 고지식할는지도 모르겠네. 왜냐하면 나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에 관계되는 그 학문이 아니라면 영혼이 위쪽을 보도록 하는 학문으로서는 달리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뭔가 감각적인 것을 배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위를 향해서 입을 헤벌리고 있건 아래를 향해서 다물고 있건 그 사람은 결코 배우질 못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거니와—그런 따위의 어느 것이고 지식을 허락치 않으니까—또 설령 그 사람이 땅에 눕거나 바다에 떠 있으면서 배운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11. "이건 당연한 역습이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정당하신 꾸중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목적에 뭔가 이바지하도록 배우기 위해선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천문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즉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이 장식들[8]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치장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참다운 장식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말인데 이 참다운 장식이란, 즉 참으로 실재하는 빠름과 느림이 참다운 수(數)라든가 모든 참다운 도형(圖形)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움직이고 또 그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려니와, 이것들이야말로 오직 이성과 사고력으로 파악될 뿐 시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일세. 혹시 자넨 파악된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8. 별들.

"그러니, 하늘을 수놓는 장식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를 목표로 해서 배우기 위한 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마치 다이달로스[9] 라든가 또는 누군가 다른 기공(技工)이라든가 화가가 각별히 정성을 들여서 훌륭하게 그린 도형을 마침 만났을 경우나 마찬가질세. 왜 그런고 하니, 기하학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그런 도형을 보고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같은 것이라든가 두 곱이 되는 것이라든가 그 밖에 뭔가 정확한 비율이라든가의 진리를 직접 발견할 양으로 심각하게 그것을 검토하기란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찌 우스꽝스런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정말 참다운 천문학자라면 별들의 운행을 보면서 그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리라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즉, 하늘과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의 창조자가 무릇 이런 종류의 작품으로서는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다운 짜임새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자진해서 인정할 걸세. 그러나 낮이 밤에 대해서, 밤낮이 달에 대해서, 달이 해(年)에 대해서, 그밖의 다른 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비례로 되어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물체를 갖추고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도 늘 한결 같이 움직이고 있고 결코 조금치도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런 것들의 진리를 파악하려는 사람을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보리라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나는 말했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기에 마치 기하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천문학도 연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상관하지 않게 될 것일세. 만약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천문학에 참여해서, 영혼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지성을 쓸모없는 것에

9. 다이달로스(Daidalos)는 '재간있는 匠人'이라는 뜻. 그리스 신화 중의 인물.

서 쓸모있는 것으로 돌려 놓으려고 한다면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분부하시는 그 일은 지금의 천문학이 연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몇 배나 큰일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법자로서 뭔가 쓸모가 있다면 다른 일에서도 이와 똑같이 요구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12. "그건 그렇다 치고, 자네는 우리 목적에 맞는 뭔가 다른 학문을 들 수가 있겠나?"
"지금 당장엔 없는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하지만 나는 운동에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류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것은 지혜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모두 들 수 있을 걸세. 그러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분명한 것이 둘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엇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해 왔네. 그리고 그것과 쌍을 이루는 것이라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즉, 마치 눈이 천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귀는 화성학(和聲學)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두 가지에 관한 지식은 서로 동기간과 같다고 말일세. 글라우콘, 이것은 피타고라스학파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우리 역시 찬성하는 바일세. 아니면 우린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말했네.
"우리도 찬성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건 거창한 일이니 우린 그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밖에도 뭔가 말하고 있다면 그것도 묻도록 하세나. 다만 우리로서는 그 모든 점에 걸쳐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지키도록 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엇인데요?"
"그건, 우리가 키우려는 애들이 그런 학문 중에서 뭔가 완전치 못한 것, 즉 우리가

방금 천문학에 관해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도달해야 할 곳으로 늘 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배워 보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세. 천문학에 관해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이 화성학에 관해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자넨 모르고 있는가? 왜 그런고 하니, 사람들은 귀로 듣는 협화음(協和音)이나 소리를 서로 비교해서 측정하면서, 마치 천문학자들이 하듯이 헛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일세."

"신들께 맹세코, 그렇습니다. 게다가 참으로 우습게도 밀도 있는 소리니 뭐니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기나 하는 듯이 귀를 갖다 대고, 그동안에도 뭔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것이 가장 작은 음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딴 사람들은 이것에 반대해서 이것과 똑같은 소리는 이미 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양편이 다 지성보다도 귀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자네가 말하는 것은 쐐기못 위에서 현(絃)을 죄면서 그것을 못살게 굴고 고문을 하고 있는 허다한 사람들 말이로군. 그러나 연주에 쓰이는 채로 튕긴다든가, 현을 고발한다든가, 또는 현이 부인하거나 뽐낸다든가의 말을 하면 비유가 길어지게 될 테니 비유는 그만두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화음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하자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해두겠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일세.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협화음에서 수(數)를 찾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문제를 만드는 데까지 올라가진 않고, 어떤 수가 아닌지 또 그 각각은 무슨 까닭으로 그런가를 고찰하려 하질 않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초인간적인 일이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아니, 그건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의 탐구를 위해선 오히려 쓸모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달리 추구된다면 쓸모없는 일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13.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모든 학문의 연구는, 만약 그것들 상호 간의 결합이라든가 동족의 관계를 고찰하기까지 진행해서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서로 친근하게 맺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하기에 이른다면, 그것들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있겠고 또 그 노고도 헛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헛수고가 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저 역시 그렇게 짐작이 되는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거창한 일입니다."

"자네가 말하는 것은 서곡(序曲) 얘긴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아니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 모든 학문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본론 자체에 대해서 그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런고 하니, 자네는 설마 그 학문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그대로 철학적 문답가(問答家)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제우스에 맹세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외입니다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누구든 말을 주고받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중의 뭔가를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글라우콘,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결국 철학적 문답이 연주하는 본론 자체가 아니겠나? 그리고 그 본론은 사고(思考)로 알려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앞서[10] 말한 시각의 기능을 닮은 것이겠네. 그것은 결국 실물로서의 동물로 실물로서의 별(星)로 그리고 끝으로 실물로서의 태양으로 눈을 돌리려고 애쓴다고 우리가 말했었네만,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가 철학적인 문답으로 어떤 감각도 빌리지 않고 오직 이성(理性)의 담론(談論)을 사용해서 각각 실재인 것으로 나

10. 제7권 516a 참조.

아가려고 힘써서 마지막으로 선(善) 그 자체의 실재를 지성적인 사고로 파악하기 전에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지성적인 것의 종국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건 마치 앞서의 경우에 우리가 비유해서 말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의 종국에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질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어떨까, 이런 진행을 자넨 철학적 문답법[11] 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동굴 속의 죄수들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림자로부터 모상(模像)이나 불빛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땅밑으로부터 태양으로 가는 오름길을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태양의 빛을 아직은 직접 보질 못하지만, 물 위에 비친 그 신적(神的)인 영상이나 그림자를—그림자라고는 해도 태양과 비교하면, 그 자신이 딴 그림자의 불빛으로 비추어진 모상의 그림자가 아닌 실물의 그림자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까지 말해 온 몇몇 학술의 연구는 전체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신체 안에 있는 가장 밝은 부분[12]을 눈에 보이는 물체적 세계에 있는 가장 밝은 것[13]을 보기까지 이끌어간다고 우리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부분을 이끌어서 실재하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을 보기까지 이끌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래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하기야, 저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뜻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렇긴 해도—이건 지금 한 번 듣고 말 일은 아니고, 이 앞으로도 자주 되풀이되고야 할 일이니까요—그건 방금 말한 대로라고

11. dialektike라는 말을 플라톤은 '변증법'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뜻은 '철학적 문답법'이다.

12. 눈〔目〕.

13. 태양.

치고 이젠 본론 자체로 진행토록 하셔서, 마치 서곡을 논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본론을 논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철학적 문답의 기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건 어떤 종류로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 길은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들이야말로, 말하자면 거기에 도착해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숨 돌리는 나그네길의 끝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보게 글라우콘, 자넨 더 이상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걸세—그렇다고 해서 내게 성의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닐세—게다가 자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닮은 모습이 아니라 진실 바로 그것이 될 걸세. 적어도 내게 그렇게 보이는 것일세만—그러나 내가 그 진실을 정말 바르게 보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정도까지 장담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일일세. 하지만, 뭔가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만은 강조되어야 하네. 안 그런가?"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이죠."

"그리고 또, 오직 철학적인 문답의 힘만이 우리가 방금 말한 여러 가지 학문의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그 진실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그밖의 방법으론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하겠지?"

"그렇죠. 그 점도 강조될 만한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어쨌든 이 점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세. 그것은, 즉 모든 것에 대해서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각각 그 자체가 정말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앞서 말한 몇 가지 학술 이외에 뭔가 딴 탐구의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일세. 그러나 다른 기술은 어느 것이고 인간들의 억견이나 욕망과 관계되는 것이거나 또는 '자연물'의 생성이나 '인공물'의 구성 따위와 관계되거나 또는 그렇게 생성하거나 구성된 것을 돌보아 주는 일로 모든 것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 어느 하나일세. 남는 것은 실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한 기하학과 그것에 따르는 학술들인데,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설을 사용하면서도 그 가설에 관해서 설명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서 내버려두고 있는 한, 실재에 관해서 꿈은 꾸고 있지만 제정신으로는 실재를 볼 수 없다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세운 원리를 그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결론도 거기 이르는 중간 단계들도 그가 모르는 것으로 짜여 있다면 그렇게 얻어진 동의(同意)가 언젠가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따위의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14. "그렇다면 철학적 문답법의 연구만이 그렇게 가설(假說)을 무너뜨려 가면서 제1원리 그 자체로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일세. 그리고, 글자 그대로 이역(異域)의 진흙땅에 묻혀 있는 영혼의 눈을 서서히 끌어 일으켜서 위로 이끌어 가는 것일세. 우리가 앞서 말한 여러 학술을 이 전향의 일에서 심부름을 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말일세. 우리는 이 학술들을 습관에 따라서 지식이라고 자주 불러왔지만, 실은 딴 이름이 필요할 걸세. 즉, 억견보다는 뚜렷하고 지식보다는 흐릿한 이름말일세—앞에서[14] 우린 그것을 아마 오성(悟性)이라고 규정했지—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만큼 중요한 문제의 고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이름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말할 건 아닐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영혼 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질을 어떻게 해서든 나타낼 수만 있는 이름이라면 충분할 걸세."
"예."
"그렇다면 그전과 마찬가지로[15] 첫째 부분을 지식이라고, 둘째 부분을 오성적 사고라고, 셋째 부분을 신념이라고, 넷째 부분을 짐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만족할 걸세. 그리고 뒤의 둘을 합쳐서 억견, 앞의 둘을 합쳐서 지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세.

14. 제6권 511de 참조.
15. 제6권 511de 참조.

그런데 억견은 생성에 관계되고, 지성은 실재에 관계되는 것일세. 그리고 실재가 생성에 대하는 비례는 지성이 억견에 대하는 비례와 같고, 지성이 억견에 대하는 비례는 지식이 신념에 대하는 비례와 같고, 오성적 사고가 짐작에 대하는 비례와 같다고 하면 될 걸세. 그러나 그것들이 적용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 즉 억견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지성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각각을 둘로 나누는 것은, 글라우콘, 그만두세나.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까지 거쳐 온 토론보다 몇 갑절이나 더 긴 토론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될 테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말씀이죠, 저로서는 제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나머지에 관해서도 찬성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또 자넨, 하나하나의 사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철학적 문답가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설명을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줄 수 없는 한 그것에 관해서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자넨 주장할 것이 아닌가?"

"그야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선(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선의 '이데아'를 떼어서 빼내고 이것을 말로 규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치 전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검토를 뚫고 나가서 그것을 억견이 아니라 실재하는가 아닌가에 관해서 검토하려고 열심히 힘써서, 그 모든 속을 헛딛는 일이 없는 추론(推論)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선 그 자체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어떤 선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자넨 말할 것이 아닌가. 설사, 겨우 그 그림자 같은 것이나 파악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억견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은 현재의 생활을 꿈속에서 지내고 이승에서 잠을 깨기 전에 저승으로 가버리고 말아서, 드디어는 아주 잠들고 만다고 자넨 말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제우스에 맹세코, 저는 모든 것을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지금의 논의에서 자네가 키우고 가르치고 있는 자네의 애들을 언젠가 정

말 키워야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리수적(無理數的)[16] 인 직선인 채로는 나라의 지배자로서 가장 중대한 일을 주관하도록 자넨 허락하지 않을 걸세."

"허락하지 않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지식에 가장 어울리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교육을 각별히 잘 받도록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겠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법률로 정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철학적 문답법이란 우리에게는 마치 마지막 마무리의 갓돌(冠石)처럼 모든 학문 위에 놓여 있어서 이미 다른 학문을 이것보다 위에다 놓는 것은 옳지 못하고, 오히려 학문 얘기는 이젠 마무릴 지었다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제겐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15. "그렇다면 자네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배분하는 일일세. 그 여러 가지 학문들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부과시켜야 하는가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앞에 있었던[17] 지배자들의 선택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자네는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대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대부분의 점에서는 그때 말했던 바와 같은 천성을 지닌 자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주게. 즉, 가장 견실하고 가장 용감하고 게다가 가능하다면 심신도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하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점말고도 다만 고매하

16. '無理數的인 직선'이란 정사각형의 변에 대한 대각선 같은 것인데, 무리수를 뜻하는 alogoi라는 말은 동시에 '無理性' 또는 '無理論'이라는 뜻도 된다.

17. 제2권 412b~414a; 제6권 485c~487a; 503a~504a 참조.

고 사나이다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러시다면, 대체 그 성질을 꼬집어 어떤 것이라고 규정지으십니까?"

"뻔한 일이 아니겠나? 여보게, 그들은 그런 학문을 배우기에 날카로워야 하고 어렵지 않게 배워야 하네. 왜 그런고 하니, 영혼은 체육에서보다도 엄격한 학문에서 훨씬 많이 겁을 내기 때문일세. 학문의 고생은 신체보다는 영혼에 더욱 가깝고 그것에 고유한 것으로서 신체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게다가 또 기억력이 좋고 끈기가 있고 모든 의미에서 고생하길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몸으로 고생을 견뎌내고, 게다가 이만큼의 학습과 훈련을 해낼 마음이 내킬 사람이 누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모든 면에서 좋은 바탕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어쨌든 현재의 잘못과 철학이 당하고 있는 천대의 까닭이 되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18]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철학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일세. 왜냐하면 그것은 어중이떠중이들이 손댈 것은 못되고 진짜 자손들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무엇보다도 먼저 철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고생하길 좋아한다는 점에서 절름발이여서는 안되네. 즉, 절반쯤은 고생하길 좋아하고 절반은 고생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되네. 이것은 즉, 체육 · 사냥 등과 같이 몸을 움직여서 고생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하지만, 학문이나 남의 말을 듣거나 스스로 탐구하는 등의 모든 일에는 고생하길 싫어하는 경우일세. 그러나 다른 편으론 고생하길 좋아하는 방향

18. 제6권 495c~496a 참조.

이 이것과 반대쪽으로 바뀌고 있는 사람도 절름발이이긴 마찬가질세" 하고 내가 말했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이라는 것에 관해서도 이런 영혼은 병신이라고 해야 할 걸세. 즉, 일부러 하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걸 스스로 견뎌내질 못하고, 남의 거짓말에도 심하게 분개하지만, 일부러가 아닌 거짓말[19]은 제법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무식이 드러나도 골내지 않고, 돼지처럼 무식의 진흙 구덩이 속에서 뒹굴면서도 천연덕스런 영혼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또 절제라는 것에 관해서도 그리고 용기라든가 고매함이라든가 덕의 모든 부분에 관해서도 진짜 출생자와 사이비들을 가장 조심스럽게 판가름해야 하네. 왜 그런고 하니, 개인이건 국가건 이런 일들을 온갖 방법으로 잘 살피기 위한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든 그런 덕을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서 뜻밖에도 절름발이나 사이비들을 친구로서 또는 통치자로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일세."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네. 왜냐하면 사지(四肢)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 것들을 그토록 중대한 공부라든가 엄한 훈련으로 데려다가 가르친다면, 정의의 여신 자신도 우릴 나무라진 않을 것이고, 우리도 나라와 나라의 체제를 보전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딴 것들을 그런 일로 데려온다면 우린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해서 철학에 대해서도 많은 조소를 퍼붓게 될 것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과연 부끄러운 일이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고 말고" 하고 내가 말했네.

"한데, 지금 당장엔 나 자신이 웃음거리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19. '일부러가 아닌 거짓말'은 무식을 말하며 그것이 더 중대한 악이 된다는 것.

"어떻게요?" 하고 그가 말했네.

"우리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만 잊고서 내가 너무 열을 내서 얘길 했던 걸세. 왜 그런고 하니, 얘길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철학에다 눈을 돌리고, 그것이 부당하게도 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자들에게 마치 발끈 골을 낸 사람처럼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을 얘기하기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닙니다. 제우스에 맹세코, 제가 듣기에는 결코 그렇진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얘기하고 있는 당사자로선 그렇게 생각된다네. 그런데 이 점은 잊지 말도록 하세. 즉, 앞서[20] 말한 선택에서는 늙은이를 뽑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렇지 못할 거라는 점일세. 왜냐하면 솔론은 '사람은 늙어가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고 말했지만 그걸 믿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늙은이에게는 배우는 게 뛰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큰 고생이나 많은 고생은 모두 젊은이에게나 어울리는 것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건 불가불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16. "그렇다면, 철학적 문답법에 앞서서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산수라든가 기하학 그리고 모든 예비적인 교육에 속하는 것들은 그들이 아직 어렸을 적에 부과해야 하는데, 다만 그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결코 배우기를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되네."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공부에서건 노예의 상태에서 배워서는 안되기 때문일세. 육체의 고생은 설사 억지로 하는 고생이라도 몸을 해치는 일이 전혀 없지만, 영혼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공부는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질 않기 때문일세"

20. 제3권 412c 참조.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니 여보게, 애들을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는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놀리면서 키워야 한다네. 그렇게 하면 애들 각자의 소질이 무엇에 맞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걸세” 하고 나는 말했네.

“이치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자넨 기억하고 있는가? 애들을 말에 태워서 전장에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야 하고, 위험하지만 않다면 가까이 데리고 가서 마치 강아지가 하듯이 피의 맛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했던 것[21]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 모든 고생 · 공부, 그리고 공포에서 늘 쉽게 적응하는 걸 보여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뽑아서 등록해 두어야 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몇 살 때에 그렇게 합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그가 체육의 의무에서 벗어날 때일세. 왜 그런고 하니, 그 교육기간이 2년이건 3년이건 그 동안엔 딴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일세. 피곤함과 졸림은 공부의 적이니까. 그와 동시에 각자가 체육에서 자기의 인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그들을 시험하는 방법으로서 적지 아니하게 중요한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엔, 20대의 젊은이들 중에서 뽑힌 자들은 딴 사람보다 월등한 영예를 받게 되겠지만, 그와 함께 어렸을 적에 산만하게 공부했던 것을 모아서 그 학문을 상호 간의 유사성과 실재(實在)의 본성 사이의 친근성을 전체적으로 개관(槪觀)하지 않으면 안되네” 하고 내가 말했네.

“어쨌든, 오직 그런 공부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확고하게 머물게 될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21. 제5권 467c~467e 참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학적 문답법에 맞는 소질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일세. 왜 그런고 하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철학적 문답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저도 동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그런 점을 잘 살펴서, 만약 그들 중에 누군가 가장 그럴만한 사람으로서, 학문에서건 전쟁에서건 다른 법적 의무에서 끈기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서른 살이 지났을 때 뽑힌 사람들 중에서 다시 뽑아내서 더욱 큰 영예를 주어 그들을 철학적 문답의 능력으로 시험하면서, 누가 눈이나 그밖에 다른 감각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함께 실재 자체로 다가가는가를 잘 보아야 할 걸세. 여보게, 그런데 이 경우야말로 크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자넨 지금의 이 문답에 얼마나 큰 재앙이 생기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게 무엇인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 사람들은 무법성(無法性)에 가득 차 있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자네는 그네들의 그런 정신상태를 뭔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동정은 안하는가?” 하고 나는 말했네.

“어떻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이를테면 말일세, 슬쩍 바꿔친 아이가 많은 재산과 굉장한 대가족과 또 많은 아첨꾼들 속에서 키워져 어른이 되었을 때, 자칭 자기가 부모라고 했던 사람의 아들이 아님을 알았으나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세나. 그 사람은 아첨꾼들이나 자기를 얻어다 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꿔치기를 했던 사실을 아직 몰랐을 때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태도가 각각 어떻게 다를 것인지 자네는 짐작을 할 수 있겠나? 아니면 내 추측을 듣고 싶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듣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17. "그렇다면 내가 추측하는 바로는 아직 사실을 모르는 때 그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밖에 집안네라고 생각되고 있는 사람들을 아첨꾼들보다 한층 더 존중하고 또 그들이 뭔가 없을 경우에 모르는 체하거나 그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버릇없는 짓을 하는 일도 훨씬 적을 것이고, 또 큰일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안 듣고서 아첨꾼들을 따르는 일도 별로 없을 걸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럴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그가 사실을 알고 나면, 내 짐작으론 부모에 관해서는 존중하거나 효도하기를 점차로 소홀히 하고 아첨꾼들에 관해서는 더욱 잘 할 것인데, 그전보다 훨씬 더 그들의 말에 잘 따르게 되어, 그러고는 그들을 본떠서 생활하고 아무 거리낌없이 그들과 사귀겠지만 종전의 그 아버지나 다른 집안네 사람들의 일은, 매우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몰라도, 등한시 할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과연 모두 생길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철학적 논의를 배우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건 그렇다네. 내 생각으론 우린 어려서부터 무엇이 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관해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세.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마치 부모 밑에서 자라듯이 그 견해 속에서 자랐던 것일세."

"그렇죠,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생활방식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는 쾌락이 따르고, 우리 영혼에 감언(甘言)으로 아첨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예절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복종한다네."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하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고, 그래서 그가 입법가에게서 들은 대로 대답을 하니까, 이것을 말로 따져서 반박하여 몇 번이고 거듭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박한 끝에 자기가 믿어 왔던 것은 조금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게다가 옳은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그밖에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겨 왔던 것들에 관해서도 똑같이 겪는다고 할 경우에, 그런 가르침에 대한 존중이나 복종이라는 점에 관해서, 그 후에 그의 태도가 어떠하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건 아무래도 그전만큼은 존중도 복종도 안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전만큼은 그것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든가 자기와 친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참다운 것을 발견하지도 못할 때는 그가 으레 돌아설 길이라고는 아첨자들의 생활 말고 또 어떤 생활이 있을 건가?" 하고 내가 말했네.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가 무법자가 되고 말았을 걸세."

"불가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철학적 논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상태는 당연한 것이고, 앞서도 말했지만 매우 동정할 만하지 않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게다가 가엾기조차 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렇게 가엾은 일이 자네가 택한 서른 살 먹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학적 논의의 연구로 이끌어 들아가기 위해선 온갖 조심을 다해야겠지?"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그들이 젊었을 적에 철학적 논의의 맛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조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왜 그런고 하니, 자네도 알아챘으리라고 생각되네만, 젊은 것들이 처음으로 철학적 논의를 맛보면 장난삼아 그것을 함부로 늘 남을 반박하기 위한 반박에 사용하고, 그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을 흉내내서 자기도 남들을 반박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건 철학적 논의로 잡아 당기거나 할퀴거나 하면서 마치 강아지처럼 즐거워하기 때문일세."

"그렇죠, 끔찍이도 즐거워하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스스로 숱한 사람들을 반박하고 또 숱한 사람들에게서 반박을 당할 때엔,

그가 그전에 믿고 있었던 것을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상태로 격심하게 그리고 급하게 떨어지고 만다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 자신도 철학에 관한 모든 일도 남들에게서 신용을 잃게 되는 걸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더 나이가 든 사람은 이런 미친 짓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장난삼아 재미로 남을 반박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대화로 진리를 고찰하고 싶어하는 사람 쪽을 모방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욱 절도 있는 사람이 되어 그가 하는 일〔철학〕을 업신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존경받는 것이 되게 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것들[22]은 모두 이 일을 조심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 아니겠나? 즉, 이런 철학 논의는 타고난 소질이 단정하고 착실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도록하고, 오늘날 같이 누구건 닥치는 대로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이 그것을 향해서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18. "그렇다면 철학적 논의를 연구하기에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것에 전념해서 딴 일은 일체하지 않고 신체를 단련하는 사람들과 맞먹는 수련을 쌓는다면 그때의 두 배의 기간으로 충분하겠지?"

"6년 말씀이십니까, 4년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상관없네. 5년으로 해두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왜냐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자넨 그들을 한 번 더 그 땅굴 속으로 내려가게 해서 전쟁에 관한 일의 통솔이라든가 젊은이에게 맞는 임무에 충성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인데, 그건 경험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기

22. 제4권 485a~487a, 503b~503d, 제7권 535a~535c 참조.

위한 것일세. 그리고 또 그런 임무들에서 그들이 온갖 유혹을 당해도 까딱않고 제 분수를 지키는가, 아니면 다소라도 흔들려서 빗나가는가를 시험해 보아야 하네."
"그렇다면 그 기간을 얼마로 잡으십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15년 동안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리고 그들이 쉰 살이 되어서는[23] 그때까지 무사하게 통과하여 일에 있어서건 지식에 있어서건 모든 것에 모든 경우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을 드디어 마지막 목표까지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영혼의 눈길을 위로 돌려 모든 것에 빛을 주는 그것 자체를 눈여겨 보고 선(善) 자체를 본다면, 그것을 본으로 하여서 여생을 각자가 차례대로 나라와 개인과 자기 자신을 질서정연하게 하는 일로 보내도록 강요해야 하는데, 그것은 즉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철학으로 보내다가 차례가 돌아오면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정사(政事)에서 수고하고 지배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훌륭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마지못한 일로서 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늘 남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교육해서 나라의 방위자로서 자기 대신 남겨 놓고 그들은 복자(福者)의 섬으로 떠나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일세. 그리고 나라에서는 공적(公的)으로 그들을 위해서,

23. 50세까지의 공부와 연구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17, 18세까지는 수학적인 여러 ㄱ과를 자유롭게 공부한다.(동시에 음악 · 문학 · 체육도 포함된다.)
(2) 20세까지는 체육의 맹훈련.
(3) 30세까지는 뽑힌 자에게 수학적인 여러 가지 학과를 종합적으로 연구시킨다.
(4) 35세까지는 다시 선택한 자들에게 철학적 문답법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부 시킨다.
(5) 50세까지는 실제적인 일에서 경험을 쌓는다.
(6) 50세 이후는 가장 우수한 자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 후로는 철학에 전념하여 차례대로 정치적이고 지배적인 자리에 앉는다.

만약 피티아[24] 의 신이 말씀이 허락하신다면 신령[25]으로, 아니면 행복하고 신적인 사람들로 모셔서 기념비를 세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네."

"마치 조각가가 하듯이, 소크라테스 님! 선생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이를 데 없이 훌륭하게 마무리를 지으셨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통치하는 여자들도 역시 그렇다네, 글라우콘" 하고 내가 말했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은 결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도 충분한 천품(天稟)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면야 아주 똑같이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도 말한 것이라고 자네가 생각해 주어야겠네."

"옳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바[26]와 같이 여자들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서로 분담해야 하니까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어떻겠나, 자넨 이걸 인정하겠나? 나라와 나라의 체제에 관해서 우리가 말했던 것은 결코 한낱의 꿈이 아니라, 비록 어렵긴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든 실현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겠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말했던 방법 말고는 달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일세. 즉, 참다운 철학자로서 그 수가 많건 하나이건 간에 나라에서 실력자가 되어서, 지금의 명예를 자유인답지도 않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옳은 것과 거기서 나오는 명예를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정의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요긴한 것으로 보고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키우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철저히 다시 조직할 때 가능하다는 것 말일세."

"어떻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24. 피티아(Pythia)는 델포이 신전의 아폴론의 神託을 전하는 女祭官.

25. '신령'은 다이몬을 말함.

26. 제5권 451c 참조.

"나라에서 10세를 넘은 아이들은 누구건 모조리 시골로 보내고 그 애들을 맡아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갖가지 습성으로부터 탈피하게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네들 자신의 생활태도나 법률 속에서 키울 것일세.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은 나라와 나라의 체제는 가장 빨리 또 쉽게 세워져서, 나라 자체도 나라를 이루는 국민도 행복을 누리고 크나큰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자네들은 인정할 건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그런 나라가 언젠가 생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훌륭하게 설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그 나라에 관해서도 그 나라에 알맞은 사람에 관해서도 우리의 얘기는 충분히 마무리져진 셈이 되겠지? 왜 그런고 하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분명하죠, 그리고 물으신 것에 관해서도 이것으로 얘기가 마무리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가 말하더군요.

제 8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그럼 됐네. 글라우콘, 그러면 우린 이런 점에서 합의를 본 셈일세. 즉, 완전한 통치체제를 달성하려는 나라에서는 부인과 애들은 공유되어야 하고 모든 교육은 공통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도 평화에서도 남녀가 같은 일을 한다는 것, 그러나 그들 중에서 철학에서도 전쟁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왕이 된다는 것 말일세."

"그건 합의를 보았죠" 하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또 우리는 다음 것에서도 서로 일치를 보았네.[1] 즉, 통치자들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들은 군인들을 우리가 앞서 말한 바[2]와 같은 거처로 데려가서 살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무에게도 무엇 하나 사유되는 것이 없으며 모든 사람의 공통의 거처라는 것 말일세. 그러나 이런 거처 말고도 그들의 소유물들에 관해서도, 자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떤 것을 갖게 되는지도 우린 합의를 보았을 걸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바로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 하나도 가져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들은 전쟁의 경기자이며 나라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 방위의 직책에 대한 보수로서 일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 1년 분을 남들에게서 받고, 제 자신과 다른 국민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옳은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한데, 그 문제는 마무릴 지었으니 다시 한번 제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얘기가 빗나가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내도록 해보세."

"그야 어려울 것 없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께선 대체로 지금[3]과 마찬가지로 나라에 관해서도 이미 논의가 끝난 것처럼 얘기를 진행시키셨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 말씀하신 나라를 선한 나라로 정하고 또 그 나라에 상응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정하자고 말씀하셨죠.[4] 하기야, 제가 뵈옵기에는 한

1. 제3권 415d~417b 참조.
2. 제3권 415e 참조.
3. 제17권 541b 참조.
4. 제5권 449a 참조.

층 더 훌륭한 나라나 사람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어찌됐든 그 나라가 옳은 것이라면, 그밖의 다른 나라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나머지 다른 나라체제에 관하여,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가지 형태가 있고 또 그것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5] 그것들도 역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건 그런 나라체제의 잘못된 점과 또 그것과 상응한 모든 사람들을 잘 살펴보되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못된지를 서로 합의를 보고서, 과연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못된 사람이 가장 불행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나라체제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냐고 제가 여쭤 보았을 때, 마침 폴레마르코스와 아데이만토스가 옆에서 끼어들자,[6]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논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군"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러시다면, 씨름꾼이 하듯이, 다시 한번 저에게 앞서와 같은 곳을 잡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때 얘기하시려던 것을 말씀하시도록 힘써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야 그렇게 하지"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제 자신으로서도 네 가지 나라체제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 무엇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걸 들려주기는 어렵지 않지" 하고 내가 말했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말하려는 것은 흔히 쓰고 있는 이름을 가진 것들인지라, 그것은 즉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있는 저 크레테와 스파르타의 체제이지. 그리고 두 번째의 나라체제로서 두 번째로 칭찬받고 있는 소수(少數) 지배체제[7] 라고

5. 제4권 445c 및 제5권 449a 참조.

6. 제5권 449b~449c 참조.

7. 흔히 '寡頭制'라고 번역되고 있는 oligarkhia를 여기서 '少數支配體制'라고 번역한 것은, 그 말이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뜻과 함께 '소수의 사람을 지배하는 체제'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재산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계급의 지배체제를 말한다.

불리는 것인데, 이건 숱한 악을 품고 있는 체제일세. 그리고 그것과 반대이면서 그것에 이어서 생겨나는 민주체제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체제들에서 으뜸가는 고귀한[8] 독재체제[9] 인데, 이건 네 번째로서 나라의 병치고는 가장 지독한 병이라네. 혹시 자네는 뭔가 이밖에도 나라체제의 형태로서 뚜렷하고 두드러진 종류를 따로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세습(世襲) 왕권체제[10] 라든가, 돈을 주고 사는 왕권체제[11] 라든가, 또 그밖에 그것들과 비슷한 나라체제 따위는 위에 든 것들의 어딘가 중간에 자리잡는 것이겠고, 게다가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일세."

"그렇군요. 이상한 나라체제 얘기도 다 듣는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2. "그렇다면 자네는 인간의 성격에도 역시 나라체제의 종류의 수만큼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아니면, 자넨 나라체제라는 것이 어딘가 떡갈나무나 바위에서라도 태어난다[12] 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에서 나라체제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국민의 성격이 마치 저울의 한쪽이 무거워서 기울 때처럼 다른 쪽 것을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 말고는 다른 어데서도 나라체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나라의 형태에 다섯 가지가 있다면 개인의 영혼의 상태도 다섯이 있을 걸세."

"물론 그렇죠."

8. '고귀한'이란 물론 비꼬는 말.

9. '독재체제'란 tyrhannis의 '독재자'란 tyrhannos의 譯語인데, 흔히 '僭主制'니 '僭主'니 번역해서 써오고 있지만, 이 말은 독재나 전제의 뜻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독재자' '독재체제'라고 옮겼다. 어쨌든 '티라노스'는 세습이나 법에 따르지 않고서 자리에 오른 단일한 지배자를 말한다.

10. 世襲王權體制(dynasteia):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습으로 왕권을 계승하는 지배체제.

11. 플라톤은 카르타고의 경우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12. 《오디세이아》 XIX, 163참조.

"그런데 최선자(最善者) 지배체제[13]를 닮은 사람에 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선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우린 마땅히 주장하는 걸세."
"그건 이미 말했죠."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것만 못한 사람들, 즉 스파르타적인 나라체제와 맞먹는 사람으로서 승리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 민주체제적인 사람, 독재체제적인 사람이겠지? 그것은 가장 부정한 사람을 관찰하여 이것을 가장 바른 사람에 대립시켜 놓고서, 도대체 순수한 정의는 순수한 부정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점으로 보아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우리의 고찰을 완성시키는 데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린 트라시마코스의 조언에 따라서 부정을 구할 건가 아니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논의에 따라서 정의를 구할 건가를 정할 수가 있을 걸세."
"그렇고 말고요. 꼭 그렇게 해야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서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나라체제에서 보는 편이 더욱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14]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명예를 사랑하는 나라체제를 고찰해야겠지—명예를 사랑하는 나라체제라고 말한 까닭은 늘 쓰이고 있는 딴 이름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일세. 우린 그것을 명예 지배체제[15] 라든가 명예 정치체제라고 불러야 하네—그리고 이 나라체제와 관련시켜서 그런 사람을 고찰 하고, 그 다음으론 소수 지배체제와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을 고찰하고, 다시 또 민주체제로 눈을 돌려서 민주체제적인 사람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독재자의 지배 밑에 있는 나라로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서, 이번엔 독재체제적인 사람에 주목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세운 문제에 관한 유력한 판정자가 되기에 힘써야 할 걸세."

13. 最善者支配體制(aristokratia): 가장 善한(훌륭한, 우수한) 자가 지배하는 체제. 그래서 '貴族制'라는 말로도 옮길 수 있지만, 원 뜻과는 거리가 멀다. 제5권부터 제7권에 걸쳐 참다운 찰학자가 거기 대응한다고 말한 바 있다.
14. 제2권 368e 이 하 참조.
15. 名譽支配體制(timokratia) 또는 명예정치(timarkhia). 크레테와 스파르타의 나라체제와 비슷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관찰과 판정은 과연 이치에 맞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3. "자, 그렇다면 명예 지배체제가 최선자 지배체제로부터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를 얘기하는 데 힘써 보도록 하세. 아니면, 다음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닐까? 즉, 모든 나라체제의 변화는 지배계급 자체 내에서 출발해서 그 계급에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것일세. 그러나 그 계급이 서로 화합하고 있는 한 설사 그 수가 아무리 적다 해도 변란은 있을 수가 없네" 하고 나는 말했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글라우콘, 도대체 우리들의 나라는 어떻게 변란을 겪는 것이며, 보조자들과 지배자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또는 자기들끼리 반목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호메로스처럼 무사의 여신들에게 기도를 드려서 '대체 어떻게 해서 애초에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가'[16]를 말씀해 주십사고 부탁을 하고 또 여신들은 마치 우릴 어린애 다루듯 우리와 장난하고 우릴 놀리고 계시면서도 사뭇 진실하게 말하는 체하시면서 비극 조로 장엄하게 말씀하신다고 우린 주장할까?"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일세. '그처럼 잘 구성된 나라는 변란을 일으키기가 과연 어렵긴 하다. 그러나 무릇 생겨난 것은 다 소멸하기 마련인지라 비록 그렇게 구성된 것이라고는 해도 영구히 머무를 수는 없고 해체되고 말 것이다. 그 해체는 이렇다.[17] 땅으로부터 생겨나는 초목만이 아니라 땅위에 있는 짐승들에 있어서도 영혼과 육체에는 낳고 낳지 못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것은 회전으로 모든 종족들을 위해서 둥글게 도

16. 《일리아스》 XVI, 112~3 참조.

17. 여기서부터 제8권 546d까지는 플라톤의 《對話篇》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완전한 국가가 해체되는 과정은 우선 태어나는 때가 적합한가 아닌가의 설명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數로 규정되는 우주 전체의 주기적 법칙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는 원(圓)의 둘레를 맺어서 완성시킬 때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원의 둘레는 목숨이 짧은 것에게는 짧고 목숨이 긴 것에게는 길다.[18] 그런데 그대 인간들의 족속에 있어서는 좋게 태어남과 나쁘게 태어남은, 그대들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교육한 자들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감각에 따른 추리를 가지고서는 이것을 맞히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서 도피하게 되어 때아닌 때에 애들을 낳는 일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신으로 태어난 자에게는 완전한 수로써 파악되는 주기가 있고,[19] 또 사람으로 태어난 자에도 어떤 수로 파악되는 주기가 있거니와, 그 수란 같고 같지 않은, 늘고 주는, 여러 수의 각각의 제곱근과 제곱에 의한 증가가 세 개의 간격과 네 개의 한계점을 손에 넣었을 때 모든 것을 서로 얘기가 통하는 것,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최초의 수이다.[20] 이 기초적인 수 중에서 4와 3이 5와 맺어진 다음에[21] 세 번 증가하면[22] 두 가지 조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는 같은 것이 같은 수만큼 거듭된[23] 정사각형수(正四角形數), 즉 1백의 몇 배[24]인가의 수를 그 한 변(邊)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조화는 그 한 방향에서는 두 변의 길이가 같지만 그 자신은 직사각형수(直四角形數)이다. 즉, 그 직사각형 수의 한 변은 5의 유리수적인 대각선수[25] 의 제곱수의 1백 배에서 2백이 모자라는 수[26] 이고, 다른 한 변은 3의 세제곱수를 1백 배 한 것[27]이다. 이 기하학적인 수의 전체야말로 그런 것

18. '둥글게 도는 원의 둘레'라 함은, 잉태 기간을 말하는 것 같다. 초목의 경우 씨를 뿌린 후부터 열매맺을 때까지.

19. 우주가 생성해서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20. 인간이 잉태하는 동안을 나타내는 수, 즉 216을 말함.

21. $3\times4\times5=60$

22. $60\times60\times60\times60=12,960,000$

23. $3600\times3600=3600^2=12,960,000$

24. 100×36

25. $\sqrt{50}$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sqrt{49}=7$

26. $7^2\times100-100=4900-100=4800$

27. $3^3\times100=27\times100=2700$

을 더욱[28] 선하게 태어남과 더욱 나쁘게 태어남을 지배하거니와 그대들의 나라의 방위자들이 이 선한 태어남과 나쁜 태어남을 미처 모르고서 제철이 아닌 때에 신부들을 신랑에게 짝지어 함께 살게 한다면, 바탕이 좋은 애도 운수가 좋은 애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그 앞의 세대 사람들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애들은 원래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못되는 까닭에 그 선대(先代) 대신에 권좌에 앉으면 방위자인데도 우선 우리들 무사를 소홀히 여겨서 먼저 음악 · 문예의 일을, 다음엔 체육의 일을 부당하게도 가볍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대들의 젊은이들은 무사를 어기는 교양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젊은이들 중에서 선택받고 지배자로 임명된 사람들은 저 헤시오도스에 있어서의 종족, 그리고 또 그대들 안에도 있는 종족, 즉 금 · 은 · 구리 · 쇠의 족속들[29]을 시험함에 있어서 방위자로서 별로 신통치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쇠가 은과 구리가 금과 함께 섞이면 서로 다름과 조화를 잃은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들이 생기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늘 전쟁과 앙심을 생기게 한다. 과연 자중지란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든지 늘 이런 핏줄에 속한다[30] 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일세."

"그래서 우리는 무사의 여신들이 대답하신 것은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야 그럴밖에…… 무사의 여신들의 말씀이신데 옳지 않고서야"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무사의 여신들은 뭣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되면 두 족속들이 제각기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즉 쇠와 구리의 족속은 돈벌이와 땅이나 주택이나 금이나 은의 소유 쪽으로 끌고, 다른 둘 즉 금과 은의 족속들은 가난하진 않고 나면서부터 그 영혼에 있어서 부유하기 때문에

28. 따라서 이 직사각형수는 4800×2700=12,960,000으로서 앞서의 정사각형수와 같은 수이다.

29. 제3권 415a ~415c 참조.

30. 《일리아스》 VI, 211 참조.

영혼을 덕과 옛날의 제도[31] 쪽으로 이끌려고 했다. 이렇게 서로 격렬하게 다투고 대항하면서 그들은 타협해서 땅이나 집을 분배하여 사유(私有)하기로 동의를 하고, 또 그때까지 자유로운 친구로서 그들에게서 부양되고 방위되던 사람들을 이젠 예속시켜 머슴이나 종으로 소유하고 자기들은 전쟁과 그들의 감시를 일삼기로 했다고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 변혁은 그런 데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런 나라체제는 최선자 지배체제와 소수 지배체제와의 중간에 있는 것이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4. "그렇다면, 나라의 체제는 그렇게 해서 변혁을 일으킬 걸세. 그러나 변혁된 다음에는 어떻게 다스려질 것인가? 아니면, 그건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선 그전의 나라체제를 닮고 있지만, 다른 점에선 소수 지배체제를 닮게 되지만 어떤 점에선 자기에게 독특한 나라체제를 가지리라는 것은 분명한가?"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지배자들을 존경한다는 점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계층이 농사나 손일이나 그밖에 돈벌이의 일을 멀리한다는 점이라든가, 또는 공동식사제(共同食事制)[32]를 세우거나 체육이나 전쟁경기를 위한 특수훈련에 전력하는 점이라든가 이 모든 점에서 그전의 나라체제를 닮는 것이 아닐까?"[33]

"예."

"한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권좌에 앉히기를 두려워해서, 즉 그 나라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단순하고 외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섞인 기질

31. '옛날의 제도'란 이른바 귀족 지배체제(우수자 지배체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란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지배자끼리의 싸움.

32. 제3권 416e 참조.

33. 기원전 5세기쯤의 스파르타를 말한 것인 듯.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는 기개가 있고 더욱 단순한 사람들과 평화보다는 오히려 전쟁에 어울리게 타고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전쟁에 관한 계략이나 수단을 존중하고 늘 전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그 대부분은 이 나라체제가 자기에게만 있는 독특한 성질로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소수 지배체제 밑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들일 게고, 은근히 금이나 은을 심하게 탐할 것인데, 그 까닭은 그들은 자기만의 집이나 보고(寶庫)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 그것들을 감춰둘 수가 있고 또 글자 그대로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집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서 여자들이나 그밖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물 쓰듯이 쓸 수가 있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게다가 그들은 제 돈에는 인색한 구두쇠일 걸세. 돈을 존중하면서도 드러내 놓고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남의 돈이라면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신나서 쓰려고 할 게고 마치 애들이 아버지의 눈을 피하듯이 법률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쾌락의 열매를 맛볼 것일세. 이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토론과 철학이 따르는 참다운 무사를 소홀히 해서 음악보다 돈, 체육 쪽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납득이 가는 교육이 아니라 강제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일세."

"과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체제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섞여 있는 것이로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그건 섞여 있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하지만 기개적(氣槪的)인 부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승리와 명예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라네." 하고 내가 말했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 나라체제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고,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겠는데, 다만 이것은 나라체제의 형태를 말을 가지고 윤곽만 그린 것이고, 공을 들여

서 정밀하게 마무리를 진 것은 아니네만, 그건 가장 바른 사람과 가장 부정한 사람을 보기에는 윤곽만 그리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만약 모든 나라체제와 사람의 모든 성격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말하려다가는 한없이 길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일세."

"옳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더군.

5. "그렇다면 이 나라체제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론 그 사람은 이기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글라우콘과 매우 가깝군요" 하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하더군.

"아마, 그 점에선 그렇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성질이 이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되네."

"그건 어떤 점입니까?"

"그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제멋대로 구는 성질이 좀 교양이 부족한 것 같고, 얘기를 듣긴 좋아하지만 그 자신은 결코 변론가가 아닐 걸세. 그리고 그런 사람은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이 하듯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예에겐 가혹하지만, 자유인에게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하고 지배자들에겐 매우 순종한다네. 또 자신도 지배와 명예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지배하길 요구한다면 말하는 능력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전쟁에 관계가 있는 일을 근거로 내세울 것일세. 그는 체육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인간이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것이 그 나라체제의 성격이니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젊어서는 돈을 업신여기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돈에 애착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그가 본래 돈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훌륭한 방위자를 잃었기 때문에 순수하고 성실한 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 방위자란 무엇입니까?" 하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했네.

"음악문예의 교양과 합쳐진 이성[34]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오직 이것만이 한번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 사람 속에 깃들어서 그의 덕을 지켜 주는 힘이 된다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그런 것이 명예지배적인 젊은이인데, 바로 그런 체제의 나라를 닮은 성격이라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즉, 때로는 이런 사람은 훌륭한 아버지를 가진 젊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란 별로 잘 다스려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명예라든가 벼슬자리라든가 재판의 일이라든가 그런 모든 번거로운 일거리를 피해 귀찮은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아들이 도대체 어째서 그런 사람이 됩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건 말일세, 우선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벼슬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못마땅하고, 그 까닭으로 해서 딴 여자들 사이에서 기가 죽고, 게다가 남편이 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사로운 재판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다투거나 욕설을 하는 일도 없고, 그런 일에는 도무지 무관심한 것을 보고, 또 늘 자기 자신에게는 마음을 쓰고 있지만 아내인 자기를 별로 소중히 여겨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도 아님을 느끼고, 이런 모든 일에 그 여자는 짜증이 나서 너의 아버지는 사내답지가 못하다든가 너무도 무관심하다든가 그밖에 이런 경우에 여자들이 바가질 긁는 온갖 불평을 늘어 놓고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여자들이란 자기 자신과 비슷한 것을 잘도 늘어 놓죠" 하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했네.

34. 理論的 知性을 말함.

"그런데 자네도 알고 있는 일이네만, 그런 사람들의 노예들까지도 충직한 노예라고 생각되고 있던 자들도 이따금 슬며시 그런 말을 그 집 아들에게 일러주고 누군가가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빚을 졌는데도 내버려 둔다든지 또는 뭔가 딴 부정한 짓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그 자를 고소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들에게, '어른이 되거든 그런 자들에게 다 앙갚음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보다 사내다운 사람이 되라' 고 타이른다네. 그리고 아들은 집밖으로 나서면 역시 같은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자기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숙맥이라고 불리고 천대를 받지만, 자기 일 외의 남의 일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네.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그런 모든 일을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거나 가까이서 아버지의 생활방식을 보고서, 딴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두 편에서 끌리게 되는데, 그것은 즉 아버지 편에선 그의 영혼 안에 있는 이지적(理智的) 부분에 물을 주어서 키우고, 딴 사람들 편에선 욕망적인 부분과 기개적(氣槪的)인 부분을 그렇게 하는데, 그는 나쁘게 타고난 사람은 아니지만 남들과 좋지 못한 사귐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 양편에 끌려서 중간에 있는 이기기를 좋아하는 기개적인 부분에다 물려주고서 결국은 오만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의 성장과정을 참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린 제2의 나라체제와 제2의 인간을 가진 셈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가지고 있죠" 하고 그는 말했네.

6. "그렇다면, 다음엔 아이스킬로스의 말대로 '딴 나라로 배치된 딴 사람'[35]에 관한 것을, 아니 오히려 우리의 계획대로 우선 나라에 관한 것을 먼저 얘기하도록 할까?"

35. 《테베 공격의 7장군》 451, 570 참조.

"그렇게 하시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그 다음의 나라체제는 소수 지배체제일 걸세."
"하지만, 소수 지배체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재산의 평가에 따른 나라체제인데, 그것은 즉 부자가 지배하고 가난한 사람은 지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네" 하고 내가 말했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처음에 명예 지배체제로부터 소수 지배체제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말일세,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장님이라도 알 수 있는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황금으로 가득 찬 그 보고(寶庫)가 그런 나라체제를 망친다네. 왜 그런고 하니, 우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쓰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에 편하도록 법률을 악용하기 때문일세. 그들 자신들도 그 아내들도 법을 지키지 않고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은 결국 각자가 남이 하는 짓을 보고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네."
"그럴 것 같군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돈벌이의 길을 외곬로 전진해 가고, 돈을 존중하면 할수록 더욱더 덕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네. 부(富)와 덕이란 것은, 마치 그 둘이 각각 저울의 접시에 놓이면 늘 정반대 쪽으로 기울어지듯이, 본시 그런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니, 한 나라에서 부와 부자가 존중되는 날에는 그만큼 덕과 훌륭한 사람들은

존중되지 않는다는 걸세."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존중되는 것은 언제나 정성스럽게 실천되지만, 존중되지 않는 것은 소홀해진다네.
"그렇죠."
"이렇게 하여 마침내 그들은 승리와 명예를 좋아하는 대신에 돈벌이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은 부자를 칭찬하고 감탄하여 지배하는 자리에 앉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천대를 하게 되는 것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바로 그때에 그들은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의 한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수 지배체제의 정도가 강하면 그만큼 많은 액수를, 그것이 약하면 그만큼 적은 액수를 정하고 나서, 재산이 그 규정된 액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지배적인 벼슬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무기를 사용한 폭력으로 이루어내든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위협으로 그런 나라체제를 세우는 걸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체제는 대강 그렇게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걸세."
"예" 하고 그는 말하더군. "하지만 그 나라체제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나라체제가 잘못된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한[36] 그 잘못된 점이란 무엇일까요?"

7. "우선 첫째로, 이런 나라체제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점일세. 왜냐하면 생각해 보게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즉 재산의 평가에 따라서 배의 키잡이를 임명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설사 그가 훨씬 더 키잡이에 능

36. 제8권 544c 참조.

숙하다 하더라도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하고 내가 말했네.
"틀림없이 그들의 항해는 처참하게 될 겁니다" 하고 그가 말하더군.
"다른 어떤 일의 지배에 관해서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라는 예외일까?" 하고 내가 말했네. "또는 나라에 관해서도 그럴까?"
"그야 나라의 지배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만큼 어떤 경우보다도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 점이 소수 지배체제가 지닌 가장 큰 결점이네."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어떨까? 다음 것은 그것보다 얼마나 작은 결점일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그런 나라는 반드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나라 즉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자들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서로 흉계를 꾸미고 있다네."
"제우스에 맹세코, 먼저의 결점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이것도 또한 훌륭한 것은 못 되네. 즉, 그들은 아마 어떤 전쟁도 해내질 못한다는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대중을 무장시켜서 사용하자니 적보다도 그들이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이용하지 않으면 싸움터에서 그들은 글자 그대로 소수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세. 그와 동시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라, 전쟁 비용을 치르고 싶어하지 않는다네."
"훌륭한 일은 못되는군요."
"그런데 어떨까? 이건 우리가 앞서부터 비난했던 점[37]이지만, 이런 나라체제에서는 같은 사람이 동시에 농사도 짓고 돈벌이도 하고 또 전쟁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하는데, 그런 일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37. 제4권 434 이하 참조.

"아뇨, 결코"

"그렇다면 이 모든 악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나라가 가장 큰 악으로서 처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어떤지를 생각해 보게나."

"어떤 점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버릴 수가 있고 딴 사람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 그리고 팔아 없앤 뒤에는 나라의 일원으로 아무 구실도 못하면서 즉 장사꾼도 아니고 기공(技工)도 아니며, 기병(騎兵)도 아니고, 기갑보병도 아니며, 그저 빈민이라든가 극빈자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된다는 점이라네."

"그렇죠. 이 나라체제는 처음으로 그 악이 가능한 곳이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확실히 소수 지배체제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일을 막진 못하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은 철저한 가난뱅이가 되진 않았을 것일세."

"옳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게. 그런 사람들이 부자로서 돈을 쓰고 있었던 그때에도 과연 방금 우리가 말한 점[38]에서 다만 얼마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배자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었지만, 사실상으론 나라의 지배자도 아니고 그저 가졌던 재산을 탕진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었지?"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었을 뿐, 실은 탕진한 사람밖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우린 그 사람에 관해서 마치 벌집의 구멍 속에 수벌이 생겨서 벌집 전체의 병이 되듯이 이런 사람 역시 수벌로서 집안에 태어나서 나라의 병이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하고 그가 말하더군.

"아데이만토스, 그래서 신께서는 날개가 있는 수벌은 다 침을 갖지 않은 것으로 만

38. 제8권 552a 참조.

드셨는데, 기어다니는 이 수벌들은 그 중의 어떤 것은 침이 없는 놈으로 또 어떤 것은 무서운 침을 가진 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침이 없는 놈들 중에서는 늘그막에 거지로 끝맺는 것들이 나오고, 침을 가진 놈들 중에서는 악한이라고 불리는 것들 전부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자네가 어떤 나라에서 거지를 보게 된다면, 그곳에는 어딘가 근처에 도둑이나 소매치기나 신전(神殿) 강도 등 이런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자들이 숨어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분명하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어떤가, 자넨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들에 거지가 있는 것을 못 보는가?"

"그야 지배자들 말고는 거의가 다 거지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또 그런 나라들에는 침을 가진 악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기야 지배자들이 그들을 감시해서 힘으로 누르고는 있지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고 생각해야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 자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까닭은 무교육과 나쁜 양육, 나라체제의 나쁜 조직 때문이라고 우린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해야겠죠."

"그렇다면 어쨌거나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는 그런 성격의 것이고, 또 앞서 말한 것만큼의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악을 가지고 있을 걸세."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우린 재산의 평가에 따라서 지배자를 결정하는 이 소수 지배체제라고 부르는 나라체제도 마무릴 진 것으로 하세나. 그리고 다음에는 이 나라체제를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며, 생겨난 다음의 그 사람됨은 어떠한지를 고찰하도록 하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러죠. 그렇게 하죠" 하고 그가 말했네.

8. "그런데 명예 지배체제적인 사람이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으로 옮아감은 대개는 이렇게 해서겠지?"

"어떻게 해서요?"

"그건 명예 지배체제적인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처음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뒤따르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암초에 부딪치듯 나라와 충돌해서 자기의 소유물도 자기 자신도 잃고 마는 일이 있다고 하세. 즉, 장군직이나 그밖에 뭔가 요직(要職)에 있다가 못된 자들의 고발로 인하여 법정으로 끌려나와 사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재산 전부를 몰수당하는 일 말일세."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어쨌든 여보게, 그 아들은 그런 일을 보거나 스스로도 당하거나 재산을 잃거나 한 다음에는, 내가 생각컨대 그는 겁이 나서 당장 자기의 영혼 안에 있는 용상(龍床)에서 명예라든가 기개적인 부분을 곤두박질시켜 떨어뜨릴 것이네. 그리고 가난 탓으로 천하게 되어 돈벌이로 돌아서게 되고 인색하게 푼푼이 아끼거나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하여 돈을 긁어모으게 되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욕망적인 부분을 영혼의 용상에 앉혀 놓고 사치스런 두건[39]과 목걸이와 단검으로 치장을 시켜 자기 속의 대왕[40]으로 섬기게 된다고 자넨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론, 그 대왕의 측근의 좌우에 이지적인 부분과 기개적인 부분을 노예로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서 이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에서 큰 돈이 생기게 하는가를 셈하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질 않고 또 다른 편으로 기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와 부자 이외의 다른 것은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돈을 차지하는 것과 그것에 뭔가 이

39. '頭巾'이라고 번역했지만, tiaras란 페르시아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보석 박힌 冠이란 뜻.

40. 페르시아 대왕을 가리킨다.

바지하는 일이 있다면 그밖엔 다른 어떤 것에서도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네."

"그렇게 말고는 달리 명예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돈을 좋아하는 젊은이로 그토록 급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변하진 못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것이 소수 지배체제적 인간이로군?" 하고 내가 말했네.

"어쨌든 그가 소수 지배체제로 변해서 생긴 나라체제에 대응하는 인간으로부터 변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와 과연 같은지 어떤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세."

"고찰해 보도록 하십시다."

9. "우선 먼저,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돈을 대단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와 같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게다가 또 그는 구두쇠인 데다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채워 주고, 그밖에는 일체 지출을 하지 않으며, 다른 욕망은 군것이라고 보고서 억제한다네."

"그렇고 말고요."

"그는 어쩐지 꾀죄죄해 보이고, 무엇에서든지 이익을 거두어서 쑤셔 넣는 사나이일세—이런 자들을 대중은 칭찬하네만 이런 사나이가 그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를 닮은 것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어쨌든 그 나라에서도 또 그런 인간에게서도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돈이니까요."

"생각컨대, 그건 그런 사람이 교육에다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않고서야 장님[41]을 자기 가무단(歌舞團)의 단장으로 세워 놓고서 가장 존경한다는 따위의 일이란 없었을 것이니까요."

"좋아!" 하고 내가 말했네. "한데, 다음 것을 생각해 보게나. 그 사람 안에는 그 교양이 없기 때문에 앞서의 수벌 같은 욕망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거지 같은 욕망이고, 또 어떤 것은 악당 같은 욕망인데, 다만 다른 일들을 염려해서 억지로 억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선 안될까?"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하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떤 경우를 눈여겨 보아야 그들의 악당 같은 짓을 알아 낼 수 있는지 알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떤 경우인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들이 고아의 보호자일 경우라든가 또 뭔가 그런 일이 그들에게 생겨서 얼마든지 부정을 행할 수 있는 경우일세."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으로 밝혀졌듯이 그런 사람은 그밖의 거래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호평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훌륭한 자제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나쁜 욕망을 억제하고 있는데, 다만 그 억제를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설득해서가 아니고, 또 이치를 가지고 욕망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의 재산이 걱정스러워 어쩔 수 없는 강제와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여보게, 제우스께 맹세코 그런 사람이 마침 남의 돈을 써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들 중에는 저 수벌과 같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41. 富의 神(Plutos)은 눈이 먼 것으로 되어 있다.

"그야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니만큼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내분(內紛)을 면할 수가 없을 게고, 또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뭔가 이중의 인간일 것이로되, 다만 그가 가진 비교적 좋은 욕망이 나쁜 욕망을 단속하고 있는 형편에 있을 것일세."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점잖을 걸세, 그러나 일치하고 조화된 영혼의 참다운 덕은 그들로부터 어딘가 멀리 도망치고 있는 걸세."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게다가 또 이 구두쇠는 나라 안에서 어떤 승리나 어떤 훌륭한 명예를 겨룰 경우 보잘것없는 경쟁 상대밖에 안되는데, 그는 명성이라든가 그런 따위의 경쟁때문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도록 일깨우지나 않을까를 두려워 해서 그는 소수 지배체제적 인간답게 자기의 매우 작은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대개는 지고 말지만, 여전히 부자일세."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이대로 우린 이 구두쇠인 데다 돈만 버는 사람과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는 서로 대응하고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심할 건가?" 하고 내가 말했네.
"결코 아닙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10. "그러면 다음으론, 아무래도 민주체제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생긴 다음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그건 그 뒤에 또 민주체제적인 인간의 성격을 알고서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기 위한 것일세."
"그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 자신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겠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소수 지배체제로부터 민주체제로 바뀌는 것은 뭔가 다음과 같은 방식이 아니겠나?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선한 것을, 즉 될 수 있는 데까지 부자가 되겠다는 것을 향한 탐욕스런 추구를 위해서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내가 생각하기엔,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에서 지배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젊은이들 중에서 방탕한 자가 나와도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잃거나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싶어하질 않네. 왜 그런고 하니, 이 지배자들은 그런 젊은이들의 재물을 사들이거나 그것을 담보로 돈을 꾸어 주거나 해서 더욱 부자가 되고 더욱 존경을 받길 바라기 때문이라네."

"무엇보다도 그러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국민 사이에서 절제를 충분히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반드시 어느 한쪽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이미 분명하지 않은가?"[42]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소수 지배체제에서는 지배자들이 그런 방탕을 모르는 체하고 내버려두어서 천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 넣는 일은 드물지가 않다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는 빚을 짊어지고, 어떤 자는 시민권을 빼앗기고, 어떤 자는 그 두 가지를 다 당하고서는 침으로 무장을 하고 나라 안에 주저 앉아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차지한 사람들이나 그 밖의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 증오감을 품고 음모를 꾸며서 혁명을 열망하고 있다네."

"그건 그렇군요."

"그런데 돈벌이를 하는 자들은 몸을 웅크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체하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 중에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돈이라는 독침으로 찔러서 본전의 몇 갑절이나 이자를 거둬 들이고는 수벌과 거지를 나라 안에 더욱 더 퍼뜨려가고 있다네."

42. 제8권 550e 참조.

"그렇죠. 어찌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그들은 앞서 말한 방법[43]으로, 즉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런 악이 불타오르려고 할 때 끄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법률로 그런 곤경을 해결하는 방법을 쓰려 하지도 않는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떤 법률인데요?"

"그건 앞서의 법률에 다음 가는 것인데, 국민이 덕성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법률이라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돈거래 계약의 대부분은 자기 측에서 위험에 책임지고 계약하라고 명령한다면,[44] 그 나라에서는 염치없이 돈벌이를 하는 일이 더욱 적어질 것이고, 방금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은 악이 그 나라 안에서 자라나는 일도 더욱 줄어들 걸세."

"훨씬 줄어들겠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실제로 지배자들이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까닭으로 해서 지배받는 자들을 나라 안에서 그런 처지에다 놓고 있다네. 그러면서도 제 자신과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젊은 것들은 호화스럽게 살도록 해서 몸도 정신도 고생을 사리는 인간으로 만들고, 또 쾌락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참을성 없는 연약한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돈벌이 외의 다른 일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간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같은 정도밖에는 덕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나?"

"확실히 그렇습니다."

43. 제8권 552a, 555c 참조.

44. 믿고서 꾸어준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꾸어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돈을 꾼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률이 있었다. 신용거래를 기초로 한 것.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는 지배자들과 지배받는 자들이 여행 중에 함께 길을 걷는 때라든가, 그밖에 어떤 다른 일에서 어울리는 일이 있어서, 이를테면 축제에 갈 때라든가 또는 싸움터로 나가게 돼서 같은 배를 타거나 전우(戰友)가 될 경우에 또는 한창 위험한 속에서 서로 관찰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처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서 결코 업신여김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네. 오히려 반대로 깡마르고 햇빛에 꺼멓게 탄 가난한 사람이 그늘에서 자라서 군살이 많이 찐 부자와 나란히 전투에 배치되었을 때, 그 부자가 숨을 헐떡거리고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겠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난한 사람은 그런 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 가난한 사람이 겁쟁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를, '저자들은 우리들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야, 형편없는 자들이니까' 하고 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야 그들이 그러리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병적인 상태에 있는 몸이 정말 병이 들려면, 밖으로부터 그저 가볍게 자극만 해도 되듯이, 또 때로는 밖으로부터의 자극이 없어도 제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나라도 그 안의 한 당파가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로부터 자기편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다른 당파가 민주체제의 나라로부터 자기편을 불러들이거나 해서, 밖으로부터의 아주 사소한 자극 탓으로 해서 병이 들어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밖으로부터의 자극이 없어도 내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죠,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체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겨서 상대편 사람들 중의 어떤 자는 죽이고 어떤 자는 쫓아내고서 남은 사람들은 평등한 국민이 되게 하고 지배에 참여시킬 때에 생기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 그 나라에 있어서의 벼슬자리는 제비를 뽑아서 정하게 되는 것일세."

"아닌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체제의 수립입니다. 설사 무력으로 이루어지건 또는 한쪽이 공포를 느끼고 물러나서 이루어지건 말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11.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나라체제란 어떤 것일까? 하고 묻는 것은 그런 사람은 물론 그 민주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분명하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우선 첫째로 그네들은 자유롭고, 그 나라는 자유로 가득 차 있고, 자유도 언론도 거기서는 무엇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말하고 있지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그렇게 허용되는 곳에서는 각자가 각자의 마음에 드는 자기 나름의 생활방식의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것은 분명할 일일세."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나라체제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겨날 걸세."

"물론 그렇죠."

"아, 이것은 나라체제들 중에서도 으뜸가게 아름다운 것일는지도 모르지. 마치 온갖 화려한 빛깔로 된 다채로운 옷처럼 이 나라체제도 갖가지 성격에 의해서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보일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리고 아마 다채로운 것들을 보고 감탄하는 애들이 다 여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체제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판단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여보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나라체제를 찾기에 알맞은 곳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나라체제가 거기 있고, 또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나라를 세우고 싶은 사람은, 마치 나라체제의 잡화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민주체제의 나라로 가서, 무엇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본을 골라내서 그 본에 따라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될 걸세."

"어쨌든 본으로서는 부족이 없을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설사 자네에게 지배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지배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자네가 지배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네. 그리고 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네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도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억지로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네가 지배하는 자리에 앉거나 재판관이 되는 것을 법률이 막고 있다 하더라도, 자네만 그럴 생각이 있다면 지배를 하건 재판을 하건 도무지 상관이 없다네. 이런 모든 생활이란 당장은 천당 같은 즐거운 것이 아닐까?"
"그렇죠. 당장은……"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어떻겠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태연한 태도는 훌륭하지 않는가? 혹시 자네는 그런 나라체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형이나 추방의 판결을 받고서도 그래도 여전히 거기 머물러서 사람들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마치 죽은 자에게서 돌아온 혼백같이 보지도 않고 주의를 기울여 주지도 않기나 하듯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겠지?"
"많이 보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게다가 그 나라체제가 가지고 있는 관용성, 결코 좀스럽지 않은 초연성은 훌륭하지 않은가, 그건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있을 때 장엄하게[45] 말한 일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말한 것이란 남달리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사람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훌륭한 것 속에서 놀고 그리고 그 훌륭한 일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량한 인물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는데, 그 나라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발 밑에 짓밟고 사뭇 거드름을 피우면서 여기서 나랏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과 생활방식을 가졌건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대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만 보이면 그것만으로 존경을 받는다네."

45. 비꼬는 뜻으로 쓰인 말.

"과연 참 고상한 나라체제로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민주체제란 그런 점들이나 또 그밖에 그런 것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건 유쾌하고, 무정부적이고, 다채롭고, 동등한 사람에게도 동등치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별없이 일종의 평등을 나누어 주는 나라체제일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12.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나,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일세. 아니면, 나라체제를 고찰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즉, 그 구두쇠적이고 소수 지배체제적인 인간에게는, 생각컨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습성에서 키워진 아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나?"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들 역시 자기 속에 있는 낭비적이고 돈벌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쾌락에의 모든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일 걸세. 그런 욕망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불리고 있네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가 전망도 분명치 않은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욕망과 필요치 않은 욕망을 규정하기로 하면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하시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아무래도 물리칠 수 없는 욕망과 채워지면 우리에게 이로운 욕망은 필요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하겠지? 왜 그런고 하니, 이 둘은 다 우리의 본성이 아무래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지 않을까?"
"그렇고 말고요."

"따라서 우린, 이 욕망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써도 정당하겠지?"
"정당합니다."
"그런데 어떨까? 젊어서부터 훈련을 하면 물리칠 수 있는 욕망, 더욱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아무 도움도 안되고, 경우에 따라선 해롭기조차 한 욕망, 이 모든 것을 필요 없는 욕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훌륭하지 않을까?"
"훌륭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이 두 욕망이 어떤 것인지 그 윤곽을 잡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의 본이 되는 것을 골라내 보도록 할까?"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식욕, 즉 기본적인 빵과 반찬에 대한 욕망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빵에 대한 욕망은 두 가지 점에서, 즉 이롭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욕망일 걸세."
"예."
"그러나 반찬에 대한 욕망은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로운 효과가 있어야만 필요한 욕망일 걸세."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이런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말한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음식물을 구하려는 욕망 그리고 젊어서부터 바로잡고 가르침을 받아서 대다수의 사람의 경우,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몸에도 해롭고 영혼이 사려와 절제를 하는 데 해로운 욕망은 어떨까? 필요치 않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지?"
"그렇죠, 좋고 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비적인 욕망이고, 앞서 말한 것은 일을 위해서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이죠,"
"그리고 성욕이라든가 그밖의 다른 욕망에 관해서도 우린 '소비적인 욕망'이라고

말해야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수벌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람은 그런 쾌락이나 욕망에 가득 차 있어서 필요치 않은 욕망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었고, 필요한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을 인색하고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었지?"
"그렇죠, 물론이죠."

13. "자 그럼 되돌아가서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으로부터 민주체제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논하기로 하세. 내가 보기엔 그건 대체로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어떻게요?"
"한 젊은이가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교양이 없고 인색하게 키워진 다음에, 한번 수벌들의 꿀맛을 보고, 그리고 다채로운 갖가지 종류의 쾌락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납고 무서운 짐승과 사귀게 되었을 때, 아마 그때야말로 그 자신 안에 있는 소수 지배체제가 민주체제로 옮아가는 변천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게."
"그야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래서 나라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외부로부터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맹세력이 그 나라의 같은 처지에 있는 어느 한 세력을 원조할 경우였는데,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젊은이가 변화하는 것도 그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중의 한쪽을 그것과 동족이고 서로 비슷한 종류의 욕망이 외부로부터 원조할 때가 아니겠나?"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만약 타이르거나 나무라는 아버지로부터 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일종의 동맹군이 나와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소수 지배체제적인 부분을 다른 쪽에 항거해서 원조를 한다면, 그때는 반란과 그것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

어나고, 그의 내부에서 제 자신에게 대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걸세."
"물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으론 민주체제적인 부분이 소수 지배체제적인 부분 앞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젊은이의 영혼 안에 일종의 조심성이 생기므로 해서, 여러 가지 욕망 중의 어떤 것은 파멸되고 어떤 것은 쫓겨나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네."
"아닌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되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무식으로 인해서 쫓겨난 욕망의 뒤를 이어 그것과 동족인 다른 욕망이 어느새 키워져서 강한 것들이 숱하게 생겨나게 된다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게 되면 그 욕망들은 젊은이들을 전과 같이 사귀도록 끌어당겨 은밀히 다른 욕망과 섞여 많은 욕망을 낳게 된다네."
"물론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욕망들이 젊은이의 영혼의 성(城)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학문이나 훌륭한 일거리나 참다운 논의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이것들이야말로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뛰어난 감시자이며 방위자이네."
"그렇죠, 가장 뛰어난 것들이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런 것들 대신에, 내 생각으론, 실없는 허풍의 말이나 의견이 뛰어올라와서 그런 젊은이 안에 있는 같은 곳을 차지하게 되는 걸세."
"과연 그렇게들 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게 되면 이 젊은이는 또다시 저 식연족(食蓮族)[46] 속으로 들어가서 거리낌없

46. 수벌이라는 자들을 말한다. 연밥(蓮實)을 먹는 족(lotophagoi)이란 북아프리카의 해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전설상의 민족. 달콤한 연밥을 먹으면, 근심 걱정을 잊고 제 고향조차 잊는다(《오디세이아》 IX, 91 이하 참조)

이 자릴 잡고 살고, 그리고 만약 그의 영혼의 구두쇠적인 부분을 가족들로부터 뭔가 도우러 온다면, 저 실없는 허풍의 말은 이 젊은이들 안에 있는 왕궁의 성문을 굳게 닫고서 그 동맹군 자체를 들여놓지 않고, 또 어른들의 사사로운 말조차도 사신(使臣)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조심성을 어리석음이라 불러 권리를 빼앗아 추방자로서 나라 밖으로 밀어내고, 절제를 겁쟁이라 하여 모욕을 줘서 쫓아내고, 중용(中庸)이라든가 돈의 질서 바른 씀씀이라든가를 촌스럽고 자유인답지 않은 것인 양 타이르고 숱한 쓸모없는 욕망과 결탁해서 국경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겠나?"

"과연 그렇게들 합니다."

"그리고, 저 실없는 허풍의 말은 그 덕들을 몰아내서 비어 있게 하고, 자기들이 차지해서 장엄한 의식(儀式)을 베풀어 준 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정화(淨化)하고 나서, 다음엔 곧 오만이나 무정부상태나 낭비나 몰염치에다 왕관을 씌우고, 대합창단을 거느려서 화려하게 도로 데려오되, 오만을 좋은 성장, 무정부상태를 자유, 낭비를 의젓함, 몰염치를 용감이라고 부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듣기 좋은 이름을 붙여서 말일세. 뭔가 이렇게 해서…… 젊었을 적에 필요한 욕망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변해서 필요없고 쓸모없는 쾌락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고 말고요.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이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그 뒤로 이런 젊은이는 필요한 쾌락에 못지않게 필요없는 쾌락을 위해서 돈과 노고와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걸세. 하지만, 만약 그가 운이 좋아서 지나친 열광에 빠지는 일이 없고, 오히려 웬만큼 나이도 들고 해서 큰 격동도 지난 다음에 쫓겨난 것들 중의 일부를 다시 맞아들여 침입해 들어온 것들에게 자기를 몽땅 내맡기는 일이 없다면, 그 경우에 그는 모든 쾌락에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서 살아가게 될 것일세. 즉, 마치 제비를 뽑아서 차례가듯이 그때마다 생기는 쾌락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느낄 때까지 자기의 지배권을 차례차례로 내맡겨서 어떤 쾌락이든 업신여기지 않고 다같이 동등하게 키우면서 살아간다네."

"과연 그렇군요."

"그리고 설사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쾌락은 훌륭하고 좋은 욕망에서 일어나지만

어떤 쾌락은 나쁜 욕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 것은 권장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뒷것은 다 잡아서 굴종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일러준다 해도, 그는 참다운 이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감시소로 통과시키지도 않네. 오히려 그 모든 충고의 경우에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모든 쾌락은 다 같은 것이니 어느 것이든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과연 그는 그런 심경으로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이래서 그는 그때그때에 일어나는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채워가면서 나날이 살아가되, 때로는 술에 취해서 피리소리에 홀려 있는가 하면, 다음엔 물만 마시고 몸을 여위게 하고, 또 때로는 체육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때로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는 게으름만 피우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뭇 철학에 전념하는 체한다네. 그리고 또 자주 정치에 참여해서 연단으로 뛰어올라 가서는 뭣이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거나 행하거나 한다네. 또 군인이 부럽게 생각되면 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장사꾼이 부러우면 이번엔 그쪽으로 돌아선다네. 이렇듯 그의 생활에는 질서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오히려 그는 이런 생활을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이라고 부르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평등을 신봉하는 인간의 생활을 완전하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또 온갖 변화가 많고 가장 다양한 습성으로 가득 찬 생활인데, 이런 인간은 마치 앞서의 민주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인간일 걸세. 많은 남녀가 이런 인간의 생활을 부러워할 걸세. 그는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나라체제와 성격의 본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는 그런 인간이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어떻겠나? 그들을 민주체제적인 인간이라고 부를 만하니, 민주체제에다 배정해서 생각해도 좋겠지?"

"그렇게 배정하도록 하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14.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나라체제와 가장 훌륭한 인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일이겠네. 즉, 독재체제와 독재가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여보게, 독재체제의 성격이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이 민주체제로부터 변해서 생긴다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되네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 지배체제에서 민주체제가 생기는 것과 민주체제에서 독재체제가 생기는 것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것이겠지?"
"어떤 방식인데요?"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들이 목표로 세운 선(善) 그리고 소수 지배체제가 성립하는 까닭이 되는 것, 그건 부(富)였네. 그렇지 않은가?"
"예."
"그런데, 부에 대한 극성스런 욕심과 돈벌이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이 소수 지배체제를 망하게 했던 걸세."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민주체제가 선이라고 규정짓는 바로 그것에 대한 극성스런 욕심이야말로 역시 민주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민주체제의 나라는 무엇을 선이라고 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유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왜 그런고 하니, 아마 자넨 민주체제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고들 있는 것을 들을 것이니까. 즉, 자유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선한 것이고, 바로 그 까닭으로 해서 자유롭게 타고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오직 이 나라뿐이라고 말일세."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많이들 입에 올리고 있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면, 방금 내가 말하려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극성스런 욕심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소홀함이 역시 그런 나라체제를 변하게 해서 독재체제의 필요성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요?" 하고 그는 말했네.
"내가 생각하기로는 민주체제의 나라가 자유를 갈망한 나머지 하필이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그 지도자로 맞아들여서 너무 독한 자유의 술에 취하게 될 때, 나라의 지배자들이 과히 얌전하지가 않아서 자유를 무제한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그들을 괘씸한 소수 지배체제적인 놈들이라고 비난해서 벌을 줄 것일세."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나 지배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노예가 되려는 변변치 못한 놈들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은 지배받는 사람들과 같은 지배자와 지배자들과 같은 지배받는 사람들일세. 이런 나라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그 극치에 달한다는 것이 불가피하겠지?"

"그렇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여보게, 이 무정부 상태는 개인의 집에까지 스며들어가고, 필경은 짐승들에까지 옮겨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걸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이를테면 말일세, 아버지는 자식을 닮게 되어서 자식을 두려워하도록 습관이 되는 한편, 자식은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 삼가지도 않고 부모를 두려워하지도 않네. 그리고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은 시민과 그리고 시민은 그런 외국인과 동등하게 되고, 또 딴 나라 사람도 역시 그렇게 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 일 말고도 자질구레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도 생긴다네. 즉 이런 형편에서 스승은 제자를 두려워해서 비위를 맞추고, 제자는 스승을 업신여기고, 또 사사로운 보육자(保育者)에 대해서도 마찬가질세. 그리고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어른을 흉내내서 말에서건 행실에서건 맞겨루고, 한편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에다 자기를 맞추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든가 전횡(專橫)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흉내내서 쾌활함에 재치로 자기를 가득 채우게 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하지만 여보게, 이런 나라에서 생기는 가장 큰 자유는 팔려온 노예의 남녀가 자기

를 사온 사람들 못지않게 자유롭게 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걸세.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또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각기 자기 안에 평등과 자유를 얼마나 가지는가 하는 얘길 하마터면 잊을 뻔 했네"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러시다면 아이스킬로스의 말마따나 방금 입에 오른 것을 뭣이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참, 그렇군" 하고 내가 말했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내가 말할 것은 이걸세. 즉, 이런 나라에서는 인간에게 딸려 있는 짐승들까지도 딴 곳에서보다도 그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건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걸세. 아닌 게 아니라 개들은 속담 그대로 '안주인과 꼭 같이' 되고, 그리고 또 말이나 나귀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되어 아주 자유롭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길을 걷는 버릇이 붙고 길에서는 이쪽에서 비켜 주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치게 되고 그밖에 모든 일에 자유로 가득 차 있게 되네."

"저에게 제 꿈얘기를 해주시는군요.[47] 그건, 제 자신이 시골에 갈 때 자주 당하는 일이니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인 결과로써는 국민의 영혼이 너무 민감해져서, 비록 아주 작은 노예상태라도 누군가가 이끌어 들이면 골을 내고 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자넨 알아차리겠는가? 왜 그런고 하니, 자네도 알다시피 무엇이건 결코 그들에게 주인 노릇을 못하도록 끝판에 가서는 법률조차도 그것이 성문법(成文法)이건, 불문법이건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잘 알고 있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15. "그렇다면 여보게, 이것이 독재체제가 생겨나는 매우 훌륭하고 기운찬 근원이라네, 내 생각으론 말이야"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과연 기운찬 것이긴 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하지만 그 다음은 어

47. 새삼스레 말 안 해도 알고 있음을 속담처럼 나타낸 말.

떻게 되죠?"

"소수 지배체제 속에서 생겨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과 똑같은 병이 민주체제에도 생겨서, 그 자유방종 때문에 더욱 크고 강력한 것이 되어 민주체제를 예속시키게 되네. 과연 무엇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그 방종으로서 반대쪽으로 큰 변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라네. 계절에서도, 초목에서도, 육체에서도 다 그렇고, 무엇보다도 특히 나라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럴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건, 지나친 자유는 개인에서건 나라에서건 오직 지나친 노예상태로밖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할 길이라곤 없는 것 같기 때문일세."

"그렇죠, 그건 그럴듯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럴듯한 일로는, 독재체제는 민주체제 이외의 다른 어떤 나라체제로부터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극단적인 자유에서는 가장 야만스런 크나큰 노예상태가 생기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이치가 그렇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만 자네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 지배체제 안에 생긴 것과 같은 병이 민주체제 안에도 생겨서 그것을 노예화하는 것은 무슨 병일까 하는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내가 말하려던 것은 그 게으르고 낭비하는 인간의 족속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용감한 자는 지도자가 되고, 그다지 용감치 못한 자는 그 부하가 되는 것이었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수벌에다, 즉 어떤 것은 침을 가진 놈에다 또 어떤 것은 침이 없는 놈에다 비유했던 것일세"[48] 하고 내가 말했네.

"역시 옳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나라체제 안에 생기게 되든지, 마치 신체에 관해서는

48. 제8권 552c 참조.

점액(粘液)이나 담즙(膽汁)처럼 소란을 피게 된다네. 따라서 훌륭한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입법가도 그 수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양봉가(養蜂家) 못지않게 미리 조심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약 생겼다면 되도록 속히 벌집을 송두리째 잘라 없애도록 해야 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제우스에 맹세코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고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하도록 하세나"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민주체제의 나라를 우리의 이론에서 셋으로 나누세. 실정과 마찬가지로 말일세. 즉, 그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은 수벌족인데, 그건 그 나라에서 무엇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에 못지않게 생겨나는 것일세."

"그건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족속은 이 나라에서는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에서보다도 훨씬 사납다네."

"어떻게요?"

"소수 지배체제의 나라에서는 이 족속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아서 힘이 강해지지도 못하네. 하지만 민주체제에서는 더러 예외도 있긴 하지만 바로 이 족속이 지도계급이 되고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사나운 자들이 발언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른 자들은 연단 둘레에 몰려들어서 와글와글 떠들고 딴 소리를 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네. 이래서 이런 나라체제에서는 매우 드문 예외는 있지만, 모든 일이 이런 족속들도 관리된다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계급이 늘 대중에서 구별되네."

"그게 어떤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돈벌이에 종사한다면, 대개는 가장 착실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될

걸세."

"그럴 것 같군요."

"수벌들에게는, 내 생각으론, 거기에 꿀이 가장 많아서 꿀을 뜨기 위한 크나큰 양(量)이 마련되어 있다네."

"그야, 어찌 조금밖에 없는 자들에게서 꿀을 뜰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부유층으로서 수벌들의 목초장(牧草場)이라고 불릴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16.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은 민중이겠는데, 이들은 모두 제 힘으로 일하고 공사(公事)에 관여하길 싫어하는 사람들로서 별로 큰 재산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네. 민주체제에서는 이 계급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번 모이는 날엔 가장 큰 세력이 되네."

"그야 그렇죠" 하고 그가 말했네. "다만 이들은 얼마라도 꿀에 한몫 들지 않는다면 그다지 자주 모이고 싶어하진 않죠."

"그래서 늘 한몫 들고 있다네. 하기야, 지도자들이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민중에게 나눠주긴 하지만, 그 대부분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민중은 그런 방식으로나 한몫 보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내 생각이네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은 민중 앞에서 말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해서 스스로 막을 수밖에 없을 걸세."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설사 혁명을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쪽 사람들로부터 민중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든가, 소수 지배체제적인 인간이라고 비난을 받게 된다네."

"과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필경, 민중이 자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무식해서 모략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자기들에게 못되게 굴려는 것을 보면, 그땐 이미 싫든 좋든 정말로 소수 지배체제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데, 그건 자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도 역시 저 수벌이 그들을 침으로 쏘아서 생기게 된 것일세."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탄핵이나 재판 · 소송 등이 생기게 된다네."
"그렇죠."
"그런데 민중은 늘 누군가 한 사람을 자기들의 앞장으로 내세워 그 사람을 키워서 강대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지 않은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습성이 있지요."
"그러고 보면 이건 분명하네. 즉, 독재자가 태어날 때는 언제나 다름아닌 그런 민중의 지도자를 뿌리로 해서 싹튼다는 것 말이야."
"그렇죠, 분명하고 말고요."
"그러면 지도자로부터 독재자로 바뀌는 시초는 어떤 것일까? 분명히 그것은, 그 지도자가 아르카디아에 있는 리카이오스의 제우스 신전에 관한 전설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을 시작했을 때가 아닐까?"
"어떤 전설인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건 말일세. 갖가지 짐승의 내장이 제물로 바쳐진 속에 가늘게 썬 사람의 내장 한 점이 섞여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맛본 자는 반드시 이리(狼)가 된다는 걸세.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없던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앞장을 선 사람이 말 잘 듣는 군중을 꽉 잡고, 동족이 피를 흘리는 것을 삼가하기는커녕 오히려 흔히 쓰기 좋아하는 수법이지만, 부당한 고발을 해서 법정으로 끌어내다가 사람의 목숨 하나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 더러운 혀와 입으로 동족의 피를 맛보고, 또 사람을 추방하거나 죽이거나 하면서, 빚의 탕감이나 땅의 분할을 넌지시 비치거나 한다면, 이런 인간에게 올 것은 적의 손에 죽거나 또는 독재자가 돼서 사람으로부터 이리로 변하거나 그 어

느 하나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반란의 주동자가 되는 사람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만약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적들을 무시하고 되돌아오는 날에는 이미 어엿한 독재자가 돼서 돌아올 것이 아니겠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들이 그를 국민들에게 중상을 하여 추방하거나 죽일 수가 없다면, 폭력으로 몰래 죽여 없애려고 음모를 꾸밀 걸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그 길에 이만큼이나 걸어온 사람은 모두가 다 저 유명한 독재자의 요구라는 것을 생각해 내게 되는데, 그것은 즉 민중을 위해서 민중을 지키는 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자기 일신의 경호원을 민중에게 요구하는 것일세."[49] "과연 그렇게들 하지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민중 편에서는, 내 생각으론, 그 사람의 신변을 염려해서 자기 일신의 안위는 돌보질 않고 그 요구를 들어준다네."
"과연 그렇죠"
"그래서 돈도 가졌고, 게다가 돈과 함께 민중의 적이라는 악평을 듣는 자가 이 꼴을 보면, 그때야말로 그런 사람은, 여보게, 저 크로이소스에게 내린 신탁[50] 대로—

잔돌이 많은 헤르모스 강가를 따라 도망쳐 멈추지 않고,
겁쟁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49. 메가라의 테아게스, 아테네의 페이시스트라토스, 시라쿠사의 디오니시오스 등의 독재자들은 다 이런 요구를 했다.
50.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가 자기의 왕위의 앞날에 대해서 델포이의 신탁을 빌었을 때 내린 말씀(헤로도토스 《歷史》 I, 55 참조).

는 것이 되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도망을 치지 않으면 두번 다시 부끄러워 할 수도 없을테니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지, 내 생각으론 그가 잡히는 날엔 죽음으로 넘겨질 것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불가불 그렇게 되겠죠."
"한데, 그 지도자라는 사람은 분명히 '덩치 큰 몸을 길게 뉘고'[51] 있기는커녕 다른 숱한 적들을 메다 꽂고, 그는 이젠 민중의 지도자가 아닌 어엿한 독재자가 되어 나라라는 전차(戰車) 위에 우뚝 서 있다네."
"그렇죠,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17. "자, 그렇다면 그런 인간과 그런 자가 태어나는 나라와의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기로 할까?"
"그러죠,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그는 말했네.
"이런 인간은 독재자가 되기 시작한 처음의 며칠 동안은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자기는 독재자가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도 많은 것을 약속 하고, 빚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민중에게도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준다든가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점잖은 체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네.
"꼭 그렇게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나라 밖으로 추방한 적들 가운데 어떤 자와는 타협적이고, 어떤 자는 멸망시켜서 그자들이 귀찮게 구는 일이 없어지면, 우선 먼저 그가 하는 일이란 민중이 지도자를 필요로 하도록 늘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세."
"그럴듯합니다."

51. 《일리아스》 XVI, 776 참조.

"그리고 그것은 또 사람들이 많은 세금으로 가난해져서 그날그날의 일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되면, 그만큼 그에게 음모를 꾸미는 일이 적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내 생각으론, 누군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자기에게 지배권을 맡겨 주지나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자들을 적에게 넘겨서 없애 버리려는 구실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이 모든 까닭으로 해서 독재자란 늘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차츰 싫증을 낼 것이 아닌가?"

"물론이죠."

"게다가 또, 그를 추대하는 데 협력해서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 각별히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앞에서나 자기들끼리 거리낌없이 말을 하여 그런 사태를 말릴 법도 하지 않은가?"

"그럴 것 같군요."

"그리하여 독재자가 그의 지배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런 자들을 모조리 숙청해야 한다네. 적이건 자기 편이건 뭔가 조금이라도 쓸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말일세."

"분명합니다."

"그러니만큼 그는 누가 용감한 사람인가, 누가 고매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사려 깊은 사람인가, 누가 부자인가를 날카롭게 보지 않으면 안되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싫건 좋건 적이 되어서 음모를 꾸미지 않으면 안되는 그 일에 달려 있으니까. 나라를 말끔히 정화할 때 까지는 말일세."

"참으로 훌륭한 정화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지, 의사가 몸을 정화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일세. 왜냐하면 의사는 몸 안에서 가장 나쁜 것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놓지만, 그는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지배를 계속하려면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18. "그렇다면 그는 끔찍이도 운좋은 필연으로 묶이고 있는 셈인데, 그 필연이란 그에게 숱한 보잘것없는 인간들과 함께, 게다가 그런 자들에게서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살기를 그만두든가 어느 하나를 택하도록 명령하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가 처해 있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여 국민들에게서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 많은 또한 더욱 믿음직한 경호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죠."
"그러나 누가 믿음직한 사람이란 말인가? 그리고 어디서 그들을 맞아들일 것인가?"
"그야, 보수만 준다면야 저절로 숱하게 모여들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개에게 맹세코, 자네가 말하는 것은 아마 이번에 외국에서 들여온 갖가지 잡다한 수벌인 것 같군" 하고 내가 말했네.
"옳게 보셨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나 그는 역시 자기 나라에서 경호원을 구하려 들겠지?"
"어떻게요?"
"국민들한테서 노예를 빼앗아 자유민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의 경호원으로 집어 넣으려고 할 걸세."
"확실히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믿음직하니까요."
"자네가 말하는 독재자란 어지간히 운도 좋군. 만약 그전부터의 친구를 망쳐 놓고, 그런 자들을 친구로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서 채용한다면 말일세."
"그런데, 그런 자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렇게 하여 이 친구들은 그를 칭송하고, 이 새로운 국민들은 그와 어울리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비극이라는 것이 흔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특히 에우리피데스가 그 비극에 있어서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도 까닭이 없지 않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깊은 사상을 품은 이런 말, 즉 '독재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만 사귀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된다'[52] 는 말을 입에 올렸기 때문일세. 그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독재자가 사귀는 자들일세."
"게다가 또, 그는 독재자의 자리를 신과 동등한 것이라는 말로[53] 칭송하고 있고, 그 밖에도 많은 찬사를 이 작가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니만큼 비극작가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독재체제의 찬미자라 해서 우리들의 나라체제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릴 용서해 줄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적어도 그들 중에서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생각키론, 딴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군중을 모아, 아름답고 우렁차고 설득력 있는 목청[54]을 고용해서, 그곳의 나라체제를 독재체제나 민주체제 쪽으로 끌어당길 걸세."
"과연 그렇죠."
"게다가 또,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보수와 존경을 받되, 있을 법한 일이지만, 독재자에게서 가장 많이 그리고 다음으론 민주체제의 나라에서 받는다네. 그러나 그들은 더 높은 나라체제로 오름길을 올라가면 갈수록 말하자면 숨이 가빠서 더 앞으

52. 이 말은 에우리피데스가 아니라, 소포클레스의 작품(전하지 않음)에 나오는 말. 나쁜 뜻으로 쓰이고 있다.
53. 《트로이아의 여자들》 1169 참조.
54. 배우를 말한다.

로 나아갈 수가 없듯이 그들의 명성도 기울어지게 된다네."
"그렇고 말고요."

19. "한데 이건, 얘기가 제 길에서 벗어났군. 다시 한번 얘기를 되풀이해서 독재자의 군대, 즉 아름답고, 수많고, 다채롭고, 한때도 같은 모습으로는 있지 않은 군대가 어디서 보급을 받는지 그것을 말하도록 하세."
"분명히, 그는 나라 안 신전의 신성한 재산을 모조리 팔아치워서 그 돈을 몽땅 써 버리고[55] 그 덕으로 민중에게 억지로 물게 하는 세금은 그만큼 줄게 될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고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그야 분명히 독재자 자신도, 그의 술친구들도, 남자 친구들도, 여자 친구들도 선대(先代)의 재산으로 지탱해 가게 되겠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알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독재자를 낳은 민중이 독재자 자신과 그 남자 친구들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이로군."
"민중에게 그건 아무래도 피치 못할 운명입니다."
"뭐라고?" 하고 나는 말했네. "만약 민중이 푸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즉, '장성한 아들이 아비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오히려 반대로 아비가 아들에게 봉양되어야 옳은 일이다. 게다가 또, 내가 너를 낳아서 순조롭게 키운 것은, 네가 장성했을 때, 제 자신이 제 노예들의 노예가 되어서 아들과 노예들을 낯선 곳에서 모아들인 뭔지도 모를 자들과 함께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를 지도자로서 앞장 세워 나라 안의 부자들이라든가 이른바 지체 높은 가문의 출신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나는 마치 아들과 그 귀찮은 술 친구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내쫓는 아비와 마찬가지로, 너와 너의 친구들에게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55. 옛적에 神殿은 어느 정도 은행 구실을 했다.

“제우스에 맹세코 그때야말로 민중은 자기가 어떤 것이길래 어떤 작자를 낳아 귀여워하며 키웠는지 그리고 쫓아내려고 해도 자기는 약하고 상대는 강하다는 것을 알아챌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뭐라고?” 하고 내가 말했네. “독재자는 감히 아비에게 폭력을 쓰고, 그가 굽히지 않으면 주먹질을 할 거라고 말하는 건가?”

“예, 무기를 뺏은 다음에”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자네가 말하는 독재자란 살부자(殺父者)이고, 늙은 아비에 대한 가혹한 부양자인데, 아마 이거야말로 터놓고 인정받은 독재체제일 거고, 민중이란 속담에 있듯이 자유인에게의 예속이라는 ‘연기를 피하려다가’ 노예들의 전제적 지배라는 ‘불 속으로 떨어지고 만 격’일세. 그 많은 지나친 자유라는 옷 대신에 이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쓰라린 노예들에게의 예속이라는 옷으로 갈아 입고 말이야”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그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우리가 독재체제가 민주체제로부터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이루어져서 생긴 그 독재체제의 성질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만하면 충분히 논의됐다고 말한다 해도 부당한 주장은 아니겠지?”

“그렇고 말고요.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제 9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고찰은 독재체제적인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해서 민주체제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변모한 다음엔 그런 사람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비참하게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아직 그 사람의 일이 남아 있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아직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무엇입니까?"

"욕망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며 몇 가지나 되는지, 우린 아직 충분히 구별짓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이 점이 불완전한 채로 있으면,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명확치 못한 것이 될 걸세."

"그건, 아직 늦진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야 늦지 않고 말고. 그러니 욕망에 관해서 내가 보아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네도 고찰해 봐 주게나. 그건 이걸세. 필요치 않은 쾌락이나 욕망 중엔 불법적인 것이 있다고 내겐 생각되는데, 그런 욕망은 아마 누구나 타고난 것이겠지만, 그러나 법률로 또는 지성의 도움을 받은 다른 더 좋은 욕망으로 억제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모조리 제거되고 남는다 해도 겨우 얼마 안되는 약한 것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한층 강하고 더 많은 욕망이 남는 모양일세."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깨어 있는 욕망이라네. 그것은 영혼의 다른 부분, 즉 이지적이고 점잖고 지배적인 부분이 잠들고 있는 동안, 짐승 같고 사나운 부분이 음식이라든가 술로 배를 불리고서, 벌떡 일어나서 잠을 몰아내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본능을 만족시켜 보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것일세. 자네도 아다시피 이럴 때는 모든 부끄러움이나 사려에서 사뭇 풀려나고 면제된 것처럼 무슨 짓이든 거리낌없이 하려고 한다네. 즉, 그의 상상이긴 하지만 어미와 동침하려는 것이건 그밖에 인간이나 신이나 짐승이나 그 어떤 것과도 동침하려는 것이건 조금도 서슴지 않고, 또 어떤 피비린내 나는 살인도 저지르길 서슴지 않고, 어떤 음식에든 손을 뻗치고

는 삼갈 줄을 모른다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기로도 몰염치하기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정말 말씀하신 대롭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스스로 건강한 몸과 착실한 마음씨를 가졌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이지적인 부분을 불러일으켜서 훌륭한 말과 고찰로 그것을 대접하고 스스로 내성(內省)을 하지만 또 한편 욕망적 부분을 굶주린 상태에도 만족한 상태에도 두질 않고, 이 부분이 조용히 잠들어서 즐거움이나 괴로움으로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가장 훌륭한 부분이 홀로 깨끗한 상태에서 고찰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뭔가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아채기에 손이 뻗도록 해 주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기개(氣槪)의 부분도 그것을 달래서, 누구에겐가 노여움을 품고서 심기(心氣)를 어지럽혀진 채로 잠드는 일이 없게 하되, 이 두 가지 부분을 조용히 가라앉혀서 사려가 깃들어 있는 셋째 부분을 일깨우고, 그러고 나서야 쉬도록 하는데, 자네도 아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가장 잘 진리에 접촉하고, 그리고 꿈에 보이는 갖가지 모습도 이때에는 불법적인 일이 가장 적다네."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한데, 이런 얘기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 그만 옆길로 새고 말았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중요한 점은, 요컨대 사람마다 속에는 어떤 무섭고 사나우며 불법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 중에서 매우 절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속에도 있다는 것일세. 그리고 꿈속에서는 이 무서운 욕망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네.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네가 찬성하는지 어떤지, 어디 생각해 봐 주게나."

"그야 찬성하고 말고요."

1. 제8권 558d, 559d 참조.
2. 제8권 561a~562a 참조.

2. "그렇다면 민주체제적인 인간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보게나. 과연 그런 인간이 생겨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젊어서부터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란 돈벌이에 쓸모가 있는 욕망만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 없는 욕망과 놀이나 봄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욕망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었을 걸세.[1] 그렇지?"

"예."

"그렇지만 이 아들은 좀더 재치있고 우리가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욕망에 차 있는 사자들과 사귀어서 아버지의 인색함을 미워한 나머지 온갖 방종과 그런 자들의 생활태도로 돌진해 가는데, 그러나 그는 원래 그를 타락시키는 자들보다는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끌린 끝에 그 양쪽의 생활방식의 중간에 자리잡고서, 제깐에는 적절히 그 각각을 즐기면서 부자유스럽지도 않고 불법도 아닌 생활을 누리게 될 때,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으로부터 민주체제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것일세."[2]

"그것이 그런 인간에 대한 우리의 견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세월이 흘러 이미 늙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있다 치고 이번엔 자기 습성대로 키운다고 상상해 보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에게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과 같은 일이 이 아들에게도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게. 이 아들은 극도의 불법으로, 즉 유혹하는 자들이 전적인 자유라고 부르는 생활 태도로 이끌려가는데, 아버지와 그밖의 집안네들은 앞서의 중간적인 욕망을 돕고 한편으로 유혹하는 자들은 딴 쪽을 도와준다네. 한데 이 무서운 요술사들, 즉 독재자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다른 수법으로는 이 젊은이를 조종할 가망이 없다고 볼 때, 뭣이건 닥치는 대로 서로 나눠서 낭비해버리는 게으른 욕망들의 지도자로서 그 젊은이의 속에다 뭔가 하나의 사랑의 욕정을 심어 넣으려고 일을 꾸민다네. 즉, 날개가 있는 하나의 커다란 수벌을 말일세. 아니면, 자넨 이런 사람들의 사랑의 욕정을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로서는 커다란 수벌 이외의 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다른 욕망들이 향(香)이라든가 향유(香油)라든가 화관(花冠)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밖에 그런 모임에서 실컷 누리는 쾌락에 충만해서 이 커다란 수벌의 둘레를 윙윙거리면서 날아서 이것을 극도로 크게 키워, 끝없는 욕망의 바늘을 이 수벌 속에 생기게 한다면, 그때야말로 이 영혼의 지도자인 수벌은 광기(狂氣)로 경호(警護)되면서 미쳐 날뛰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사람 안에서 뭔가 흔히들 쓸모가 있다고 치는, 그리고 아직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의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를 찾아내면, 이것을 죽이거나 자기 밖으로 밀어 내고 만다네. 절제의 덕을 깨끗이해서 그를 정화하고, 밖으로부터 이끌어들인 광기로 그 자리를 채우기까지는 말일세."

"이건, 정녕 독재체제적 인간이 이루어져 가는 데 관한 완전한 얘기로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옛날부터 사랑의 신인 에로스가 독재군주라고 불리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겠군?" 하고 내가 말했네.

"아마 그런가 보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여보게, 술에 취한 사람도 뭔가 독재군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가지고 있죠."

"게다가 또 미친 사람이나 정신의 착란을 일으킨 사람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신들까지 지배해 볼 셈으로 자기에게 그럴 힘이 있다고 상상한다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여보게, 엄밀한 의미에서 독재체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타고난 바탕으로, 생활 습성으로 또는 그 두 가지로 해서 주정뱅이나 색골(色骨)이나 미치광이가 되었을 때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3.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그런 인간이 생기는 것 같네. 그러나 그의 생활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재치 있는 말에도 있듯이 그건 제 편에서 듣고 싶은 건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럼 말하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내가 생각하기로는 왜 그런고 하니,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는 잔치에다 흥청망청거리고 부어라 마셔라 들떠서 계집질 따위의 온갖 일이 벌어 질 걸세. 사랑의 신이 독재군주로서 그들의 가슴속에 깃들어 영혼을 전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면 말일세."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게 되면, 그 신의 옆에는 숱한 무서운 욕망들이 날마다 쑥쑥 자라나 허다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숱한 욕망들이……"

"그리하여 얼만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곧 소비되고 말 걸세."

"물론이죠."

"그리고 다음엔 빚과 재산의 압류일 걸세."

"물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는, 그땐 그들의 영혼 속에다 알을 깐 숱한 사나운 욕망들이 불가불 시끄럽게 굴기 시작할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들은 말하자면 다른 여러 가지 욕망의 막대기 끝에 찔린 것처럼, 특히 다른 모든 욕망을 경호원으로서 거느리는 애욕의 신 자신에게서 쫓기듯이 난폭하게 굴면서 속여서 뺏거나 힘으로 뺏거나 할 수 있는 뭔가를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지?"

"정녕,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곳에서 날치길 해오지 않으면 안되고, 안 그러면 큰 괴로움과 아픔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네."

"그러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면, 마치 그의 안에 나중에 생긴 쾌락이 애초의 쾌락들을 억눌러서, 그들의 몫을 훔쳤던 것과 똑같이 그 자신도 손아래 사람이면서 부모를 억누르는 것을 당

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몫을 써버리고 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자기가 쓰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야 물론이죠" 하고 그가 말했네.

"하지만, 만약 양친이 그에게 그것을 넘겨주려고 하질 않는다면, 처음엔 우선 훔치거나 양친을 속이거나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죠."

"한데, 그것이 안되면 다음엔 힘으로 뺏으려 들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이 사람아, 늙은 양친이 저항을 해서 싸운다면 과연 그는 독재군주가 하는 따위의 행위를 삼가서 조심할 건가?"

"그런 인간의 양친에 관해선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지. 그러면 아데이만토스, 제우스에 맹세코 자네에게 묻네만, 그런 인간이 겨우 최근에 친해지기 시작하여 필연적으로 맺어지지 않은 불필요한 여자친구를 위해서, 애초부터 친하고 필연적인 혈연으로 맺어지고 있는 필요한 어머니를 때릴 것인가? 또는 겨우 최근에 친해지기 시작한, 필연적으로 맺어지지 않은 불필요한 한창때의 친구들을 위해서, 청춘은 지났지만 필연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필요한 아버지를, 게다가 가장 오래된 친구인 아버지를 때릴 것인가? 또 만약 그런 자들을 한 지붕 밑으로 끌어들였다면, 양친들로 하여금 그자들 밑에서 노예로서 섬기도록 하리라고 자넨 생각한단 말인가?"

"예, 제우스에 맹세코, 필경 그럴 겁니다."

"그것 참! 독재자적인 아들을 둔다는 것은 엄청나게 운이 트이는 일이로군" 하고 내가 말했다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부모의 재산도 바닥이 나서, 그런 자가 곤궁한데도 그의 영혼 안에서는 이미 갖가지 쾌락이 크게 떼지어 모여들고 있을 때는 어떨까? 우선 그의 손은 누군가의 집의 벽으로, 또는 밤 늦게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옷으로 뻗쳐서 훔쳐낼 것

이고, 이어서 어느 신전을 말끔히 쓸어가는 것은 아니겠나? 그리고 이런 모든 짓에서 그가 아름다운 것이나 추한 것에 관해서 일찍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 흔히들 옳은 것이라고 보는 그 생각을 노예 상태에서 최근에 막 풀려난 생각이 애욕의 신의 경호를 담당하면서 그와 힘을 합해서 정복하고 말게 될 것인데, 이 생각들은 그전에 그 자신이 아직 법률이나 아버지 밑에서 자기의 영혼 안에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을 시절에는 잠자는 동안에 그저 꿈속에서나 해방된 것이었다네. 그러나 애욕의 신의 독재체제가 그를 지배하게 되자, 그는 지난날 이따금 꿈속에서나 되었던 바로 그러한 인간이 늘 생시에 되고 있어서, 어떤 흉악한 살인에서도 또 어떤 음식물이나 행실에서도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사랑의 신은 그 사람 속에서 유일한 독재자로서 도사리고 있으면서 온갖 무정부 상태와 무법 상태에서 지내고 애욕의 신 자신이 독재자이니만큼 말하자면 나라에서처럼 그 애욕의 신을 안에서 독재자로 모시고 있는 인간을 이끌어서 무슨 짓이든 감행토록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 싸고 있는 시끄러운 패거리를 길러 갈 것인데, 그 패거리란 일부는 나쁜 교제의 결과로 밖으로부터 이끌려 들어온 자들이고, 또 일부는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활방식으로 해서 그의 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자들일세. 이것이 그런 인간의 생활이 아닐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만약 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의 수효가 적어서 그밖의 일반대중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나라 밖으로 떠나가서 어딘가 딴 나라의 독재자의 경호원 노릇을 하거나 또는 어디선가 전쟁이 터졌을 경우엔 보수를 받는 용병(傭兵)이 되거나 한다네. 하지만 평화롭고 조용한 시대에 태어나면, 그들은 그냥 나라 안에 머물러서 허다한 작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 악행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를테면 도둑질을 한다, 강도질을 한다, 소매치기를 한다, 날치기를 한다, 신전 노략질을 한다, 납치를 한다는 것 등일세. 또 만약 언변이 능한 사람이라면 무고(誣告)를 한다거나, 위증(僞證)을 한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수도 있다네."

"과연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악행입니다. 만약 그런 인간의 수가 적다면 말씀입니

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왜 그런고 하니, 원래 작은 악행이란 큰 악행에다 비교해서 작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든 모든 것을 합쳐도 나라의 참상이나 곤경이라는 점에서는 독재자 한 사람과 비교하면, 흔히들 말하듯이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기 때문일세.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인간과 그에게 추종하는 자들의 수가 나라 안에 많이 늘고, 게다가 그들이 자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이 자들은 민중의 우매(愚昧)의 덕분으로 자기들 중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영혼 안에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독재자를 가지고 있는 자를 추대해서 독재자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당연할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 인간이야말로 가장 독재자다운 인간일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민중이 자진해서 복종한다면, 그래도 좋겠지. 그러나 만약 나라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땐 이 독재자적인 인간은, 마치 앞서 부모에게 매질을 했듯이 이번에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새로운 패거리들을 끌어들여서 그의 조국에 매질을 할 것이고, 크레테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자들 밑에다 그가 일찍이 친애한 모국(母國)과 조국을 예속시키면서 유지하고 키울 것일세. 이것이야말로 이런 인간의 욕망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이겠지."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그런 자들은 지배권을 쥐기 전에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네. 우선 남과 사귐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아첨하고 어떤 일이라도 예사로 봉사해 주는 자들과 사귀거나 또는 뭔가를 누군가에게 부탁할 경우에는 자기 쪽에서 저자세로 나가서, 친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이든 어떤 꼴이든 용케 해 보이지만,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언제 봤더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말했네.

3. 제4권 442e 이하 참조.

4. 제9권 571c~571d 참조.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은 일평생 아무하고도 결코 친한 친구가 못되고, 늘 누군가의 주인이 아니면 남의 노예로 지내게 되는데, 독재자적인 소질은 자유와 참다운 우정이라는 것을 언제나 맛보지 못한다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우리는 신의가 없는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지?"
"물론이죠."
"게다가 또, 최고로 부정한 인간이라고도 말일세, 만약 앞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합의를 본 것[3]이 옳았다면."
"물론 우린 옳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이 가장 악한 인간에 관하여 요약해 두세" 하고 나는 말했네.
"즉, 이 자는 깨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앞서 꿈속에서나 그렇게 된다고 말한[4] 바로 그런 인간일세."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가장 독재자적인 소질을 타고난 자가 독재권력을 쥔 경우에 그런 인간이 되는데, 그가 독재자로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만큼 더 그런 인간이 될 걸세."
"그렇지 않을 수 없죠" 하고 글라우콘이 이 얘기를 이어받아서 말했네.

4. "그런데 가장 악한 인간으로 밝혀진 자는 분명히 또한 가장 비참한 인간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또 극도로 독재자였던 자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비참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기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불가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독재체제적인 사람은 독재체제의 나라와 맞먹고, 민주체제적인 사람은 민주체제의 나라와 맞먹고,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 그렇죠."

"그러니, 덕과 행복이라는 점에서 어떤 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맞먹는 사람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덕이라는 점으로 보아서 독재체제의 나라는, 우리가 애초에 말했던 바와 같은 군주체제의 나라와 비교할 경우에 어떻겠나?"
"정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한쪽은 가장 좋은 나라고, 다른 쪽은 가장 나쁜 나라니까요."
"자네가 어떤 쪽의 나라를 어느 쪽이라고 말하는지, 그건 묻지 않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분명한 일이니까. 그러나 또,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에 관해서도 자네의 결정이 같은가 또는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독재자에게만 눈을 팔거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눈을 돌려서 현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전체를 관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몰래 들어가서 전체로서의 생활을 보고 나서만 우리의 소견을 제시하기로 하세."
"아닌 게 아니라 그 요구는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누가 보아도 분명한 것은 독재체제의 나라보다 비참한 나라는 없고, 군주체제의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관해서도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는 옳겠지? 그 요구란 인간에 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사고(思考)로 사람의 성격 속까지 들어가서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며, 어린애처럼 겉으로만 보고, 독재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미고 있는 화려한 허울에 현혹당함이 없이, 오히려 철저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일세. 나로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독재자와 한지붕 밑에서 산 적이 있어서, 그가 집안에서 행동하는 옆에 함께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에게 그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직접 관찰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그들 속에 함께 있을 때야말로 무대에서나 걸치는 의상을 벗은 벌거숭이 모습이 가장 잘 보일 수 있을 테니까—그리고 또 그가

공적인 생활에서 위험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거니와,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본 사람에 대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된 독재자의 사정이 어떤가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면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 역시 다시 없는 옳은 요구일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독재자들과 접한 적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셈으로 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묻는 것에 대답할 사람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5.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즉, 나라와 사람과의 비슷한 점을 기억해 내고서는 그 둘을 하나하나의 점에서 차례로 관찰하고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해 주게."

"무엇을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우선 첫째로 한 나라에 관해 말할 경우, 자넨 독재체제의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상태의 나라라고 말할 것인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노예적인 나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그 나라 안에는 주인이며 자유인들이 있겠지."

"있습니다. 다만 그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 나라에서는 거의 전체가, 게다가 그들 중의 훌륭한 부류마저도 불명예스럽고 비참하게도 노예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사람이 나라와 비슷하다면, 이것과 맞먹는 그 독재자의 내면에도 그와 꼭 같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의 영혼은 허다한 노예상태와 부자유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 노예화되는 반면, 가장 간악하고도 미치광이 같은 매우 적은 부분이 불가불 주인 노릇을 하게 되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불가불 그렇게 되겠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떨까? 자넨 그런 영혼을 노예상태에 있다고 말할 건가, 아니면 자유

롭다고 말할 건가?"

"물론 노예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노예상태의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는 일이 가장 적지 않을까?"

"그야 그렇죠."

"그렇다면 독재체제 밑에 있는 영혼도, 영혼 전체에 관해서 말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네. 그런 영혼은 늘 미쳐 날뛰는 욕망으로 해서 억지로 끌려다녀 난동과 뉘우침으로 가득 차 있을 걸세."

"그야 물론이죠."

"그런데 독재체제의 나라는 부유할까, 아니면 가난할까?"

"가난합니다."

"그렇다면 독재체제적인 영혼도 역시 늘 가난하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떨까? 이런 나라도 이런 사람도 반드시 공포에 차 있을 것이 아닌가?"

"그야 반드시 그렇죠."

"또 한탄이나 한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이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발견되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경우에, 그런 것은 갖가지 욕망과 정욕에 미쳐 있는 이 독재체제적인 인간에게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많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내 생각으론, 이런 모든 것이라든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자넨 여러 나라 중에서 이 나라가 가장 비참한 나라라고 판단했을 걸세만—"

"그게 옳지 않을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야 옳고 말고"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이번엔 독재체제적인 인간에 관해서 자넨 그와 꼭 같은 것을 고려에 넣고 무엇이라고 말할 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 점에선 자네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네" 하고 내가 말했네.

"어째 그럴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런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론, 아직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습니까?"

"아마 다음과 같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고 자네도 생각할 걸세."

"어떤 사람인데요?"

"그건 말일세, 원래가 독재체제적인 사람인 데다가 개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운수 불길해서 어쩌다가 독재자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이제까지 얘기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말씀하신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야 그렇지. 다만 이런 일은 결코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에 어울리는 논의로 충분히 잘 고찰해 봐야 하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고찰은 선한 생활과 악한 생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를 고찰해 보게나. 독재자에 관해서 고찰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내겐 생각되니까."

"어떤 경우인데요?"

"나라 안에서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일세.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재자와 비슷하니까. 하기야 독재자 쪽이 지배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차이는 있네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집안의 하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넨 알고 있겠지?"
"뭔가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내가 말했네. "하지만, 그 까닭을 알겠나?"
"예, 그건 나라 전체가 한 개인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어떨까? 이를테면, 어떤 신이 50명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그 자신과 아내와 애들과 함께 나라 밖으로 내보내 어떠한 자유인도 그를 도우러 올 리 만무한 호젓한 곳에다 다른 재산이나 하인들과 함께 버려 놓았다면, 혹시나 하인들에게 살해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자기와 애들과 아내의 신변에 관한 그의 공포가 어떠하겠으며 얼마나 크리라고 자넨 생각하나?"
"그야말로 크나큰 공포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게 되면 벌써 그는 바로 그 노예들 중의 몇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많은 약속을 하거나 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거나 해서 바로 그 자신이 하인들에게 굽신거리게 될 것이 아닐까?"
"그로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살해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또 어떨까? 만약 신이 다른 많은 이웃을 그의 둘레에서 살도록 보내주었는데,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질 않고서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하는 자를 잡아서 극형에 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은 훨씬 더 큰 재앙 속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기 둘레가 다 적이라서 감시받고 있으니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독재자란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은 소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갖가지 공포나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서 바로 그런 감옥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는 탐욕스런 영혼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민 중에서 오직 그만은 아무데

도 여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자유로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구경할 수도 없이, 여자처럼 거의 집안에 들어앉은 채로 혹시 외국으로 여행을 해서 뭔가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6. "그렇다면 자기 속에 나쁜 나라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넨 방금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네만, 그러나 그런 독재체제적인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평생을 개인으로서 지내지 못하고, 뭔가 팔자 탓으로 독재자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제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을 지배해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을 거두어 들이게 되는 셈일세.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제 자신도 지배할 수 없는 병든 몸을 가지고 개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남과의 경쟁과 싸움 속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질세."
"과연 그 비유는 그럴듯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극히 옳습니다, 소크라테스 님" 하고 그는 말하더군.
"여보게 글라우콘, 그렇다면 그 처지는 아주 비참하고, 독재자가 되는 사람은, 자네가 가장 곤란한 생활을 한다고 판단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곤란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러고 보니 진짜 독재자란 설사 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시 없이 굽실거리고, 노예짓을 하는 진짜 노예이고, 가장 악한 자들을 섬기는 아첨꾼인데, 그는 자기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많은 것들

5. 제8권 567a, 576a~576b 참조.
6. 여기서는 고유명사이긴 하지만, 가장 훌륭한 자라는 뜻도 있다.
7. 그리스어로는 aristos. 따라서 그 위의 Ariston과 同音이 된다. 플라톤은 가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에서 부족해서, 영혼의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네. 또 그는 한평생을 통해서 공포에 싸이고 경련과 괴로움에 차서 지내게 된다네, 만약 그가 지배하는 나라의 상태와 비슷하다면 말일세. 그런데 사실은 비슷하다네. 그렇지?"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게다가 이것들 말고도 우리가 앞서 말한 것들[5]을 이 사람에게 돌려야 할 텐데, 즉 그는 불가불 질투심이 많고 의리 없고 부정하고 친구도 없고 불경(不敬)하고 온갖 악을 받아들여서 키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지배권으로 인해 더욱더 그런 인간이 되어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모든 결과로 누구보다도 우선 그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걸세."

"사리를 분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마치 연극의 심사위원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듯이, 자네 역시 자네 의견에 따르면, 행복이라는 점에서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그 밖의 사람들도 차례로 판정해 주게나. 합해서 다섯 사람인데, 즉 군주 지배체제적인 사람, 명예 지배체제적인 사람,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 민주체제적인 사람, 그리고 독재체제적인 사람이라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 판정이라면야 쉽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왜냐하면 마치 가무단의 차례를 정하듯이 덕과 악덕, 행복과 불행이라는 점에 관해서 그들이 무대에 등장한 바로 그 차례대로 저는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행담당자를 고용하도록 할까? 아니면 내 스스로 이렇게 공표를 할까? 즉, 아리스톤[6]의 아들은 판정하기를, 가장 훌륭한 사람[7]이면서 가장 올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군주체제적이며, 자기 자신을 군주로

8. 나라와 개인이 비슷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증명. 즉, 國家論的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9. 영혼 3분설을 근거로 하는 증명. 영혼론적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 제4권 436a 이하 참조.

써 지배하는 사람이고, 한편 가장 나쁘고 가장 부정한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가장 독재체제적인 데다가 제 자신과 나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독재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렇게 공표해 주십쇼"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 공표에다 덧붙여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나 신들에게 알려지건 말건 역시 그렇다고 해도 좋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 공표에다 그렇게 덧붙여 주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7. "자, 그럼 됐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겐 하나의 증명[8]이 되겠지만, 다음엔 두 번째의 증명[9]을 보아 주게.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지 어떤지 말일세."
"그게 무엇인데요?"
"마치 나라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듯이 각 개인의 영혼도 그렇게 셋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또 다른 증명이 허용되리라고 내겐 생각되네" 하고 내가 말했네.
"뭣입니까, 그건?"
"그건 이걸세. 영혼의 부분이 셋이니까 쾌락에도 하나하나의 부분에 각각 고유한 것이 하나씩 셋이 있다고 내겐 생각되네. 욕망과 지배도 그와 마찬가질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우리의 주장으로는 영혼의 한 부분은 사람이 그것으로써 배우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써 노여움을 느끼는 부분[10]이었는데, 셋째 부분은 여러가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맞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자체 안에 있는 가장 주요하고 가장 강한 것을 그 부분의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기로 했던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먹을 것이라든가, 마실 것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그밖에 그것들에 곁따르는 것들에 대한 욕망의 극성스러움에 따라 우리는 그 부분을 욕망적 부분이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또 돈을 사랑하는 부분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그 욕망이 무엇보다도 돈으로 충족되기 때문이라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또,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사랑은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얘기에서 이것을 하나의 특성으로 가장 잘 마무리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영혼의 이 부분을 말할 때 그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 밝혀질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득을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부른다면 옳게 부르는 것이겠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떻겠나, 기개적(氣槪的) 부분에 관해서는 늘 그 전체가 지배와 승리와 명성으로 기울어진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 그것을 승리를 사랑하는 부분이라든가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부른다면 적절한 것이 아닐까?"
"지극히 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써 배우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분명하듯이, 그 전체가 늘 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며, 돈이라든가 명성 따위에는 세 부분 중에서 가장 관심이 없는 부분일세."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걸 사랑하는 부분이라든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부른다면 적절하게 부르는 것이 되겠지?"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영혼 안에서는 이 부분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서는 다른 두 부분 중에서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어느 하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바로 그런 까닭으로 하여 우리는 또 인간의 가장 주요한 부류로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승리를 사랑하는 사람,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 등의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린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종류도 셋으로서 사람의 그 각 종류 밑에 놓여 있겠지?"
"과연 그렇군요."
"그러니 자네도 아다시피, 만약 자네가 그런 세 가지 사람을 향해서, 그 각 사람에게 차례로 그런 생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우냐고 묻게 된다면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활을 가장 칭찬하겠지? 돈벌이를 일삼는 사람은 이익을 얻는 것과 비교하여 명예를 얻는 즐거움이라든가 배우는 즐거움 따위는 그런 것이 얼마만이라도 돈이 된다면 모르되, 전혀 아무 값어치도 없다고 말하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는 돈에서 얻는 쾌락을 뭔가 비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 배움에서 얻는 쾌락은 학식이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바에야 그저 연기라든가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야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쾌락이라든가 배우면서 늘 뭔가 앎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쾌락과 비교해서 그밖의 다른 쾌락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린 상상해야 할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런 딴 쾌락들이 불가피한 것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그에겐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마지못한 쾌락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그가 말하더군.

8. "그렇다면 각 종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생활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느 편이 더 아름답고 또는 더 추한 것인가, 더 선하고 또는 더 악한가 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편이 더 즐겁고 괴로움이 더 적은가 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을 때, 그들 중에서 누구의 말이 가장 참된가를 우리로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저로서는 전혀 말할 수가 없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나. 훌륭하게 판단되기 위해선 무엇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까? 경험과 지성과 논증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것들보다 더 훌륭한 판단 기준이 뭔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죠,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위의 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쾌락에 걸쳐서 가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배워서 알게 됨으로써 얻어 경험하는 즐거움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데서 생기는 쾌락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자네에겐 생각되는가?"
"거기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왜 그러냐 하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른 두 가지 쾌락을 다 맛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물의 참다운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맛보거나 경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설사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해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쾌락을 다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월등 차이가 있네"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 월등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떨까? 과연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를 갖는 쾌락에 경험이 없는 것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명예를 갖는 쾌락에 훨씬 더 경험이 없을까?"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명예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가 목표로 해서 노력해 온 것을 이루어 낸다면, 그들 누구에게나 저절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부자도 용기 있는 사람도 지혜있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11. 제9권 582a 참조.

있으니까요—따라서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 쾌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존재를 관상(觀想)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가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러고 보니, 경험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판단하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죠."

"게다가 그 경험에 지성이 따르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일 걸세."

"물론 그렇죠."

"그런데 또, 판단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도구는 결코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의 도구도 아니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의 도구도 아니며, 오히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도구일세."

"그 도구란 무엇입니까?"

"판단은 논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11]고 우린 말했을 걸세. 그렇지?"

"예."

"그런데 논증은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도구일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富)나 이득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야말로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간에 가장 참된 것이 아닐 수 없을 걸세."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또, 만약 명예나 승리나 용기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명예와 승리를 사랑

12. 국가론적 증명(제9권 577c~580c)과 영혼론적 증명(제9권 580d~583a)을 말함.

13. 잔치 같은 데서, 셋째 잔은 으레 主神인 제우스신께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첫 잔은 올림포스의 제우스와 다른 신들에게, 둘째 잔은 英雄神들에게 바친다. 또 올림픽의 씨름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세 번 넘어뜨려야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결정적인 경기 이다.

하는 사람의 판단이 가장 참된 것이 되지 않겠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판단은 경험과 지성과 논증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지혜와 논증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칭찬이야말로 가장 참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쾌락 중에서 우리가 그것으로써 배우는 영혼의 부분이 갖는 쾌락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것일 게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중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내부에서 지배하고 있는 자의 생활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것이겠지?"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어쨌거나 사려가 있는 지성인이 자기 생활을 칭찬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자는 어떤 생활과 어떤 유형의 쾌락이 그 다음 가는 것이라고 말할까?" 하고 내가 말했네.
"분명히 그는 전쟁을 좋아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의 쾌락이 그 다음가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 쾌락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쾌락보다 그에게 더욱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의 쾌락이 맨 아래일 것 같군."
"물론이죠" 하고 그는 말했네.

9. "그렇다면 위의 두 가지 점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의로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계속해서 두 번 이겨낸 셈일세.[12]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는 올림픽 경기를 본떠서, 구주(救主)이자 올림포스의 신인 제우스를 위해서[13] 정신차려 보아 주게. 즉, 사려 깊은 지성인의 쾌락은 말고, 딴 사람들의 쾌락은 결코 전적으로 참다운 것도 순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림자로 그럴싸하게 그려 낸 그림과 같다는 것을 말일세. 이걸 나는 지혜있는 사람들 중의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긴 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진다면 이건 부정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패배일 걸세."
"과연 그렇군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 걸세. 즉, 자네가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면서 함께 탐구한다면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럼 물으시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대답해 주게" 하고 내가 말했네. "고통은 쾌락의 반대라고 우린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또,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그것들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것들에 관해서는 영혼의 정지상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겠나, 자넨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자네는 병자들이 병에 시달릴 때 입에 올리는 말을 기억하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떤 말인데요?"

"건강한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지만 병이 들기 전에는 건강이 가장 즐거운 것임을 느끼지 못했었다, 이런 말일세."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또 어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그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자넨 들은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론, 사람들이 그밖에도 이것과 비슷한 많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자넨 알 걸세. 즉,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가장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것, 즉 그런 괴로움이 멈추는 상태이지 결코 다른 기쁨이 아닐세."

"그야 그런 때는 괴로움이 멈춘 상태가 아마 즐겁고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또, 기쁨이 멈췄을 때는 이번엔 그 상태가 괴로운 것이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아마 그렇겠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그 양쪽의 중간 상태라고 말한 것, 즉 멈춘 상태는 때로는 고통도 되고 때로는 쾌락도 될 걸세."

"그런 것 같군요."

"그러나 어느 쪽도 아닌 것이 그 양쪽의 어느 것이 된다는 일이 도대체 가능할까?"

"가능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쾌락이나 고통은 영혼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일종의 움직임일세. 그렇지 않은가?"

"옳습니다."

"그런데 고통도 쾌락도 아닌 것은 확실히 영혼이 멈춘 상태이고, 그 둘의 중간에 있다는 것은 방금 밝혀지지 않았던가?"

"그렇죠,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워하지 않는 것을 쾌락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찌 옳은 생각일 수 있겠나?"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멈춘 상태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괴로움과 나란히 비교되면 즐거움으로 보이고, 즐거움과 나란히 비교되면 괴로움으로 보인다는 것뿐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는 쾌락의 진실성이라는 것으로 보아, 건전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일종의 요술에 지나지 않는 것일세."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논의가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어디 한번, 고통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닌 쾌락을 보아 주게나. 자네가 이 당장에 자칫 쾌락이란 고통이 그치는 것, 고통이란 쾌락이 그치는 것이 그 본래의 성질인 듯이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도대체 어딜 보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쾌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 쾌락은 그밖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자네가 냄새에 관한 쾌락을 생각해 준다

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일세. 왜 그런고 하니, 냄새의 쾌락은 먼저 고통이 앞서지 않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갑자기 생기고, 또 그친 뒤에도 아무런 고통을 남기지 않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대로 순수한 쾌락이고,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순수한 고통이라고는 믿지 않도록 하세."
"네, 그렇게 하죠."
"그렇긴 하네만, 육체를 거쳐서 영혼에까지 이르는 이른바 쾌락은 거의 그 대부분이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이 종류에 속하고 있거니와, 그것이 즉 고통으로부터의 일종의 해방이라고 불릴 만한 것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쾌락이나 고통에 앞서서, 그것에 대한 기대에서 생기는 예상된 쾌락이나 예상된 고통 역시 이것들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네.
"같은 것입니다."

10. "그런데 그런 쾌락이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과 비슷한지 자넨 알고 있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무엇과 비슷합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자연에는 뭔가 위와 아래와 한가운데라고 할 것이 있음을 자넨 인정하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낮은 곳에서 중간으로 옮겨지고 있을 때, 자기는 높은 데로 옮겨지고 있다고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리고 중간에 서서 자기가 옮겨져 온 그곳을 내려다볼 때, 그가 사실상의 높은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자긴 지금 높은 곳에 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넨 생각하나?"
"제우스께 맹세코, 그런 사람은 결코 달리는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만약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옮겨진다면, 그는 낮은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 생각은 옳은 것이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물론이죠."

"그에게 그런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높은 곳에 있고 중간에 있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진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많은 일에 관해서도 건전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쾌락이나 고통이나 그것들의 중간 상태에 관해서도 그들이 고통 쪽으로 옮겨져 갈 때는 참되게 생각하고 정말로 괴로움을 느끼지만, 한편 고통으로부터 중간 상태로 옮겨져 갈 때는 만족과 쾌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아주 믿어버리겠지. 마치 흰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잿빛과 검정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들도 참된 쾌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를 고통과 비교해 보고서 쾌락이라고 속고 마는데 자넨 그걸 이상히 여기는가?"

"아닙니다. 제우스에 맹세코, 결코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게 훨씬 더 이상하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내가 말했네. "굶주림이라든가 목마름이라든가 그런 따위의 것들은 신체에 있어서의 비어 있는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지?"

"물론이죠."

"다른 편, 즉 무식과 어리석음 역시 영혼에 있어서의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먹을 것을 먹는 사람과 지(知)를 얻는 사람은 그 빈 상태가 채워지는 것이겠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존재하는 것으로 채워질 경우와 보다 덜 존재하는 것으로 채워질 경우와 그 어느 쪽이 더 참되게 채워지는 것일까?"

"그야, 분명히 보다 더 존재하는 것으로 채워질 경우겠죠."

"그렇다면 자네는 다음의 어떤 종류의 것이 순수한 존재의 몫을 더욱 많이 차지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를테면,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반찬 등 일반적으로 영양물의 종류일까, 아니면 참된 생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그리고 요컨대 모든 덕성의 종류일까? 다음과 같이 해서 판단해 주게나. 늘 동일하고 죽지 않는 존재와 진리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자체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성질을 가진 존재 안에서 생겨나는 것, 아니면 잠시도 동일한 모습을 지니지 않는 죽은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자체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존재 안에서 생겨나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보다 더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야, 늘 동일한 존재에 관련된 것 쪽이 훨씬 탁월하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늘 동일하게 있지 않은 것이 가지고 있는 실재성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실재성보다 실재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가, 진리의 몫을 차지하는 정도는?"

"그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몫을 차지하는 정도가 적다면, 실재의 몫을 차지하는 정도도 보다 더 적겠지?"

"그야 불가불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체에 이바지하는 것에 관계되는 종류의 것은 영혼에 이바지하는 것에 관계되는 종류의 것보다 진리와 실재의 몫을 차지하는 정도가 적다는 것이겠지?"

"그렇죠, 훨씬 적죠."

"그리고 신체 그 자체는 영혼과 비교해서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존재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자체보다 더 존재하는 것

14. 영혼에 있어서의 知性的 思惟의 부분.

은 보다 덜 존재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자체보다 덜 존재하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실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죠."

"그러니, 만약 자기의 본성에 맞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정말 채워지고 또 보다 더 존재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참다운 쾌락으로 우리를 보다 더 정말 그리고 보다 더 참되게 즐기도록 해주는 것이겠지만, 한편 보다 덜 존재하는 것의 몫을 차지하는 것은 보다 덜 참되게, 보다 덜 확실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고, 보다 더 의심스럽고 보다 덜 참된 쾌락의 몫밖에는 차지하지 못할 걸세."

"가장 필연적인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사려와 덕에는 경험이 없으면서도, 술잔치라든가 그런 따위에 늘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낮은 데로 옮겨졌다가는 다시 가운데로 옮겨지고 해서 평생을 통해서 내내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 나가서 참다운 위쪽은 아직 결코 쳐다본 적도 없고, 거기까지 옮겨져 올라간 일도 없고, 또 참다운 존재로 정말 채워진 적도 없고, 확실하고 순수한 쾌락을 맛본 일도 없고, 오히려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늘 아래만 보고, 땅바닥이나 밥상에 머리를 떨구고, 먹이를 배부르게 먹고 교미를 하거나 하되, 그런 것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쇠 같은 뿔이나 발굽으로 치고 받고 해서 그칠 줄 모르는 욕망에 쫓겨 서로 죽이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들은 정말 존재하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진 못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참으로 존재하는 부분, 즉 꼭 지키고 새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14]을 채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일세."

"참으로 완벽하게, 소크라테스 님, 신탁(神託) 같은 말투로 대중의 생활을 그려내

15. 스테시코로스(Stesikhoros): 기원전 6백 년 전후에 생존했던 서정시인(그의 이름은 '歌舞團의 설립자'라는 뜻이다). 작품 속에서 헬레네를 좋지 않게 말했다가 벌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되었는데 다시 그 말을 고쳐, 트로이아로 간 것은 헬레네 자신이 아니라, 그 허깨비라고 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셨군요" 하고 글라우콘은 말하더군.

"그렇다면 또, 불가불 그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갖가지 쾌락이란 것도 고통과 섞인 쾌락에 지나지 못하고, 참다운 쾌락의 허깨비이고, 그림자로 그럴싸하게 그려낸 그림과 같은 것이고, 그런 쾌락은 고통을 나란히 놓고서 색칠한 것이라서 양쪽 다 두드러지게 보이고, 자기 자신에게 대한 미친 듯한 정욕을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다 낳아 놓고서 이 허깨비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된다네. 마치 스테시코로스[15]가 말했듯이, 트로이아의 싸움터에서 사람들이 진상을 몰랐기 때문에, 헬레네의 허깨비를 놓고 서로 싸웠던 것처럼 말일세."

"그것이 그런 것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11. "그런데 어떻겠나? 기개(氣槪)의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이것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잖을까? 만약 누군가가 이지(理智)와 지성을 무시하고, 명예와 승리와 노여움으로 만족하기만을 추구하면서 명예를 사랑하기 위해선 시새움으로, 승리를 사랑하기 위해선 폭력으로, 그의 고약한 성미를 위해선 노여움으로, 이 기개의 부분의 뜻을 이루게 한다면 말일세."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우린 마음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이득을 사랑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승리를 사랑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갖는 욕망이 지식과 이치에 따라 이것들과 함께 쾌락을 추구하면서 지적인 부분이 인정하는 쾌락만을 받아들인다면, 그 경우에 그 욕망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참된 쾌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욕망들 자신에 원래 어울리는 쾌락을 받아들이게 될 것일세. 만약 각각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또한 가장 어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고 말일세."

"과연 그건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16. 우수자 지배체제에 있어서의 철인군주(哲人君主)를 말한 것.

"그러고 보면, 영혼 전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에 따르고 있어서, 거기에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없을 경우에 각 부분은 다른 모든 것에서도 제 자신의 일을 이루어내면서 올바른 것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쾌락에 관해서도 각자가 원래 자기에게 어울리고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참된 쾌락을 누릴 수가 있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 중의 어느 하나가 권력을 잡게 될 경우에는, 그건 제 자신에게 어울리는 쾌락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고 참되지 않은 쾌락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게 된다네."

"그건 그렇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런데 지혜의 사랑과 이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런 일을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것이 아닐까?"

"과연 그렇죠."

"그리고 법과 질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이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과 질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애욕적이고 독재자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아까 밝혀지지 않았던가?"

"과연 그렇죠."

"다른 편, 즉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군주적이고 규율 있는 욕망이었지?"

17. 군주적 쾌락, 명예 지배체제적인 인간의 쾌락, 소수 지배체제적인 인간의 쾌락.

18. 제9권 573d 이하 참조.

"예."

"따라서 내 생각으론, 참되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쾌락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독재자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군주[16]일 걸세."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독재자의 생활은 가장 불쾌한 것이고, 군주의 생활은 가장 즐거운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정녕 그럴 수밖에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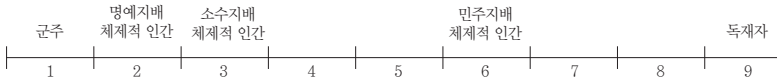
"그런데 독재자는 군주보다 얼마만큼이나 불쾌한 생활을 하는지 자넨 알고 있는가?" 하고 내가 말했네.

"말씀해 주신다면야 알게 되겠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내가 보기엔 세 가지 쾌락[17]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둘은 가짜인데, 독재자는 법과 이치를 벗어나 그 가짜의 저 편까지 넘어 나가서 일종의 노예의 경호원[18] 같은 쾌락과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등한가를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세.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네." "어떻게요?" 하고 그가 말했네.

"독재자는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에게서 멀리 있었던 셋째 번의 사람일 걸세. 왜

19. 3×3=9. 쾌락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4 · 5 · 7 · 8은 각각 그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아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20. 그리스인들은 흔히 수를 공간적으로 나타냈다. 이 경우에는 3×3=9 라는 정사각형수.

21. (9×9)×9=729

그런고 하니, 그 둘 사이에 민주체제적인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다면 독재자가 함께 하고 있는 쾌락이란 것도 참다움이라는 점에서는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으로부터 멀리 셋째 번에 있는 쾌락의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만약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말일세."

"그렇죠."

"그런데 그 소수 지배체제적인 사람이란 것 역시, 군주체제적인 사람으로부터 멀리 셋째 번 자리에 있다네. 만약 우수자 지배체제적인 사람과 군주체제적인 사람이 같다고 한다면 말일세"

"그렇죠, 셋째 번이죠."

"그래서 독재자를 수(數)로 나타내면 셋의 세 배만큼 참다운 쾌락으로부터 멀리 있는 셈일세"[19]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것 같군요."

"따라서 독재자적 쾌락의 허깨비는 길이를 재는 수로는 아무래도 평면수[20]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네"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제곱하고 세곱한다면,[21] 독재자가 군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는 분명하게 되네."

"분명합니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만약 그와 반대로 군주가 독재자로부터 쾌락의 참다움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그 곱셈을 완성시킴으로써 군주는 7백 27배나 더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또 독재자는 그것과 똑같은 거리만큼 더 괴

22. 729 = 364½ × 2인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필롤라우스(Philolaus)는 1년을 364½의 낮과 364½의 밤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29월을 大年, 729년을 최대년이라고 했으리라 한다. 요컨대 군주는 독재자에 비해서 일생의 온 날과 온 밤을 즐거운 생활로 지낸다는 뜻이겠다.

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걸세."
"이거 참, 엄청난 계산을 벌여 놓으셨습니다. 두 사람, 즉 정의의 사람과 부정한 사람 사이에 쾌락과 고통이라는 점으로 보아 얼마나 다른가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하지만 이건 참다운 수이고 사람의 생활에 깊이 관계되는 수일세. 만약 낮과 밤과 달과 해(年)가 사람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22]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깊이 관계 되고 있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만약 쾌락이라는 점에서 선하고 바른 사람이 악하고 부정한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뛰어나다면, 생활에 있어서의 품위와 아름다움과 덕성이란 점에서는, 그 승리는 더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되지 않을까?"
"제우스께 맹세코, 헤아릴 수 없지요" 하고 그가 말했네.

12. "그건 그렇다 하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우리의 논의가 이 점에까지 왔으니, 애초에 얘기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도록 하세.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것 때문이었으니까. 얘기가 된 것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면서도 정의롭다는 세평(世評)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네. 어떤가, 이렇게 얘기됐던 것이 아닌가?"
"과연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우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누세. 부정한

23. 키마이라(Khimaira): 머리는 사자, 허리는 염소, 꼬리는 용인 괴물.
24. 스킬라(Skylla): 여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에 여섯 개의 개(犬)머리와 열둘의 다리를 가진 괴물.
25. 케르베로스(Kerberos): 세 개의[1] 개, 머리와 용의 꼬리, 등에는 갖가지 뱀의 대가 리를 가진 괴물.
26. 영혼의 세 부분 중에서 욕망적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제4권, 442a 참조).
27. 둘째 번은 사자.

행실과 정의로운 행실과, 그 각각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관해서 합의를 보았으니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할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영혼의 한 초상(肖像)을 말로 형성하는 걸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말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이야."

"어떤 초상입니까?" 하고 그는 말했네.

"옛날 얘기에서 괴물이라고 불리어지는 성질을 가진 것들 중의 하나일세. 키마이라[23] 라든가, 스킬라[24] 라든가, 케르베로스[25] 따위인데, 그밖에도 나면서부터 여러 짐승의 모습이 하나로 붙어 있는 괴물이 많았다고들 하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렇게들 말하고 있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서로 섞이고, 많은 수의 머리를 가진 짐승의 꼴을 하나 만들어 주게. 그리고 둘레에 달려 있는 여러 머리 중에는 길들인 짐승의 것도 있고, 사나운 짐승의 것도 있고, 게다가 그 모든 것들을 변케하기도 하고, 자기 속에서 생겨나게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그건 상당히 재주가 있는 조형가(造形家)의 일거리로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납이나 그런 따위의 재료로보다는 말로 만드는 편이 더 쉬우니까, 이미 만들어진 셈치죠."

"그렇다면 그것과는 따로 사자의 꼴 하나와 사람의 꼴 하나를 만들어 주게나. 다만 맨 먼저 것[26]이 엄청나게 크고 둘째 번 것[27]이 그 다음으로 크게 해주게."

"이번 일은 먼저 번 것보다 쉽습니다. 자,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 꼴을 하나로 붙여서 어떻게든 그것들이 서로 한데 붙어서 태어난 것처럼 해주게나."

"하나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들의 둘레에 밖으로부터 하나로 된 것의 초상, 즉 인간의 초상을 만들어서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그저 겉의 덮개만을 보는 자에게는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이도록 해 주게."

"둘레에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면 이 인간에게는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이 이롭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주장하는 뜻은 바로 이렇다는 걸 일러 주세나. 즉, 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짐승이나, 사자나, 그런 류에 속하는 것들을 잘 먹여서 강하게 하는가 하면, 다른 편 인간은 굶주리게 해서 약하게 하고, 짐승들 중의 어느 것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그대로 끌려 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두 짐승끼리 서로 친숙하거나 화합하게 두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들끼리 물고 뜯고 해서 서로 잡아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말일세."

"아닌 게 아니라, 부정을 칭찬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일테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한편 정의가 이롭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것이 아닐까? 즉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내적인 인간이야말로 인간 전체를 가장 잘 지배해서 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을 돌보아 주고, 마치 농사꾼이 하듯이 온순한 것은 키워서 길들이고, 거센 것은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사자의 족속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그 짐승들을 자기들끼리든 인간에게 대해서든 화합하도록 해 놓고서, 그 모든 짐승들에다 다같이 고르게 마음을 쓰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 말일세."

"그렇죠. 정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점으로 보아서, 정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되고, 부정을 칭찬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될 걸세. 왜냐하면 쾌락이란 것을 생각해 보아도, 또는 명성이나 이익이란 것을 생각해 보아도, 정의를 칭찬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정의를 헐뜯는 사람의 말은 조금도 건전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헐뜯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헐뜯고 있기 때문일세."

"그렇죠, 알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28. 에리필레(Eriphyle): 《오디세이아》 XI, 326 참조.

29. 氣槪의 부분의 여러 형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를 부드럽게 타이르기로 하세나—일부러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이렇게 물으면서 말일세. '여보게, 흔히들 훌륭하다거나 추하다고 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해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훌륭하다는 것은 내적인 인간 밑에다, 아니 오히려 신적인 것의 밑에다 우리 본성의 짐승 같은 부분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추하다는 것은 점잖은 부분을 짐승 같은 부분 밑에다 굴종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일세. 그는 찬성하겠나, 그렇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겠나?"

"제 말을 들어 준다면야 찬성할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런 말로 보아서, 누구든 부정하게 돈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돈을 받으면, 그 결과로서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을 가장 나쁜 부분의 노예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데 말일세. 아니면, 만약 돈을 받고서 아들이나 딸을 노예로 그것도 사납고 악독한 인간들의 노예로 만드는 일이 있다면, 설사 그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의 이익은 되지 못할 걸세. 그런데도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신적인 것을 가장 신적이 아니라 가장 더럽혀진 부분의 노예로 하면서도, 조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과연 그는 비참한 인간이 아닐까? 또 남편의 목숨과 맞바꿔서 목걸이를 받은 에리필레[28] 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멸을 조건으로 해서 황금의 뇌물을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훨씬 더 무서운 파멸입니다" 라고 글라우콘이 말했네. "제가 그자를 대신해서 대답해 드린다면요."

13. "그리고 또 방종이라는 것이 예부터 비난받고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즉, 여러 가지 꼴을 가진 저 무섭고 거대한 짐승이 주제넘게 해방

30. 제1권 343a 이하 참조.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그렇죠" 하고 그가 말했네.
"또 억지와 까다로움이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사자 같은 부분이나 뱀[29] 같은 부분을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크게 키워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또, 사치나 우유부단이 비난받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늦추어서 늘어지게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 부분 안에다 비겁함을 심어 넣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입니다."
"또, 아첨이나 비열함이 비난받는 것은 같은 그 부분, 즉 기개(氣槪)의 부분을 저 떼거리 같은 짐승 밑에다 굴종시켜 돈 때문에 그리고 그 짐승의 탐욕 때문에 젊어서부터 굴욕을 참으면서 사자 대신에 원숭이가 되도록 길을 들일 경우가 아닐까?"
"그렇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또 천박한 수공의 일이라든가 손끝으로의 일이 어째서 비난받는다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부분이 나면서부터 약해서 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지배할 힘이 없고, 도리어 그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오직 그것들의 비위나 맞추는 걸 배우는 것밖엔 힘이라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린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도 역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과 똑같은 부분에 의해 지배되기 위해서 그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자기 속에 신적인 지배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린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나? 다만 우린, 트라시마코스가 피지배자라는 것에 관해서 생각했듯이[30] 그가 자기의 손해 때문에 종으로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

31. 제2권 361a, 365c 이하 참조.

히려 신적인 것과 사려의 지배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도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바람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밖으로부터 부여되는 사려도 그렇게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건 우리 모두가 같은 것으로 이끌려감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닮은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한 것이라네."

"그건 확실히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분명히 법률이란 것도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편으로서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네. 애들을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진데, 즉 그것은 그들 속에, 마치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나라체제를 세우기까지는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질 않고, 그들 내부에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을 우리 내부에 있는 가장 좋은 부분으로 양육해서, 그들 안에다 똑같은 방위자와 지배자를 우리 대신으로 확립해 주고서,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자유롭게 풀어 주는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건 분명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면 글라우콘, 도대체 우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무슨 이유로, 부정한 짓을 한다든가 방종하고 뭔가 추잡한 짓을 한다는 것이 이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 그런 행실로 돈이나 그밖의 힘을 더욱 많이 손에 넣을 순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더욱 악한 인간이 된다면 말일세."

"결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네.

"그리고 또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남에게 들키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이롭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을까?[31] 들키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 악한 사람이 되지만, 한편 들켜서 벌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짐승 같은 부분이 잠들어서 얌전하게 되고, 그 점잖은 부분은 자유롭게 풀려나며, 그렇게 하여 영혼 전체는 가장 훌륭한 본성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더불어 절제와 정의를 얻고 가치있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 상태는 신체보다 영혼이 더

32. 여기서 음악가(mousikos)란 음악 · 문예의 교양을 갖춘 교양인을 말한다.

욱 가치가 있는 것이니만큼 건강과 함께 힘과 아름다움을 이룬 신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통해서 자기의 온갖 힘을 이 목적에다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즉, 우선 그의 영혼을 그런 것으로 만들어주는 학문은 존경하지만, 그밖에 다른 학문은 업신여기고 말일세."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다음에, 그런 사람은 신체의 습성이라든가 양육을 짐승 같고 비합리적인 쾌락에다 맡겨서, 그 방향으로만 얼굴을 돌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건강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일도 없고, 또 어떻게 하면 강력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가 하는 따위도 거기서 사려의 건전함을 얻음직하지 않는 한 각별히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가 영혼 내부의 협화(協和)를 위해서 늘 신체에 있어서의 조화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야 그렇고 말고요. 그가 참다운 음악가[32]가 되려고 한다면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또, 재물을 얻는 일에서 질서와 평화를 다루려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닐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기에 눈이 어두워 재물을 끝없이 쌓아올려서, 역시 끝없는 앙화(殃禍)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하지는 않겠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오히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나라체제에 눈을 돌려서 자기의 나라체제 안에 있는 것을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금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배를 조종하면서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축내기도 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갖가지 명예라는 점에서도 그는 같은 목적을 주시하면서, 자기를 한결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되는 명예라면 자진해서 참여하고 누리겠

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 안에 확립된 습성을 뒤흔들 것 같이 생각되는 명예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피할 걸세."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나랏일 보기를 자진해서 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만약 지금 말한 것을 그가 걱정한다면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아니지, 개에 맹세코, 자기 자신의 나라에서라면 확실히 그는 마음이 내킬 걸세. 다만 자기가 태어난 현실의 나라에선 안 그럴 걸세. 뭔가 신적인 일이 마침 그런 기회를 준다면 또 몰라도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하면서 세워온 나라, 즉 언어상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라면이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적어도 땅 위에는 아무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아마 이상적인 본(本)으로서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 속에다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봉헌되고 있을 걸세. 하지만, 사실상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장차 있게 될는지 어떤지 그건 아무래도 좋은 일일세. 왜 그런고 하니, 오직 그런 나라의 일에만 그는 참여하려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일에는 참여하려는 게 아니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제 10 권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참으로, 우리의 이 나라에 관해서는 다른 많은 점에서도 전적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세워 왔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나는 시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싶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하더군.

"시 속에는 모든 모방적인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생각컨대 영혼의 각 부분을 따로따로 구별짓고[1] 보니, 모방적인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젠 전보다 더 분명해지는 것 같기 때문일세."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네만—자네들은 비극작가나 그밖에 다른 모든 모방자들에게 나를 일러바치진 않을 테니까—아무래도 그런 따위의 것들은 모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다 해독을 끼치는 것 같네. 만약 그런 것들이 원래 어떤 것인가 라는 지식을 청중들이 해독제로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일세."

"도대체 어떤 의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털어놔야겠군" 하고 내가 말했네. "하기야 어려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는 호메로스에의 사랑과 숭배가 말하는 걸 가로막곤 있네만. 아닌 게 아니라, 호메로스야말로 그 모든 훌륭한 비극작가들 중에서 최초의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한 인간이 진리보다 더 존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네. 그러나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걸 털어놔야겠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들어 주게, 아니 차라리 대답해 주게나."

"물으시죠."

"자넨, 도대체 모방이란 일반적으로 무엇인지 내게 말해 줄 수 있겠지?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실은 나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네."

1. 제4권 436a~441c, 제5권 580d~581c 참조.

"그러시다면, 저라는 사람은 그걸 꼭 알 것이라는 건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야, 조금도 이상할 건 없을 걸세. 시력이 강한 사람보다 시력이 약한 사람이 더 먼저 보는 수가 흔히 있으니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그렇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하지만 설사 제게 무엇인가 보였다 하더라도 선생님 앞에서는 얼른 그걸 말할 마음이 내키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직접 보아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쓰던 방법에 따라서 다음 것부터 고찰을 시작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같은 이름을 붙이는 많은 것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 각각의 경우에다 뭔가 하나의 '에이도스'라는 것을 세우는 습관이 있을 것이니 말일세.[2] 어떤가, 모르겠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든 자네가 원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세. 예컨대, 괜찮다면, 많은 침상이나 많은 식탁이 있다고 하세."
"물론이죠."
"그런데 그 가구들에 관해서는 '이데아'가 둘 있을 걸세. 하나는 침대의, 하나는 식탁의—" "예."
"그런데 또, 그 두 가구의 각각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그 '이데아'에 주목하면서 한 쪽은 침상을 만들고 다른 쪽은 식탁을 만들되, 그 제품들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다른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말하곤 했지? 왜 그런고 하니, '이데아' 그 자체를 만드는 제작자란 그들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일세. 도대체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결코 만들 수 없지요."
"한데, 다음과 같은 제작자를 자네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게."

2. 이 문장은 '이데아'론의 사상을 가장 육약해서 나타낸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제작자인데요?"

"갖가지 수공업자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건 다 만드는 사람 말일세."

"굉장히 놀랄 만한 사나이를 말씀하시는군요."

"잠깐만 기다리게나. 자넨 곧, 더욱 더 그렇게 말할 걸세. 왜냐하면 이 동일한 수공업자는 모든 가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만들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모든 동물을 만들고, 게다가 땅과, 하늘과, 신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 저승에 있는 온갖 것을 만든다네."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한 지자(知者)를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그가 말했네.

"못 믿겠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내게 말해 주게. 이런 제작자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방금 말한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가? 또는 자네 자신도 어떤 방식으로는 그런 것을 다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자넨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어떤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건 어려울 것 없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빠른 방법은 거울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 볼 생각이 들면 되네. 그렇게 하면 자넨 당장에 태양도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어 낼 수 있겠고, 또 당장에 땅과 자네 자신이나 다른 동물을, 가구를, 초목을 그리고 지금 말한 모든 것을 만들어 낼 걸세" 하고 나는 말했네.

"예,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만들겠죠. 하지만, 결코 정말로 있는 것은 아니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훌륭하군! 마침 자네가 논의를 돕고 있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화가도 역시 그런 제작자일 테니까. 그렇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론, 자넨 화가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건 참다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걸세. 단, 어떤 방식에서는 화가 역시 침대를 만드네만. 안 그런가?"

"예, 그도 역시 침대로 보이는 것을 만들죠" 하고 그가 말했네.

2. "침대를 만드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그는 우리가 참다운 침대 그 자체라고 말하는 침대의 '에이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침대를 만든다고 자네는 좀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대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만드는 것은 참다웁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뭔가 그 있는 것을 닮고는 있지만, 정말로 있는 것은 아닐세. 침대를 만드는 사람의 제품이건 또는 누군가 다른 수공업자의 제품이건 그것을 완전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이 아니겠지?"

"결코 아니죠. 적어도 이런 종류의 논의에 관해서 익숙한 사람들의 견해에 따른다면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런 제품이 참다운 것과 비교해서 뭔가 희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결코 놀라지 않기로 하세."

"결코 놀라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어떻겠나? 바로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모방하는 자란 대체 무엇인지 탐구해 보기로 할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래도 좋으시다면"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침대가 있네. 하나는 자연에 있는 것[3] 인데, 그건 내가 생각하기엔 신이 만든 것이라고 우린 주장할 걸세.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을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목수가 만든 것일세."

"예" 하고 그는 말했네.

"또 하나는 화가가 만든 것일세. 그렇지?"

3. 本性 또는 實在, 즉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는 것.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면 화가와 침대 제작자와 신(神), 이 셋이 침대의 세 가지를 주관하는 자일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은, 그가 자연에다 침대를 하나보다 더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았건 또는 하나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는 안될 무슨 필연성이 있었건, 어쨌든 정말 그 자체로 있는 침대는 단 하나만 만드셨네. 그리고 그런 침대가 둘 또는 그보다 많이 신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일은 없었고 또 거기서 생기게 되는 일도 결코 없을 걸세."

"어째서 그럴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건 말일세, 만약 신이 다만 둘이라도 만드신다면 다시 하나의 침대가 새로 나타나서 그것의 '에이도스'를 앞서의 침대 둘이 함께 갖게 될 것인데, 이 새로운 하나의 침대야말로 바로 침대 그 자체이고, 앞서 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따라서 내 생각으로 신은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침대를 만드는 어떤 특정한 제작자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침대의 정말 제작자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침대는 단 하나만을 만들어 내셨다네."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 신을 우리는 그 침대의 자연적 제작자, 또는 뭔가 그런 따위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할까?" 하고 내가 말했네.

"어쨌든 그건 정당합니다. 그 침대든 그밖에 다른 모든 것이든 신께서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만드셨으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목수는 어떨까? 침대의 제작자겠지?"

"예."

"그럼 또 화가도 역시 그런 것의 제작자요, 만드는 이라고 불러야 할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화가를 침대의 무엇어라고 말할 셈인가?"

"적어도 저로서는 이렇게, 즉 제작자들이 만드는 것을 모방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럼 됐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자넨, 자연으로부터 셋째 번 제품을 만드는 자를 모방자라고 부르는 것이겠지?"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고 보면 비극작가 역시 만약 그가 모방자라면 본바탕으로 보아 이것, 즉 진리라는 왕으로부터 세 번째로 생겨난 자가 되겠고, 다른 모든 모방자들도 마찬가질세."

"그럴 것 같군요."

"그렇다면 모방자에 관해서는 우린 합의를 보았네." 한데, 화가에 관해서 다음 것을 내게 말해 주게나. 도대체 화가는 그 자연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모방해 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제작자들이 만든 제품을 그렇게 해 보려는 것인가? 자넨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작자들이 만든 제품 쪽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건가? 아니면, 나타나 보이는 대론가? 이 점까지도 규명해 주어야겠으니 말일세."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가 말했네.

"이걸세. 침대는 그걸 옆에서 보건 맞바로 보건 또는 다른 어떤 쪽에서 보건, 설마하니 이 침대 자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일이야 없을 게고, 조금도 달라지진 않지만, 다만 딴 것처럼 보인다는 것뿐이겠지? 그리고 이건 다른 것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그렇죠" 하고 그가 말했네. "다르게 보일 뿐 조금도 다를 것이야 없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게. 도대체 그림의 기술이란 하나하나의 것에 관해서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즉, 실제로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있는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타나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이는 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것인가? 즉, 나타나 보이는 것의 모방인가 참다운 것의 모방인가?"

"나타나 보이는 것 쪽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모방의 기술이란 것은 참다운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하나의 것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만, 그것도 나타나 보이는 허깨비에만 닿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네. 이를테면 화가 말인데, 그는 우릴 위해서 신기료장수라든가 목수라든가 그밖에 다른 제작자를 그림으로 그려 줄 수 있겠지. 그는 이들의 기술에 관해서는 결코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만약 그가 훌륭한 화가라면 애들이나 지각없는 어른에게 목수의 그림을 그려서 멀리서 보여 주고 속여서, 정말 목수라고 생각토록 할 걸세."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보게, 생각컨대 이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하네. 즉,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세. 즉, 자기는 온갖 제작자의 기술과 그밖에 다른 일에 관해서도 각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게다가 무엇에 관해서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보고할 경우에,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자넨 참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아무래도 누군가 요술쟁이이자 모방자를 만나서 속아넘어가고는 그 사람이 만능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모양인데, 그건 자네 자신이 지식과 무식과 모방을 살펴서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일세' 라고 대답해야 하네."
"지극히 옳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3. "그렇다면 그 다음으론 비극과 그 지도자인 호메로스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되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일세. 즉, 이 작가들은 온갖 기술과 덕과 악덕에 관계되는 인간적인 모든 것 그리고 신적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네. 왜냐하면 훌륭한 작가는 무엇이고 그가 시를 짓는 것에 관해서 훌륭하게 시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 주제가 되는 것을 반드시 잘 알고서 지어야 하며, 안 그러면 시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말일세. 그러니 다

음의 어느 것이 정말인지 잘 살펴 보아야 하네. 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난 것은 다만 모방을 일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방자에게 그들은 속아 넘어가서 그 작품을 보아도 그것이 실재로부터 세 번째 것이고, 진실을 몰라도 수월케 지을 수 있는 것임을—왜 그런고 하니, 모방자가 만드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일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알아채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서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리가 있어서, 훌륭한 작가들이란 능하게 말하고 있다고 대중이 인정하는 바로 그 일을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것의 허깨비와 이 둘을 다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그 허깨비를 만들기에 몸을 바치고, 그 허깨비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자기의 인생의 앞면에다 내세우리라고 자넨 생각하는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네만, 자기가 모방하는 바로 그것들에 관해서 만약 그가 정말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것들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정말 있는 것을 행하기에 훨씬 더 열심일 것이고, 그리고 많은 훌륭한 업적을 자기 자신의 기념물로서 뒤에 남기려고 노력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더욱 열망할 걸세"[4]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명예라는 것과 이익이라는 것은 서로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호메로스라든가 다른 어떤 작가에게든 다음과 같이 묻고서 그 설명을 구하는 일은 말기로 하세. 예를 들어서 만일 그 작가들이 의술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들에게는 그저 의사의 말을 흉내나 내는 모방자가 아니라 정말 의사였었던 작가가 있었다거나 또는 옛 작

4. 호메로스가 되기보다는 그 작품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가 되길 바란다는 것.

가건 요즘의 작가건 누군가가 아스클레피오스가 했듯이 환자의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전한다든가 또는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후손들을 의사로서 남겨 놓았듯이 누구를 의술의 제자로 남겨 놓았다든가 그런 것은 묻지 않기로 하세. 그리고 또 그밖에 다른 기술들에 관해서도 그들에게 대해서 그런 질문은 하지 말고 그냥 놔 두세. 그렇지만 호메로스가 말해 보려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훌륭한 것 즉 전쟁이라든가, 군대의 통솔이라든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인간을 교육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렇게 물으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정당할 걸세. 즉 '친애하는 호메로스 님, 만약 당신께서 인간의 덕성에 관해서, 진리로부터 세 번째로 멀리 있는 사람, 즉 우리가 모방자라고 규정지은 허깨비의 제작자가 아니라, 오히려 둘째 번 자리에까지 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떤 일거리가 사람들을 개인이건 공적 인간이건 한층 더 훌륭하게 만들고, 한층 더 나쁘게 만드는가를 아실 수가 있었다면, 아무쪼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리쿠르고스[5] 덕분에 라케다이몬은 잘 다스려졌고, 또 그런 예는 그밖에도 크고 작은 나라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 덕택에 더욱 잘 다스려졌다는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을 훌륭한 입법가요, 자기들을 이롭게 해준 사람이라고 어느 나라에서 공로를 세워 줍디까?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는 카론다스[6] 에게, 우리는 솔론[7] 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어느 나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했을 때 과연 그는 어떤 나라인지 들 수 있을까?"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글라우콘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호메로스의 추종자들조차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메로스의 시대에 그가 지휘하거나 또는 그가 조언을 한 까닭으로 훌륭하게 싸웠다고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 전쟁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내가 말했네.

5. 리쿠르고스(Lykourgos): 스파르타 라케다이몬의 법률과 제도를 창설했다는 전설상의 입법가.

6. 카론다스(Kharondas): 기원전 6세기쯤 시칠리아 섬에 법률을 세운 사람.

7. 솔론(Solon): 기원전 594년에 아르콘(국무총리)이 되어, 그의 입법으로 아테네를 혼란에서 구해서 민주정치의 기초를 세 웠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일에 능숙한 사람이 하는 바와 같은 기술이나 그밖에 뭔가 실용상의 많은 교묘한 발명이, 마치 또 밀레토스 사람인 탈레스[8] 라든가 스키티아 사람인 아나카르시스[9] 에 관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듯이, 그에 관해서도 전해지고 있을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적(公的) 활동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개인으로서는 호메로스가 그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의 교육의 지도자가 되어 그 사람들은 그와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호메로스 같은 생활 방식이라고도 할 것을 뒷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가? 마치 피타고라스가 그 자신도 그것으로 해서 각별히 사랑받고, 또 후계자들은 지금까지도 피타고라스 같은 생활 방식[10] 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뚜렷하게 다르게 보이고 있듯이 말일세."

"그런 얘기도 무엇 하나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님, 만약 호메로스에 관하여 얘기되고 있는 것이 정말이라면, 그 호메로스의 제자인 크레오필로스[11]는 교육 정도에서 아마 그의 우스꽝스런 이름보다도 더욱 우습게 보일 것이기 때문 입니다. 호메로스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이 제자로부터 매우 서운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4.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지" 하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글라우콘, 만약 호메로스가 교육에 관해서는 모방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8. 탈레스(Thales): 기원전 6세기 초의 철학사상 최초의 철학자. 7현인 중의 한 사람으로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 했다. 실제적 지혜에도 능했다.

9. 아나카르시스(Anakharsis): 닻(錨)과 고패(輔槌)를 발명했다는 사람.

10. 피타고라스(Pythagoras, 기원전 530년 쯤에 생존)의 후계자들은 학문, 특히 수학으로 영혼의 정화와 不死를 주장하여, 그리스인와 생활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11. 크레오필로스(Kreophylos): 서사시인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이름은 '쇠고기의 족속'이다.

정말로 사람들을 교육해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그는 숱한 제자를 만들어 그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것이 아니겠나? 그러나 압데라의 프로타고라스라든가 케오스의 프로디코스[12]를 비롯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시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사귀어서 그들의 미움 속에다 만약 자기들이 그들의 교육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집안도 나라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혜로 해서 제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머지 그 제자들은 그들을 어깨에 둘러 메고 다닐 판일세. 그런데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로 말하면, 그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덕성스럽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시를 읊으면서 돌아다니게 내버려 뒀을까? 오히려 돈보다도 그들을 소중히 여겨서 매달리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달라고 억지로라도 부탁하진 않았을까? 또는 만약에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기 편에서 그들이 가는 곳엔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교육을 충분히 나누어 받기까지는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나?"

"그렇고 말고요, 소크라테스 님,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는 말하더 군.

"그렇다면 호메로스를 비롯해서 모든 작가들은 사람으로서의 덕성이라든가 또 그 밖에 그들의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들의 허깨비를 모방하는 자들로서 참다운 것 그 자체에는 결코 접하지 않고 있다고 우린 주장하도록 할까? 오히려 그건 앞서 우리가 말하고 있었듯이 화가는 실제로 신기료장수라고 생각되는 것을 창작하지만, 스스로 신 만들기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만 빛깔이나 꼴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네."

"과연 그렇습니다."

12.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나 프로디코스(Prodikos)는 다함께 기원전 5세기에 활동한 유명한 소피스트들임.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가 역시 모방하는 것밖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각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겉보기의 빛깔을 낱말과 글귀를 가지고 색칠을 한다고 우린 말하겠는데, 그 결과로는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겉보기의 말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을 만드는 기술에 관해서건 군대의 통솔에 관해서건 또 다른 무엇에 관해서건 운율과 율동과 곡조를 붙여서 말을 하면 매우 훌륭하게 말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네. 그렇게까지 크나큰 마력을 그런 음악적 요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네. 왜냐하면, 시인들의 작품에서 음악이라는 빛깔이 벗겨져서 내용 그 자체 만으로 말할 경우, 그것이 어떤 것으로서 나타나는지 자넨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세. 자넨 정말 본 적이 있을 걸세."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건, 한창때에 있긴 하지만 정말로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얼굴은 꽃다운 청춘이 지나면 제 얼굴로 되돌아가 보이는 것이네만"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봐 주게나. 허깨비를 만드는 사람, 즉 모방자는 우리의 주장으로는 정말로 있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에 관해서 알고 있을 뿐일세. 안 그런가?"

"예."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반만 얘기한 채로 남겨 두지 말고 충분히 고찰하도록 하세."

"말씀하시죠" 하고 그가 말했네.

"화가는, 이를테면 고삐나 재갈을 그리겠지?"

"예."

"하지만 대장장이는 그걸 만들겠지?"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고삐나 재갈이 어떤 것이라야 하는지 화가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걸 만드는 대장장이나 피혁공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만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

람, 즉 말을 타는 사람만이 알고 있겠지?"
"지당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관해서 그와 같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요?"
"모든 것에 관해서 뭔가 이 세 가지 기술, 즉 쓰는 기술, 만드는 기술, 모방하는 기술이 있겠군?"
"예."
"그런데 도구이건 동물이건 행위이건, 만약 그 하나하나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생겨나거나 한 것이라면, 하나하나의 훌륭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정당함이라는 것도 오직 그 사용이라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불가피하게 그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 그가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쓰일 경우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를 제작자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이를테면, 적수(笛手)는 피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피리를 불 경우에 어떤 피리가 쓸모가 있는가를 알려주어 만들고자 하는 피리를 주문하는 것이고, 제작자는 적수를 위해서 일하는 걸세."
"물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좋은 피리와 나쁜 피리에 관해서 알고 있어서 알려주고, 다른 편은 그것을 믿고서 만드는 것이겠지?"
"예."
"그러고 보면, 같은 도구에 관해서 제작자 쪽은 알고 있는 사람과 사귀어, 불가불 그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도구의 좋고 나쁘고에 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사용자 쪽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일세."
"과연 그렇죠."
"그런데 모방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것에 관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이 훌륭하고 옳은 것인가 아닌가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사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어떤 것을 그려야 하는가를 지시받음으로 해서 올바른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방해서 그리는 것에 관해서 그 좋고 나쁘고에 관한 지식도 올바른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걸세."
"그럴 것 같군요."
"그렇다면 시를 가지고 모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방하는 것에 관한 지혜에서는 제법 매력이 있겠군."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한데, 그래도 그는 그 하나하나에 관해서 그것이 어떤 점에서 나쁘고 좋은지 알진 못하면서도 여전히 모방은 할 걸세. 오히려 그는 아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모방할 걸세."
"다름아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우린 합의에 도달한 것 같네. 즉, 모방하는 사람은 그가 모방하는 바로 그것에 관해서 말할 만한 지식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모방이란 일종의 놀이에 지나치 않고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암보스라든가 에포스[13]를 써서 비극을 창작하는 사람들은 다함께 최고도로 모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5. "제우스께 맹세코, 과연 이 모방이라는 일은 진리로부터 뭔가 셋째 번에 있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하고 내가 말했네.
"예."

13. 이암보스는 단장(U—)의 운으로 된 운율. 에포스는 장단단(—UU)을 여섯 번 겹치는 서사시의 시형. 제3권 400a의 역주 참조.

"그런데 또, 모방은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충분히 작용시키는 것일까?"

"그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일세. 이를테면, 같은 크기를 가진 것이라도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 과는 우리에게 같은 것으로 나타나진 않을 걸세."

"그렇죠."

"또,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물속에 넣어서 보면 굽어 보이고, 밖에다 내놓고 보면 곧게 보이고, 그리고 또 빛깔에 관한 시각의 착각으로 인해서 오목해 보이기도 하는가 하면, 불룩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모든 현상은 우리의 영혼 안에 분명히 이런 따위의 온갖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 그림자 그림(陰影畫)도 우리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 바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빈틈 없이 우릴 속이고 있고, 또 요술이라든가 그밖에 이런 따위의 허다한 고안(考案)이 다 같은 것일세."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이를 재는 것, 수를 셈하는 것, 무게를 다는 것은 그런 착각들로부터 우리를 돕기 위한 아주 멋진 수단으로서 발명된 것이 아니겠나?" 이 덕분에 우리 영혼 속에서 지배 하는 것은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것 또는 많아 보이거나 무거워 보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나 길이나 무게를 셈하고 재고 또는 다는 것일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영혼 속에 있는 이지적 부분의 작용일 걸세."

"확실히 그 부분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적 부분이 측정한 결과로써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크다든가 작다든가 같다든가로 표시할 경우에, 그 동일한 것에 관해서 동시에, 겉보기로는 측정한 것과 반대로 나타나 보이는 일이 자주 있다네."

"예."

"그런데 같은 것에 관해서 동시에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같은 것으로서

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린 주장했었지 않은가?"[14]

"그랬죠. 그리고 그건 옳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측정한 것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리는 영혼의 부분은 측정한 것과 똑같은 판단을 내리는 부분하고는 같을 수가 없을 걸세."

"아닌 게 아니라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측정과 계산을 신뢰하는 부분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일 걸세."

"물론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반대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하찮은 것 중의 하나일 걸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은 이 점에서 합의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까 말했던 거라네.[15] 즉, 그림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모방의 기술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과 사귀는 것이고, 게다가 조금도 건전치도 진실되지도 않은 목적을 위해서 사귀는 한패요 친구라고 말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러고 보면 모방의 기술이란 그 자신도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과 맺어서 보잘것없는 것을 낳게 되는 것일세."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

"시각과 관계가 있는 모방의 기술만이 그럴까? 아니면, 청각과 관계가 있는 모방의 기술도 그럴까? 우린 그것을 시(詩)라고 부르고 있네만" 하고 내가 말했네.

"그것도 그럴 것 같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림으로부터 그럴싸하게 유추(類推)를 해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라는 모방의 기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음의 부분으로 직접 다가가서

14. 제4권 436a~436c 참조.

15. 제10권 597e~602d 이하 참조.

그것이 보잘것없는 부분인지 훌륭한 부분인지를 보도록 하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이렇게 다뤄 보세. 우리의 주장으로는, 시가 모방하는 것은 인간이 강요당한 행위, 또는 자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 행위의 결과로써 행복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이 모든 경우에 괴로워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것일세. 설마, 이밖에 또 있진 않았겠지?"[16]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이며 같은 상태에 있을까? 아니면, 마치 시각의 경우에 서로 갈라져서 대립이 일어나고, 같은 것에 관해서 동시에 서로 반대되는 판단을 자기 안에 갖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도 서로 갈라져서 대립이 일어나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될 것인가? 그런데 생각이 나네만 적어도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합의를 볼 필요는 조금도 없네. 왜 그런고 하니, 그 모든 것에 관해서는 이미 앞서의 논의[17]에서 우리의 영혼은 동시에 생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대립으로 늘 가득 차 있다는 것에 충분히 합의를 보았으니까 말일세."
"그건, 옳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야 옳은 일이었지" 하고 내가 말했네. "한데, 그때는 빼놓은 것이 좀 있어서 그 점을 이번엔 자세히 얘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네."
"그건 어떤 점인데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훌륭한 인간이란 아들을 잃는다거나 그밖에 뭔가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는다든가 하는 그런 불운을 당했을 경우에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태연하게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을 우린 그때도 아마 말했을 걸세"[18] 하고 내가 말했네.

16. 제3권 399a~399c 참조.
17. 제4권 439c 이하 참조.
18. 제3권 387d~387e 참조.

"그랬죠."

"그런데 이젠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그런 사람은 전혀 슬프지가 않은 걸까, 아니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서 다만 슬픔에서도 일종의 절도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 말일세."

"후자의 경우이겠죠. 그게 사실일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런 인물에 관해서 이 점을 내게 말해주게나. 그가 능히 슬픔과 싸워서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동등한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 홀로 외롭게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가?"

"남이 보고 있을 때 훨씬 더 잘 참고 견딜 겁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자기 혼자만이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남이 듣기에 부끄러운 말도 마음 놓고 거침없이 입을 놀릴 것이고, 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숱하게 할 것일세."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6. "그런데 그 경우에, 그에게 반항하도록 북돋는 것은 이치와 법률이지만, 슬픔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감정 자체가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안에 같은 것에 관해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는 충동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충동은 둘이 있어야 한다고 우린 주장하네."

"물론 그렇죠."

한쪽은 자진해서 법률에 복종하여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요?"

"법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걸세. 즉, 불행을 당했을 때는 될 수 있는 데까지 태연함을 지켜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세.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반드시 분명친 않고, 참고 견디느라고 괴로워해서 장차 무슨 좋은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 인간사에는 도대체 심각하게 관심을 기

울일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슬픔에 잠긴다는 것은 그런 처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어나야 할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무엇이 방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해서 신중히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말하자면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처럼 드러난 수효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리라고 이치가 결정하는 대로 자기의 일을 처리하되, 마치 부딪쳐서 다친 어린애처럼 상처를 만지면서 울부짖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이, 상처를 치료하고 쓰러진 것을 일으켜서 의술로 비탄을 쫓아내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손을 쓰도록 늘 영혼에 버릇이 붙게 하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게 하는 것이 불행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일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부분은 바로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이치의 지시에 따르길 원하고 있는 걸세."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회상시키고는 우리를 비탄으로 몰고가서, 그런 일에 끝도 없이 빠져 있으려는 부분은 비이상적이고 게으른 부분이며 겁쟁이와 한패라고 말해야하지 않을까?"

"과연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허둥지둥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모방해서 그릴 수가 있네만, 그러나 사려 깊고 태연한 성격은 늘 거의 같은 자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서 그리기란 쉽지가 않고, 누군가가 모방을 했다 해도 그렇게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세. 특히 축제라든가 극장에 모여드는 어중이떠중이에게는 더욱 그렇다네. 왜 그런고 하니, 거기서 모방되고 있는 것이 그네들에게는 낯선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래서 모방을 일삼는 작가라는 것은, 만약 일반대중 사이에서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선천적으로 분명히 영혼의 훌륭한 부분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의 지혜는 결코 그 부분을 만족시키도록 기울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허둥지둥하는 착잡한 성격이 모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다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작가를 붙들고, 그를 화가와 동격자라고 규정짓는 것이 정당할 걸세. 왜냐하면 진리와 견주어 보아 하잘것없는 것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도 화가와 비슷하고, 또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 아니라 역시 하잘것없는 부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는 화가와 비슷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한 나라가 잘 다스려져야 한다면, 결국 그 나라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당할 걸세. 왜 그런고 하니, 그는 영혼의 이 하잘것없는 부분을 일깨워서 키우고 이것을 강하게 해서 이지적 부분을 파멸시키기 때문일세. 그건 마치 한 나라에서 못된 인간들에게다 권력을 주어서 나라를 맡겨 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일세. 그와 마찬가지로 모방을 일삼는 작가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다 나쁜 나라체제를 만들어 넣는 것이라고 우린 말해야 하겠거니와, 그건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도 식별할 줄 모르고 같은 것을 가지고도 때로는 크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때로는 작다고 생각하는 영혼의 어리석은 부분에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진리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림자 그림(陰影畫)같은 허깨비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네."

"그렇고 말고요."

7. "그러나 우린 이런 창작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고발을 아직도 안 하고 있네. 왜 그런고 하니, 시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은 예외지만, 훌륭한 사람들까지도 타락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일세."

"정말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물론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내 말을 듣고 생각해 봐 주게나. 즉, 누군가 어떤 영웅이 슬픔에 잠겨서 긴 슬픔의 넋두리를 장황하게 늘어 놓는 몰골이라든가 자기의 불행을 노래하며 가슴을 치는 꼴이라든가를 호메로스나 다른 어떤 비극작가가 모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자네도 아다시피 우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기쁨을 느끼

고, 거기 열중해서 동정을 하면서 따라 가며 가장 강하게 그렇게 해 주는 작가를 훌륭한 작가라고 진정으로 칭찬을 한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사로운 슬픔이 일어날 경우엔, 역시 자넨 알아챘겠지만, 앞서와는 반대되는 것, 즉 태연하게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바로 남자가 취할 태도이지만, 아까 우리가 칭찬한 것은 여자나 취할 태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일세."

"알아챘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 칭찬은 과연 훌륭한 것일까? 즉 자기 자신은 그러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싫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느껴서 칭찬을 하는 것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제우스께 맹세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 자네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어떻게요?"

"만약 이런 사실을 고려해 준다면 말일세. 즉, 앞서 제 한몸에 일어난 불행의 경우에는 억지로 눌리고 있었지만, 실은 실컷 울고 한탄해서 그것으로 만족되기를 애타게 구하고 있었던 부분, 원래 그런 것들을 욕구하는 성질을 가진 그 부분이야말로 바로 작가들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얻고 즐거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일세. 그리고 다른 편, 우리 내부에 있는 가장 훌륭하게 타고난 부분은 이치로 또는 습관으로도 아직 충분히 교육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눈물 많은 부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건 다름아닌 남의 불행을 보고서 훌륭한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 자기를 잃을 정도로 슬픔에 잠긴다 해도,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가엾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먼저처럼 거기서 쾌락을 덤으로 얻는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시의 작품 전체를 업신여기므로 해서 그 쾌락을 뺏기기를 결코 동의하지 않을 걸세. 왜 그런고 하니, 남의 일로 즐거움을 누린 것은 반드시 제 몸 위에도 돌아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으론 매우 적기 때문일세. 아닌 게 아니라,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가엾어 하는 감정을 키워서

강하게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걸 누르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같은 말을 또, 익살스런 일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만약 자네가 스스로 하기에는 부끄럽게 생각되는 익살스런 일을 희극의 모방이라든가 사적인 모임 같은 데서 듣고서 매우 기뻐하고, 그것을 천한 것이라 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면, 자네 바로 가엾은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고 하니, 어릿광대라는 소문이 두려워서 이 경우에도 익살을 부리고 싶어하는 부분을 이치의 힘으로 자기 마음 안에서 누르고 있었는데도, 그 부분을 또다시 자네 늦추어 주고, 그 기회에 기운을 돋우어서 활기 있게 해 줌으로 해서 이따금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사생활에서 희극배우가 되도록 이끌려 가게 되기 때문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했네.

"그리고 또 색정(色情)이나 노여움에 관해서도 또 모든 행위에 따른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영혼 내부의 온갖 욕심이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관해서도, 시에 의한 모방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같다고 말할 수 있네. 왜냐하면 시는 본래 그러한 충동을 시들게 해야 하는데도 물을 주어서 키우고, 또 우리가 나쁘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것들을 지배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지배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일세."

"그렇게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군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글라우콘, 자네가 호메로스의 찬미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세. 즉, '이 시인이야말로 헬라스를 교육한 자로서 인생의 모든 일의 처리라든가 교육을 위해서는 배울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며, 이 시인에 따라 자기의 온 생활을 바로잡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 말일세. 이 경우에 자넨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서 사랑하고 반겨주어야 하고, 또 호메로스가 가장 시인다운 시인이며, 비극작가 중에서 으뜸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다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일

은 시의 작품 중에서 나라 안에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신들께 대한 송시(頌詩)와 훌륭한 사람에게 대한 찬시(讚詩)뿐이라는 것일세. 만약 자네가 서정시의 형식이건 서사시의 형식이건 즐겁게 맛을 붙인 시신(詩神)을 나라 안에다 받아들인다면, 자네 나라에는 법률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공적(公的)으로 결정된 원칙 대신에 쾌락과 고통이 왕 노릇을 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8. "그렇다면, 이것으로써 시에 관한 문제를 다시 다루어 본 우리와 변명을 끝내도록 하세. 결국 시라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우리나라에서 추방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네. 이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거칠고 촌스럽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철학과 시는 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를 향해서 말해 두도록 하세. 왜 그런고 하니, '주인에게 달려들어 짖어대는 개' 라든가, '바보들이 지껄이는 허튼소리 사이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라든가, '지나치게 현명한 무리를 지배하는 자'라든가, '결국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생각에 이르는 교묘한 사상가들'[19] 이라든가, 그밖에 헤아릴 수 없이 숱한 말이 철학과 시 사이에 예부터 적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일세. 그렇긴 하네만, 우린 이렇게 말해 두도록 하세. 만약 쾌락을 목표로 하는 시라든가 모방의 일이 무슨 이유에선가 잘 다스려진 나라 안에 그것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면, 우리로서는 기꺼이 그 귀국을 받아들일 걸세. 우리 자신이 그 매력에 끌리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다만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배반하는 것은 신께 경건치 못한 일일세. 어떤가 여보게, 자네 자신도 역시 시의 매력에 끌리는 것이 아닌가? 특히 호메로스를 통해서 시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그렇고 말고요."

19. 이 말들은 다 철학이나 철학자를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이렇게 해서, 즉 서정시라든가 그밖에 무슨 운율로 자기를 변명한 다음이라면, 귀국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 아닌가?"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시인은 아니지만, 시를 사랑하고 있는, 시의 보호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운율 없는 말로 시를 위해서 공표해서 시가 그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나라체제나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것임을 보이도록 허락할 걸세. 그리고 그것을 호의를 가지고 들어줄 걸세.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다만 즐거울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 역시 그만큼 덕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일세."

"덕을 안 보고 어쩌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러나 여보게,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누군가를 언젠가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그 연애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됐을 때, 비록 어려운 일이긴 해도 물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훌륭한 나라체제로 해서 키워진 덕분으로 이런 종류의 시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어 이 사랑으로 인하여 시가 가장 훌륭한 것이며 가장 참다운 것임이 밝혀지기를 기꺼이 바라고 있겠지만, 그러나 시가 스스로 변명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그 말하는 바를 들을 경우, 우리의 이 논의를 우리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어 그것으로 시의 마력에 대항하는 주문(呪文)으로 삼을 걸세. 또다시 대중의 유치한 연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일세.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일러줄 걸세. 즉, 이런 따위의 시를 마치 그것이 진리에 접한 장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심각하게 다루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것에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의 내부에 있는 나라체제에 관해서 두려워하면서 시를 감히 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우리가 시에 관해서 말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일세."

"그렇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여보게 글라우콘, 왜냐하면 여기서 겨루고 있는 일, 즉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나쁜 사람이 되는가 라는 것은 흔히 생각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인지라 명예나 돈이나 권세의 유혹, 또는 시의 유혹까지 받아서 정의라든가 그밖에 다른 덕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어서 안될 일이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선생님께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것으로 보아서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누구라도 찬성할 겁니다."

9. "그렇긴 하네만, 우린 아직 덕성의 최대의 보수라든가 상(賞)은 얘기하지 않고 있네"[20] 하고 내가 말했네.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인가 봅니다. 만약 지금까지 얘기된 것 말고 따로 큰 보수와 상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한데, 짧은 시간 안에도 무슨 큰 것이 생길 수 있겠나?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그막까지의 이 시간 전체라는 것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것 밖에 안되니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야 아무것도 아니죠"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떤가? 적어도 불사(不死)적인 것이 그만한 짧은 시간을 위해서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오히려 그건 영원한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넨, 우리의 영혼이 불사적인 것이고, 결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내가 말했다네.
그러자 그는 나를 보고 놀라서 말하더군. "아뇨, 제우스께 맹세코. 선생님께선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지" 하고 내가 말했네. "자네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하

20. 여기서부터의 얘기는 '정의'라는 덕성에 대한 응보의 문제로 옮아간다. 완전한 정의는, 그대로 완전한 행복을, 그리고 완전한 부정은 완전한 불행을 의미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젠 정의의 보상을 논할 때가 된 것이다.

네.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제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하지만 그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듣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주게나" 하고 내가 말했네.

"그저 말씀만 하시죠" 그가 말하더군.

"자넨, 뭔가를 좋다든가 나쁘다고 부르겠지?"

"그렇습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자넨 나처럼 생각하는가?"

"어떻게요?"

"멸망시키고 못쓰게 만드는 것은 다 나쁜 것이고, 보존하고 이롭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일세."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 모든 것에는 그 각각에 속해 있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이를테면, 눈에는 눈병, 몸 전체에는 병, 먹는 것에는 곰팡이, 목재에는 썩음, 구리나 쇠에는 녹이 스는 게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말하려던 것이지만 거의 모든 것에는 그 하나하나마다 타고난 나쁜 것과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그런 나쁜 것들 중의 어떤 것이 뭣엔가 덧붙게 되면, 그건 그것이 덧붙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고 필경은 그 전체를 무너뜨려 없애는 것이 아닌가?"

"물론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은 그 하나하나가 타고난 나쁜 것과 그 자체의 악이 멸망시키거나 또는 만약 그것이 멸망시키는 일이 없다면, 그밖에는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걸세. 왜냐하면 좋은 것은 아무것도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게고, 한편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도 결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일세."

"물론 그렇죠" 하고 그는 말하더군.

"따라서, 만약 존재하는 것 중의 뭔가에 타고난 나쁜 것이 그것을 나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코 무너뜨려 없애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곧

원래 그런 타고난 악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는 멸망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럴 것 같군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럼, 어떻겠나, 영혼에는 그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뭔가 있지 않은가?" 하고 내가 말했네.

"있어도 많이 있죠" 하고 그가 말하더군. "우리가 방금 보아 온 모든 것, 즉 부정이나 방종이나 비겁이나 무식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 중의 무엇이 과연 영혼을 무너뜨려 없애는 것일까? 하기야 부정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하고 잡혔을 경우, 그가 영혼의 악인 부정으로 해서 몸을 망쳤다고 생각함으로써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네. 차라리 이렇게 하게. 이를테면, 병이라는 몸의 악은 몸을 쇠약하게 하고 망쳐서 이미 몸이 아닌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가 예로 든 모든 것은 그 하나하나에 타고난 악이 들러붙어서 속으로 파고들어 그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네. 그렇지?"

"예."

"자, 그렇다면 영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봐 주게. 영혼 안에 부정이나 그 밖에 다른 악이 있다면, 그것 속으로 파고 들어가 붙어서 영혼을 타락시키고, 시들게 하고, 필경은 죽음으로 이끌어 가서 몸에서 분리시키게 되는가?"

"아니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의 악으로 멸망하는 일은 없으면서 다른 것의 악으로 멸망한다는 일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건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글라우콘,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일세. 즉, 몸이 먹을 것의 해악, 즉 오래되었건 썩었건 그밖에 무엇에 의하든 먹을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으로 멸망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네. 오히려 우린 먹을 것 자체의 해악이 몸 속에다 몸에 해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면, 몸은 그 먹을 것들 때문에 병이라는

제 자신의 악으로 망하고 만다고 말해야 할 걸세. 하지만 먹을 것과 몸은 원래가 딴 것인지라 몸이 먹을 것의 악으로 망한다. 즉 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악으로 망해 없어진다는 일은, 그 악이 몸 자체에 원래 속해 있는 악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결코 있을 리가 없다고 우린 말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다네.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 "같은 원리에 의해, 만약 몸의 악이 영혼 속에다 영혼의 악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상관도 없는 다른 악으로 해서 우리는 영혼이 자기에게 속하는 악이 아닌데도 멸망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걸세. 그건 한쪽의 악으로 해서 다른 쪽의 것이 멸망 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이치에 맞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논박해서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것들이 논박되지 않는 한, 열병이건 그밖에 다른 병이건 또는 살해건 또는 설사 온 몸을 잘게 난도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 해서 영혼이 한층 더 멸망한다는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되네. 몸의 그런 횡액 때문에 영혼 자체가 더욱 부정하고 경건치 못한 영혼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기까지는 말일세. 그리고 어떤 것 안에 상관도 없는 딴 악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스스로 악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영혼이건 다른 무엇이건 그것으로 해서 멸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린 그런 주장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세."
"그러나 그런 것을, 즉 죽어 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 죽음으로 하여 더욱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감히 우리의 논의에 맞상대를 해 와서 영혼의 불사를 인정치 않을 수가 없음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하여 죽어 가는 사람은 더욱 악해지고 부정해진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걸세. 즉,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이라면 부정이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말하자면 병처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되고, 게다가 그것은 그 본성으로 하여 그자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되,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욱 빨리 죽고, 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늦게 죽을 것이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듯이 부정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남에 의해 형벌로 죽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과연 제우스께 맹세코, 만약 부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부정이란 그다지 무서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죽음이란 온갖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으니까요—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로, 부정은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죽이는 것이고, 부정을 가지고 있는 본 당사자에게는 크게 활기를 주는 것, 그냥 활기가 아니라 늘 눈뜨고 있는 활기를 준다는 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정은 당사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제 생각으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자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과연, 훌륭한 말을 했네" 하고 내가 말했네.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자신의 결함이나 그 자신의 악이 영혼을 죽여서 파멸시킬 만한 것이 못된다면, 뭔가 다른 것을 파멸시키도록 마련 되어 있는 악이 영혼이건 뭣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마련돼 있는 바로 그것 말고 딴 것을 파멸시킨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일세."

"그렇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떤 악으로 해서도, 즉 자기에게 속해 있는 악으로도 다른 것의 악으로도 멸망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필연적으로 늘 존재하는 것이라야 하네. 그리고 늘 존재하는 것이라면 불사라야 하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하고 그는 말했네.

11.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세.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늘 같은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넨 알아챌 걸세.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영혼도 멸망하질 않는다면, 영혼의 수가 줄어들 일도 없고, 또 한편 더 늘어나는 일도 없을 걸세. 그 까닭은 만약 뭔가 불사적인 것의 수가 늘어난다면, 자네도 아다시피 죽는 것이 바뀌어서 불사적인 것이 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불사적인 것뿐이겠으니까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이치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까—한편, 영혼은 가장 참다운 본성에 있어서 심한 복잡성이라든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이라든가,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 하고 나는 말했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많은 것으로 합쳐서 이루어진 것,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장 훌륭하게 짜여 있지 못한 것은 영원성을 지니기가 쉽지 않다네. 아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그런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말일세" 하고 나는 말했네.

"그렇죠, 쉬울 것 같지 않군요."

"그런데 영혼이 불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의 논의로 보건 다른 논의로 보건 아무래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걸세. 그러나 한편, 영혼이란 것이 사실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영혼이 육체라든가 그밖에 다른 악하고 맺어져 있어서 아주 손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는 안되고, 오히려 영혼이 악에서 정화되었을 때 어떤 본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가를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충분히 눈여겨 보지 않으면 안되거니와, 그렇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임을 발견할 것이고, 또 정의와 부정과 그밖에 우리가 지금 논한 모든 일들을 더욱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을 걸세.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해서 참다운 것을 말했던 것일세.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그것의 상태는 바다의 신인 글라우코스[21]의 상태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 신을 보는 사람들이 그의 애초의 본성을 분별하기란 이미 쉽지 않을 걸세. 왜 그런고 하니, 그 몸에 원래부터 있는 부분은 파도로 해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닳아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볼썽사납게 이지러지기도 한 데다가 조개껍데기나 해초나 돌 따위가 붙어서 원래부터 있

21. 글라우코스(Glaukos): 원래 어부였다가 나중에 바다의 신이 되었다 한다. 예언술에 통하여 어부들의 숭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었던 모습 대신에 오히려 무슨 짐승과도 닮은 상태가 되고 말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영혼도 허다한 악으로 해서 이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일세. 그러나 글라우콘, 우린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하네."

"어디로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지혜에 대한 영혼의 사랑으로 그리고 영혼이 신적이며 불사이며 영원한 존재와 동족인 자기 자신의 본성에 따라 무엇을 파악하고 어떤 것과 사귀기를 동경하는가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영혼이 자기 전체를 바쳐서 그런 존재를 추구하고, 그 충동으로 지금 그것이 가라앉아 있는 바다에서 끌어 올려서 돌이나 조개껍데기 따위의 군더더기를 털어냈다면, 그때 영혼이 어떤 것이 되는가를 잘 고찰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그 군더더기가 세상에서 행복한 잔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 덕분으로 영혼이 흙을 즐겨 대접받는지라 흙이나 돌로 이루어진 많은 거칠은 덩어리가 되어서 현재 영혼 둘레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그때야말로 비로소 사람은, 영혼의 참다운 본성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된 모습인가, 하나의 모습인가, 또는 어떤 성격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걸세.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영혼이 우리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갖가지 수동적 상태라든가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내깐에는 그래도 제법 적절하게 말한 셈일세."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12. "자, 그렇다면 이 논의로 우린 다른 문제는 처리를 했네만 자네들이 말했던[22] 헤시오도스나 호메로스와는 달라서, 우리는 정의의 보수라든가 명성을 칭찬하진 않았네. 오히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의 그 자체가 영혼 자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기게스의 반지[23]를 가지고 있건 말건, 또 그런 반지에 더해서 하데스의 투구[24]를 가지고 있건 말건 영혼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22. 제2권 363a 참조.

23. 제2권 359e~360b 참조.

24. 머리에 쓰면, 모습이 안 보인다는 투구. 《일리아스》 V, 844 이하 참조.

이었지?" 하고 내가 말했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다면 글라우콘, 이젠 이미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에 덧붙여, 정의나 그 밖에 다른 덕성에다 보수를 치러 준다 해도 별 반대는 없겠지? 정의의 덕성은 영혼에 대해서, 인간들이나 신들에게서도,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도 죽은 뒤에도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보수가 차례가는지를 말했다 해도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앞서 자네들이 논의에서 내게 빚진 것을 갚아 주겠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나, 부정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을 인정했네.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설사 정의와 부정이 신들이나 인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의를 위해서는 정의 자체를 부정 자체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자네들이 내게 요청했기 때문일세.[25] 생각나지 않는가?"

"안 난다면 괘씸한 놈이 되겠지요" 하고 그가 말하더군.

"자, 그렇다면 그 판정도 이젠 끝났으니, 이번엔 내가 정의를 위해서 갚아 달라고 요구하겠네. 즉, 정의에 관해서는 그것이 신들에게서나 인간에게서나 실제로 받고 있는 명성을 그대로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일세. 그렇게 하면 정의는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얻어다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승리의 상까지도 받게 될 걸세. 왜 그런고 하니, 정의가 정말로 정의로운 곳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준다는 것, 그리고 정의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그 요구는 정당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 경우에 우선 먼저 자네들이 내게 갚아야 할 것은 이것, 즉 정의로운 사람도 부

25. 제2권 361a~361d, 367e 참조.

정한 사람도 각기 어떤 인간인지는 신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의 승인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네.

"갚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런데 신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면, 한 쪽은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신의 미움을 받는 사람일 걸세. 이건 우리가 첫머리에서도[26] 말했던 것일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린 인정하지 않을 건가? 다만 그 사람이 전생의 잘못으로 해서 뭔가 피할 수 없는 앙화가 그에게 정해져 있다면 몰라도."

"인정하고 말고요."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에 관해서는, 비록 그가 가난하게 살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 밖에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거나,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은 살아 있는 동안이건 죽은 뒤이건 필경은 뭔가 좋은 것으로 끝나리라고 확신해야 하네. 왜냐하면 자진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열성을 가진 사람과 덕을 실행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신과 같기를 바라는 사람이 신들에게서 등한히 여겨지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일세."

"자기를 닮은 인간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에 관해서는 그것과 꼭 반대되는 일을 생각해야겠지?"

"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뭔가 그런 것이 정의로운 사람에게 신들에게서 승리의 상으로서 수여될 걸세."

"어쨌든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인간 쪽에서는 어떨까?" 하고 내가 말했네.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한다

26. 제1권 352b.

면, 사정은 이렇지 않을까? 부정에 능숙한 사람들이란, 마치 가는 길에선 잘 뛰지만 되돌아 오는 길에선 그렇지 못한 경주자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들은 처음에는 날쌔게 뛰어나가지만, 마지막엔 영관(榮冠)도 차지하지 못하고 귀를 어깨 위에 떨구고[27] 도망가서 웃음거리가 되네. 참다운 경주자는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상을 받고 영관을 쓰는 것일세. 정의로운 사람에 관해서도 대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하나의 행실이나 남과의 사귐이나 또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들은 끝에 이르러서야 명성을 얻고, 인간들에게서 상을 차지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자신이 부정한 사람들에 관해서 앞서 말했던 것[28]을 그대로 정의로운 사람들에 관해서 내가 말한다 해도 자넨 나와 함께 견뎌내겠나? 즉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제 나라에서 스스로 원한다면 벼슬을 하고, 어디서건 원하는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누구든 자식들이 좋아하는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일세. 그리고 또, 자네가 부정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한 것 전부를 그대로 나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들에 관해서 말할 걸세. 한편, 부정한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들의 대부분은 비록 젊어서는 알아차리질 못했다 하더라도, 경주로의 끝까지 왔을 때는 잡혀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늘그막에는 남의 나라 사람에게서도 제 나라 사람에게서도 처참하게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게다가 자네가 옳게도 잔인한 얘기라고 말했던 온갖 형벌—고문과 단근질—을 받게 된다[29]고 나는 말하겠네. 즉, 그런 모든 것을 부정한 사람들은 당한다는 자네 얘기를 내가 되풀이하는 것을 들은 셈 쳐 주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네가 견딜 것인가 어떤가, 생각해 보게."

"견디고 말고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정당한 말씀이니까요."

27. 말〔馬〕 따위가 지쳐서 늘어진 모습에서 빌려온 형용.

28. 제2권 362b 참조.

29. 제2권 361e~362a 참조.

13. "그렇다면 정의 자체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 말고도 정의로운 사람이 신들이나 인간들로부터 생전에 상이나 보수나 선물로 받는 것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 될 걸세" 하고 내가 말했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훌륭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

"그런데 그것들은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양쪽을 죽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하고 비교한다면, 수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나 아무것도 아닐세.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린 들어야 하네.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각각이 우리의 논의가 빚지고 있어서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을 모조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네.

"말씀해 주세요. 이것 말고 제가 기꺼이 들을 것이라곤 별로 없으니까요" 하고 그는 말하더군.

"그렇지만,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것은 알키노스의 얘기[30]가 아니라, 한 용감한[31] (알키모스) 사람이었던 팡필리아족 출신인 아르메니오스의 아들 에에르의 얘기[32]일세. 그는 그 옛날 전투에서 숨을 거두었다네. 열흘째 되던 날 시체가 거두어졌는데, 다른 시체들은 이미 썩고 있었지만 그의 시체만은 성한 채로 있어서, 집으로 옮겨져 열이틀 만에 화장하려고 장작더미 위에 뉘어 놓았을 때 살아났는데, 되살아난 다음에 그는 저세상에서 보고 온 것을 얘기했네. 그가 말한 것은 이랬네. 그의 영혼은 육신을 떠난 다음 다른 많은 영혼들과 함께 길을 따라가서 그들은 어떤 신령스런 이상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땅에 구멍 두 개가 나란히 벌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이것과 마주 향해서 하늘에 따로 구멍 둘이 뚫려 있었네. 이

30. '알키노스(Alkinos)의 얘기'란 오디세우스가 파이아키아의 왕안 알키노스에게 들려 주는 긴 얘기(《오디세이아》 XI ~ XII)로서 긴 얘기를 의미한다.

31. 알키노스와 알키모스(용감한)는 소리가 비슷하다.

32. 에에르(Er)—여기선 혼동이 있을까 해서 긴소리로 표기했다—는 동방 헤브라이 계통의 이름이다. 이 얘기에는 오르페우스교 · 피타고라스 학파에 공통된 사상이 담겨 있다.

들 하늘의 구멍과 땅의 구멍과의 중간에 재판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오는 자들을 차례대로 재판해서 판결을 내린 다음,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판결을 나타내는 표시를 앞에다 붙여 주어 오른쪽의 하늘을 통해서 위로 길을 가도록 명령을 하고,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들 역시 그때까지 저지른 모든 소행을 나타내는 표시를 뒤에다 붙여서 왼쪽의 아래로 향한 길을 가라고 명령했다네. 그러나 에에르가 그리로 다가가니까 재판관들은, 너는 죽은 뒤의 세계에 관해서 인간들에게 일러 주는 사자(使者)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을 잘 보아 두도록 하라고 말했네. 그래서 그가 보니까, 영혼들이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 하늘의 구멍과 땅의 구멍으로 각각 갔는데, 다른 두 구멍 중의 땅의 구멍 쪽에서는 때묻고 먼지투성이의 영혼들이 땅속으로부터 올라왔고, 하늘의 구멍 쪽에서는 다른 영혼들이 말끔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도착하는 영혼들은 모두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이 보였고, 기쁜 듯이 목장으로 가서 사뭇 축제 때처럼 그곳에다 자리를 잡았고, 잘 알고 있는 영혼끼리는 서로 인사들을 나누며, 땅속에서 온 영혼은 다른 영혼에게 하늘에 관해서 묻고, 하늘에서 온 영혼은 다른 쪽 영혼들이 겪은 일을 묻는 것이었네.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 쪽 영혼들은 땅속의 여행—그것은 천 년이 걸리는 것인데—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보지 않으면 안되었던가를 회상하면서 슬픈 눈물에 젖어 있었고, 한편 하늘로부터 온 영혼들은 기쁘게 겪었던 일과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에 관해서 얘길 했다네. 글라우콘, 그런데 그런 얘기들 모두를 지금 그대로 말하기에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그는 말하더군. 즉, 각 사람이 지난날 누군가에게 저지른 부정이 얼마나 되는가 또 몇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는가에 따라서 영혼은 그 모든 죄값 대로 차례로 형벌을 받았는데, 각 죄에 대해서 열 번을 되풀이하네—사람의 일생을 백 년으로 보고, 그 동안에 열 번 형벌을 되풀이하네—이것은 각자가 저지른 죄의 열 배를 갚기 위한 것인데, 이를테면 나라나 군대를 배반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원인이 된다든지 노예의 상태로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밖에 뭔가 나쁜 짓에 한몫 낀다든지 하는 자가 있다

면, 그 모든 소행에 대해서 각 죄의 열 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한편 만약 뭔가 선한 행실을 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바르고 경건한 사람임을 보인 자가 있다면, 그만큼 거기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일세. 그러나 이것과는 따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라든가 다만 짧은 동안만을 살았던 자들에 관해서는 그는 기억할 만한 것을 별로 말하지 않더군. 그러나 신들께 또는 부모들에 대한 불경(不敬)이나 경건에 관해서 또 직접 저지른 살인에 관해서는 더욱 큰 갚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더군.

즉 그의 얘기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아르디아이오스[33] 대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자리에 마침 함께 있었다더군. 그런데 이 아르디아이오스라는 사람은,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로부터 천 년 전에 팜필리아의 어떤 나라의 독재자였다는데, 늙은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그밖에 숱한 불경스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일세. 에에르의 말로는, 그때 그런 질문을 받은 자는 대답했다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 그리고 이리로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걸세.

14. 왜냐하면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본 무서운 광경 중의 하나였기 때문일세. 즉, 우리는 또 다른 모든 괴로움을 겪은 다음에, 땅 구멍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그 구멍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우리는 그 아르디아이오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네—그들은 거의 다 독재자였네. 그러나 일반 사람으로서 큰 죄를 범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네—그들은 이미 위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구멍은 그들을 받아 주려고 하질 않았네. 오히려 죄를 고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자들이라든가, 또 제대로 형벌을 다 받지 않은 자들이 위로 올라가려 하니까, 그 구멍은 그때마다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냈다네. 그러자 그곳엔 매우 사납고 보기에 불타오르는 듯한 사내들이 버티고 서 있다가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알아채고는,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양쪽에서 덮쳐서 끌고 가

33. 꾸며낸 인물.

버렸는데, 그러나 아르디아이오스와 그밖에 다른 자들은 그 손과 발과 머리가 한데 묶여서 내던져서 가죽이 벗겨진 뒤, 길을 따라 끌려나가면서 가시덤불 위에서 양의 털이 빗질당하듯 그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서는 길 가는 사람 모두에게 어째서 그들이 그런 지경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 또 그들이 이제부터 타르타로스[34] 로 던져지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었네.' 이렇게 그는 얘기하더라고 에에르가 말했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는, 자기들은 온갖 많은 공포를 맛보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각자가 위로 올라가려 할 때,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리가 나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없이 기뻐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었네. 그래서 에에르는 다시 말했네. 과연 형벌과 갚음이란 뭔가 그런 것이고, 한편 혜택도 그런 것들과 맞먹는 것이라고. 그런데 목장에 모인 영혼들은 제각기 이레 동안을 지내고, 여드레째에는 거기서 일어나서 여행길에 올라야 했고, 길 떠난지 나흘 만에 그들은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는 위로부터 하늘과 땅 전체를 통해서 뻗어있는, 기둥 같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무지개와 비슷한, 그러나 더 밝고 더 깨끗한 한 줄기의 곧게 뻗은 빛[35]이 보였던 것일세. 거기서 다시 하룻길을 더 가서 그들은 그 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로부터 그 빛을 잡아매고 있는 동아줄의 두 끝이 뻗쳐 오고 있는 것을 보았네—왜 그런고 하니, 이 빛은 하늘을 조여매는 동아줄로서 마치 삼단노(三段櫓)의 군선(軍船)의 허리를 조여 맨 동아줄처럼, 회전하는 천체의 전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조여 묶이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네[36]—그리고 그 끝에서는 여신 아낭케[37]의 물레가락(紡錘)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천구(天球)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었다네. 그 물레가락의 굴

34. 타르타로스(Tartaros): 땅밑 세계의 가장 밑부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떨어져 있다. 중죄인이 벌받는 곳.

35. 우주의 주축.

36. 우주의 중심 축을 꿰뚫는 빛은 천체의 전체를 조여맨다.

37. 필연의 여신.

대(軸)나 갈고리는 철석(鐵石)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물레바퀴는 철석과 다른 재료가 섞여서 된 것이었네. 이 물레바퀴의 성질은 이런 것일세. 즉, 그 모양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지만, 그러나 에에르의 말로 보아서는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네. 즉, 큰 물레바퀴 하나는 속이 아주 패여서 비어 있는 안에 다 그것보다 작지만 꼭 같이 생긴 다른 물레바퀴를 껴넣어서, 마치 겹끼운 사장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그와 같이 해서 그 속에다 셋째 바퀴, 넷째 바퀴가 겹쳐 들어가고, 다시 다른 네 개의 바퀴도 차례로 겹쳐 들어가 있네. 왜 그런고 하니 물레바퀴는 다해서 여덟 개인데, 그것들은 서로 속에 겹쳐 들어가 있어서, 위에서 보면 그 테두리가 몇 개의 동그라미로 보이도록 되어 있어서, 물레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가 마치 하나의 물레바퀴인 양 연속된 표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세. 그리고 그 물레가락은 여덟 번째의 물레바퀴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있네. 그런데 이 물레바퀴 중에서 맨 바깥에 있는 바퀴의 둥근 테두리[38]가 가장 폭이 넓고, 바깥으로부터 여섯 번째 바퀴의 테두리가 둘째로 폭이 넓고, 네 번째의 바퀴 테두리가 셋째로 폭이 넓고, 여덟 번째 것이 넷째, 일곱 번째 것이 다섯째, 다섯 번째 것이 여섯째, 세 번째 것이 일곱째, 둘째 번 것이 여덟째가 되고 있네. 그리고 가장 큰 바퀴의 테두리는 다채롭게 뻔쩍이고, 일곱 번째 것은 그 빛이 가장 밝고, 여덟 번째 것은 일곱 번째 것으로 비추어져서 빛깔을 받고 있고, 두 번째 것과 다섯 번째 것은

38. 이 일람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밖으로부터의 순서와 별 이름	너비의 순서	속도의 순서
1 항성	1	
2 토성	8	5
3 목성	7	4
4 화성	3	3
5 수성	6	2
6 금성	2	2
7 해	5	2
8 달	4	1

서로 닮은 빛깔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것보다 더 노랗고, 세 번째 것은 가장 흰 빛깔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것은 좀 불그레 하고, 여섯 번째 것은 희기로는 둘째일세. 그리고 물레가락의 전체는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운동을 하고 있지만, 돌고 있는 그 전체 속에서 안 쪽에 있는 일곱 개의 동그라미는 전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느리게 돌고 있는데, 이 일곱 개 중에서는 바깥으로부터 여덟 번째의 동그라미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빠르게 서로 함께 움직이는 것은 일곱 번째 것과 여섯 번째 것과 다섯 번째 것일세.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셋째로 빠르게 돌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네 번째 것으로 보이고, 넷째로 빠르게 도는 것은 세 번째 동그라미이고, 다섯째로 빠르게 도는 것은 둘째 번 동그라미라고 하더군. 그러나 물레가락은 아낭케 여신의 무릎 안에서 돌고 있네. 그 하나하나의 동그라미 위에는 세이렌[39]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과 함께 돌면서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조(音調)를 내고 있되, 그 소리는 다해서 여덟인데, 그것들이 서로 협화해서 하나의 단일한 음계를 이루고 있네. 그러나 둘레에는 따로 세 여신이 같은 간격으로 각각 왕좌에 앉아 있는데, 이들은 아낭케 여신의 딸인 모이라[40]들로서 라케시스 · 클로토 · 아트로포스라 하여 세이렌들의 음악에 맞추어서 라케시스는 지난 일을, 클로토는 지금의 일을, 아토로포스는 앞날의 일을 노래하고 있었네. 그리고 클로토는 이따금 사이를 떼어서 물레가락의 바깥 쪽의 테두리에다 오른손을 얹고서 그 회전을 돕고, 아토로포스도 마찬가지로 안 쪽의 테두리에다 왼손을 얹고 그 회전을 돕고 있네. 그러나 라케시스는 오른손 왼손을 각각 바꿔가면서 안팎의 테두리에 새고 있었다고 말했네.

15. 그런데 영혼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곧 여신 라케시스 앞으로 가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하네. 거기에는 신의 뜻을 밝혀서 전해 주는 예언자가 있어서 우선 그들을 질서있게 간격을 두고 한 줄로 세워놓고, 이어서 라케시스의 무릎으로부터 갖가지

39. 세이렌(Seiren):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매혹시키는 요정들. 여기서는 별을 말함.
40. 모이라(Moira): 운명의 여신.

제비(籤)와 여러 가지 일생의 본보기를 받아들고 와서, 높은 단 위에 올라 이렇게 말을 했다더군—

'이는 아낭케 여신의 따님이신 라케시스 아가씨의 말씀이다. 덧없는 넋들아! 이제야말로 가사적(可死的)인 족속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느니라. 신령이 너희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 신령을 택해야 하느니라.[41] 첫 번째로 제비에 뽑힌 자로 하여금 첫 번째로 인생을 택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필연의 힘으로 그 일생에 묶여 있게 되리라. 그러나 덕을 지배할 주인이란 없고, 덕을 존중하는가 소홀히 하는가에 따라 사람은 덕을 더 또는 덜 갖게 되리라. 책임은 택하는 자에게 있다. 신에게는 책임이 없느니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든 영혼에다 제비를 던져 주어 각자는 제 앞에 떨어진 제비를 집어 올렸지만 에에르만은 제외되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네. 제비를 집어 가진 자들은 각각 자기가 몇 번째를 뽑았는지 알았다네. 그 뒤에 이번엔 그 예언자는 생애의 본보기들을 그들 앞의 땅 위에다 놓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보다는 수효가 훨씬 더 많았네. 그리고 거기엔 온갖 생애의 본보기가 있었다네.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엔 온갖 동물의 일생이 있었고 인간의 생애도 갖가지가 있었기 때문일세. 이를테면, 그 중에는 독재자의 생애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평생 계속한 것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만 하고 만 것도 있고, 가난이나 추방이나 거지꼴로 끝나는 것도 있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생애도 있었는데, 생김새나 아름다움이나 또는 경기나 그밖에 다른 힘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문이나 조상의 공덕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일생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자의 일생도 갖가지가 있었네. 다만 이것들 중에는 영혼의 성질을 정하는 것은 없었는데, 그것은 영혼이 각각 택한 생애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각기 다른 성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세.

41. 운명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택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그런 조건은 말고, 지금 들은 바와 같은 것은 서로 섞여서 부(富)와 가난이 섞이고, 또는 병과 건강과 한데 섞이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중간 상태에 있는 것도 있네. 과연 이 순간에야말로, 여보게 글라우콘, 인간의 모든 위험이 걸려 있으며 바로 그 까닭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는 다른 것을 배우는 건 차치하고라도 오직 이것만은 스스로 찾아내고, 남에게도 배우도록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네. 즉, 좋은 생애와 나쁜 생애를 분간하고, 자기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늘 어디서나 보다 더 좋은 일생을 택할 만한 능력과 지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을 찾아내서 배울 수가 있다면 말일세. 그것으로 하여 우리 각자는 지금 여러 가지 생애의 본보기로서 얘기된 모든 조건이 서로 맺어질 경우에든, 또는 하나하나로서는, 좋은 일생이란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고려하면서, 아름다움이 가난이나 부(富)와 섞일 때, 또는 영혼의 어떤 상태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좋은 것을 또는 어떤 나쁜 것을 만들어 내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가문의 좋고 나쁨, 개인으로서의 또는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위, 신체의 강약, 배움에서의 민첩하고 둔함이 무엇을 만들어 내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여 영혼의 선천적인 것 또는 후천적인 것이 서로 함께 섞일 경우에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를 알게 되면, 그 결과로 그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미루어 생각해서 오직 영혼의 본성에 눈을 돌리면서, 영혼이 더욱 부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생을 더욱 나쁜 일생이라고 부르고, 더욱 정의롭게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생을 더욱 좋은 일생이라고 불러 더욱 좋은 일생과 더욱 나쁜 일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걸세. 그리고 딴 일은 일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일세.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지만, 그런 선택이야말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장 훌륭한 선택이기 때문일세. 그래서 이런 생각을 철석같이 굳게 지니고 저승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네. 그건, 저세상에서도 부라든가 그런 따위의 나쁜 것에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이 독재체제라든가 그밖에 그런 행위에 빠져서 고치기 어려운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저 자신이 더욱 큰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될 수 있는 데까지 이 세상의 생활에서도, 장차 올 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늘 한 중간의 생활을 택하도록 하고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는 생활을 피할 줄 알기 위해서 일세.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하게 되기 때문일세.

16. 아닌 게 아니라 저세상으로부터의 사자(使者)인 에에르가 전한 바로는, 그때 그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네.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으러 오는 자라도 정신차려서 뽑는다면, 그가 애써서 살아가는 한 만족할 수 있는, 결코 해롭지 않은 생활이 남아 있느니라. 처음으로 뽑는 자도 방심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으로 뽑는 자도 낙심할 것이 아니니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고 나자, 첫 번째의 제비를 뽑은 자는 곧 나아가서 가장 큰 독재자의 일생을 택했는데, 그것도 우둔한 생각과 탐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질 않았던 것인데,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자기 애를 잡아먹거나, 그밖의 갖가지 앙화가 운명으로서 품어져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세. 그러나 한가한 동안에 잘 살펴보고 나서 그는 그 예언자가 미리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선택을 한탄했다네. 그는 그런 재앙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질 않고, 운명이나 신령이나 자기 이외의 모든 것 탓으로 돌렸기 때문일세. 그런데 이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생에는 질서가 잘 잡힌 나라체제 안에서 생활을 했고, 참다운 지(知)를 사랑하지도 않고, 다만 습관에 따라 덕성을 몸에 붙인 자였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곤경에서 단련된 일이 없는 자들인지라, 적지 않은 자들이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이라네. 그러나 땅 밑으로부터 온 자들의 대부분은 자기들 스스로가 고생을 겪었고 남의 고생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허둥지둥 선택 하는 일은 없었네. 아닌 게 아니라 제비뽑기에다 이런 사정이 겹쳐서 대다수의 영혼에겐 나쁜 일생과 좋은 일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더군.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의 삶으로 올 때마다 늘 절실하게 지를 사랑해서 구하고 또 그가 뽑은 선택의 제비가 마지막 것만 아니라면, 저 세상으로부터의 보고로 미루어 보건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세상에서 저세상으로 갈 때건 다시 이세상으로 되돌아 올 때건, 땅 밑의 험난한 여행이 아니라 평탄한 하늘의 여행을 하게 될 걸세. 과연 에에르의 얘기로는, 각 영혼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삶을 택했는가는 보아 둘 만한 값어치가 있는 광경이었네. 그것은 즉, 보기에 가엾은 것도 있었고 우스꽝스

런 것도 있었고 또 놀라운 것도 있었다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선택은 대개의 경우 전생의 습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일세, 그는 오르페우스[42]의 것이었던 영혼이 백조의 일생을 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오르페우스의 영혼이 여자들 손에 죽어서 여자의 족속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여자의 뱃속에 들었다가 태어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일세. 그는 또, 타미라스[43]의 영혼이 꾀꼬리의 일생을 택하는 것을 보았네. 또 그는 백조가 인간으로 바뀌어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일생을 택하는 것과 그밖에 다른 음악적인 동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네. 그러나 스무 번째의 제비를 뽑은 영혼은 사자(獅子)의 일생을 택했네. 이건 한때 텔라몬의 아들인 아이아스[44]의 영혼인데, 투구에 관한 판결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길 싫어했던 것일세. 그 다음 차례의 영혼은 아가멤논[45]의 영혼이었네. 이 영혼 역시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인간이 싫어서, 그 대신 독수리의 일생을 택했네. 중간쯤의 차례의 제비를 뽑은 것은 아탈란타[46]의 영혼이었는데, 남자의 경기자에게 수여되는 큰 명예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잡았던 걸세. 그 다음에 그는 파노페오스의 아들인 에페이오스[47]의 영혼이 기예(技藝)에 뛰어난 여자 본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네. 또 멀리 마지막 차례에 있는 어릿광대

42. 오르페우스(Orpheus): 신화적인 인물로서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여자들 손에 찢겨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43. 타미라스(Thamyras): 전설 속의 가수로서 무사의 여신들과 겨루었다가 시력과 노래의 재능을 뺏겼다 함.

44. 아이아스(Aias): 트로이아 전쟁에서 그리스군의 으뜸가는 용감한 장군.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 그의 무기와 갑옷을 차지하려고 오디세우스와 싸우다가 패하고 자살했다(《오디세이아》 XI, 543 참조).

45. 아가멤논(Aagamemnon): 트로이아를 공격한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귀국 후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Klytaimnestra)에게 살해당했다.

46. 아탈란타(Atalanta): 발이 매우 빠른 여자로서 구혼자가 경주를 했다가 지면 살해했다.

47. 에페이오스(Epeios): 트로이아 공격 때 사용했던 목마를 만든 사람.

인 테르시테스[48]의 영혼이 원숭이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네. 또 오디세우스[49]의 영혼은 마침 모든 영혼 중에서 맨 마지막 차례가 되어서 제비를 뽑으러 나갔지만, 전생의 숱한 고생이 뼈에 사무쳐 이미 명예를 구하는 야심도 시들어 있어서, 귀찮은 일이 없는 한 사사로운 사람의 일생을 오랜 동안 걸어다니며 찾은 끝에, 그런 일생이 남들에게서 거들떠보이지도 않고,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겨우 찾아내서 그것을 보면서, 설사 맨 처음의 제비를 뽑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같은 것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꺼이 그것을 택했다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로부터 인간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부정한 동물은 사나운 야수로, 바른 동물은 온순한 가축으로 변해서 서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밖에 갖가지로 섞이는 일이 있었다네.

"그러고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영혼들이 일생을 택하고 나서, 다같이 제비의 차례대로 줄을 맞추어서 라케시스에게로 갔네. 이 여신은 각자에게 이제부터의 일생의 수호자로서 또 그가 택한 운명을 이루어 주는 자로서 앞서 각자가 택한 신령을 붙여 주었다네. 그러자 신령은 우선 영혼을 클로토에게로 이끌어, 물레가락의 바퀴를 돌리고 있는 손에다 건네주고, 제비의 차례에 따라 영혼이 택한 운명을 확실하게 했다네. 그러나 영혼이 이 클로토에게 손을 댄 다음, 그 영혼을 이번엔 아트로포스가 물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운명의 실을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게 했다네. 그리고 거기서 영혼은 뒤돌아 보지 않고 아낭케의 왕좌 아래로 가서, 그곳을 지나 다른 영혼들도 다 그곳을 통과하고 나자 영혼들은 다 함께 숨이 막히는 무서운 더위 속을 지나서 레테[50]의 들판으로 행진했다네. 거기엔 초목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네. 그런데 이미 저녁이 되자

48. 테르시테스(Thersites): 신분이 천하고 추하며, 아가멤논을 비난했다가 오디세우스에게 곤장을 맞았다(《일리아스》 II, 212 이하 참조).

49. 오디세우스(Odysseus): 트로이아 공격 때의 그리스의 명장. 개선하여 귀국하는 도중에 갖가지 고난을 겪었다.

50. 레테(Lethe): 망각의 여신.

그들은 아멜레스[51]의 강가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강물은 어떤 그릇으로도 길어 담을 수가 없었다네. 모든 영혼은 이 물을 정해진 양만큼 반드시 마셔야 했지만, 사려로 삼가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해진 양보다도 많이 마셨네. 그러나 그것을 마신 자마다 온갖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어, 이윽고 한밤중이 되자 천둥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 갑자기 그곳으로부터 영혼 각자는 마치 유성이 날아가듯, 이리저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위로 높이 떠올라 갔다네. 그러나 에에르 자신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네. 다만 자기가 어떻게 그리고 어딜 통해서 그 육체로 되돌아 왔는진 모르지만, 홀연히 눈을 떠보니까, 새벽녘에 자기가 화장하는 장작더미 위에 눕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세.

글라우콘, 이렇게 해서 얘기는 구제되어[52] 멸망하진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얘기를 믿는다면 그건 또 우리를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린 레테의 강을 무사히 건너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일세.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 말대로 따라서, 영혼은 불사(不死)이고 온갖 악도 선도 견뎌내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향상하는 길을 유지해서 모든 노력으로 정의와 사려를 따르게 될 것일세.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머무른 동안에도 또 경기의 승리자가 여러 가지 상품을 모으러 다니듯이 우리가 정의의 상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신들께도 다정한 친구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건 내가 얘기한 천 년의 여행 길에서건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을 걸세."

51. 아멜레스(Ameles): 忘憂의 뜻.

52. '얘기는 망해 없어졌다' 는 말은 꾸민 얘기의 끝맺음에서 흔히 쓰이는 관례적인 것인데, 플라톤은 자기의 얘기의 참다움을 뜻하기 위해서, 그와는 반대로 '얘기는 구제되었다' 고 끝을 맺고 있다.

지은이 소개 | 플라톤(BC427~BC34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형이상학의 수립자. 정치 지망생이었으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정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학에 몰두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영혼 불멸'과 문답법을 '선의 이데아(idea)'와 변증법으로 계승했으며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자 평생을 바쳤다.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 학교를 열어 교육에 임했고, 《파이돈》《잔치》《국가》《소피스테스》《법률》 등 3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다.

옮긴이 소개 | 조우현(1923~1997)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52년 피난시절부터 연대 교단에 올라 학생들을 가르쳤고 퇴임 후에도 연세대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국민훈장목련장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서양철학사개요》《철학과 생활》《이성과 감성사이에서》, 역서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오이디푸스 왕》 등이 있다. "철학은 현실과 밀착, 현실화되어야 한다, 공회전하는 학문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생 희랍철학을 연구한 그의 철학론이었다.

국가

©사단법인 올재, 2012

발행 | 2012년 5월 30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주준형 박경림
편집디자인 | 캠퍼스헤럴드 (02-727-0681)
아트디렉터 | 김용덕
디자인 | 이현주
인쇄 · 제작 | (주)헤럴드미디어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